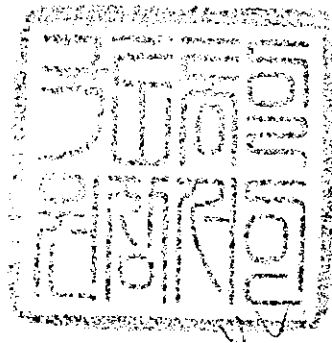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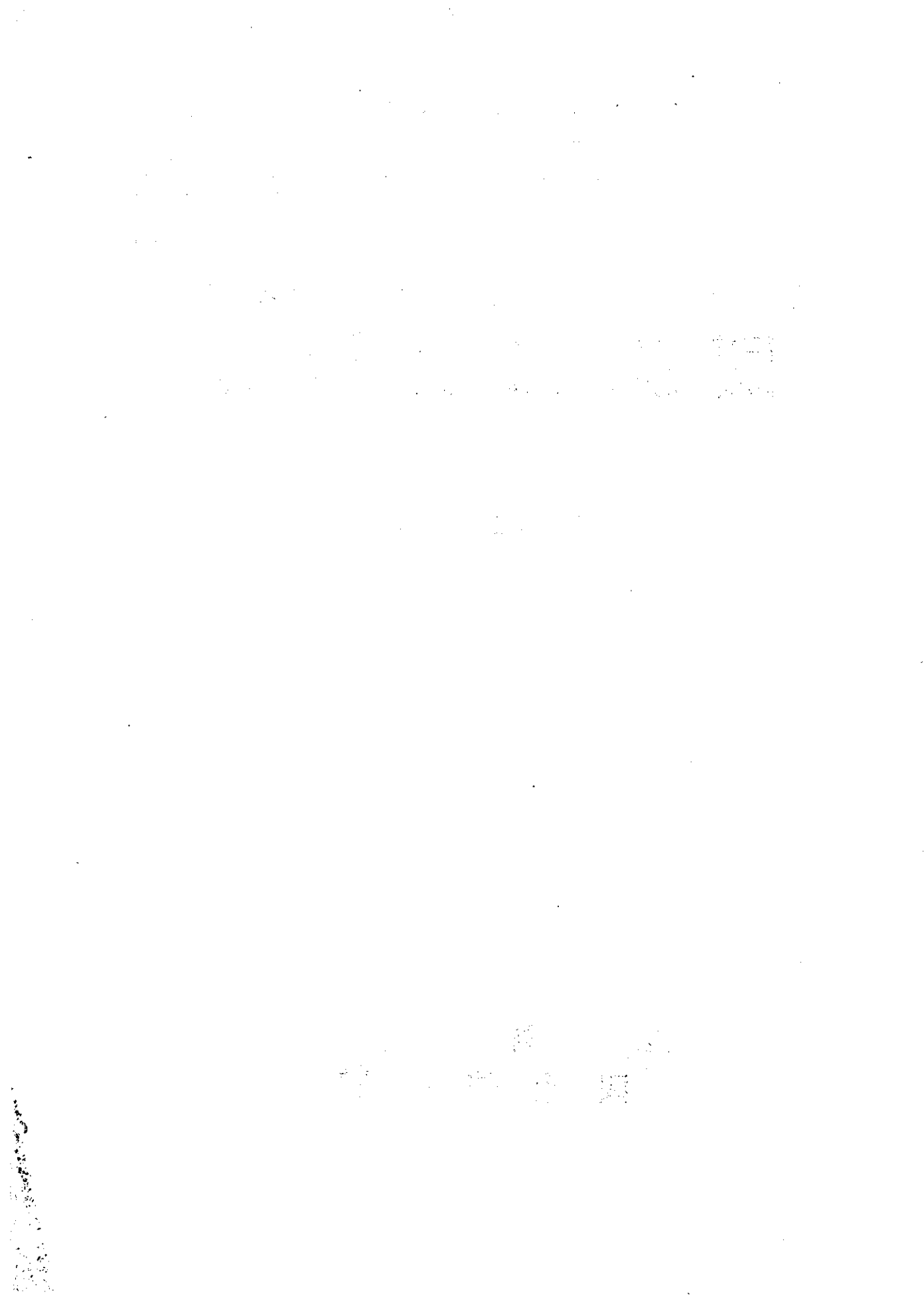


國際主要情勢

(1973. 1. ~6)



國 土 統 一 院



目 次

1. 國際情勢面.....	9
가. <u>四大國</u>	11
1) 對內外 政策 및 事情.....	11
〈美 國〉.....	11
○ 「닉슨」大統領의 就任演說 內容分析.....	11
○ 「닉슨」 「독트린」은 現狀維持 政策이다.....	13
○ 「닉슨」大統領의 1973年 年頭敎書分析.....	15
○ 美國의 對外政策 (「키신저」의 새로운 課題).....	19
○ 美國의 對外政策 (西歐羅巴에 對한 美國의 怠慢政策).....	21
○ 美國의 貿易政策 (「닉슨」의 保護貿易 政策宣言).....	23
○ 美國의 東北亞政策.....	25
○ 越南戰後 美國의 새 「아시아」戰略.....	28
○ 「베트남」撤兵後의 美國의 對極東 戰略.....	31
○ 「로저스」國務長官, 議會에 72年 外交白書提出.....	33
○ 「닉슨」大統領의 外交敎書에 對한 分析 및 評價.....	39
○ 西方世界의 새로운 創造時代 (「키신저」演說文).....	45
〈日 本〉.....	53
○ 日本 外務省의 1973年의 國際情勢分析.....	53
○ 「아이디어」뿐인 日本의 對「아시아」政策.....	55
○ 日本의 非核政策.....	58
〈蘇 聯〉.....	65
○ 蘇聯의 「아시아」安保體制 構想.....	65
○ 蘇聯經濟의 赤信號.....	67
○ 蘇聯의 「아시아」集團 安保 構想과 現實.....	70
○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總會 開催와 共産黨 政治局改編에 對한 分析 및 評價.....	72

<u>〈中共〉</u>	76
○ 周恩来는 毛沢東을 相對로 權力鬭爭을 벌일 것인가.....	76
○ <u>最近 中共外交의 3個 目的</u>	79
○ 中共 海洋探查 4原則 提示.....	81
○ 前 中共副首相 鄧小平 復歸.....	83
○ <u>東歐國家들의 中共外交政策 批判</u>	84
<u>2) 4 大國關係</u>	87
〈美·日關係〉.....	87
○ 가장 큰 「닉슨」「쇼크」.....	87
○ <u>今後的 美·日·中의 3角關係</u>	90
○ 「닉슨」의 要求와 日本의 冷談.....	93
〈美·蘇關係〉.....	96
○ 「슬츠·브레즈네프」 貿易會談.....	96
○ 蘇聯의 對美接近의 根本原因.....	98
○ <u>蘇聯, 美國에 對中共 共同 核報復協定 提議</u>	105
〈美·中共關係〉.....	108
○ 北爆再開로 對美關係 凍結.....	108
○ <u>美·中共關係의 第3幕</u>	109
○ 「키신저」補佐官의 中共訪問과 美·中共 <u>共同聲明에 對한 分析 및 評價</u>	111
○ 中共의 <u>台灣宥和政策</u> (美·中共關係).....	117
○ <u>中共, 駐美連絡事務所長에 황진을 任命</u>	119
〈日·蘇關係〉.....	121
○ 田中首相 「브레즈네프」에게 親書 傳達.....	121
○ 日本의 새로운 對蘇會談 提議.....	123
○ 最近 日本의 蘇聯과의 正常化 움직임.....	124

○ 日・蘇「시베리아 추메니」油田開發 青写真 發表	127
○ 「크레브린」日本과의 關係改善 追求	130
○ 列強의 訪問外交	132
○ 蘇聯 田中首相의 訪蘇를 延期	134
<日・中共關係>	137
○ 日・中共關係의 推移	137
○ 日本, 「나카소네」通相 中共訪問後 記者會見	139
○ 中共, 日本에 大使館 開設	141
○ 日・中共外交의 本格化(航空, 漁業協定 促進)	142
○ 日・中共關係의 發展	144
○ 中共, 日本에 石油輸出	147
<中・蘇關係>	150
○ 中共, 蘇聯을 非難	150
○ 中・蘇間 對戰이 勃發할 것인가?	152
○ 中・蘇紛爭과 美國	155
○ 中共, 蘇聯의 軍事的 威脅을 警戒	157
3) 其他 主要對外關係	162
<美 國>	162
○ 「닉슨」의 越南平和가 全東南亞 國家에 미치는 影響	162
○ 美國 大企業人들의 東獨行	164
○ 「닉슨」, 「브란트」會談에 對한 展望	165
○ 台灣駐屯 美軍의 增強	168
○ 美國, 蒙古와의 外交摸索	170
<日 本>	173
○ 日本, 越盟과의 外交關係 樹立交涉	173
<蘇 聯>	176
○ 「브란트」의 「브레즈네프」西獨訪問 招請	176

○ 蘇聯, 北歐諸國에 外交攻勢 強化.....	178
○ 西獨, 蘇 頂上會談 分析 및 評價.....	180
○ 蘇聯의 對西方 交易擴大.....	184
<u>〈中共〉</u>	187
○ 中共은 NATO와 日本의 再武裝 두둔.....	187
○ <u>中共外交 「유럽」에 擴大</u>	188
○ 中共의 外交攻勢.....	190
○ 印度, 中共과의 解氷造成.....	191
○ 中共外相 회봉비의 西歐訪問.....	194
나. 東西關係.....	196
1) 歐洲安保 會議.....	196
○ 東西「유럽」의 두協商.....	196
○ 歐洲安保會議 予備會談.....	199
○ 全歐洲安保會議 予備會談 10原則 提示.....	203
2) 相互均衡 減軍會談.....	205
○ 東西相互 均衡減軍會議 予備會談開催.....	205
○ 東西減軍會議.....	208
○ 美·蘇·中部「유럽」駐屯 兵力減軍合意에 接近.....	210
3) 戰略武器 制限會談.....	213
○ 美·蘇 第2期 第2次 戰略武器 制限會談 開催.....	213
다. 分斷國 關係.....	217
1) 東·西獨關係.....	217
○ 東·西獨 基本條約 批准, 分析評價.....	217
2) 越南問題.....	219
○ 越南平和協定 分析.....	219
○ 越南平和協定 調印以後의 問題點.....	224
○ 越南休戰協定 調印과 蘇聯의 反應에 對한 分析評價.....	228

○ 繼統的인 戰鬪로 會議成果 暗澹	238
○ 「파리」12 個國 國際會議에서 調印된 宣言文에 對한 分析評價	239
○ 美國側, 「하노이」의 經濟援助 警告	243
○ 越南平和를 위한 美·仏의 共同努力	245
○ 「인도차이나」問題에 對한 「닉슨」의 選擧	248
3) <u>국공합작</u>	251
○ 中共, 台灣工作에 積極的인 姿勢	251
○ 第3次 國共合作 可能性 檢討	253
○ 中共, 台灣路線의 緩和	257
○ 國共和解의 움직임	259
라. 國際機構	261
1) 「아스팍」	261
○ 「아스팍」今年開催는 困難	261
○ 日本, 새로운 「아시아」機構 創設을 提議	263
○ 消滅의 길에 들어선 「아스팍」	265
○ 「아스팍」第1次 常設委員會 開催	266
○ 日本, 「아스팍」을 代身하는 새로운 協力機構 摸索	269
○ 새로운 「아시아」協力機構에 南北韓 同時加入의 提起의 可能性	271
○ 「아스팍」을 위한 會員國의 最近動向	274
2) 아세안	279
○ 아세안 外相會議 閉幕	297
마. 其他	281
○ 「필리핀」新憲法 公布	281
○ 社會主義 諸國 憲法改正 現況	284
○ 西歐의 對美·蘇關係	289

2. 韓半島 關係	299
가. 4 大國의 韓半島 政策	301
< 韓國關係 >	301
○ 「닉슨」의 中共訪問이 韓國에 미치는 影響	301
○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展望	303
○ 「레어드」美國防長官의 國防報告書中 韓國關係 內容分析	305
○ 日本, 「유엔」에서의 韓國問題 好意에 대한 態度 決定에 苦心	307
○ 日本 對韓半島 政策樹立에 苦心 (北韓의 W.H.O. 加入을 契機로)	310
○ 蘇聯의 韓國選手團 招請과 밋밋비자 發給에 對한 分析 評價	313
< 北韓關係 >	316
○ 「미쓰비시」北韓에 「프란트」輸出 자숙	316
○ 최용건의 蘇聯創建 50 周年 演說要旨	317
○ 北韓, 對中共 接近을 強化	319
○ 日外務省, 對北韓 外交를 再檢討	321
○ 北韓 蹴球팀 團長 정광순, 日官房長官과 會見	322
○ 日本, 北韓 中共經由로 常時 通貨可能	324
○ 北韓, 美國政策 變更要求	325
○ 訪日記者團長 「아사히」新聞 對談內容 分析報告	327
○ 日本의 自民黨, 北韓訪問을 提議	330
나. 南北韓關係	331
○ 「몬트리얼·올림픽」에 南北單一팀	331
○ 「킨더만」博士, 韓國記者와 會見	333
○ 한덕수 在日 朝總聯議長, 南北經濟交流를 提議	336
○ 北韓, 南北調節委에서 5 個項目 提議	338
○ 南北韓 立場의 對立	340

○ 韓国外交 試練에 直面	342
✓ ○ 70年代의 韓國과 強대국들에 對하 分析評価	345
○ 韓國統一會談 膠着	349
○ 韓國統一展望은 밝다	351
○ 南北韓의 對話의 現實과 國際潮流	353
○ 韓國, 南北會談內容을 世界各國에 公布	355
다. 南北韓의 對外活動	358
○ 北韓을 圍繞한 國際關係의 進展	358
○ 北韓, 英國「타임즈」紙에 大廣告 揭載	360
○ 北韓의 「유엔」歐洲本部 「음서버」資格 承認	362
○ 世界保健機構 北韓加入 分析評価報告	363
3. 國際情勢 月間 綜合報告	367
가. 5月	369
1) <u>4 大國 關係</u>	369
2) 東西關係	374
3) 國際會議 및 周邊情勢	380
4) 4 大國의 對韓關係	384
5)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387
가) 問題點	387
나) 南北韓에 미치는 影響	387
나. 7月	388
1) <u>4 大國關係</u>	388
2) 韓半島를 圍繞한 國際機構 情勢	392
3) 4 大國의 南北韓 關係	394
4) 韓國에 미치는 影響	397

1. 國際情勢面

가. 四 大 国

1) 对内外 政策 및 事情

〈美 国〉

「닉슨」大統領의 就任演說 内容分析

1. 演說内容要約

가. 对外問題

- 1) 相異体制間 平和共存 構造 構築
- 2) 海外戰爭 및 紛争에의 介入 縮小
- 3) 武力使用의 抑制(核武器 制限 努力)
- 4) 後退와 孤立의 否認
- 5) 条約 및 公約의 尊重
- 6) 美国 主導下 平和를 위한 努力 自負

나. 国内問題

- 1) 下向式政策(과도한 中央執權)의 止揚
- 2) 国民各者의 自助力 함양
- 3) 自由와 豊요에 대한 자부심 선양

2. 分析 및 評價

가. 힘에 의한 均衡政策에 의거 列強과의 平和共存속에서 美国의 国益 追求에 치중할 것을 表現

나. 後方과의 關係는 制限된 美国의 役割을 통하여 相互 보완적인 關係를 維持하되 既存 条約은 遵守할 것을 表現

다. 따라서 新孤立主義에로의 경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豫測됨.

- 蘇聯의 軍事的 對美 對等化
- 中共의 強大國으로서의 出現
- 日本, 西獨의 經濟大國化로 인한 發言權 強化

等으로 그 地域 및 隣接地域에서 美國의 現實的 힘의 作用을 抑制하기 때문임.

라. “美國의 가장 지리하고 어려웠던 戰爭은 끝나가고 있다”라고 함으로써 越南戰이 곧 終結될 것을 示唆하고 있다.

마. 國內的으로는 “多數를 위한 政治를” 強調하였는데

1) 多數라 함은 「닉슨」의 過去 演說로 미루어 “침묵하고 있는 多數派”를 말하는 것이거

2) “多數를 위한 政治”란 급진세력들을 制壓하고 傳統的인 美國의 價値體系 및 中産層의 生活樣式을 擁護하겠다는 것임.

바. 韓國問題 및 分斷國問題에 특별히 言及하지 않았으나 「닉슨·독트린」의 基本精神 再確認과 武力使用의 抑制 強調등으로 미루어 보아 分斷國 再統一의 平和的 方法 追求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現상의 고정화정책을 뜻하는 것으로 解釋됨.

사. 美國內의 反應 및 論評은

民主黨: 具體성이 전연 없다.

뉴욕타임스:

- 後進國 援助問題가 言及되지 않았다.
- 保健, 住宅, 福祉, 教育分野에서 聯邦政府의 役割을 減少시키는 議會와의 衝突이 不可避할 것임.

「닉슨·독트린」은 現狀維持 政策이다

1. 內容要約

- 가. 「닉슨·독트린」의 本來目的은 將次 美國의 直接的인 軍事介入을 制限하고 「아시아」에서의 地上戰에서 美軍을 隔離시키는 것이었으나 「아시아」의 다른 地域에서 美國의 影響力을 維持하려는 相反된 樣相이 나타나고 있다.
- 나. 「닉슨」은 輿論선언에서 地理的인 立地條件이 美國을 太平洋의 強大國으로 만들고 있으며 「아시아」는 世界平和를 維持함에 있어서 커다란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美國은 重要한 役割을 担當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 또한 「닉슨」大統領은 1971年 「스테이트 오브 월드」 메세지에서 그의 특유의 애관한 말로서 「닉슨·독트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했다.
- 1) 太平洋地域에서의 美國의 公約과 同盟國과의 紐帶는 계속 維持될 것이다.
 - 2) 美國은 그의 核戰力으로 同盟國의 安全을 美國의 安全으로 간주하여 同盟國을 保護할 것이다.
 - 3) 그러나 또 다른 形態의 侵略에 대비하여 同盟國들은 美國의 援助에 의존함이 없이 그들의 防禦力을 準備해야 할 것이다.
 - 4) 또한 「베트남」戰爭의 과급 效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닉슨 독트린」은 實踐되는 過程에서 명백해질 것으로 보인다. 라고 「닉슨」大統領은 上記 「메세지」에서 言及하였다.
- 라. 이런 事實로 미루어 보아 「닉슨 독트린」이 실제 實踐過程에서는 本來의 目的과는 다른 樣相이 予想된다.
- 마. 최근 백악관과 「펜타곤」의 高位官吏들의 일련의 「인터뷰」를 통해서 볼때 越南戰後의 太平洋地域에서의 美國의 政策은 다음과 같

은 것으로 豫測된다.

- 1) 泰國에 空軍基地, 「통킹」灣과 그 近海에 7함대를 配置하여 東南 亞細亞에서 美軍의 駐屯을 繼續 維持시킨다.
 - 2) 日本, 比律賓, 台灣, 「마이크로네시아」, 關島, 濠洲에 美軍을 계속 駐屯시킨다.
 - 3) 「시토」, 「엔조스」地域防衛同盟과 台灣, 韓國, 日本과의 同盟을 維持하는 것을 重要視 한다.
- 바. 이러한 美國의 介入政策에 대한 批判의 소리도 있으나 韓國과 같은 나라가 또다시 심각한 威脅에 처하면 美國은 關여하게 될 것이라 豫想된다.
- 사. 이와같은 「닉슨 독트린」의 相反되는 性格은 政策은 곧 實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軍事政策者들에게 또다른 展望을 남겨하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 가. 「닉슨 독트린」의 根本目的이 亞細亞에서의 地上戰에 美軍의 直接的인 介入을 止揚하는데 있음은 명백하나 이를 現情勢에 直接 適應시키는 데는 아직 모호한 性格을 띠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나. 즉 美軍의 直接的인 介入을 制限하면서도 美國의 東南亞細亞와 太平洋地域에서의 影響력을 繼續 保持하려는 二律背反的인 立場에 놓여 있으므로 「닉슨 독트린」의 명확한 성격은 越南戰後의 事態 추이 過程에 따라 規定될 것이라고 評價하고 있음.
- 다. 그러므로 「닉슨 독트린」의 根本性格은 다음과 같이 評價됨.
- 1) 美軍의 直接的인 地上戰의 介入을 制限하고 第1次的인 防禦任務는 同盟國 自体가 担当한다.
 - 2) 美軍의 直接的인 介入의 止揚으로 招來되는 軍事的인 공백은 美軍의 核戰力으로 「카바」하고 政治的으로 可能한 地域에 美軍을

계속 駐屯시키며 同盟國과의 公約은 遵守한다.

- 3) 美國의 東南亞細亞와 太平洋地域에서의 影響力은 계속 維持하며 上記 原則을 바탕으로 情勢變動에 따라 「닉슨 독트린」은 융통성 있게 適用한다. (73.1.28 아메리칸뉴-스 더 선데이스타)

「닉슨」大統領의 1973年 年頭敎書分析

「닉슨」大統領은 지난 2.2(韓國時間 2.3 午前2時)에 “國家現況의 概觀”(State of Union Message)이라고 表現한 年頭敎書를 議會에 提出 하였다.

1. 內容要約

가. 對內政策

1) 當面한 國內問題

當面 國內問題의 解決策은 租稅引上과 支出增加에 있는 것이 아니고 浪費 抑制와 效果增大 및 個人의 自由 伸張에 있다.

2) 聯邦政府의 役割

聯邦政府의 役割은 國民과 社會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과 挑戰의 克服을 支援하는 것이다.

3) 國民의 義務

日常生活에 대한 간섭과 세금을 줄일 것이나 이를 위해서는 國民 各者의 意志와 犧牲이 要請된다.

4) 美國의 抱負

우리는 美國歷史 200年동안에서 가장 훌륭한 4年이 되도록

1970年代의 초반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5) 別途敎書提出

앞으로 수주일간에 걸쳐 經濟部分, 資源部分, 人力部分, 地域開發, 外交政策등의 별도 敎書を 提出할 것이다.

나. 對外政策

1) 越南平和

1973年の 美國은 經濟政策으로 健全하고 軍事的으로 安全하며 특히 가장 試鍊이 컸던 戰爭을 끝내고 마침내 平和에 도달했다.

2) 美國의 使命

美國은 계속 믿음성이 있고 강력한 國家로 남을 것이며 이것은 世界平和 維持와 理解造成에 불가결하다.

3) 美國의 對外 紛爭 解決 方式

越南에서 성취한 "名譽로운 平和"는 美國의 對外 信義를 높인 예이며 앞으로 美國의 國際行動은 이러한 信義를 基本으로 할 것이다.

4) 對話의 必要性

相互 尊敬과 諒의를 갖고 또 相對方과 어떻게 通話해야 할 것인지를 알면 비록 잠재적으로 破綻的인 努力이라도 建設的으로 轉換시킬 수 있다는 敎訓을 얻었다.

5) 世界秩序確立

各國 指導者들과 協力함으로써 영속적인 平和의 새 希望을 이루게 되었고 共同利益을 個別 利益보다 앞세운 世界 秩序의 새 構造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2. 分析 및 評價

가. 금번 年頭敎書의 특징은 예년의 年頭敎書가 對內外政策의 시정 방침을 広範圍하게 闡明했던 것과 달리 美國의 立場과 基本 目標에 대한 基本原則만을 개술한데 있음.

나. 금번 年頭敎書가 이렇게 간명한 形式을 취하게 된것은

- 1) 「닉슨」行政府가 越南戰과 關聯하여 發表한 여러 聲明과
- 2) 지난 1.20 「닉슨」大統領의 2次 就任辭에서 美國의 對內外 政策에 관해서 이미 闡明한 바 있기 때문이며
- 3) 年頭敎書를 提出하기 직전인 지난 1.31 「닉슨」大統領이 對內外政策에 대해서 詳細한 진술을 했기 때문이라고 分析됨.

다. 금번 年頭敎書의 核心은

- 1) 美國의 막강한 힘이 世界 平和를 維持하는데 불가결하다고 宣言하여 “힘의 立場”을 견지하고
- 2) 相互尊重의 親善의 雰圍氣를 造成하면 敵對的인 國家도 肯定的인 國家로 轉換시킬 수 있다는 平和的인 交渉과 對話의 意義를 強調하고
- 3) 앞으로 國際紛爭을 解決함에 있어서는 軍事的인 對決이 아닌 平和的인 手段에 의한 解決方式을 美國의 國際行動의 基本으로 삼으며
- 4) 內政面에서는 聯邦政府의 役割을 減少하는 “新聯邦主義”의 採択을 強調한 것등임.

라. 이와같은 美國의 對外政策의 基本原則은 美國行政府가 “힘의 優位” 政策을 堅持하면서 한편으로는 強大國의 힘의 限界를 의식한 냉철한 現實主義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分析됨.

마. 또한 平和的인 協商과 對話의 意義를 強調한 점으로 보아 美國의 對中共, 對蘇 接近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展望됨.

바. 現在 進行中에 있는 平和 協定 締結以後의 越南問題는 아직도 戰爭

再究의 可能性을 내포하고 있으나 美國은 蘇聯과 中共과의 막후교섭을 통해서 그리고 對越盟 經濟援助등을 미끼로 하여 金년안으로 越南問題를 終結지으려 할 것으로 判斷됨.

사. 金년 年頭敎書에서 強調된 對外政策의 基本原則이 韓國에 미치는 影響을 評價하면

基本原則	韓國에 미치는 影響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越南 平和達成 方式은 美國의 國際行動의 基本이다. ○ 對話를 통해 잠재적인 敵國의 姿勢轉換 可能 ○ 各國 指導者들과의 協力으로 영속적 平和維持 ○ 個別利益보다 共同利益을 위한 새로운 世界 秩序의 確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半島의 現狀 固定化와 韓半島 問題의 南·北韓 解決을 促進 ○ 美國의 對中共, 對北韓 接近의 擴大와 具體化 ○ 韓·美間 對話의 緊密化 促求와 自主的 政策에 대한 境界 ○ 強大國間의 勢力均衡 維持를 위해 弱小國의 利益을 멸시

아. 今年 敎書는 「닉슨」大統領의 重任 就任人事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國內 政治體制의 全面的 改編構想을 再確認 하면서 對外的으로는 勢力均衡 政策의 具體化를 다짐하며 地球上에 戰爭없는 平和世代를 이룩하려고 努力할 것임.

3. 對 備

가. 越南戰의 終結, 美國의 對內外政策의 轉換, 美國內의 反戰 輿論의 비등으로 인하여 美國의 對韓 公約을 弛緩시킬지도 모르므로 外交 強化와 軍事協助를 통하여 美國과의 紐帶로 더욱 공고히 해야할 것임.

나. 美國은 貿易 輸入 역조로 亞細亞 특히 中共에 대하여 本格的인

市場開拓과 商品進出을 展開할 것임. 그러므로

- 1) 美國의 資本을 國內에 誘致하여 韓·美 共同投資로서 中共市場을 開拓하고
- 2) 貿易을 통하여 中共과의 緊張을 緩和하여 北韓의 國際的 立場을 孤立시켜야 할 것임.

美國의 對外政策(「키신저」의 새로운 課題)

1. 內容要約

가. 「키신저」 美國 安保担当 特別補佐官은 大統領의 指示에 따라 백악관 참모들과 함께 美國의 西歐羅巴 日本 및 中東關係에 關한 協商을 위하여 적절한 時期를 모색중이다.

나. 過去 2年間 「키신저」는 北京, 「모스크바」, 「파리」, 「사이곤」과 「하노이」를 訪問하면서 그의 수완을 발휘했고 現在는 通화위기, 「에너지」危機와 中東危機가 美國의 對外政策 協議事項의 重要한 것이다.

다. 「키신저」는 더욱 強한 權위를 갖고 協商에 임하며 다음 몇주일 內에 國際關係를 다룰 새 참모들을 보강받을 것이다.

라. 「헬문소넨펠트」氏가 歐羅巴와 蘇聯關係에 대한 「키신저」의 참모가 되며, 퇴역대령인 「리차드 케네디」씨가 國家安全保障會議의 참모가 될 것이며, 美 陸軍 참모차장으로 전역된 「헤이그」大將 後任에는 「브렌트 스고우트로드트」少將이 교체될 것이다.

마. 過去 「키신저」는 大統領을 補佐하는 人物로 그 範圍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現在 그의 任務는 變하고 있다. 그는 周恩來나 「레득토」와 個人的으로 親近하게 되었고 계속 그들과 접촉을 계속할 것이다.

- 바. 그 예로 越盟이 계속 휴전 협정을 위반하면 「키신저」는 「레독토」와 조용히 이 문제를 다룰 것이며 美·中共의 外交關係를 「닉슨」 行政府가 監督할 것이지만 「키신저」보다 이 내막을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 사. 東西 秘密 外交로 분주하던 「키신저」가 大統領의 지시를 받고 조용히 있는 것은 그가 새로운 任務를 구상함에 틀림없으며 흥미 있는 일이다.
- 아. 亜細亞에서 妥協, 「이데올로기」의 終結과 越南 撤収로 論争을 벌였고, 中共, 蘇聯, 日本의 조화를 꾀했고 世界의 새로운 勢力均衡과 秩序를 위해 努力했다.
- 자. 歐羅巴에서는 통화 貿易技術 및 安保關係의 새로운 問題가 있다.
- 차. 中東에서 美國이 「아랍」과 「이스라엘」紛争에 壓力을 가할 것이나 만일 그렇게 한다면 美國이 「이스라엘」의 安保를 위해서 美軍이 國境에 配置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問題가 생긴다.
- 카. 달라, 歐羅巴 駐屯軍, 「이스라엘」援助와 「아랍」國家에서 오는 石油, 獨逸問題, 貿易과 收支均衡, 貿易赤字, 失業者, 賃金, 物價와 世界의 勢力均衡과 國內에서의 貧富의 差異들에 關한 美國의 政策을 어떻게 할 것이냐?
- 타. 過去 몇년간 「키신저」는 中·蘇問題에 集中해서 잘 處理해 왔으나 現在는 過去보다도 더 복잡한 問題를 그의 새로운 참모들과 處理할 段階에 들어섰다. 現在 그는 周恩來나 「레독토」 아닌 「히드」 「퐁피두」 「브란트」와 國內에서는 「월버 밀즈」를 비롯한 議會議員들과 鬪争을 해야 하는데 「키신저」로써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2. 分析 및 評價

- 가. 越南問題와 中共問題를 解決한 美國은 「키신저」를 시켜 美國의 對外政策을 歐羅巴, 中東 및 日本 등지에 돌려 問題解決에 努力하려 한다.
- 나. 「닉슨」大統領은 「키신저」를 주축으로 하여 그에게 經濟參謀를 強化시켜 통화위기를 包含한 當面 經濟關係의 問題까지 處理하여 美國의 「팔라」방위와 國際 收支均衡을 호전시킬려고 한다.
- 다. 「닉슨」大統領은 國內問題까지 「키신저」에게 권한을 주어 安全繁榮政策을 실행하나 복잡한 國內問題를 「키신저」가 解決할 수 있는 지 의문시된다. (73.3.7 아메리칸 뉴-스)

美國의 對外政策(西歐羅巴에 對한 美國의 怠慢政策)

1. 內容要約

- 가. 最近 「닉슨」大統領은 記者會見에서 歐羅巴와 「나토」後方國 訪問에 대해서 모호한 態度로 나왔는데 이는 西歐羅巴諸國이 自身들의 共同利益을 위한 많은 時間을 주려는 것이다.
- 나. 금년봄 「닉슨」大統領은 歐羅巴 巡訪을 計劃했었으나 그 날자가 다시 9月 以前으로 늦추어졌다.
- 다. 歐洲 共同市場 加入國들은 最近 通貨危機를 解決하기 위해 努力하고 있으며 仏蘭西와 獨逸이 積極的이며 英國과 伊太利는 消極的이다.
- 라. 最近의 通貨危機를 解決하고 歐羅巴의 여러나라가 集團的으로 이에 對處할만한 “運營法”을 構想하고 있다.
- 마. 「닉슨」大統領은 美國의 흑인문제에 適應하는 “겸손한 태만”政策을 쓰는데 「나토」諸國에도 이런 政策을 適用할 것인가?

바. 現在 美國의 對外政策은 蘇聯과의 關係 增進을 爲해 苦心하고 있다.

사. 蘇聯 駐在 猶太인의 移民에 對한 “教育稅” 때문에 美·蘇 貿易協定이 遲延되고 있다.

아. 蘇聯이 이 “教育稅”를 低下시키지 않는한 美上院의 多數는 協定을 저지시킬 것이다.

자. 그러나 蘇聯은 어떤 壓力이 있어도 그들의 國內政策을 바꿀 意思는 없다고 하고 있다.

차. 「닉슨」의 對蘇 政策은 苦心狀態이며 現在 美國의 蘇聯과의 關係 改善을 爲한 對外 對內 政策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가. 「닉슨」의 當面 對外政策이 蘇聯과의 和解인 이때 美國은 「나토」 諸國과의 當面 協商을 遲延시키고 있다.

나. 이런 時期에 西歐羅巴諸國은 자신들이 더 團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다. 西歐羅巴 諸國은 美國이 蘇聯과 問題 解決을 하는 동안 西歐羅巴 여러나라는 서로 理解하게 되고 觀點을 解決해 나가려는 것이다.

라. 한마디로 美國이 歐羅巴에 “태만정책”을 쓰면 쓸수록 歐羅巴는 더 自身의 利益을 爲해 몽치게 되며 美國은 過去 “古典的 歐羅巴”를 새로운 歐羅巴 共同體로 轉換시켜 보려는 面이 內包되어 있다고 評價된다.

마. 6個月 前만해도 美國의 對外政策에 歐羅巴에 對한 “태만 정책”은 窺보이지 않았으나 現在 그 方向이 명확해지며 蘇聯과 거의 利得을 보면서 歐羅巴를 방치해 둘때 歐羅巴 危機를 解決할 수 있는 美國 外交의 「패턴」이 아닌가로 간주할 수 있다. (73.3.17. 아메리칸 뉴-스)

美国의 貿易政策(「닉슨」의 保護貿易政策宣言)

1. 內容要約

- 가. 「닉슨」 美国大統領은 3月 22日 自由 貿易政策을 制止하고 保護貿易으로 轉換하겠다는 報告書를 議會에 提出했다.
- 나. 「닉슨」은 同 報告書에서 歐羅巴 共同体과 日本의 關稅 및 貿易政策을 辛辣히 批判하고 美国의 国内産業을 保護하고 美国의 貿易收支 不均衡을 是正하기 위해서 關稅引上을 法制化해서 歐羅巴 共同体과 日本에 대해서 보다 強力한 協商의 터전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다. 4月初 「닉슨」大統領은 具體적인 通商法案을 議會에 提出할 計劃이며 今年 6月以前에 議會에서 通過되어서 發表될 것으로 간주된다.
- 라. 「닉슨」大統領의 宣言 骨子は
- 1) 앞으로 3年間에 걸쳐 大統領 專權下에서 任意 關稅를 부과할 수 있는 專權을 大統領에게 부여
 - 2) 輸入에 의해서 被害를 보고 있는 国内産業과 国内市場을 保護하고 失業을 막기 위해서 언제든지 臨時措置를 취할 수 있는 國際協定 締結 權限 부여
 - 3) 開發途上國으로 부터의 輸入商品에 대해서는 特惠措処를 附与할 것이나 美国에게 差別 대우를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特惠를 주지 않는다.
- 마. 「밀즈」 美下院 歳入委員會 委員長은 「닉슨」의 宣言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고 「밀즈」가 草案한 새 通商法의 骨子を 보면
- 1) 關稅의 撤廢
 - 2) 非關稅 장벽
 - 3) 農産品の 有利點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
 - 4) Safeguard (緊急輸入制限)
 - 5) 輸入急增으로 被害를 받은 産業의 労働者에 대한 調整 援助措処

- 6) 不公正한 輸入制限을 하고 있는 國家나 輸出 補助金 등에 의해 第3國의 市場에서 被害를 받을 때에 對抗策으로써의 輸入制限
- 7) 開發途上國의 工業製品에 대한 一般特惠
- 8) 國際收支 改善을 위한 輸入過徵金
- 9) 以上の 權限移讓에 대한 期間의 制限등이다.

2. 分析 및 評價

가. 「아켄사」州 民主党 下院이며 美下院 歳入委員會 委員長인 「윌터 밀즈」氏는 通商法の 通過를 적극 後援하겠다고 했고 行政府의 提案에 대한 그의 草案 운곽을 發表했다.

나. 72年度 4/4 分期의 美國의 收支均衡 赤字는 15億 2千萬弗이었고 72年度 (全般에는 92億 4千萬弗이었다.

다. 이같은 赤字 傾向은 71年 8月 「달라쇼크」化 國際通貨危機를 유발했고 今年에 「달라」 再評價 절하를 할만큼 美國으로서는 保護貿易 政策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라. 「닉슨」大統領의 宣言에 대한 具體的인 案은 곧 詳細히 發表될 것이며 「밀즈」議員의 案과 별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되며 議會에서 약간의 修正은 豫想되지만 美國의 立場을 有利하게 할것은 틀림없는 것이다.

마. 美國이 自由貿易에서 離脫해서 關稅障壁도 쌓고 國內産業 保護를 위해서 個別 國家를 相對로 通商協定을 하게된 이 時期에도 지난번 纖維類 타격등을 考慮해 볼때 전자제품등의 對美 輸出이 制限을 받을 公산이 크다. (73.3.22 아메리칸뉴-스)

美國의 東北亞政策

1. 內容要約

- 가. 「마셜 그린」 前 美國務省 極東問題 次官補 (濠洲大使로 選定 됨)는 國際新聞 記者 協會의 會見에서 現 東北亞細亞 分斷國에서 平和를 威脅하는 相対가 濃厚하다고 했다.
- 나. 南北韓 對話를 하는 韓國을 強調해서 지적하면서 過去보다 平和에 대한 威脅은 減少되었다고 했다.
- 다. 또 戰爭에서 破壞와 損失을 맞은 越盟은 軍事的 方面보다 政治的 으로 解決을 원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 라. 그는 또 中共이 自멸을 招來하면서 目的達成을 위해 武力行使는 하지 않을 것이며 最近의 美·中共의 和解로 兩國은 서로의 立場을 理解하고 問題를 解決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 마. 다음 그의 「인터뷰」內容을 要約하면

東部 亞細亞 問題

- 1) 過去 美國의 對外政策이 大西洋方面에 쏠린 점도 있으나 現在 美國은 어떤 한곳에 集中하지 않는 均衡을 가지고 國際關係에 임할 것이며, 東北亞細亞 특히 日本과 中共과 韓國등에 중점을 두는 外交를 할것이라 했다.
- 2) 分斷國에는 언제나 問題가 있고 戰爭 危險度가 內包되고 있으나 現在 韓國, 越南과 「라오스」에서 兩側이 會談을 하고 있기 때문에 緊張이 緩和되고 衝突이 벌어지고 있다.
- 3) 中共은 武力을 行使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問題 解決에 임할 것이다.

中·蘇紛爭

- 1) 美國은 中·蘇紛爭에 絶대로 介入하지 않을 것이며 또 그러한

悲劇이 일어나지 않기 바란다.

- 2) 中·蘇 兩國이 緊張을 緩和시켜 兩國의 危險을 減少시켜야 하며 現在 兩國은 最善의 努力을 하고 있다.
- 3) 1969年 같은 武力衝突은 豫想되지 않으며 現在 兩國은 각각 심각한 問題에 봉착해 있고 그 解決에 전력하고 있다.
- 4) 現在 中·蘇 兩國은 그들의 外交政策을 轉換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東北亞細亞 뿐만 아니라 全世界에 대한 基本變化를 하려는 것이다.

印度支那의 平和

- 1) 이 地域의 戰爭에서 우리는 經濟的 困難을 다같이 맞보았다. 남은 問題는 서로 協調해서 共存하는 길을 摸索할때 平和는 維持될 것으로 본다.

美國의 任務

- 1) 中共의 대우, 日本의 經濟的 팽창과 蘇聯의 核武器 制限등 美國으로서는 關係의 度를 一律化시키는 것이다.
- 2) 어느 地域에 더 注重하고 다른 地域에 關心을 안두는 것이 아닌 均衡된 外交를 하는 것이 바로 「닉슨·독트린」이다.
- 3) 美國은 東北亞細亞의 重要性을 認定하여 모든 面에서 協力을 하면서 적절한 任務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2. 分析 및 評價

가. 東北亞細亞는 美國, 日本, 中共과 蘇聯이 걸쳐 있는 同一한 地域이며 4大國의 勢力均衡과 關係改善 여부가 現 國際情勢에 重大한 影響을 미칠 것이다.

나. 現在 美國과 中共은 和解段階에 있고 中共과 蘇聯은 緊張狀態, 또

- 日・蘇, 日・中共關係 등 4 大國의 勢力다툼을 볼때 美國으로서도 東部 亞細亞를 방관할 수 없게 됐다.
- 다. 世界 人口의 큰 比率이 東北亞細亞에 살고 있으며 또 豊富한 資源을 갖고 있는 점을 보아서도 美國은 亞細亞政策에 比重을 많이 드리는 것이다.
- 라. 美國은 中共과의 對話를 繼續해 나가며 緊張緩和에 努力하고 共存을 摸索하며 韓國의 南北對話에도 關心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 마. 日本과의 貿易赤字等 關係가 애매한 것도 있는 狀態에서 「닉슨」이 保護貿易主義를 내세울만큼 美國經濟의 타격을 해 보겠다는 것도 日本이 우연히 東北亞細亞에 位置하였기 때문이다.
- 바. 美上院의 壓力을 받고 있는 蘇聯의 유대인 移民에 대한 「教育稅」가 철폐되면 美・蘇는 곧 貿易關係 改善을 하게 되고 6월에 「브레즈네프」가 美國을 訪問할지도 모르며 美國도 「시베리아」 天然資源開發에 關心을 보이고 있다.
- 사. 또 日本은 4 個 도서 返還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시베리아」 開發을 條件으로 平和條約會談을 서두르고 있다.
- 아. 以上 모든 것을 모아서 美國의 外交는 앞으로 몇년동안 東北亞細亞에 重點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評價되며 이 地域에서의 4 大列強의 勢力 다툼이 치열해 짐에 따라 日本과의 安保關係를 繼續 存続시킬 것이며 또 中共과의 계속적 對話를 維持하면서 關係改善을 할때 美國으로서는 4 大列強 勢力均衡에서 有利한 立場에서 보자는 것으로 評價된다. (73.3.28 코리아타임)

越南戰後 美國의 새「아시아」戰略

1. 美國防省 高位官吏는 越南戰後 美國의 太平洋戰略을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근간으로 하여 規定하고 있다.
 - 1) 美國은 對亞細亞政策에 修正을 가하나, 여전히 強力한 太平洋 勢力으로 남는다.
 - 2) 強力하고 安定된 越南
 - 3) 日本, 「인도네시아」, 「오스트랄리아」와 같은 友邦國家들의 正規軍 增加
2. 이 戰略計劃은 友好國에게 武器提共者로서 美國의 役割이 계속 커짐을 뜻하는 것이다. 「옵서버」들은 武器의 輸出이 美國 國際 收支均衡의 重要한 要因으로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3. 일제 海軍部隊를 除外하고는 太平洋地域에서 모든 美國의 基本 兵力이 撤収하도록 되어있다. 그 일제 海軍部隊는 「오키나와」가 日本 領有權으로 넘어 감지라도 美國이 保有하고 있는 基地를 維持할 것이다.
4. 韓國에 남아 있는 또다른 보병부대는 아마 수년내에 撤収하게 될 것이다.
5. 日本에 있는 약간의 戰輛部隊와 空軍은 政治的으로 말썽이 없는한 계속 잔존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地上兵力은 撤収했다.
6. 台灣의 경우, 1972年 2月 上海共同聲明에서 美國은 越南戰이 끝나는 즉시 撤収하도록 公約하였다.
두 中國
7. 한 高位官吏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中國과 台灣이 共存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고 期待한다”고 말하였다. 이말은 中華人民共和國이 受諾하지 안하였던 原則 말하자면 “두 개의 中國” 原則公約 遵守를 意味하는 것이다.
8. 比律賓에서 美國은 廣大한 「클라크」空軍基地와 「서비크」만의 海軍

整備廠을 保有할 것을 希望하고 있다. 그러나 比律賓에는 약간의 海軍을 除外하고는 지상부대가 없다.

9. 「아이랜드」는 越南에서부터 옮겨온 第7空軍의 本基地가 되었다. 그러나 한 高位官吏의 말에 따르면 泰國에 軍事力이 增加하고 있는 것은 잠정적인 것이며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있어서 作戰上的 要求가 없으면 될수록 빨리 진부대를 撤収하는 것이 美國政府의 意圖라고 한다.

第7艦隊

10. 第7艦隊는 極東에 있어서 代表的인 美國의 軍事力으로 남아 있을 것이지만 그 위력은 縮減될 것이다.
- 第7艦隊의 항공모함은 6척에서 4척으로 줄었다.
 - 第7艦隊의 힘을 얼마나 줄인 것인지 또는 世界의 다른 地域에 다 그 힘을 어떻게 再分配할 것인지 (例를 들어 印度洋이나 地中海地域에)는 아직 問題點으로 남아있다.
 - 日本의 「요코하마」에는 이미 建設된 「아테네」의 軍港과 類似한 基港이 建設된 것이다.
11. 美國防省 소식통에 의하면 美國戰略의 두번째 支柱가 되는 安定된 越南政府를 세우는 일은 南部越南을 東南亞의 重要한 軍事的 勢力으로 만들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는 “越南化”計劃에 의하여 이미 밝혀졌다는 것이다.
12. 비록 「도미노이론」이 낡은 것일지 몰라도 새로운 戰略概念이라는 것도 基本的으로는 다를 것이 없다.
- 南部越南이 “安定”된 政府를 維持해야 한다는 것은 만약 南部越南이 “破壞的 勢力”의 侵害者가 된다면 「라오스」나 「캄보디아」와 같이 美國이 中立을 約束한 國家가 곧 被害者로 될 것은 물론 「타이」도 역시 被害를 입을지 모른다는 事實 때문이다.

- 만약 이러한 나라들이 破壞되면 「인도네시아」나 比律賓, 심지어 日本까지도 威脅을 받게 되리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13. 美国戰略의 세번째 支柱가 되는 것으로 友好國의 正規軍을 增加한다는 것은 美国이 그 友邦國들에게 대한 核우산을 계속 維持한다는 假定에 基礎한다.

<分析 및 評價>

1. 本記事 새로운 美国의 对亞細亞 戰略概念을 亞細亞 太平洋에 있어서 修正된 美国의 軍事的 힘의 配置와 地域國家들의 能力을 增加하여야 한다는 것을 示唆
2. 그러나 本質的으로는 힘의 均衡이란 점에서 새로운 美国의 戰略概念도 從來의 것과 다를 바 없다. 다만 美国의 새로운 戰略概念은 美国의 軍事的後退 대신 地域國家의 能力負擔을 代置시키는 것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亞細亞의 “破壞의 勢力”에 대한 対応方法에 있어서 오래된 「도미노이론」을 그대로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3. 이러한 論理에서 越南과 같은 前哨國家들이 安定된 政府를 維持하기를 갈망하며 日本, 「인도네시아」, 「오스트랄리아」같은 中堅國家들의 자위태세 強化를 美国後退의 前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4. 또 한가지 美国의 对亞細亞 軍事戰略에 있어서 特徵적인 것은 地上軍의 撤收를 海·空軍力의 補強으로 「발란스」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第7艦隊와 第7空軍의 再配置問題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美国의 对亞細亞 戰略이 軍事的 後退라는 變換期에서 나타날 수 있는 힘의 공백상태를 원격조정하는 것으로 解釋된다.
5. 美国의 이러한 戰略變更이 亞細亞國家의 自主國防을 促求할 것이긴 하지만 역시 이들에 대한 核우산을 계속 固守함으로써 日本의 核勢力化를 견제하고 계속적인 強大國으로 잠재하려는 強大國의 자만심을 表出하고 있다.

6. 마지막으로 美國의 이와 같은 對亞細亞 戰略變更에 따라 韓半島에서도 수년내에 地上軍部隊의 撤収를 豫見하고 있는 점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오끼나와」 또는 比律賓, 日本에 있는 空軍과 海軍의 원격조정으로 힘의 均衡을 보완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韓半島의 軍事的 狀態는 심리적 影響을 입게 될것으로 評價됨. (73.3.23.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베트남」撤兵後의 美國의 對極東 戰略

1. 內容要約

가. 美國은 印度支那 半島에의 地上介入을 斷念
越南에서 美軍의 完全 撤退가 끝나는 3.29을 境界로 하여 美國은 印度支那 半島에의 地上介入을 斷念할 것이다.

나. 對越南政策

- 1) 앞으로 「사이곤」政權의 政治鬭爭의 成敗는 완전히 越南 自信에 달려 있다는 냉담한 態度를 견지하고 있다.
- 2) 「타이」 및 印度支那 沿岸에 展開하고 있는 海空軍力을 和平協定의 範圍外에 놓으며 「戰爭抑制力」으로서 作用시킨다.

다. 「캄보디아」問題

「캄보디아」에서는 越盟의 補給活動을 차단하기 위해 폭격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地上兵力에 관해서는 「닉슨 독트린」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東西의 接觸面에서 撤退한다.

라. 極東地域의 美軍 駐屯

- 1) 極東全域에서도 「段階的이나 성급하지 않은」軍事力의 收縮運動을 開始한다. 그러나 名目上의 兵力을 駐屯시키고 있는 台灣(8,000)

- 을 除外하고 韓國 (40,000), 日本 (43,000), 比律賓 (15,000), 「타이」 (49,000) 의 4 個國에 極東美軍을 後退 集中시킨다.
- 2) 그리하여 上記 4 個國에 整理, 集結된 兵力과 海上兵力 (67,000) 을 합하여 道합 25萬의 軍事力을 再配置하여 亞細亞에서의 「美國의 存在」를 主張하는 後方打擊力으로서 保有한다.

2. 分析 및 評價

가. 上記 美國의 對極東 戰略에 基礎하여볼때 越南에서의 地上戰鬪로부터의 美國의 離脫은 決定的이나 越南의 軍事事情이 「사이곤」政權에 不利한 方向으로 急速하게 發展하는 경우 美國의 海空軍力이 사용되는 可能性은 남아있다고 分析됨.

나. 在歐洲兵力 (28 萬) 과 거의 맞먹는 兵力을 韓國, 日本, 比律賓, 泰國等 4 個國에 集約적으로 再配置하려는 戰略은 다음과 같은 點을 示唆하고 있다고 評價됨.

- 1) 이와같은 美國의 極東戰略은 「힘의 背景없이는 緊張緩和는 不可能하다」는 「닉슨」哲學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 2) 「닉슨 독트린」에 따라 亞細亞의 美軍은 量的으로는 다소 縮小되더라도 質적으로는 強化되는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다.
- 3) 韓國・日本・比律賓・「타이」를 연결하는 新防衛線을 構築한다.
- 4) 核의 威脅에 대해서는 美國이 이에 대처하나 在來式 戰爭에서는 同盟國이 「第1次的인 責任」을 진다.

다. 이것과 관련하여 地理的인 位置로나 經濟的인 能力으로나 日本이 차지하는 比重이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美・日 安保條約의 存続의 重要性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判斷됨.

理 由

- 1) 中共은 美·日 安保條約이 蘇聯의 對亞細亞進出을 排除하는데 有
効한 것으로 判斷되고 日·美 關係를 障害要因으로 보고 있지
않다.
- 2) 中共은, 日本이 防衛力을 飛躍的으로 發展시킨다는 것은 中共에
대한 威脅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 3) 한편 美·日 兩國의 立場에서 보아도 美·日 安保條約은 對蘇,
對中共 交渉을 展開하는데 있어서 妨害가 되는 存在가 아니라
오히려 美·日 兩國의 立場을 強化시켜 주고 있다는 새로운 見
解가 대두하고 있다. (73.3.29. 아사히 新聞)

「로저스」國務長官, 議會에 72年 外交白書提出

4.19 美國務長官은 72年度 外交政策의 成果를 概觀하면서 73年度
政策目標를 提示한 72年度 外交報告書를 議會에 提出, 1972年을 冷戰
外交 脫皮의 해였다면 1973年은 「새로운 外交 建設의 한해」가 될것이
라고 말했다.

1. 內容要約

가. 美國 外交政策의 基本目標

1973年은 새로운 外交建設의 해이며, 금년의 美國外交 政策은 世界的
紛爭 當事國들이 外部勢力의 干渉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진지한
協商을 開始하도록 鼓舞, 激勵하는데 있다.

나. 73年度 外交 主要 目標

1) 对「유럽」關係의 精進

東, 西 「유럽」國家들이 「유럽」共同体라는 一体感에서 障壁을 除去하는데 積極 協助하고 相互 均衡된 軍備縮小을 통해 相互 安全을 增大

2) 亞細亞의 平和建設

亞細亞國家들이 相互 不干涉 公約과 國民들간의 協助로 安全體制를 維持하도록 支援

3) 中東紛争의 解決

唯一한 紛争地域인 中東에서 今年에 當事國들간에 진지한 協商이 進展되도록 권장

4) 「라틴 아메리카」와의 共同 理解 推進

世界的인 問題에 대해서 中南美國家와의 共同 利害關係를 깊게 한다.

5) 「아프리카」援助

「아프리카」와 經濟的인 紐帶를 強化하여 貿易, 投資增進을 促進

6) 새로운 貿易 및 通貨制度 追求

國際 經濟的인 位置를 回復하고 國際貿易과 通貨體制를 擴張하는 基本 協定을 達成하도록 努力

7) 開發途上國家에 대한 經濟援助 改善

開發途上國들이 一人당 經濟成長率을 더 높히려는 努力을 더욱 支援하는 보다 廣範圍한 經濟政策을 追求

8) 先進國家와 紐帶強化

先進工業國, 民主友邦들과 經濟政治的 紐帶를 強化하고 보다 緊密한 協助關係를 이루도록 促求

9) 國際 海洋法 協定 推進

海洋法에 대한 豫備協定을 今年에 締結함으로써 秩序 정연한 國際關係를 이루도록 促進

나. 韓國關係

1) 對韓政策의 目標

韓國 休戰以來 韓半島에서의 美國의 第1次的인 目標은 南北間의 武力紛爭을 막는 것이다.

2) 南北對話 關係

가) 南北對話에 대한 評價

南北對話의 推進은 安全과 平和를 위해 歡迎할만한 措置이다.

지난 72년에는 數年以來 처음으로 韓半島에서의 武力浸透 事件이 없었다.

나) 北韓의 統合方法 不變

그러나 北韓의 能力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北韓이 자기 방식에 따른 美軍撤収와 統一이라는 基本目標을 變更했다는 證據는 거의 없다.

다) 駐韓 美軍基地의 繼續 維持

駐韓 美軍基地들은 現在 檢討중인 減縮計劃에서 除外된다.

라) 美國의 對韓 經濟, 軍事援助의 目的

韓國에 대한 經濟的, 軍事的 支援으로 北韓으로 하여금 軍事的 冒險이 危險하다는 것을 깨달도록 說得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韓

국이 南北對話를 推進하도록 鼓舞시켰다. 美國은 이같은 支援을 維持할 것이다.

마) 美·中 共同聲明

上海 共同聲明에는 "美國이 韓國의 緊張緩和 努力과 韓半島의 對話增進을 支援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 韓國의 政治情勢

改正된 憲法에 의해 朴大統領은 任期 6 年の 大統領에 再選되었으며 改正憲法은 大統領에게 權限을 集中시켰다. 韓國의 政治情勢 變化는 韓國의 國內問題이며 韓國國民의 責任이다. 그 變化가 韓半島의 安保狀況에 影響을 기친다는 점에서 그리고 韓·美 紐帶때문에 美國의 關心事가 된다.

사) 經濟關係

72年度 韓國의 經濟成長率 7%는 중전보다 약간 하회한 편이나 GNP 成長은 매우 印象的이다. 72年度 韓國의 貿易赤字는 71年の 10 億 4,600 萬弗에 비해서 3 億 8,200 萬弗로 減少되었는바 貿易収支 改善과 國內經濟가 豫想대로 回復된다면 對外 債務償還은 無難할 것이다. 韓美 兩國의 經濟關係는 貿易關係 增大와 더불어 더욱 重要하게 될 것이다.

다. 主要 國家 및 地域關係

1) 對蘇關係

가) 蘇聯과의 關係改善에 있어서 兩國間에 存在하는 基本的 見解 差異에 어떠한 환상도 禁物이다.

나) 美·蘇 協助關係의 發展에도 不拘하고 蘇聯은 美國에 대해 敵對的인 「이 데올로기」에 執着하고 있다.

다) 그러나 上記와 같은 美·蘇의 見解差異로 兩國間의 利益이 損傷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2) 对中共關係

- 가) 对中共關係의 目標은 和解에서 協助体制을 展開시키는데 있다.
- 나) 中共과의 正常的인 關係 樹立이 美国과 다른 国家들과의 紐帶를 犧牲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3) 台湾問題

- 가) 台湾問題의 窮極的인 解決은 中國人 自身の 問題이나 台湾과의 相互 防衛條約은 維持할 것이며 軍事的危險에 共同으로 대처할 것이다.
- 나) 美国은 「유엔」傘下 機構에서의 台湾의 代表權을 繼續 支持한다.

4) 日本 및 東南亞細亞 關係

- 가) 美·日 關係는 72.4.15 「오끼나와」의 返還으로 새로운 轉換點에 이르렀다.
- 나) 美·日 安保條約은 無期限 維持될 것이다.
- 다) 美·中 國交樹立은 當事國 뿐만 아니라 周邊國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 라) 亞細亞政策 推進에 있어서의 問題點은
 - 「베트남」의 平和達成과 前 「인도차이나」地域의 効果的인 復舊 計劃 實施
 - 東南亞細亞에 대한 外部勢力 支援에 의한 反亂의 除去 必要性
 - 中共과의 協力 擴大 追求
 - 貧困, 人口過剩, 적개심, 부패 및 波瀾로 인한 東亞細亞 諸國의 問題

<分析 및 評價>

가. 이번 報告書는 71年, 72년에 이어 세번째로 發表된 報告書로서 總

743 페이지에 달하며 韓國問題는 2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음.

나. 이번 報告書를 일관하는 美國 外交政策의 기초는

- 1) 現狀維持와 勢力均衡의 原則을 遵守하고
- 2) 昨年 一年間에 成就된 國際情勢의 和解(美·中 接近, 日·中 關係改善, 「베르린」協定締結, 越南休戰)를 基礎로 해서 이 和解를 協力關係로 發展시키고
- 3) 實利追求의 現實主義를 追求한다는 것 등임.

다. 美國外交 政策의 기초가 世界平和의 安全을 保障한다는 過去의 理想主義的 外交政策에서 위와 같은 勢力均衡, 協力關係의 發展, 實利追求의 方向으로 轉換하게된 根本 要因은

- 1) 美·蘇 兩極體制가 끝나고 世界 權力政治의 樣相이 多元化하여 美·蘇 兩國은 모두 過去의 理想과 꿈을 喪失 美國 - 世界平和保障, 蘇聯 - 共產主義 建設)
- 2) 越南戰을 계기로 美國은 自國의 힘의 限界를 認識
- 3) 美國과 友邦諸國과의 同盟關係가 主從의 關係에서 競爭의 關係로 發展한 것등임.

라. 이번 報告書에서 北韓의 從來 統韓 方式에는 變함이 없으며 南侵의 可能性이 尚存함을 指摘하고 北韓의 南侵誤算을 막고 南北對話를 뒷받침하기 위해 對韓軍事 經濟援助를 계속하겠다고 명시한 점도

- 1) 韓半島에서의 北韓에 의한 戰爭挑発이 亞細亞에 있어서의 4大國에 의한 勢力均衡을 破壞할 것이라는 判斷下에
- 2) 北韓의 挑發을 미리 抑制
- 3) 韓半島의 現狀을 固定化
- 4) 南北對話를 促進하겠다는 意思를 나타낸 것으로 判斷됨.

마. 亞細亞, 太平洋 地域에 一定量의 軍事力을 維持하며 盟邦과의 公約을 遵守하겠다는 것은 4大國에 의한 勢力均衡이 流動的이며 새로운 勢力改編이 形成되고 있는 現段階에서 美國에게 有利한 方向으로 勢力

改編을 誘導하고 이를 維持하는데 계속 “힘의 立場”이 必要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判斷됨.

바. 이와같은 美, 外交政策의 基調로 보아 1973年度 美國外交 政策의
基本目標는

- 1) 戰爭挑發의 抑制力으로서의 “힘의 立場”을 繼續 維持
- 2) 未解決의 紛爭에 대해서는 協商을 통해 解決토록 支援
- 3) 1972년에 이룩된 和解를 協力關係로 發展시켜 이를 (和解) 平
和와 安全의 새 次元에 올려 놓으려는데 있다고 判斷됨.

(73. 4. 20 國內 各 新聞)

「닉슨」大統領의 外交教書에 對한 分析 및 評價

1. 內容要約

가. 對外政策의 基本方向

- 1) 過去 4年間의 根本的인 緊張緩和와 瓦解를 더욱 強化
- 2) 美·蘇 兩極體制에서 서로 責任을 나누는 多極體制로 移行
- 3) 友邦이나 反對편이나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가 서로 自制하고 理解
함으로써 相互國家利益과 原則을 尊重하는 總和的 平和努力을 해야
함.

나. 東北亞細亞에 對한 評價와 對亞細亞 政策

1) 東北亞細亞에 對한 評價

- 가) 美國은 亞細亞에서 계속 重要한 勢力으로서 存在할 것이며 平和
를 達成하는데 必須的인 寄與를 할 것이다.
- 나) 亞細亞 特히 東北亞는 世界 4내지 5大強國의 中心部가 交叉되
는 場所이다.
- 다) 亞細亞는 지난 10年동안 先進國家나 開發途上의 國家들이 다같이
가장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한 곳이다.

2) 對亞細亞政策

- 가) 雙務的이고 多變的인 協定을 통해 美國은 亞細亞에 一角에 있는 日本과 韓國으로부터 泰國, 濠洲와 「뉴지랜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亞細亞國家의 安全을 保障하는 立場이 되어왔다.
- 나) 美國은 지금까지 締結한 條約을 지킬 것이다.
- 다) 美國은 核戰爭으로 우리 友邦國이나 우리의 安保上 存続될 必要가 있는 國家의 自由가 威脅을 받을 경우 우리는 核우산을 提供할 것이다.
- 라) 強大國들 間에 核阻止力의 均衡을 維持하는 것은 우리가 짊어질 가장 중대한 義務이다.
- 마) 그러나 美國은 直接 威脅에 當面한 國家가 自衛를 위해서 第1次的인 責任을 지도록 努力할 것이다.

다. 韓國關係 全文

- 1) 오늘날 亞細亞의 여러 나라들은 스스로의 經濟奇蹟을 享有하고 있다. 韓國은 그중은 본보기다. 韓國은 受惠國으로 부터 年10%의 經濟成長을 보이고 있으며 여러 製品의 主要 輸出國으로 되었다.
- 2) 南·北韓은 重要한 葛藤을 解決하는 方案을 摸索키 위해 對話를 始作하였다. 이것은 매놓을 수 없는 亞細亞의 重要 變化中의 하나이다.
- 3) 1世紀前만해도 韓國과 日本間에는 깊은 不信과 敵對感이 있었다. 오늘날 過去의 苦痛스러운 歷史의 상흔이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韓·日 兩國은 보다 緊密하고 互惠的인 關係를 향해 發展해왔다.
- 4) 지난 71年 우리는 韓國과 韓國軍 現代化를 支援하기 위한 協定을 締結하였다. 同時에 우리는 駐韓 美軍 兵力을 撤収했다. 지난 2年동안 議會에서의 軍援削減으로 인해 이와같은 現代化計劃에 蹉跌이 招來되었다.

- 5) 南北韓의 和解가 조속히 達成하지는 않을 것이며 容易하지도 않을 것이다.
- 6) 南北韓은 그동안 對話를 계속해 왔으나 韓半島의 最近 情勢와 歷史를 아는 사람이라면 緊張和解가 용이하지도 急速히 達成되리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 7) 「닉슨 독트린」의 展開에 있어서 對匪細匪 計劃은 同盟國들의 能力을 強化하는데 척척한 成功을 거두었다.
- 8) 美軍만으로 潛在的인 敵들의 강한 能力을 相殺할 수 없다.
- 9) 東北 匪細匪에 있어서 韓國軍은 그 現代化計劃의 結果 效率性을 強化하고 있으며 韓國經濟는 經濟成長을 犧牲함이 없이 軍事力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經費를 보다 많이 負擔할 수 있게 되었다.
- 10) 韓國과 越南이 스스로 効果的인 軍事力을 構築하도록 한 우리의 支援計劃의 成功에 따라 美國은 全駐越美軍을 撤収했고 韓國으로부터 2萬名의 美軍을 撤収할 수 있었다.
- 11) 이것은 安保援助가 어떻게 同盟國들이 보다 많은 스스로의 防衛 責任을 引受토록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意味深長한 두 가지 例이다.

라. 其他 主要國과의 關係

1) 對日本關係

가) 美國의 對日政治關係는 아직 定立되어 있지않아 이 問題는 앞으로 가장 關心을 기울어야할 分野가 될 것이다.

나) 오늘날 美, 日關係에서 가장 緊急한 問題는 經濟分野로서 특히 美國側의 巨大한 對日貿易 不均衡 是正에 對日協商의 焦點이 이루어질 것이다.

2) 对中共關係

- 가) 美·中共關係는 이제 肯定的 方向으로 發展할 것이며 이 關係 變化는 美國의 根本的 國家目的에 이바지하고 있다.
- 나) 兩國關係는 理念 및 史觀을 둘러싸고 마찰은 있을지언정 계속 改善되어 나갈 것이다.

3) 对越盟關係

- 가) 越盟이 政治 및 平和手段을 통해 「인도차이나」의 支配를 摸索한다면 美國은 이에 干涉치 않을 것이다.
- 나) 그러나 오늘날처럼 越盟이 「파리」平和 協定을 계속 「뻔뻔스러이 無視하면서」 武力을 통한 隣接國 征服을 企圖한다면 美國은 北越再開를 包含, 應分の 軍事的 조치를 취할 것이다.

4) 对蘇聯關係

- 가) 現在 蘇聯은 너무 精密한 「多彈頭 미사일」을 開發하고 있다. 美國도 이에 맞설 戰略核武器를 開發치 않으면 美, 蘇 戰略武器 制限協定에도 不拘하고 美國은 劣勢를 면치 못할 것이다.
- 나) 東, 西貿易의 增加를 가져올 对蘇貿易關係에 대해 議會는 早速히 好意的 斷案을 내려야할 것이다.

5) 西欧關係

- 가) 「유럽」人들은 經濟的 地域主義를 追求하고 있다. 西欧는 이같은 地域主義가 美國通商立場의 犧牲위에 達成될 수는 없는 것임을 認識해야 할 것이다.
- 나) 西欧는 「나토」에 직접 關聯된 美國防 支出問題를 심각히 考慮해야할 것이다.
- 다) 美國과 大西洋間의 全体的 結束強化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問題가 우선 圓滿히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6) 中東關係

- 가) 中東平和는 이 地域의 紛爭当事側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나) 그러나 当事側들은 “平和는 妥協할 수 있음”을 認識하지 않으면 안된다.
- 다) 第2期 「닉슨」行政府는 中東危機를 重大視하여 紛爭 解消에 적극 努力할 것이다.

7) 「아프리카」關係

- 가) 美国은 「아프리카」 将来形成에 活潑히 介入하던 初期의 計劃을 抛棄한지 오래다.
- 나) 对「아프리카」 内政不干涉이 对外交 政策의 根本原則이다. 앞으로 이 原則을 遵守할 것임을 確言한다.

2. 分析 및 評價

- 1) 「닉슨」 美大統領은 5.3 “持續적인 平和를 構築하는 70年代의 美国外交政策”이라는 副題가 붙은 外交政策 報告書를 提出하여 平和成就의 大統領으로서의 自身の 「이미지」를 力說하였음.
- 2) 本報告書는 232 페이지에 달하며 (「로저스」國務長官의 外交白書 743 페이지) 다음과 같은 點이 注目視됨.
 - 가) 自助와 對話의 精神을 앞세운 「닉슨」外交가 成功한 예로 “亜細亞 太平洋”章에서 韓國을 첫머리 部分에서 指摘하고 韓半島의 變化에 커다란 關心을 表明한 點
 - 나) 「로저스」國務長官의 外交白書가 지난 4.19 에 議會에 提出되었는데도 같은 類型의 外交教書를 뒤이어 提出하였다는 點임.
- 3) 이번 「닉슨」의 外交教書는 지난 4.19 「로저스」國務長官의 外交白書와 그 基조에 있어서는 大同小異하나 力點의 素材에 있어서 差異를 나타내고 있음.

- 가) 中共과의 關係改善에 큰 期待를 갖고 있다.
- 나) 世界の 4強내지 5強을 主軸으로한 새로운 勢力均衡을 形成함으로써 平和를 實現
- 다) 平和를 追求하되 美國이나 同盟國의 利益을 犧牲시킬 수 없다. 그 具體的인 例로서 越盟의 休戰協定違反과 蘇聯의 MIRV 開發을 警告하고 있음.
- 4) 특히 亞細亞의 安保에 있어서 美國의 政策을 明確하게 規定하고 있는 점이 注目視 됨.
- 가) 73年이 「유럽」의 해라고 指稱되나 美國은 太平洋國家이며 亞細亞의 主要 強國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 나) 亞細亞安保의 3原則 提示
- 盟邦들에 대한 公約遵守
 - 核우산의 提供
 - 威脅에 처했을때 軍, 警援助 提供
- 5) 그러나 第1次的인 責任은 盟邦에 있음을 附言함으로써 「닉슨·독트린」을 계속 推進하며 美國軍事力의 限界를 盟邦에게 明確히 認識시키고 있음
- 6) 이번 敎書에서 韓國을 「닉슨·독트린」이 成功한 예로서 높이 評價하고 있는 점은 「닉슨」大統領의 業績을 誇示하고 亞細亞에만 極限했던 「닉슨·독트린」을 「유럽」에도 適用할 意思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評價됨.
- 7) 또한 韓半島에 있어서의 南·北의 和解가 어렵다는 點을 指摘한 것은 北韓의 武力挑發의 可能性에 警告를 하고 南·北對話의 계속적인 推進을 뒷받침하기 위한 底意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評價됨.
- 8) 「로저스」國務長官의 外交白書가 議會에 提出된 때에도 不拘하고 뒤이어 「닉슨」大統領이 議會에 外交敎書를 提出한 것은 現在

「워터게이트」事件으로窮地에 몰려 있는 「닉슨」行政府가 國內問題를 밖으로 돌리기 위한 臨機応変이라 判断됨.

(73. 5. 「닉슨」大統領의 外交敎書)

西方世界の 새로운 創造時代 (「키신저」演說文)

<內 容>

지난 4.23 「헨리 키신저」美大統領 特別補佐官은 「뉴욕 월도프 아스트리아 호텔」에서 開催된 AP 通信 年例總會에서 行한 演說을 통해 「닉슨」大統領의 第2期 外交政策의 輪廓을 發表하고 새 大西洋 憲章의 復活을 提議했다.

「키신저」演說文 (要約)

1. 美國과 「유럽」의 同盟關係는 戰後 外交政策의 礎石이 되었다. 美國의 目標, 美國의 價值, 美國의 基本的 理解는 「유럽」의 그것들과 아주 緊密히 關聯돼 있다.
2. 한 世代前의 決定으로 이루어진 時代는 이제 끝나고 있다. 옛 政策의 成功은 새로운 現實을 만들어 냈으며 이 새로운 現實은 새로운 「어프로치」를 要求한다.
- 가. 經濟的 統合運動의 歷史的 成功에서 보는 바와같이 西歐의 復興은 이제 確固한 事實이 되었다.
- 나. 東, 西間 戰略的 軍事的均衡은 美國優位로부터 均等한 關係로 變했다. 이러한 事實은 共同安保에 대한 새로운 理解의 必要性을 가져왔다.
- 다. 世界의 다른 地域이 갖는 重要性도 커졌다. 日本은 重要한 힘의 中心으로 등장했으며 大西洋問題의 解決에 日本을 包含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 라. 지금은 緊張解消의 時代다. 지난 20年間의 硬直된 紛争의 時代는 사라지고 새로운 民族의 主張과 民族의 敵對感이 나타나고 있다.

- 마. 「에너지」問題와 같은 새로운 形態의 協助를 요구하는 問題들이 나타나고 있다.
3. 이러한 要因들은 西方側의 心理的 風土에 劇的인 轉換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轉換期에 美國과 西歐間에는 다음과 같은 緊張이 나타났다.
- 가. 美國은 「유럽」이 一方的으로 經濟的 利益을 追求하면서 自己의 責任을 輕視하는데 대해 또 「유럽」의 共同防衛 負擔에 대한 그들의 뜻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不滿을 가져왔다.
- 나. 「유럽」은 美國에 대하여 美國이 經濟的으로 「유럽」을 分裂시키려 하며, 「유럽」의 軍事力을 荒廢化하고, 外交的으로 「유럽」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4. 만약 大西洋의 「파트너십」이 깨지거나 侵蝕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成就해온 것을 잃을 뿐더러 보다 더 큰것을 成就시킬 수 있는 歷史的 機會를 놓치게 될 것이다.
5. 40年代나 50年代의 課題 經濟的 再建과 侵略의 危險에 대한 安保였다. 오늘날 必要한 것은 공포보다는 目標를 겨냥하고 위기보다는 機會를 포착하면서 새로운 平和를 樹立하는 大西洋關係를 만드는 일이다. 大西洋國家들은 새로운 創造의 行爲에 平等히 參與해야 한다.
6. 「닉슨」大統領이 西歐指導者들과 論議하려는 點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닉슨」大統領의 目的은 西方에 있어서 새로운 創造의 時代를 열기 위한 基調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7. 1972년에 「닉슨」大統領은 공포와 疑惑의 짐을 輕減시키기 위하여 敵對國들과 關係를 改善했다. 1973년에 美國은 友邦國들과의 共同目的이나 理想을 再生시킴으로써 똑같은 歷史的 成果를 건울 수 있을 것이다.
8. 美國은 금년 말 「닉슨」大統領의 「유럽」訪問때까지 새로운 大西洋

憲章의 寫眞을 만들 것을 大西洋 友邦들에게 提議한다. 美國은 또 「유럽」友邦들과 「카나다」, 窮極的으로는 日本도 이러한 努力에 參與할 것을 要求한다.

9. 對西歐 關係를 보면

가. 經濟關係

「유럽」 共同体는 점점 그 地域的 個性을 강조해 오고 있다. 美國은 「유럽」 共同体와 經濟的 競爭關係에 있다.

나. 集團防衛問題

美國은 아직도 軍事的 統合이나 統一의 原則에 얽매어 있다. 그러나 戰略的 條件이 급격히 變化한 現속에 對해서는 이러한 變化의 意味를 충분히 檢討해야 한다.

다. 外交關係

大西洋 國家間의 外交는 本質的으로 民族國家 關係이다. 美國은 世界的 理解와 責任을 갖는 反面 「유럽」友邦들은 地域的 理解만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반드시 矛盾될 것은 없지만 새로운 時代에서는 그것을 再確認 해볼 必要가 있다.

10. 大西洋 國家들은 그들의 多樣性을 調節하고 共同目的에 기여할 어떤 解決策을 찾아야 한다. 個別的 利益과 共同利益間에 均衡이 摸索되어야 한다.

11. 美國 戰後政策의 不變要因은 「유럽」統合을 支援하는 것이었다. 統合된 歐洲는 美國과 協助하여 많은 國際的 負擔을 解決해 줄 것이라고 期待했었다.

12. 「유럽」의 經濟的 成功, 그리고 그에 따른 美國의 受援國으로부터 強力한 競爭者로의 變모는 어떤 災禍을 惹起했다.

13. 「유럽」 共同体의 閉塞的 貿易體制는 美國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美國이나 「유럽」 兩側이 協助할 수 있는 解決策을 찾아내야 한다.

14. 美國은 「유럽」統合을 계속 支援할 것이다. 美國에게는 「유럽」의

統一이 그 自体 目的보다는 西方側을 強化하는 하나의 手段으로써 意味가 있다.

15. 금년들어 美國은 「유럽」, 日本과 貿易協商을 시작했다. 貿易과 通貨 關係에 있어서 새로운 均衡이 達成되어야 할 것이다.
16. 이러한 經濟的 協商이 보다 큰 政治的 目的에 貢獻하도록 하는 것은 國家指導者의 責任이다.
17. 防衛問題에 있어서 오늘날 美國은 戰略的 條件의 급격한 變化로 새로운 挑戰에 직면하고 있다. 西方側은 이제 더 이상 核優位를 堅持할 수 없게 되었으며 따라서 50年代나 60年代의 大量 報復戰略은 意味가 없다. 西方側은 새로운 선택이 必要하다. 侵略에 대하여 유연하게 反應하는 集團能力만이 平和維持를 위한 理想的 戰略이다.
18. 유연반응 戰略에 있어서 유연성이란 本質적으로 새로운 條件과 環境에 대한 민감성을 要求한다. 유연반응의 目的을 實現하기 위해서는 많은 問題點들이 남아 있다.
 - 가. 美國의 傳統的인 防衛의 결함 보완문제
 - 나. 戰略的 核武器의 役割 評價 問題
 - 다. 「나토」軍 配置 및 병참체제에 關한 問題
19. 「닉슨」大統領은 大西洋 防衛에 있어서 美國이 應분의 役割을 해야 한다고 보며, 「유럽」駐屯 美軍의 一方的 撤収를 反對하고 있다.
20. 그러나 美國은 國民들에게 合理的 防衛體制와 가장 安全한 最少 防衛 規模 또는 費用을 要求해야 한다.
21. 우리는 淸々할 東, 西 外交時代에 들어가 있다.
22. 「태평양」에 대한 美國의 接近 方法은 具體的인 協商이지 霧囂氣가 아니다. 協商에서 양보는 相互의이어야 한다. 美國의 緊張緩和政策은 바로 이러한 基조위에 서 있다.
23. 그러나 成功은 바로 그 自体의 問題點을 惹起시킨다. 즉 強大國間 外交는 傳統的인 同盟國들의 利益을 犧牲할지도 모른다는 不安感이 增

加하고 있다.

24. 따라서 모든 同盟國들이 다같이 참여하는 共同目標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25. 美國은 友邦의 犧牲으로 평온을 얻으려는 意圖는 가지고 있지 않다. 美國은 결코 다른 나라의 利益을 犧牲시키지 않을 것이다.

26. 以上の 提案은 美國式의 처방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創造를 위한 共同努力을 呼訴한 것이다. 大西洋의 「파트너십」이 불가결하다.

27. 美國은 다음과 같은 것을 準備하고 있다.

가. 美國은 「유럽」의 統一을 계속 지지할 것이다. 美國은 協助의 原理에 기초하여 양보할 것이며 또 互惠의 精神으로 만나기를 期待한다.

나. 美國은 同盟國들에 대한 엄연한 約束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美國은 「유럽」에서의 軍事 駐屯을 계속할 것이며 一方的인 撤収는 하지 않을 것이다. 美國은 同盟國 各자가 共同防衛를 위한 共同努力의 正當한 몫을 지기를 期待한다.

다. 美國은 敵對國들과 具體的인 協商이라는 立場에서 緊張緩和를 追求할 것이다. 美國은 建設的인 東, 西對話에 友邦國들의 참여를 歡迎한다.

라. 美國은 「유럽」이나 亞細亞에서 意識적으로 友邦國들의 利益을 損傷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대신 美國은 그들의 政策이 美國의 利益과 美國의 責任을 신중하게 취급하기를 기대한다.

마. 美國은 當面한 새로운 共通的 問題에 대해 協力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問題같은 것이다.

바. 「유럽」의 自律性은 그 自体가 目的이 아니다. 따라서 大西洋 共同體는 배타적인 모임이 돼서는 안된다. 日本은 우리의 共同作業에 있어 주요한 「파트너」임에 틀림없다.

〈分析 및 評價〉

1. 西歐의 經濟的 再建과 共產主義 威脅에 대한 安保가 重要な 課題로 되었던 戰後 美國, 西歐關係가 西歐의 經濟的 復興, 核均衡, 緊張緩和의 進展등으로 새로운 現實이 當面하게 됨에 따라 美國은 새로운 美, 西歐協助 關係를 定立시킬려는 것으로 分析됨. 特히,
 - 가. 西歐와의 經濟的 競爭關係를 協調的으로 解決하며,
 - 나. 美國의 戰略的, 軍事的 優位가 後退한 새로운 戰略的 條件에 대처다. 西歐國家들을 平等하게 參與시킴으로써 東, 西間 緊張緩和를 發展시키는 것등
2. 前後 冷戰體制의 종식과 越南戰 終結後의 새로운 世界 秩序 調整을 위한 指針으로서 새 大西洋憲章이 구상되는데 이러한 구상에 대한 美國의 基本的 立場은
 - 가. 「유럽」 統合의 계속적 지원
 - 나. 美軍 「유럽」駐屯의 계속 및 對「유럽」公約 堅持
 - 다. 緊張緩和 政策의 追求
 - 라. 友邦國家들의 利益尊重
 - 마. 地域的 排他性의 脫皮等을 闡明하고 있으나
 - 1) 互惠精神에 立脚한 協助
 - 2) 共同負擔
 - 3) 具體的인 問題의 協商
 - 4) 美國의 利益과 責任의 尊重
 - 5) 日本의 參與등을前提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3. 美國의 새 大西洋 憲章構想의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要因이 背景이 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 가. 美國經濟의 침체 및 國際収支의 惡化
 - 나. 「유럽」의 經濟的 復興

다. 「나토」의 褪色

라. 東, 西間 接近에 따른 武力衝突 可能性의 減少

마. 海外 駐屯 美軍 減縮을 要求하는 美國內 輿論

바. 相互 減軍 및 安保協力에 관한 對蘇協商

사. 美國의 「유럽」 防衛分擔 要求에 대한 「유럽」國家들의 消極性

아. 「유럽」 共同體의 排他的 域外關說政策

자. 日本의 經濟力

4. 이러한 背景下에 美國은

가. 2次大戰以後 美國中心의 垂直的 美國, 「유럽」關係를 水平的으로 再構成

나. 互惠主義에 立脚한 經濟的 마찰의 解消(人爲的) 關稅障壁의 철폐등)

다. 「유럽」防衛費의 負擔에 의한 惡化된 財政狀態의 好轉

라. 「나토」의 發展的 改編

을 意圖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됨.

5. 美國의 意圖가 軍事的 側面보다 經濟的 問題에 더욱 力點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敵對國과는 “和解” 友邦國과는 “協助” 라는 美國 外交政策의 內容에 經濟的 考慮가 더욱 큰 比重을 强하게 될 것으로 評價됨.

6. 美國이 새 大西洋 憲章 構想에 日本의 役割을 包含시킨 것은 日本의 經濟力에 대한 意識을 反映한 것으로 보이며, 窮極的으로 美國, 「유럽」, 日本 3者間의 經濟的 關係의 焦點을 意圖하는 것으로 判斷됨.

7. 美國의 새 大西洋 憲章 構想은 西方國家들의 多樣한 理解關係에서 볼때, 또 美國이 西歐에 대한 影響力을 견지하려는데 대한 西歐國家들의 회의적 반응(仏蘭西等의 批判的 反應에서 단적으로 들어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때 쉽사리 매듭지어지기는 어렵다고 判斷됨.

8. 그러나 進行中인 東, 西間 協商의 進展과 今年 가을로 豫定된 「닉슨」 「유럽」訪問을 契機로 이러한 美國의 構想은 具體化될 可能性이 있는 것으로 展望됨. (73.4.24 뉴욕타임즈)

〈日 本〉

日本 外務省의 1973年의 國際情勢 分析

1. 內容要約

- 가. 美國의 「닉슨」政權은 外交努力의 繼續과 同時에 內政面에 있어서의 潛在的 不滿解消에 着手할 것임.
- 나. 美國은 外交面에서 「힘의 立場」을 維持하며 敵對的인 諸國과의 對話를 進展시키는 第1期 政權의 基本路線을 踏襲할 것임.
- 다. 美國은 「인도네시아」紛爭 解決이 進展되어 日本과 西歐諸國과의 關係調整에 重點을 두며 特別히 亞細亞에서는 越南戰後의 「인도네시아」諸國의 政治的 安定과 經濟復興에 注力할 것임.
- 라. 中共은 蘇聯을 除外하고는 繼續해서 現實的인 유연路線을 踏襲하며 活潑한 外交活動을 展開할 것임.
- 즉 美國과의 關係改善, 東南亞細亞, 南美諸國과의 國交樹立 등이 予想되며 台灣에 對해서도 「平和解放」方式의 宣傳을 講和할 것임.
- 마. 中共은 蘇聯에 對해서 國際政治面에서는 強力한 對立姿勢를 취할 것으로 보임.
- 바. 蘇聯은 美國과 第2次 SALT 交渉, 經濟, 技術交流, 더우기 蘇聯指導者의 訪美 등으로 兩國間의 關係改善에 努力하며 한편 中共에 對해서는 強硬한 姿勢維持를 繼續할 것임.
- 사. 日本은 中共과의 關係改善에 一層 努力하는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며 蘇聯은 이를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予想됨.
- 아. 歐洲에서는 歐洲安保會議의 開催, 相互兵力減縮交渉을 더욱 推進할 것

이나 反對로 蘇聯은 東歐諸國에 對한 掌握이 弱化되는 것을 防止하기 위해 共產圈에 壓力을 加할것임 .

가 . 亞細亞에서는 印度支那 半島에 있어서의 和平의 具體化 및 戰後 復興에의 指向과 韓半島에 있어서의 對話의 進展이 予想됨 .

나 . 亞細亞諸國은 「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亞細亞 駐屯兵力을 縮小하는 美國의 殘留를 要求하며 中共과의 關係改善을 圖謀할 것임 .

다 . 亞細亞諸國은 蘇聯, 東歐諸國과의 實務關係를 發展시키는 일방 國內 經濟의 改善에 努力할 것임 .

2 . 分析 및 評價

가 . 國際情勢의 多極化가 進展될 것이며, 美·蘇間의 一連의 交渉의 進展, 美·日 兩國의 對中共接近, 歐洲安保會議의 開催等으로 國際情勢 全般은 和解「우-드」를 造成하게 될 것이라 評價됨 .

나 . 그러나 中·蘇間의 敵對的 對立이 繼續되어 國際情勢 全般에 무시할 수 없는 不安感을 造成하게 될 可能性이 存在한다고 判斷됨 .

다 . 蘇聯은 日本을 「시베리아」資源 開發에 誘致하기 위해 日本의 對中共接近을 牽制하며 北方領土의 返還問題를 政治的인 흥정물로서 크게 利用하게 될 것이라 推測됨 .

라 . 亞細亞에 在해서는 越南戰後의 處理問題와 새로운 秩序의 確立과 安定을 摸索하기 위한 태동기를 맞게 될 것이라 判斷됨 .

마 . 中共의 外交的인 活動의 講和로 中共과 國交樹立을 맺는 國家가 增加할 것으로 予想됨 . (73.1.10 마이니치新聞)

「아이디어」뿐인 日本의 對「아시아」政策

1. 內容要約

- 가. 3.15 日本 外務省의 代辯人은 「다나카」首相이 새로운 「아시아」平和機構를 設置하겠다고는 하나 아직 별다른 具體案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 나. 「다나카」首相은 어제 國會議員들에게 「포스트」 「베트남」의 平和를 維持하기 위해서 「아시아」에 새로운 國際的 協力機構를 設置하는 것이 必要하다라고 말하였다.
- 다. 美國의 國務次官補에 該當하는 「프도무 와다」는 外國記者들에게 말하기를 「現在 우리는 「다나카」首相의 提議에 對한 具體的인 計劃을 가진바 없다고 하였다.
- 라. 「와다」씨는 또한 이번 주에 있는 「뉴-스」 「브리핑」에서 「인도 차이나」建設을 위한 國際會議나 印度支那 平和를 돕는 外交會議은 召集할 생각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마. 「와다」씨의 두번에 걸친 發言은 現在 日本의 外交政策에 있어서의 優柔不斷함과 混亂을 反映하고 있다.
- 바. 最近 두달동안에 있는 이러한 發言을 綜合해 보면 하나의 「패턴」이 形成된다. 「다나카」首相, 「오히라」外相과 其他 政治人들을 「아시아」의 安全과 經濟發展에 寄与하겠다는 「아이디어」를 公開的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野黨議員, 日本駐在會議 外交官들 또는 新聞記者들이 日本의 將來計劃을 밝히려고 하면 外務省과 其他 關係性에서는 이에 對한 參謀作業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할 것임에 틀림없다.

사. 이것으로 보아 日本이 現 國際關係에 임하는 態度에는 明白한 矛盾이 存在한다. 日本의 政治家들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다른 「아시아」諸國을 公開發적으로 非難하고 있다.

(1) 「아시아」諸國은 日本의 國際的인 決議事項에 對하여 排他的이라고 말하고 있다.

(2) 「아시아」諸國은 日本이 經濟的으로 認定을 받아 마땅한데도 그것을 政治的으로 認定하는대는 인색하다.

아. 換言하면 이것은 「다나카」政府가 國際政治에 있어서 「이니시아티브」를 掌握하고 「리더십」을 發揮하려는 意思가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能力이 없음을 意味한다.

자. 같은 例로서 「와다」는 日本의 「시베리아」開發 參與에 對해서 決定을 짓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브레즈네프」에게 보내는 親書에서 「다나카」首相은 「시베리아」開發에 關한 交渉을 提議하였다.

차. 「다나카」親書가 傳達되자 中共은 日本의 「시베리아」유전개발 參與를 非友好的인 行爲로서 評價하고 있다고 宣言하고 接境地帶의 蘇聯軍이 이 石油를 使用할 것이라고 指摘하였다.

카. 外務省 代辯人은 日本의 대 「아시아」政策과 「아스콧」에 대해서도 不透明한 發言을 하고 있다.

타. 「말레지어」가 「아스콧」에서 脫退하였으며 濠洲政府는 이 機構의 存在目的이 없어졌다고 말하였다. 「와다」는 우리는 「방콕」에서의 「아스콧」開催가 다음 해로 延長된 것을 보아 上級水準의 會議는 不可能하다고 본다고 말하였다.

파. 그러나 「와다」는 日本은 「아스콧」에서 脫退할 것이냐는 質問을

받고 우리는 「아스콧」의 將來에 대해서 성급한 決定을 내리지 않는 다라고 答辯하였다 .

하 . 이 날 日本政府는 「아스콧」의 將來가 종식된 것으로 보느냐는 質問에 「와다」씨는 「아스콧」의 存廢与否를 내가 말해야 하는 理由라도 있는가? 우리는 「아스콧」의 將來에 대해서 決定을 내릴 수 없을 뿐이다 . 라고 말하였다 .

2 . 分析 및 評價

가 . 本 記事는 日本의 대 「아시아」 政策은 「아이디어」에 끌리고 있으며 「아이디어」와 實踐過程에는 矛盾에 차 있다고 야유조로 非難을 하고 있음 .

(1) 日本은 累次 새로운 「아시아」 協力機構의 創設을 主張하고 있으나 具體性을 欠如하고 있다 .

(2) 日本은 「아스콧」의 將來問題에 대해서도 消滅을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不透明한 態度를 취하고 있다 .

(3) 이것은 日本이 대 「아시아」 政策을 展開함에 있어서 優柔不斷함과 混亂을 惹起하고 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

(4) 또한 이것은 「다나카」 政府가 國際政治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掌握하고 「리더쉽」을 發揮하려는 意思가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할 能力이 없기 때문이다 .

나 . 本 記事가 指摘한 대로 日本이 새로운 대 「아시아」 政策을 展開하는데 있어서 優柔不斷함과 混亂을 惹起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 基因되고 있다고 評價됨 .

(1) 「아시아」에 있어서 四大國에 依한 勢力均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勢力均衡이 流動的이며 새로운 秩序를 摸索하는 過程에 참여 있다는 點

(2) 日本의 海外市場과 原料輸入의 源泉地域인 東南亞諸國이 最近에 日本의 對「아시아」進出을 「第2의 經濟侵略」이라고 非難하여 일대 難關에 逢着하였다는 點

(3) 이러한 狀況에서 設부른 對「아시아」政策을 定立하고 推進하다가는 東南「아시아」諸國의 反撓을 尙 憂慮가 있음으로 事態進展을 銳意 把握할 時間的 餘裕가 必要한 點

다. 특히 日本政府가 中共을 包含한 「새로운 「아시아」協力 機構의 創設을 提唱하면서도 그 具體的인 案을 밝히지 못하는 點은 이에 對해 韓國을 비롯한 몇몇 反共國家의 反撓을 惹起케 할지도 모른다는 고려에서 慎重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評價됨 .

라. 이와 같은 日本政府의 意圖는 「아스팍」의 將來問題에 對하는 態度에서 集約적으로 表現되고 있다고 評價됨 . 日本은 「아스팍」의 存在를 否定하고 있으면서도 韓國의 主導下에 「아스팍」이 創設되었다는 點과 將次 韓國과의 協力關係를 考慮하여 日本이 앞장서서 「아스팍」을 解体하였다는 印象을 주지않으려고 決定的인 發言을 回避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 (73.3.16. 아메리칸뉴-스, 뉴욕타임즈)

日本의 非核政策

<內容要約>

1. 世界의 軍事的 狀況에 大變動이 일어나지 않는한 日本은 가까운 將來에 核國家가 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

「허-만칸」의 예언 (日本이 70年代 中盤에 核裝備化를 決定할 것이라는) 이나 「즈비그뉴·브레진스키」의 研究

(日本이 核裝備化를 決定할 可能性을 全적으로 排除할 수 있다는)는 맞지 않는 것 같다.

2. 「닉슨」大統領은 1971年 7月 「캔사스」市에서 行한 演說에서 將次 世界는 美・蘇・中共・「유롭」공동體, 日本等 5個國으로 分割될 것이라고 했다.

가. 將次 世界秩序에 關한 論議는 대강 다음과 같이 集約되고 있는 것 같다.

○ 軍事的으로 世界는 美・蘇 兩國 특히 「아시아」에서는 美・中共・蘇 3國 體制를 이룰 것이다.

○ 日本과 「유롭」공동體는 그러한 兩國 또는 3國에 編入될 것이다.

나. 以上の 根拠는 다음과 같다.

○ 「유롭」공동體는 하나의 國家가 아니라는 本來의 制約을 갖고 있다.

○ 또 日本은 그 自身이 하나의 極을 이루지 않으려고 警戒할 것이며 軍事大國이 될 수 없다.

<非核政策의 根拠>

3. 核武裝은 日本에게 漸漸 意味가 없게 됐다.

가. 爲先 核武器의 軍事的 價值가 漸漸 減少하게 됐다.

最強大國間의 核膠着은 戰爭을 抑制하고 있다.

나. 核武器의 政治的 價值도 繼續 退色하고 있다. 核武器는 先進된 技術과 廣大한 經濟力을 가진 國家만이 保有할 수 있다는 神話는 中共의 成功으로 깨지고 말았다. 核武器가 政治權力의 象徴으로 되던 時代는 後退하고 있다.

다. 原字力의 平和的 利用이 進展됨에 따라 日本은 軍事的 勢力으로 轉

換된 潜在力을 發展시키고 있으며 「구 페이」核武裝을 함으로써 政治的, 經濟的 犧牲을 招來할 必要가 없다.

라. 國家安保 概念이 變化하고 있다.

○ 大部分의 國家들은 國際的 紛爭의 解決이 平和的 方法以外에는 없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

○ 오늘날 多極化時代에서는 國家安保의 問題가 軍事的 側面에서만 考慮되어서는 안된다.

마. 日本은 地理的 條件이나 資源에 있어서 本來 強力한 軍事國家로 되어서는 안된다.

○ 日本은 領土의 狹小性 때문에 核武器를 開發하더라도 廣大한 領土와 人口를 가진 國家와 똑같은 抑制效果를 얻을 수 없다.

○ 또 日本은 資源의 海外 依存이 높다.

바. 日本의 軍事化에 대한 「아시아」國家들의 뿌리깊은 우려가 있다.

「아시아」國家들은 大部分 發展途上에 있으므로 다른 地域보다 軍事政策의 有効성이 적다.

<核우산의 變化>

4. 以上과 같은 理由로 日本은 將來에도 非核政策을 繼續할 것이다.

이러한 非核政策을 確固한 基盤위에 安定시키기 위해서는 日本은 國際적으로 國內적으로 必要한 條件을 造成할 必要가 있다.

가. 國內적으로는

○ 核武裝을 反對하는 理論을 形成하고

○ 日本 企業들의 軍事化를 預防하는 政策을 採択해야 한다.

나. 또 強大國들의 核우산에 대한 依存으로부터 벗어나는 方法이 摸索되어야 한다.

5. 日本은 美國과 安保條約을 맺고 있으며 現在 美國의 核抑制力에 依存하고 있다 (「닉슨」·「독트린」도 이러한 事情을 再確認하고 있다) 만약

日本이 이러한 前提를 維持한다면 日本이 非核國家로 있는 한 美國의 核우산 保護를 期待해야 한다 .

그러나 「經濟的 大國」으로 된 現在 日本人들은 그러한 美國의 保護를 때때로 不滿스럽게 생각한다 .

- 6 . 日本은 經濟적으로 強해질수록 더욱 獨自性的 要求가 增大될 것이다 . 그러나 核우산은 現在の 國際秩序를 固定化하는 役割을 한다 . 現在 國際秩序는 4層의 「피라미」를 이루고 있다 . 즉

- 2大超核強大國 (美・蘇)
- 2流 核國家들
- 核潛在力 國家들
- 開發途上 國家들

- 7 . 超強大國家들의 核雨傘이 갖는 政治的 意味에 대한 同盟國들의 不滿이 커질수록 自主性的 要求는 커지게 된다 .

이러한 不必要한 感情은 核國家나 核國家와 同盟을 맺고 있는 國家에 의해서 다같이 克服돼야 한다 . 그러므로 同盟條約은 더이상 本來의 軍事的 目的에 의해서만 規定되어서는 안된다 .

- 8 . 오늘날 美・蘇間 相互抑制力의 達成에 의한 軍事的 兩極構造의 安定은 現狀維持의 傾向을 招來했으며 美・蘇는 實際로 「世界的 核雨傘」만으로 기능하고 있다 .

- 9 . 日本은 非核國家로서 核事業化를 豫訪하고 被核保護國의 地位를 說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이것은 核武器의 威脅을 提起하는 措置가 취해지는 것과 並行돼야한다 . 그러한 措置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로 되고 있는 것은 核武器 最初 使用禁止 (Banning of the first use of Nuclear weapons)이다 .

〈東北亞의 非核化〉

10. 安保를 弱화시키지 않으면서 核雨傘을 벗어내는 方法의 하나는 非核地帶를 設定하는 것이다.

日本에게는 東北「아시아」의 非核化가 第1次的 目標다

11. 非核地帶 (Nuclear-free-zone)를 設定한다는 것은 單純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中共이 「유엔」에 加入한 지금은 東北亞細亞의 非核地帶 設定을 심각히 檢討할 때이다.

中共自身도 1971年 「유엔」總회에서 非核地帶 設定을 提議하였다.

12. 日本은 1972年 8月 中共과 關係를 正常化하고 平和5原則에 合議함으로써 地域的인 軍縮問題를 提起하였다.

13. 非核地帶 協定을 成功시키기 위해서는 地域을 東北亞 非核國家들의 領土, 領海, 領空에 制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日本과 南, 北韓만을 包含시키는 것은 좀 狹少하다. 非核地帶가 狹少할수록 非核條約의 効果는 적다.

그러나 좁은 地域에서나마 合議에 到達될 수 있는 可能性이 크다는 것은 重要한 意味가 있다. 좁은 非核地帶는 보다 擴大된 非核地帶를 위한 出發點이 된다.

14. 이와같은 非核地帶 設定의 政治的 効果는 무엇일까?

가. 日本의 非核政策 (核武器의 所有, 生産導入의 反對)에 대한 國際的 信賴를 얻게될 것이며 日本의 軍事化에 대한 疑惑을 지우게 될 것이다.

나. 美·蘇, 中共間의 緩衝地帶로써 韓半島의 安定과 緊張을 減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5. 南, 北韓을 同時에 非核地帶에 包含시킨다는 것은 最近 시작된 南, 北韓 對話의 發展을 考慮한 것이다. 日·中共間 關係正常化에 따라 日本, 北韓間 關係改善이 이루어질 것이다. 現在로 보아 日本, 南,

北韓을 包含하는 非核地帶의 設定의 可能性이 크다.

16. 이것은 政治的 狀況이 許容함에 따라 점차 擴大될 수 있을 것이다. 可能的 地域은 ASEAN이 있다. 越南戰이 끝난후는 「인도 차이나」半島도 非核地帶의 可能地域이 될 수 있다.
17. 日·中共 關係의 關係正常化는 東「아시아」에 있어서 地域的인 軍備縮小를 成就할 수 있는 可能性을 增大시켜 왔다.

〈分析 및 評價〉

1. 日本이 戰後 經濟的 大國으로 成長하고 「닉슨」·「독트린」으로 인하여 「아시아」에 대한 役割을 增大하게 됨에 따라 獨自的 核武裝을 包含한 日本의 再軍備問題가 심각한 論争點이 되고 있음.
2. 筆者 「주노스게·기시다」(「아사히」新聞 論說委員)는 核武器의 軍事的, 政治的 意義의 減少, 核潛在力의 開發 등으로 日本의 核武裝自体가 不必要하며, 領土의 狹少性, 資源의 海外依存 등과 같은 軍事大國化의 客觀的 制約이었기 때문에 日本이 非核政策을 採択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3. 筆者의 非核地帶 構想은 日本이 美國의 核 保護國으로부터 脱避하는데 있어서 自体 核武裝을 하지 않고도 核威脅이나 安保의 弱화를 防止하는 方法으로 提示하고 있으며, 政治的, 經濟的 犧牲을 招來할 軍事化 또는 核國家化를 反對하는 立場으로 보임.
4. 「기시다」는 日本을 비롯하여 南北韓을 非核地帶化하자고 提案하고 있는데 中共도 東北「아시아」非核地帶 實情을 提案하고 있다. 그 意圖는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豫防하고 이 地域에서 唯一한 核國家로 行세 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判斷됨.
5. 北韓도 非核地帶 設定을 支持하고 있으나 韓國이 核禁 條約에

加入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가담하지 않고 있는 點으로 보아 그것은 순전히 非核化를 憑藉한 韓國의 軍事的 弱화를 피해 보려는 저의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非核地帶 提案을 韓國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評価됨 .

- 6 . 日本은 核保有를 拋棄함으로써 強大國으로서의 威信과 役割을 縮小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며 核禁條約에 加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核武裝의 길이 열려 있고 또 現在의 防衛費 增加趨勢등을 감안할때 美國의 核雨傘에 대한 不滿이 커지면 獨自的 核武裝을 서두르게 될 可能性이 크다고 判斷됨 .
- 7 . 美國이 中共을 牽制하기 위하여 日本의 再武裝 또는 核開發을 支援할 可能性도 있다고 볼 수 있다 . 最近 「클래멘스」美國防次官이 日本實業人들에게 말한 日本의 反戰憲法 改正等을 主張한 發言은 注目됨 .
- 8 . 南・北韓을 同時에 包含시키는 日本의 非核地帶 設定은 韓半島의 現狀固定을 安定시키려는 強大國들의 움직임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提案이긴 하나 美國에서도 日本 및 韓半島 非核地帶化 論議가 있었던 것과 같이 아직 流動的인 狀態에 있는 韓半島의 緊張緩和 段階에서 軍事的 中立化를 意味하는 非核地帶 構想은 現實性이 없다고 評価됨 . (73.1.2 씨 ~ 비발)

〈蘇 聯〉

蘇聯의 「아시아」안보体制 構想

昨年 3月 蘇聯 共産党 書記長 「브레즈네프」가 第15次 蘇聯 노조大會에서 「아시아」 안보体制 構想에 대한 問題를 表面化시킨 이래 최근 蘇聯에서는 「아시아」集團 安全保障의 確立을 呼訴하는 論調가 急増되고 있음.

1. 內容要約

가. 蘇聯의 「아시아」 안보体制 構想 提唱의 경위

- 1) 1969.6 蘇聯 共産党 書記長 「브레즈네프」가 「아시아」 안보体制의 構想을 提唱함.
- 2) 1972.3 蘇聯 共産党 書記長 「브레즈네프」가 「아시아」 안보体制의 實現을 再強調
- 3) 1972.10 蘇聯邦 最高會議議長 「포드고르니이」가 中東을 포함한 「아시아」 全域에 集團 安보構想을 擴大해야 한다고 言明

나. 蘇聯이 主張하는 「아시아」 안보体制의 5個原則

- 1) 國家間의 武力行使의 拋棄
- 2) 國家間의 主權尊重
- 3) 國境의 不可侵
- 4) 內政 不干涉
- 5) 互惠平等에 基礎한 經濟的인 協力

다. 亞細亞 安보体制의 構想을 再燃시킨 最近의 亞細亞 情勢

- 1) 1972.6 印度, 「파키스탄」이 「벵그라데쉬」 問題를 포함하여

武力 不行使 和平協定을 締結

2) 「인도네시아」에서는 越南 和平協定 調印이 迫頭

3) 1972.7 南·北韓의 武力 不行使의 合意 및 南·北 對話의 進展

4) 美·中, 美·日 首腦會談을 통해서 中共이 台灣에 대한 主權을 認定하는 일방 武力行使는 하지 않겠다는 暗黙의 諒解

라 蘇聯의 亞細亞 安保体制의 構想에 대한 各國의 反應

1) 中 共

中共을 包圍, 孤立시키기 위한 戰略의 일환이라고 正面으로 反對하고 있음.

2) 越盟과 北韓

積極적인 反應을 보이지 않으며 蘇聯과 共同步調를 取하고 있지 않음.

3) 日 本

北方領土 返還問題에 대한 蘇聯의 強硬態度에 不滿을 품고 冷淡한 態度를 取하고 있음.

2. 分 析

가. 蘇聯은 1972年 「아시아」에서 造成된 國際적인 解氷「무-드」가 蘇聯이 主張하는 「아시아」 安保体制의 構想을 實現시키는데 유리한 情勢를 造成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음.

나. 蘇聯은 「아시아」 安保体制의 構想을 提唱한 이래 亞細亞 諸國의 冷淡한 反應에 부닥쳐 尙속까지 「아시아」 安保体制의 具體적인 內容을 提示하지 못하고 있음.

다 특히 中共의 정면적인 反對와 北韓과 越盟의 非協調적인 態度 反應으로 因하여 「아시아」 安保体制의 構想은 난관에 逢着하고 있음.

라. 北方 領土問題와 關聯하여 日本 亦是 冷淡한 態度를 取하고 있어

蘇聯이 「아시아」 安保体制의 構想을 實現시키는데 障礙的 要素가 되고 있음.

3. 評 価

가. 最近 蘇聯이 「아시아」 安保体制 構想問題를 再燃시킨 저의는 「아시아」 諸國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의 撤収를 促進시켜 越南戰後 對 亞細亞 外交에서 「이니시아티브」를 掌握하려는데 있다고 評價됨.

나. 또 한편으로는 蘇聯 領土에 대하여 不滿을 품고 있는 中共의 反蘇 路線을 孤立化시키는데 저의가 있다고 判斷됨.

다. 越盟과 北韓이 蘇聯의 「아시아」 安保体制에 共同補助를 取하지 않는 것은 中·蘇의 紛爭에서 中立的인 態度를 取하려는데 起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라. 蘇聯의 「아시아」集團 安保体制의 構想은 「아시아」 國家의 冷淡한 反應에 逢着하여 歐洲 安保會議 開催의 實現(73.6에 開催 予定)과 같이 순조롭게 實現될 可能性이 稀薄하다고 展望됨.

(73.1.10 마이니찌新聞)

蘇聯經濟의 赤信號

1. 內容要約

가. 蘇聯 經濟成長의 鈍化現象

1) 1969 ~ 1972 年間の 工業成長率

1969 ~ 7.1 % (前年比)

1970 ~ 8.5 % (")

1971 ~ 7.7 % (")

1972 ~ 6.5 % (")

1973 ~ 5.8 % (計 劃)

2) 1972年の 經濟実績

- 工業生産의 成長率~6.5%(計劃 6.9%)
- 輕工業部門의 成長率~4%(計劃 6.7%)
- 食品工業의 成長率~2%(計劃 5.7%)
- 穀物總生産量~1億6,800万吨(計劃 1億9,740万吨)

3) 1973年の 工業成長率

5.8% 成長計劃

이는 戰時 및 「스타린」 時代의 第2次 5個年 計劃의 初年度를 除外하고는 最低水準의 目標임.

나. 經濟不振의 要因

1) 技術面에서의 落後性

蘇聯의 化學工業, 石油精製, 道路輸送, 消費者用 耐久材, 牧畜, 其他 面에서 西方世界보다 뒤떨어져 있음.

2) 複雜해진 經濟

中央集權的인 立案과 統制는 急速한 工業化의 初期段階에는 有効하나 高度로 發展된 經濟에서는 細密한 部分까지 中央에서 計劃할 수 없음.

3) 質보다 量에 置重

計劃目標量을 超過達成하기 爲해 質보다는 量에 置重하여 生産을 하고 있음.

4) 指令만으로서는 改善이 不可能

指令만으로서 欠陥을 改善하려고 하기 때문에 勞動者의 作業이 非能率的이며 1人當 勞動生産性이 美國에 比해 뒤떨어지고 있음

다. 蘇聯 威信의 低下

經濟成長의 沈滯로 蘇聯은 美國으로부터 大量의 食糧을 輸入해야 하며, 美國을 비롯한 主要資本主義 國家에 借款을 要請하는 등 蘇聯의

威信이 低下되고 있음.

2. 分析 및 評價

가. 技術面에서의 落後, 中央集權적인 統制, 質보다 量에 置重한 生産, 특히 勞動者들의 創意力의 不在等에 原因을 둔 經濟成長의 沈滯現象은 이미 1960年代의 初期부터 나타나기 始作하였음.

나. 1960年代의 工業成長의 鈍化現象

年平均成長率

種 別	1956 ~ 1960年	1961 ~ 1965年
國民總生産	6 %	4 %
鉉工業生産	8 %	6 %
農業生産	3 %	2 %

(美國議會合同經濟委員會報告書 參照함)

다. 經濟改革의 斷行

經濟成長의 沈滯로 因하여 蘇聯政府는 이의 改善策으로 「리버만」 教授의 「利潤導入」理論을 適用, 經濟改革을 實施하였음.

o 經濟改革의 重點

- (1) 中央計劃에 市場性和 利潤性を 賦与
- (2) 獨立採算制度의 實施와 企業체에 어느 程度의 自主性 賦与
- (3) 獎勵制度를 採択하여 勞動者에게 物質的 刺戟을 鼓吹

라. 經濟改革을 斷行하였으나 經濟成長은 如前히 沈滯一路에 있기 때문에 이를 打開하기 위해서는 西方의 傳統的인 經濟理論과 市場 「메카니즘」의 導入이 不可避한 것으로 判斷됨.

마. 農業生産의 不振과 經濟成長의 沈滯로 蘇聯政府는 美國을 爲始한 資本主義 國家로 부터 앞으로 보다 많은 借款을 要請하게 될 것으로 評價됨.

바. 國際的인 政治面에서는 國內經濟事情의 惡化가 原因이 되어 最近 蘇聯政府는 平和共存政策을 強調하고 東·西軍縮會談과 越南戰의 早期妥結에 熱意를 表示해 온 것으로 評價됨.

(1973.1.23 世界週報)

蘇聯의 「아시아」集團 安保 構想과 現實

<內容要約>

1. 蘇聯은 美國이 「아시아」로 부터 軍事的인 後退를 하고 있는 狀況을 利用하여 이 地域에 대한 그들의 役割을 增大시키려 하고 있다
2. 蘇聯의 이러한 努力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表現되고 있다.
가. 「아시아」國家들에게 “集團安保” 「프로그램」에 대한 宣傳
나. 日本과의 關係改善 試圖 등
3. 그러나 蘇聯의 集團安保 提議는 大部分 「아시아」 國家들의 깊은 不信과 無關心에 逢着하고 있다.
例外的으로 印度나 「방글라데쉬」, 「이란」같은 國家는 蘇聯의 提案에 支持를 보내고 있다.
4. 最近 蘇聯의 主要新聞이나 放送의 論評들은 「아시아」集團 安保에 中共의 參與를 強力히 希望하면서 조만간 現 中共 指導層의 態度가 보다 “現實的”으로 되어 反蘇的 態度를 緩和할 것을 提議하고 있다.
5. 蘇聯이 構想하고 있는 「아시아」集團 安保는 今年 여름으로 予定된 「유럽」 安保協力會議과 비슷한 國際會議 形態인 것 같다.
6. 蘇聯은 이러한 國際會議에서 어떤 広範圍한 原則의 宣言 또는 보다 緊密한 協調를 위한 計劃이 마련될 것을 期待하고 있다.
7. 이러한 蘇聯의 集團安保 概念은 「아시아」로 부터 全美軍의 撤収와 地域安保 機構의 廢棄등을 要求하고 있긴 하지만 安保의 측면보다는 貿易이나 技術的 交流의 增大와 같은 協力을 더욱 強調하고 있다.

〈分析 및 評價〉

1. 美軍 撤収後의 「아시아」에 대한 蘇聯의 關心은 이 地域에 대한 絶對的인 中共의 影響力을 牽制하고 越南 終戰以後 緊張緩和로 指圖하고 있는 「아시아」의 情勢속에서 그들의 「이니셔티브」를 行使해 보려는 強大國의 關心으로 分析됨.
2. 蘇聯의 「아시아」集團 安保構想은 「유럽」의 安保協力會議와 같은 方式을 「아시아」에 試圖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아시아」의 緊張緩和 構造가 「유럽」과는 判異한 狀況에 있으므로 適用의 難點이 있는 것으로 判斷됨.
3. 蘇聯이 「아시아」集團 安保에 中共의 參與를 強調한 것은 「아시아」에 있어서 強力한 中共의 影響力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는 現實과도 中共을 「아시아」 集團安保 構想에 參與시킴으로써 中·蘇間에 争點으로 되어 있는 國境問題를 現狀 固定에서 解決해 보려는 意圖로 分析됨.
4. 現 段階에서 蘇聯이 「아시아」 集團安保를 宣傳하고 있는 이면은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目的을 達成하고자 하는 意圖로 分析됨.
 - 가. 「유럽」의 問題에 있어서 「유럽」 國家로서 「아시아」의 問題에 있어서는 「아시아」 國家로서 각각 그들의 強大國의 理解關係를 便利하게 正當化한다.
 - 나. 「아시아」地域 國家들과의 쌍무적 關係를 增進시킨다.
(예 : 對日關係의 正常化 등)
5. 蘇聯이 宣傳하고 있는 「아시아」 集團安保는 蘇聯이 「아시아」에 對한 새로운 強大國의 關心을 持續시키려는 저의일 뿐 아직 國際的 緊張緩和가 큰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는 現實에서 事實上의 「아시아」 安保體制를 定立하는 問題와는 거리가 먼 空虛한 概念으로 評價됨.

(1973.3.30 더·선)

蘇聯共産党 中央委員会總會 開催와 政治局改編에 對한 分析 및 評價

1. 內容要約

- 가. 3.26 蘇聯 共産党 中央委 總會가 開催되어 「브레즈네프」書記長이 最近의 外交政策에 關해서 보고한데 이어 「포드고르니」最高會議幹部會議長 「코시긴」首相이 演說을 하고 「브레즈네프」書記長의 美國, 西獨 訪問, 「다나카」首相의 訪蘇등 外交上의 主要問題에 對하여 討議하였다.
- 나. 3.27에는 「브레즈네프」書記長의 外交政策에 關한 報告에 對하여 討論을 統行하고 最後에 「브레즈네프」書記長의 決議演說이 있은 後 外交政策에 關한 決議를 採択함과 동시에 政治局 人事問題에 關해서 決定을 내리고 閉幕되었다.
- 다. 人事問題에 있어서는 15人 政治局으로부터 「표들·셀레스트」 및 「젠나니·보로노프」등 2명의 古參政治局員을 逐出하는 한편 外相 「안드레이·그로미코」 國防相 「안드레이·그레츠크」 및 秘密警察 責任者 「유리·안드로포프」등 3명을 새로 登用키로 하였다.
- 라. 이로써 政治局員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났다.

2. 分 析

- 가. 蘇聯 共産党 中央委 總會는 原則적으로 年2回 (봄과 年末) 開催키로 되어 있으며 蘇聯 共産党 大會의 決定에 依拠 蘇聯이 當面한 對内外 主要政策問題를 取扱하고 具體的인 決定을 내리게 되어 있음
- 나. 또한 이번 蘇聯 共産党 中央委 總會에서 大幅的인 改革을 보게 된 政治局은 蘇聯 共産党 中央委 總會의 休會期間에 同 總會를 代行하여 蘇聯 共産党的 政策 決定을 하는 最高 指導 機關인.

다. 이번에 政治局員에서 解任된 「셀레스트」는 昨年 5月 「우쿠라이나」 党 第1書記에서 解任, 副首相으로 格下되고 지난 4月에는 「民族主義的 傾向」을 갖는 자라고 「콤무니스트·우쿠라이나」紙에 의해 猛烈的한 批判을 받은 바 있음.

라. 「보로노프」氏도 1971年에 兼任하고 있던 「로시아」 共和國 首相 職에서 解任, 人民統制委員會 議長으로 格下되었으며, 그 理由는 農業 政策 問題를 圍繞하고 「브레즈네프」 書記長과 對立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음.

마. 이번 「國防相」 「그레치코」 外相 「그로미코」 秘密警察責任者 「안드로포프」의 政治局 登用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分析됨.

- 1) 國防相 「그레치코」 - 「체코」軍事 介入 이래 抬頭하고 있는 軍의 實力을 考慮하고 中共과의 軍事對決에 万全을 기하며 SACT (戰略 武器 制限交渉), MBFR (歐洲兵力相互均衡削減交渉) 등 複雜한 問題에 軍部の 最高責任者の 意向을 政策決定에 反映하기 위한 점.
- 2) 外相 「그로미코」 - 「브레즈네프」 外交를 推進하는데 있어서의 功績을 높이 評價한 點
- 3) 秘密警察責任者 「안드로포프」 - 内部的으로의 「이데오르기」面에서 團束을 強化하기 위한 點

3. 評 価

가. 蘇聯 共產黨 書記長 「브레즈네프」는 3.27 閉幕된 蘇聯 共產黨 中央委 總會에서 自身の 對西邦 宥和政策에 대한 支持를 獲得하고 最強의 政敵을 肅請하는데 成功함으로써 「트로이카」 体制에서 第1의 實力者로 君臨할 수 있는 搖之不動의 地位를 確保하게 된 것으로 評價됨.

〈中 共〉

周恩来는 毛沢東을 相對로 權力鬭爭을 벌일 것인가?

1. 內 容

가. 「핑퐁」外交는 누가 制定?

周恩来· 이번 탁구大會는 毛主席의 特別한 注意를 끌었다. ... 우리 外交部는 美國을 除外한 如何한 나라에서 中國訪問要求가 있을 때 招請할 準備를 하고 있었다. 毛主席이 美國도 包含해야 한다고 하여 日本으로 連絡했다.

그러므로 「핑퐁」外交 制定者는 毛沢東이고 周恩来는 執行者였음.

나. 美·中共解氷은 누가 決定?

毛沢東... · 外交部에서 美國人訪問을 研究中인데 「닉슨」과 같은 경우라도 오게해야하는지? 물론 歡迎한다. 그가 오기를 願한다면 그와 會談하고 싶다. 成功해도 좋고 입씨름해도 좋다. 旅行으로 와도 좋고 大統領身分으로 와도 좋다.

美·中共 解氷決定者는 毛沢東이고 周恩来는 行動者였다.

다. 미소(微笑)外交는 누가 策定?

미소(微笑)外交는 바로 平和5原則 外交政策임. 中共의 外交戰略은 根本的으로 변하지 않았음. 변했다면 手段과 形式만이 변했을 뿐이며 本質的으로 변하지 않았음. 平和5原則外交政策의 策定者는 毛沢東이고 周恩来는 推進者임.

라. 資本, 修正主義 官吏 및 幹部의 復歸는 누구의 뜻인가?

이것은 本來 毛沢東이 同志들에 대한 政策임. 毛沢東은 · 大多數의 同志들은 좋으며 좋지 못한 同志는 小數·라고 믿고 있음. 過誤

를 犯한 同志들을 教育시킨 後 復歸시킨 것임.

이것은 바로 毛沢東主張임

마. 周恩来은 實權을 掌握하고 있는지?

周恩来은 中共의 總理로서 國事の 處理 및 外資의 接待는 그의 責任임. 一般的으로 周恩來의 奔走한 活動은 그가 實權을 掌握하고 있는 証拠라고 생각하나 이런 바쁜 生活속에서 어떻게 國家大計를 생각할 수 있겠는가? 실은 正反對로 그가 實權을 掌握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임.

바. 임포肅清은 누구의 힘?

周恩來의 黨權, 軍事權 모두가 임포에 비해 대단치 못했고 政權實力도 그리크지 못했음. 그래서 한때는 高崗이 總理가 되려 했었고 彭真이 總理職位를 노린적이 있었음.

그러므로 임포를 肅清할 수 있었던 者는 毛沢東 한사람 뿐이었음.

사. 周恩來가 江青派를 卮倒하고 있는지?

中共黨內에 周恩來, 江青 두 派가 있음. 中共의 現 最高 核心人物 6名中 江青派 4名, 周恩來派 2名임. 江青派가 權力이나 地位에 있어 優勢, 江青派중 江青, 張春橋, 姚文元등의 權力, 地位, 實力은 날로 올라가 中共 第2代 最高 核心人物이 될 것임.

아. 누가 真正으로 實權을 掌握하고 있는가?

毛沢東은 中國歷史에 精通하여 中共의 歷代 權力鬭爭에 대해 完全히 把握하고 있으며 過去의 鬭爭經驗으로 미루어 아무도 그를 凌駕할 수 없음. 鬭爭手段에 있어서나 實力에 있어서 不足한 周恩來가 어찌 毛沢東이 掌握한 實權을 빼앗을 수 있을까?

자. 周恩来는 修正主義者인가?

周恩来가 中間派이며 穩健派임에는 틀림없음. 만일 周恩来가 修正主義者였다면 어찌 劉小奇편에 서서 毛沢東에 對抗하지 않았는가? 劉小奇는 어찌서 周恩来를 淘汰하고 彭真으로 그 職位를 代行하게 하려 하였으며 임포는 周恩来를 肅清하고 陳伯達에게 그 職을 맡기려 하였는가? 周恩来는 毛沢東의 戰友이며 忠臣일 뿐임.

차. 周恩来는 어찌서 毛沢東에게 忠誠하는가?

周恩来는 本來 左傾主義者로서 瞿秋白, 李立三, 王朝등을 追從하였음. 당시 周恩来는 軍事, 政治적으로 毛沢東에 대해 극력 反對하고 無慘히 攻撃, 鬭爭하였음. 後에 毛沢東의 政治思想 軍事路線 및 革命理論의 正確性を 體驗하게 되었고 毛沢東이 中共의 領首가 된 後에 自身에 대해 報復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信用하고 登庸해준데 感激하여 毛沢東에 대한 忠誠心은 계속 變하지 않고 있음.

타. 周恩来가 毛沢東에게 服從하는 原因

周恩来는 政治家, 外交家, 活動家, 行政家로서 이 方面에서는 아무도 그를 따를 수 없음. 그러나 그는 總理 宰相 및 參謀型 人物로서 훌륭한 政治 演出家の 意思와 指示에 따르고 있을 뿐으로 周恩來의 能爛한 演技는 演出家인 毛沢東에게 忠誠하고 擁護하고 잘 追從하고 있기 때문임.

2. 分析 및 評價

가. 周恩來를 「中共의 理想的인 領導者」, 實質적으로 實權을 잡고 있는 것은 周恩來. (毛·林權力鬭爭 다음은 毛·周싸움이 될 것) 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世論이었음.

나. 文化大革命後 美, 中共 解氷, 「닉슨」招請 및 各種外交關係등 外交政策의 轉換과 對內的으로 毛沢東 肖像化의 減少, 毛沢東 個人 崇拜熱 減退, 資本, 修正主義 幹部들의 復歸 및 周恩來의 外賓接待, 公式席上에의 많은 參席등을 들어 周恩來가 實權을 掌握하고 있는 것으로 誤認하고 있으나 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分析됨

다. 周恩來는 思想的인 面, 理論的인 面, 軍事的인 面, 政略的인 面, 등에서 毛沢東에게 比較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감히 毛沢東과 權力鬭爭을 벌일만한 人物이 못되며 周恩來 自身도 過去의 恩惠를 생각하여 不純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으로 分析됨.

라. 毛沢東은 劉小奇와 임표등에 대한 鬭爭 經驗으로 다시 前轍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點을 考慮할 때 周恩來는 毛沢東의 權力鬭爭의 對象이라기 보다 毛沢東의 後繼問題에 대한 競爭者중의 한 사람으로 생각되나 이미 年老하다는 點으로 이루어 볼때 다음 後繼者는 江青派의 要員이 될 것으로 判斷됨. (72.10.11 전망)

最近 中共外交의 3個 目的

1. 內 容

中共의 外交는 「평동」, 微笑, 外交 推進以後 柔軟路線을 걸기 始作한 것으로 생각되나 毛沢東의 「繼續鬭爭哲學」을 驅使하고 있는 限柔軟路線이란 있을 수 없다.

中共外交의 3個目的:

가. 物資, 科學技術 欠乏의 空白을 메꾸기 위함.

中共은 大國이란 威信을 세우기 위하여 食糧이 不足한 狀況下에서

도 無理하게 核武器를 發展시키고 있는데 物資 科學技術의 不足은 外國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實情.

나. 周恩來 自身の 權力 確保

毛沢東의 「3면홍기」失敗, 「文化大革命」의 過誤, 「92事件」에서의 林彪肅清등을 分析해 볼때 모두 周恩來와 關聯되었다. 現在 中共內部的 거센 물결 속에서 첫째로 埋葬될 사람은 毛沢東이고 두 번째가 周恩來이다.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의 壓力과 自身の 權力을 確保하기 위하여는 毛沢東死亡前에 措置를 취해야 되겠는데 그 중의 하나가 柔軟外交의 採択임.

다. 台灣의 政治的 反擊防止

台灣이 비록 經濟繁榮, 社會安定 및 生活이 自由로우나 對外的으로 劣勢에 있으므로 外交的으로 迅速히 孤立시키고 統一戰線을 活用, 政治的 反擊을 沮止하려는 것임.

2. 分析 및 評價

가. 最近 中共의 孤立政策에서 柔軟政策으로는 轉換은 對內外的인 狀況變化에 適應키 위한 것으로 보임.

나. 對外的으로는 蘇聯과 敵對的으로 對立하고 있는 狀況에서 最大의 敵(蘇聯)을 國際的으로 孤立하여 有利한 立場에 서기 위한 것이며

다. 國內的으로는 「3면홍기」政策의 失敗로 國內經濟가 落後되고 政治的인 不安이 造成되어 이에 對한 國民의 反撥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判斷됨

라. 또한 中共이 柔軟外交를 展開하는 것은 孤立狀態에 놓여 있는 台灣의 困難한 處地에 더욱 拍車를 加하며 이와 並行하여 台灣本土 福祉懷柔政策을 展開하려는데 그 底意가 있음.

마. 中共이 「유엔」에 加入한 이래 柔軟外交를 展開하고 있으나 이것은 그들이 指向하는 「人民解放戰略」의 變化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며 어디까지나 「人民解放戰略」을 底流로 하고 狀況變化에 適應하려는 것임으로 그들의 基本戰略에는 變함이 없다고 評価됨.

* 삼면홍기

삼면홍기란 「人民公社」, 「大躍進」, 「總路線」을 말하며 삼면홍기의 失敗로 한때 毛沢東이 劉小奇에게 實權을 넘겨주는 事態까지 惹起한 바 있었음. (72.11.1 展覽)

中共 海洋探查 4 原則 提示

4. 2 「유엔」駐在 中共代表 「한두 조강국은 學術研究를 假裝 開發途上國의 海洋資源을 掠奪하기 위해 海洋情報를 蒐集하고 있다」고 非難하면서 海洋探查 4 原則을 提示

海洋探查 4 原則 內容

1. 沿岸國의 同意없이는 어떠한 國家도 沿岸國의 領海海域에서 海洋資源 調査를 해서는 안된다.
2. 領海隣接의 管轄海域에 대해서는 沿岸國이 排他的인 管轄圈을 가지기 때문에 海洋調査에는 沿岸國의 事前 同意를 얻어야 한다.
3. 外國의 調査團이 沿岸國管轄領域에서 研究를 實施하는 경우는 그 나라의 科學者도 이에 參與해야 한다.
4. 公海海洋資源은 모든 國民의 共同所有이다.

<分析 및 評價>

1. 3.15 中共의 우리나라 西海海底 開發事業에 관한 非難에 대해 우리 側은 즉각 中共과 大陸棚 境界協議 用意를 表明한 바 있으나 中共은 우리의 協商 提議에는 応答치 않고 「유엔」에서 問題를 提起하고 있는 것은 注目할 만한 것으로 分析됨.
2. 上記의 4原則은 革新的인 宣言도 새로운 提案도 아닌 우리나라의 海洋政策과 큰 差異가 없는 것으로서 現在 適用되는 既存 海洋秩序를 再確認하는 것에 不過하다는 評이며
3. 71年 「유엔」總會에서 決議한 「海洋科学研究·調査에 관한 3原則」·註釈에 「海洋科学研究調査를 구실로 海洋資源에 對한 어떠한 權利도 主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中共의 이번 宣言이 「유엔」의 決議보다 더 弱勢하다는 것으로 判이되고 있음.
4. 現在 우리와 中共間의 再爭點은 大陸棚에 管轄權 다툼이겠으나 中共이 大陸棚의 境界에 對하여 自國의 立場을 밝히지 않고 다만 後進沿岸國의 利益을 保護하도록 範圍를 넓혀야 한다는 立場만 밝히고 있는 事實임.
5. 우리나라는 中國쪽 大陸棚 境界를 「中間線」에 의해 自由中國은 「陸地領土의 自然延長」에 따라 管轄權이 미친다고 主張하고 있는데 만약 中共이 「自然延長」規則을 따른다면 紛爭의 性格이 複雜해 질 것으로 보임.
6. 또 境界를 정한다 하더라도 두 나라의 分轄線에 걸친 油田의 開發을 어떻게 하느냐의 問題등이 提起됨으로 兩 當事局이 協議를 통해서 平和的으로 解決하는 것이 가장 理想的이라고 評價됨.
7. 그러나 이 問題에 對하여 中共은 上記 4原則만을 提示하고 直接的인 回答을 回避하고 있으나 이 地域에서 石油資源이 發見될 경우 韓國의 協商要求에 応해 될 것으로 展望됨. (73.4.4 朝鮮日報)

前 中共 副首相 鄧小平 復歸

< 內 容 >

1. 文革때까지 中國共産黨 總書記의 地位에 있다가 紅衛兵에게 批判받은 鄧小平이 12일 「시하누크」歡迎宴에 健康한 모습으로 出現
2. 鄧小平의 復活은 文革의 收拾이 끝난다는 것으로 되며 內政・正常化・를 向한 里程碑가 될 것임.

< 分析 및 評価 >

1. 文化革命 初期 鄧小平은 劉小奇國家主席과 더불어 「브르조아 反動路線」의 길을 걷는 「劉・鄧라인」의 主謀者로 烙印적했으며 그후 劉小奇의 公式除名에 따라 함께 肅清되었음.
2. 그러나 毛沢東의 後繼者인 林彪 失脚의 「9月變異」以後 周恩來의 地位向上으로 體制의 變化를 招來, 旧幹部들이 大挙 進出하게 되었고 人民日報(72.4.24)도 文革中 批判된 幹部들이 再起用될 것을 示唆한 바 있음.
3. 現在 요문원(姚文元), 장춘교(張春橋) 등 少壯層 勢力이 膨脹하고 있으나 그들이 黨, 政府指導層에 서기는 未熟하다는 評으로 보아 鄧小平의 再登場은 指導體制를 補強하기 위한 措置로 解釈되며 文革期間中 자취를 감추었던 前實權者의 人物들이 再登場할 것으로 보임.
4. 지금 中共이 修正主義者가 去勢된 「修正主義 外交」를 그리고 柔軟한 經濟外交를 펴고 있는 이때, 鄧小平을 再起用한 것은 앞으로 對內의 修正主義政策을 積極推進하려는 意圖인 것으로 보이며
5. 특히 鄧小平이 親蘇派라는 點을 考慮할 때 現在 蘇聯과의 緊張狀態를 和解로 이끌려는 長期的인 布石으로 評価됨

東欧国家들의 中共外交政策 批判

<內容要約>

1. 東欧共產國家(「헝가리」,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의 新聞들은 中共의 對外政策이 「유럽」緊張緩和를 妨害하고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2. 이곳 情勢分析家들은 美國이나 中共은 蘇聯이 「유럽」과 「아시아」의 兩 正面에서 多같이 손을 댈 수 없게 되기를 巴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中共은 極東이나 西歐에서 美國이 軍事的으로 干預하도록 主薦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3. 中共의 「유럽」政策에 對한 東欧國家들의 攻擊은 「유럽」安保會議을 위한 準備가 進展됨에 따라 深刻化하고 있다.
4. 東欧의 態度는 西方觀測者들에게 매우 興味로운 點이 있다. 東欧國家들은 蘇聯의 同盟國便에서 中共의 對「유럽」外交活動에 防禦的 態度를 취하고 있다. 東欧國家들은 中共이 緊張緩和를 反對하는 反動的 西歐人들을 鼓舞하고 있다고 主張한다.
5. 東欧共產國家의 한 觀리는 中共의 經濟的 힘은 없으나 政治的 比重은 매우 效果的으로 活用하고 있다고 말했다.
6. 中共의 意圖는 蘇聯으로 하여금 兩 正面을 維持하도록 하는 것이며 東欧의 蘇聯同盟國으로 하여금 「유고」나 「루마니아」처럼 中蘇紛爭에 中立的 立場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指摘되고 있다.
7. 지난 두달 동안 東欧國家는 中共非難을 퍼왔다.
 - 지난 4月 「헝가리」 共產黨 中央委 聲明은 中共이 蘇聯이 後援하는 國際的 活動을 反對하고 있다고 批判했다.
 - 「체코」 指導者 「구스타프 후사크」는 4月 社會主義 國家들은 中共과 「알바니아」만을 除外하고는 사이 좋게 지내고 있다고

말한적이 있다.

- 「헝가리」의 한 新聞論說은 中共과 「나토」 또는 「유럽」共同市場勢力은 反蘇의 立場을 같이하며 中共은 「유럽」安保會議가 西歐의 同盟關係를 破壞하거나 西歐로부터 美國의 추방을 招來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 「불가리아」의 한 「라디오 코멘트」는 中共이 西獨의 緊張緩和 努力을 反對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유럽」의 正常化는 蘇聯으로 하여금 「아시아」에 손을 쓸수있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主張했다.

<分析 및 評価>

1. 中共은 蘇聯의 對中共立場을 強化시켜주는 「유럽」의 安定을 원치 않기 때문에 最近 「유럽」의 緊張緩和 進展을 妨害하려는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이에 反해 東歐共產國家들은 最近 中共의 外交政策을 批判하고 「유럽」緊張緩和를 追求하고 있는 蘇聯의 立場을 代辦하는 主張들을 表面化하고 있음.
3. 中共의 「유럽」에 대한 外交政策의 目標은
 - 가. 蘇聯의 「유럽」正面을 繼續 不安하게 하여 「아시아」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을 弱화
 - 나. 東歐共產國家들이 中·蘇紛争에 대해 中立的 態度를 취하도록 說得다. 西歐 共同体와의 關係改善을 圖謀하는 것이며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 中共은
 - 1) 蘇聯方式의 「유럽」緊張緩和 進展을 妨害
 - 2) 蘇聯과 東歐關係를 離間

3) 西歐에 대한 「유럽」의 위협을 경고

4) 美軍의 「유럽」殘留를 企圖하는 것으로 分析됨.

東歐 共產國家들이 中共의 政策을 批判하고 있는 理由는 그들이 密接한 蘇聯과의 理解關係 때문에 蘇聯을 支持하지 않을 수 없는 立場에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中共과 西歐와의 結託을 警戒하려는 意圖인 것으로 判斷됨.

2) 4 大國關係

〈美·日關係〉

가장 큰 「닉슨·쇼크」

1. 日本은 美國과 日本과의 既存安定關係를 沮止하는 「닉슨 쇼크」는 美國이 전에 想像하였던것 보다 더 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이 結論이 最終的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抽象的이나 이 見解가 正確하지 않다면 亞細亞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經濟戰略 및 政治關係에 莫大한 反射作用이 일어날 것이다.
3. 美國이 1971 - 1972年 盟邦인 日本과 議論없이 美大統領의 中共訪問, 換率變動 및 暫定輸入統制를 決定한것 등은 日本에서 「닉슨 쇼크」로 알려졌다.
4. 이 「닉슨 쇼크」는 오래동안 持續하여 왔는 日本의 對美 依存心を 뒤집어엎게 하고 있다.
5. 今年에 뒤이어 일어나는 不換率 決定은 過去의 信任이 衰退하여졌기 때문에 別心理的인 影響은 없다.
6. 迫力的인 「나카소네」日本 通商相은 이 變化의 影響에 대하여 言及하기를
 - 우리를 가장 크게 「쇼크」시킨것은 美國이 그렇게 弱하게 되어 우리를 「쇼크」시킨 것이다. 우리는 「탈라」가 虛弱하게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根本的으로 「인플레이션」, 美國의 勞動生産性 저하, 勞動時間의 顯著한 輕減과 우리들이 美國으로부터 購入하는 商品의 品質格下 等으로 因하여 알 수 있다. 모든 이런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 우리는 또한 美國의 多極的 企業에 關한 行動을 規定짓지 못하는 美國政界의 無能力함을 認識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多極的 企業을 그리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
 美国은 全世界에 700 億弗을 投資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지금 美国은 日本이 美国에 直接 投資할 것을 勸誘하고 있다.
 日本의 많은 企業들은 危險한 開發途上国 보다는 美国에 投資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 政府는 이 「아이디어」가 美国과 日本을 돕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採択 許可하고 있다.

7. 「나카소네」長官의 이와 같은 관측은 모든 推測에 引導할 수 있다.
 日本에서 美国이 弱하다는 것은 結果的으로 兩國關係가 더 가까워져
 日本돈이 美国에 流出되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兩國 經濟를 發展시키는데 도움을 주어 相互 依存關係를 더 強化시
 킬 것이라는 것이다.
8. 이 長期展望은 美·日 安保條約下에 日本地域에서 紛爭이 일어났을때
 軍事的으로 弱한 日本을 防衛하기 위하여 負擔하고 있는 美国의 軍
 事費를 支援하는 結果가 될것이라고 본다.
9. 한때 日本은 美国이 이 세상에서 가장 強豪하고 가장 富裕하며 가
 장 先進工業國이라고 믿었는데 이제와서는 論難의 対象이 되고 있으
 며 日本은 漸次的으로 美国에 信任度를 減少시킬 것이다.
 日本은 美·蘇間의 兩國體制를 벗어나 새 5國體制를 形成하는데 努
 려 할 것이다.
10. 「나카소네」通商相은 中共과 蘇에게 通商關係가 크게 이루어질 것이
 라고 내다 보았다.
 昨年 美·日 去來는 150 億弗 未滿으로 (日本의 30 億弗 輸出超過
 包含) 予定되었다. 그러나 中共이나 蘇와의 去來는 最高 去來國으로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11. 「나카소네」通商相은 蘇聯과 每年 通商去來가 30 - 40 億弗 그리고

中共과는 約 30 億弗에 달할 것으로 믿고 있다.

- 12 . 이와 같은 通商額은 日·蘇가 「시베리아」開闢에 對한 協定을 締結하며 日·中共關係에 있어서도 中共이 北支와 山東省에 있는 石油을 日本에 輸出하는데 달려 있다.
- 13 . 日本은 現在 「에너지」危機에 逢着하게 된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다. 蘇·中共과 通商去來가 增加된다면 日本의 政治는 修正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14 . 日本의 前後政策은 美國이 世界政策에서 아무 挑戰者 없는 指導者로 役割할 때 形成되었던 것이다. 日本을 美國에게 拘束시켰던 이 政治케턴은 蘇聯이 거의 軍事的으로 대등함을 獲得하였을 때도 변하지 않았다. 日本은 傳統的으로 蘇聯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日의 對蘇政策은 난처한 形便이었다.
- 15 . 1965年 日本은 美國과의 防衛條約을 中共이 攻撃的이라고 보아 漸次的으로 有用하다는 것으로 判明되었기 때문이다.
- 16 . 그러나 이런 모든것은 緊張緩和 趨勢와 美國의 힘의 弱화로 變化하고 말았다. 日本政府가 次期 國利를 위하여 美國의 힘을 뒷받침하여 줄지 그렇지 않으면 美國으로의 依存度를 벗어나 緊張緩和의 趨勢에서 世界政治에 큰 몫을 내걸고 冒險을 하여 볼라는 지는 이 世代에서 가장 큰 問題가 될것이다.

<分析 및 評價>

- 1 . 戰後 美·日 關係는 同盟體制로 政治, 經濟, 軍事 諸分野에서 協力하여 왔으나 美國의 一方的인 對外關係 主導權 行使로 日本은 크게 「쇼크」받아 日本의 自主的인 國利追求 對外關係로 轉向할 것이 日本政府의 움직임으로 보임

2. 美國은 日本과 通商關係에 있어서 赤子貿易을 메꾸기 위하여 日本과 經濟協力體制를 強化하려고 努力할 것이나 많은 利害關係의 衝突이 介在된 채 日本은 美·日 經協을 維持하여 가면서 中·蘇와도 漸次로 去來를 擴大하여 多極體制의 經濟大國으로 實利 貿易을 展開할 것임.
3. 日本은 美國이 虛弱하여짐을 認識하여 自己 防衛를 強化할 것이나 美·日 安保體制의 「테두리」안에서 美·日 協助가 繼續되리라고 評價됨. ((73.3.21 뉴-욕타임즈)

今後的 美·日·中의 3角關係

「마셜·그린」 美 國務省 中東担当 次官 補는 3.24 「요미우리」新聞 特派員과의 「인터뷰」에서 今後的 美·日·中 3國關係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음.

1. 內容要約

가. 美外交, 向後 10年 東北亞에 重點

東北「아시아」는 美國, 日本, 中共, 蘇聯等 4大國이 걸쳐있는 唯一한 地域이며 이 4大國의 均衡 및 關係改善 與否가 國際情勢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10年間 美國外交는 東北「아시아」에 重點을 둘 것이다.

나. 日·美 安保條約에 새로운 意義를 賦與

· 美國과 日本이 中共과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展開하는 過程에서
 · 美·日 安保條約이 兩國에 보다 有利하고 強力한 立場을 가져 오게 하였다. 고 力說하였다.

다. 美·中 連絡事務所에 對한 評價

連絡事務所의 設置는 現時點에서 가장 適切한 措置이며 美·中 關係에 必要한 基本을 滿足시킨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正式 國交 樹立의 可能性等 今後의 展望에 對해서는 言及을 回避하였다.

라. 台灣問題에 對한 見解

上海 共同聲明이 發表되기 以前 美國이 中共과의 關係改善을 함에 있어서는 4個의 障礙가 있었다.

- 1) 어떻게 雙方의 對話를 確立시킬 것인가
- 2) 「이 데오로기」問題
- 3) 「베트남」問題
- 4) 台灣問題

그러했으나 越南休戰이 成立되어 남은 最大의 障礙는 台灣問題지만 이것이 美·中 關係改善의 障礙가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마. 美國과 日本의 對中共 貿易關係에 對한 論評

- 1) 美·中 貿易이 급「펏치」로 伸張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나 (71年 - 500萬弗 以下, 72年 - 約 1億弗, 73年 - 4億弗 予想) 120億弗이라는 美·日 貿易의 規模에는 멀리 미치지 못하고 있다.
- 2) 가령 美國의 對中共 貿易이 4億弗에 이른다고 하여도 이 規模는 美國의 對日貿易의 25 분지 1 程度에 不過하다.

2. 分析 및 評價

가. 「그린」次官補의 發言中에서 가장 注目視되는 것은 美國과 日本이 中共과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展開하는 過程에서 美·日 安保條約이 兩國에 보다 有利하고 強力한 立場을 가져오게 하였다. 라

는 美·日 安保條約에 대한 새로운 肯定的인 評價임.

나. 지난 3.21 「랏슈」國務次官도 美·日 兩國의 對蘇, 對中 關係 改善의 過程에서 美·日 安保條約은 兩國에 負債가 되는 것이 아니라 資産이 되고 있다·라고 言及한 바 있음.

다. 이와 같은 一連의 美·日 安保條約에 대한 새로운 價值賦与는 다음과 같은 점에 基礎하고 있다고 分析됨.

- 1) 美國의 對日關係와 對中共關係를 比較해 보면 美國의 對中共 關係는 問題가 되지 않을 程度로 規模가 적다.
- 2) 低開發國家에 援助를 하여 이들 低開發國家의 國民들로 하여금 豊饒한 生活를 하도록 하는데 커다란 関心을 갖고 있는 점도 雙方의 關係를 더욱 重大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 3) 만약 美·日間에 重大한 崩壞가 일어난다면 太平洋 全地域에 平和와 安全, 繁榮의 구조 전반이 破壞될 것이다.

마. 이번 「그린」次官補의 發言은, 現在 日本에서 美·日 安保條約이 冷戰의 産物임으로 日·中 關係改善이 達成된 後에는 冷戰 外交와 訣別해야 한다는 主張이 manifestation되고 있는데 대하여

- 1) 警告를 加하고
- 2) 美·日間의 善意의 競争은 결코 美·日間의 關係를 해치는 것이 아니며
- 3) 現實의 國際情勢의 進展에 適応하여 美·日 安保條約이 緊張緩和의 條件 乃至는 背景으로서 彈力的으로 運營되어야 한다는 것을 力說하기 위한 것으로 評價됨.

바. 또한 向後 10年間 美國外交의 重點이 東部「아시아」에 志向될 것이라는 發言은, 東部「아시아」가 4大國의 勢力이 適合하여 複合

적인 勢力均衡을 이루고 있는 地域임으로 한개의 軸의 關係惡化는 곧 4 大國에 의한 勢力均衡에 과극적인 影響을 미쳐 이 地域의 平和와 安全을 威脅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判斷됨.

(73.3.25 요미우리新聞)

「닉슨」의 要求와 日本의 冷談

1. 「닉슨」大統領은 日本으로 하여금 공을 치도록 主張하나 日本人들은 傍觀만 하고 있다.
2. 지난주 年例外交政策報告書에서 「닉슨」은 다시 美·日 同盟關係를 위하여 日本이 더욱 많은 役割을 해줄것을 要請했다.
3. 「닉슨」은 前後 日本의 成功을 칭찬하면서 日本을 經濟的 · 超強 大國·이라 부르고 日本이 独自の 外交政策을 追求할것을 期待했다.
4. 그러나 그는 또 日本이 그러한 일들을 美國과의 同盟關係라는 文脈에서 處理하도록 提議했다.
5. 「닉슨」은 日本의 安全과 繁榮은 · 自由世界의 그것과 튼튼히 連結돼 있다·고 말했다.
6. 그러나 日本은 事態를 다르게 본다.
日本人들은 情緒的으로나 道德的으로 自身은 「닉슨」이 말하는 美·西方·世界(美國과 그의 「유럽」 및 太平洋 同盟國을 中心으로 構成된 世界)와는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7. 日本人들은 그들이 여러모로(특히 經濟的 關係에 있어서) · 西方·世界에서 主要한 役割을 遂行하고 있다는 점을 認識하고 있으나 그 西方世界와 어떤 距離를 維持하기를 바라고 있다.
8. 美·日關係는 美·西歐 關係의 「패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닉슨」의 見解나 이러한 關係를 刷新하기 위해서 「닉슨」은 美國과

同盟國들이 貿易, 通貨體制改革, 相互防衛, 東·西外交에 대한 各自의 見解를 充分히 밝히고 長期的인 共同 利害關係를 共同으로 規定하고자 한다.

9. 「닉슨」의 見解로는 그러한 方法이 短期的인 利害關係(例로 不足한 石油問題等)를 해결지 모르나 보다 重要하고 長期的인 團結을 그르치지 않는 것이다.
10. 「닉슨」은 日本은 이제 하나의 주요한 勢力으로서의 責任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닉슨」의 問題意識은 日本으로 하여금 行動하게 하는 것이다.
11. 반면 日本은 美國과 어떤 距離를 維持하려고 한다.
問題는 어떻게 柔軟性을 잃지 않으면서 「닉슨」의 要求를 받아들리 느냐는 것이다.
12. 「오히라」 日本外相은 記者會見에서 「닉슨」大統領의 報告書는 美國 이나 西歐와 보다 均衡된 貿易關係로 履行하려는 日本의 努力을 說明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3. 西歐人들(「브란트나홀름」)과는 달리 日本政治 指導者들은 「닉슨」이 提案한 同盟國間의 새로운 對話를 熱狂的으로 歡迎하지는 않는다.
14. 「다나카」首相은 今年 여름 「닉슨」大統領과 會談하기로 予定돼 있다. 그러나 그의 外交的 努力은 大部分 蘇聯이나 「유류」, 또는 中共을 겨냥하고 있는것 같다.

<分析 및 評價>

1. 美國의 對日本政策 基調는 政治的으로 日本을 西方의 同盟關係속에 잔유시키면서 經濟的으로는 深刻한 對日 貿易逆調를 是正하여 惡化된 經濟關係를 改善하려는 것으로 分析됨.

2. 反面 日本은 美国이 構想하는 西方・世界와는 일정한 距離를 維持하면서 中共이나 蘇聯等과 보다 關係를 發展시키기 위하여 独自の 對外政策을 追求하려는 立場인 것으로 分析됨.
3. 그러나 日本은 아직도 安保上 美国과 依存關係에 있으며 더욱기 經濟的 關係의 比重으로 보아 全的으로 美国의 要求를 無視할 수 없으므로 美・日 關係의 將來는 彈力性을 가지면서 再調整되어 갈 것으로 判斷됨.
4. 日本은 對美關係에서 얻은 伸縮性으로 보다 더 中共이나 蘇聯 또는 歐羅바로 接近해 갈것이 展望됨.
5. 日本이 對美關係를 보다 伸縮性있게 再調整할 段階에서는 日本은 韓半島에 대한 政策의 選擇에 있어서 보다 自由로운 立場을 취하게 될 것이므로 美・日關係의 發展이 우리에게 미칠 結果는 重要的 것으로 判斷됨. (73.5.8 더・센)

〈美·蘇 關係〉

「술츠·브레즈네프」貿易會談

1. 內容要約

- 가. 「조지 술츠」美財務省 長官은 3時間 동안 「브레즈네프」와 會談하고 蘇聯 指導者가 美·蘇間의 關係改善에 意圖가 있음을 알았다고 했다.
- 나. 「술츠」長官은 蘇聯이 關稅를 調整하고 移民法을 制限한다면 法律 通過를 美國國會가 反對할 것이라는 立場을 說明했다.
- 다. 「시베리아」의 天然「가스」와 石油「파이프」의 施設과 貯藏計劃도 相讓했고 美國은 이 計劃에서 長期的으로 供給을 받으려고 한다.
- 라. 1971年 美·蘇 貿易額은 2億1千500萬弗이었으나 昨年 凶作때문에 72년에는 6億4千200萬弗이었다. 그러나 通商協定이 締結되면 3年內에 15億弗로 伸長시키기로 兩國은 策定하고 있다. 通商協定은 美議會가 承認하면 今年에 締結 할 것이다.
- 마. 美國은 蘇聯으로부터 「니켈」, 白金과 「팔라듐」 등의 金屬類를 輸入하므로써 蘇聯의 農作物 輸入에 대한 均衡을 삼을 것이다.
- 바. 蘇聯은 또 莫大한 農作物 輸入에 対応해서 金을 美國으로 輸出하려고 하나 現 國際 金時勢의 上昇과 「팔라」波動으로 싼 값으로 多量을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 사. 그러나 많은 金을 保有하고 있는 蘇聯으로서는 金을 내세워 貿易 擴大의 條件을 삼을 수 있다.
- 아. 世界 여러 나라가 「에너지」危機에 屐해 있는 이때 「시베리아」 天然資源은 美國뿐 아니라 여러 強大國들의 큰 魅力이며 작년 蘇

聯은 西歐羅巴와의 貿易均衡을 「가스」와 石油로 維持했다.

자. 石油 「파이프」라인등의 施設을 위해서 莫大한 投資가 必要하며 長期供給도 蘇聯은 保障하고 있으나 石油와 「가스」의 輸出價格 및 이에 対応할 수 있는 輸入品目等 때문에 오랜 協商을 해야 할 것이다.

2. 分析 및 評價

가. 작년 5月 「닉슨」大統領과 「브레즈네프」는 「7個 原則」에 調印하면서 兩國의 貿易增進을 合意했고 10月에 貿易協定을 맺은바 있다.

나. 그러나 美議會에서 말쟁이 되고 있는 關稅法 通過때문에 兩國은 難關에 처해 있다.

다. 天然資源의 開發을 위해서 蘇聯은 貸付와 技術 및 資金投資를 원하며 美 輸出入銀行은 2億5千萬弗을 貸付하기로 한 代身 蘇聯은 7億2千200萬弗의 2次大戰 補償金을 支払하기로 合意한바 있다.

라. 美國 財閥界의 猶太人 「그롬」은 蘇聯에 있는 猶太人에게 「教育稅(移民稅)」의 賦課를 撤回하지 않으면 蘇聯이 貿易에 있어서 美國의 最惠國 待遇를 받을 수 없게 壓力을 加하고 있다.

마. 이 「移民稅」가 美·蘇 貿易改善의 큰 障礙物이었다.

바. 작년 美國의 輸出額은 490億弗이었는데 美國의 對蘇 輸出額은 이의 10% 밖에 되지 않았다.

사. 蘇聯의 繼續的인 農作物과 生活 必須品 需要에 따른 輸入으로 美國은 이에 対応하는 金屬類의 輸入을 할 것이나 兩國다 關稅 調整에 最善을 다할 것이다.

아. 「에너지」爭奪을 위한 美國의 努力이 시작되자 日本도 平和條約 會談을 내세우며 「시베리아」開發 投資에 活潑한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美·日의 각축전이 予想되며 蘇聯으로서는 有利한 立場에서 美·蘇 貿易會談에 임할 것으로 評價된다.

(73.3.15 아메리칸 뉴-스)

蘇聯의 對美接近의 根本原因

1. 內容 要約

가. 蘇聯의 對美接近

- 1) 對內, 對外的으로 蘇聯 國內에는 여러 問題가 산적하여 1973年은 蘇聯이 美國과의 *特別한 友好關係*를 맺는데 고비를 넘기는 歷史的인 해로서 指摘되어야 한다.
- 2) 蘇聯은, 모든 面에서 美國과의 危險을 수반하는 競争을 促進하는 代身에 美國과의 *特別한 友好關係*를 現在 摸索하고 있다.
- 3) 軍事的으로 蘇聯은 世界 第2位의 強大國이나 蘇聯國民의 生活狀態는 美國과 其他 先進國家에 멀리 미치지 못하고 있다.
- 4) 最近 蘇聯에서부터 나온 資料를 分析한 西方의 經濟, 政治學者가 提示한 統計에 依하면 蘇聯은 困難한 國內問題에 直面하고 있으며 그중 몇개는 危機的 狀況에 놓여 있다.

나. 蘇聯의 國內事情

1) 經濟的인 面

가) 蘇聯의 農業

蘇聯의 農業은 天災로 因해 計劃目標에도 未達하여 西歐諸國 특히 美國으로부터 大量의 穀物을 輸入함으로써 深刻한 食糧의 不足을 겪고하고 있다.

나) 蘇聯의 工業

鋼鐵分野와 같은 몇개 分野를 除外하고는 工業의 成長率은 沈

滯되었다. 모든 分野의 生産品은 西歐諸國의 20年 혹은 그 이전의 水準에 놓여있다.

다) 消費材 生産

「마켓」를 商品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크레믈린」指導者의 約束은 履行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于先的인 目標에서도 脱落했다.

라) 技術分野

蘇聯은 技術을 發展시킬 能力도 없으며 「가스」, 오일, 金屬과 같은 天然資源을 開發할 能力이 없다. 때문에 西歐諸國 특히 美國으로부터의 資本, 借款, 技術導入을 公開的으로 必要로 하고 있다.

2) 社会的인 면

가) 勞働者들의 不滿이 高潮

勞働者들의 不滿과 慢性的인 病弊가 增加하고 있다. 勞働者들의 勞働生産性은 떨어지고 있으며 蘇聯의 「매스콤」은 매일과 같이 窃盜行爲, 懶怠者, 만행, 「알콜」患者와 暴力輩들의 悖倫行爲를 개탄하고 있다.

나) 蘇聯 知識人들의 抗議

蘇聯의 知識人들은 文學, 藝術, 科學分野에서 忠誠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共産黨이 彈壓하고 있다고 抗議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 移民을 하려는 數千名의 猶太人들이 蘇聯政府의 彈壓政策에 대해서 憎惡하고 있다.

「이스라엘」로 移民을 希望하는 猶太人에 대한 教育稅 賦課는 美·蘇 貿易協商에서 論争點이 될 바 있다.

다. 經濟成長의 둔화현상

蘇聯에 있어서 高민의 焦點은 國內政治나 對外政策에 있는 것이

아니라 基本的인 經濟問題에 있다.

1) 工業 總生産의 成長率

1972年度 蘇聯의 工業 總 生産率은 6.5%에 머물고 計劃目標 6.9%를 達成하지 못하였다.

2) 總 經濟成長率

蘇聯 当局者는 1972年度 蘇聯의 總 經濟成長率이 4%라고 主張하고 있으나 美國의 標準에 依하면 1.5%에 가까운 成長率에 不過하다. 美國의 生産과 用役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의 實際 成長率은 6.4%로서 蘇聯을 앞지르고 있다.

3) GNP

1972年度 美國의 GNP는 1.2兆弗이며 蘇聯은 6,000億弗에도 未達하고 있다.

4) 穀物生産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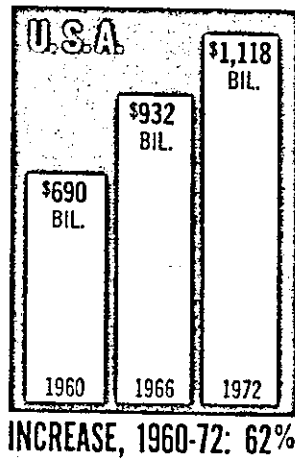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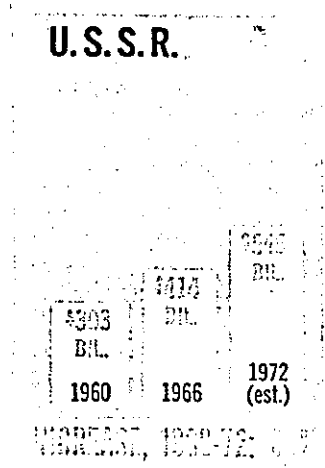
1972年度 蘇聯의 穀物生産은 10,800萬[톤]으로서 計劃 目標量 19,500萬[톤] 보다 2,700萬[톤]이나 모자란다. 美國의 한 官吏의 말에 依하면 16,800萬[톤]에는 3,300萬[톤]이나 誇張된 量이 包含되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蘇聯 当局은 西方世界로부터 3,000萬[톤] (約 20億弗 相當)의 穀物을 輸入하고 있다.

5) 菜蔬生産量

菜蔬生産量은 1971年度 보다 8%나 떨어졌다. 主食인 감자의 生産量은 1971年の 9,200萬[톤]에서 7,700萬[톤]으로 減少되었다.

미·蘇 經濟力 比較

- * 蘇聯의 經濟發展은 어느 程度 美國보다 빠르나 아직 國民 總 生産은 美國에 멀리 뒤떨어져 있다.



지난 12年동안 蘇聯經濟는 相當한 發展을 하였으나 蘇聯의 經濟力은 아직 美國의 半도 되지 못한다. 더욱기 最近 몇년동안 蘇聯의 經濟成長率은 漸次 떨어져 가고 있으며 1972年에 있어서 蘇聯經濟의 成長率은 美國보다도 뒤떨어졌다.

美·蘇 主要 工業生産 및 消費財 保有現況 比較

美·蘇의 主要 工業生産 蘇聯의 生産 (美國과의 對比)				消費財 所有 現況 (100名당 所有 1971年度末)		
					蘇聯	美國
세	멘	트	138 %	乘用自動車	1	45
石		炭	120 %	冷 藏 庫	10	31
鋼		鐵	104 %	洗 濯 器	15	28
原		油	85 %	라 디 오	20	171
農	産	物	78 %	테 레 비	16	48
電	子	製 品	57 %	清 掃 器	4	29
알	미	늄	49 %	재 봉 틀	16	14

美·蘇의 主要 工業生産 蘇聯의 生産(美國과의 對比)	消費財 所有 現況 (100名당 所有 1971年度末)
電 力 43%	
電氣發電機 37%	
天 然 氣 34%	
트럭, 버스 30%	
乘用自動車 8%	
컴 퓨 터 5%	
(1971年 또는 1972年度)	

라. 浪費와 非能率

- 1) 蘇聯經濟에 있어서 커다란 病弊中의 하나는 莫大한 量의 浪費이다.
- 2) 「코시긴」首相은 말하기를 現在까지 完成하기로 되어 있는 1,557個의 「프로젝트」中에서 아직까지 906個의 「프로젝트」가 未完成 狀態에 있다고 指摘한바 있다.
- 3) 예를 들면 「시베리아」의 「우스트-이림스크」에 水力發電所가 建設되어 明年에 稼動하게 되어 있으나 이 地域에는 이 發電所의 動力을 利用하게 될 아무런 工場建設 計劃도 없다.
- 4) 蘇聯經濟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困難한 점은 蘇聯이 보잘것 없는 消費品을 만들어낼 能力이 없는데도 어떻게 하여 現代的인 「미사일」, 艦船, 「탱크」를 만들어 낼수 있는가 하는데 있다.
- 5) 예를 들면 蘇聯의 軍部에서는 「컴퓨터」의 극적인 發展을 이룩하였다. 蘇聯은 大陸間 탄도「미사일」에 裝置할 「컴퓨터」의 첫 實驗에 成功하였으나 一般 經濟에 있어서는 겨우 「컴퓨터」를 適用하는 初期段階에 있다.

- 6) 그 이유는 蘇聯의 軍部는 新銳品을 要求하며 欠陥있는 粗雜品은 民間經濟 部分에 보내지게 된다. 또한 軍需品 生産에 從事하는 科學者와 「엔지니어」는 黨의 統制로부터 自由롭기 때문이다. 이것은 官僚性이 덜할수록 效果的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마. 經濟改革

1) 經濟改革의 方向

蘇聯은 1965년부터 企業體의 支配人에게 自主性을 賦與하고 中央統制의 많은 部分을 廢止하고 勞動者에게 「보너스」를 支給하는 等을 內容으로 하는 經濟改革을 實施하였다.

2) 經濟改革의 失敗

그러나 이 經濟改革은 大部分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 理由는 共產黨 指導者들이 그들의 權力을 威脅하는 程度로 改革이 擴大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3) 經濟改革 失敗의 原因

共產黨 指導者들은 1968年 「체코」에서의 經濟의 自由化가 「모스크바」로 부터의 強力한 獨立을 要求하게 하는 結果를 불러 일으킨 事實을 보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4) 蘇聯 指導層의 기도

때문에 現 蘇聯의 指導層은 改革을 抑制하면서 政治的인 統制權을 維持하려고 試圖하고 있다. 西方으로부터 資本, 技術, 「컴퓨터」, 生産財를 導入하여 蘇聯經濟를 混合經濟의 形態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바. 美國의 借款導入

- 1) 1973.3.21 蘇聯은 美國의 輸出入 銀行으로부터 1億 100萬弗의 長期借款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 2) 이 借款의 大部分은 「까마」江辺의 「트릭엔진」綜合工場을 建設하는데 使用될 것이다.
- 3) 「뉴욕」의 「체이스 만해탄 뱅크」가 이 借款을 担当하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 가. 蘇聯經濟의 沈滯現狀은 1960年代부터 나타나기 始作하여 蘇聯政府는 이를 打開하기 위하여 1965년부터 第8次 5個年計劃(1966-1970)과 並行하여 「리버만」教授의 「利潤導入論」을 適用한 經濟改革을 斷行하였음.
- 나. 經濟改革을 斷行하였음에도 最近 蘇聯經濟의 成長率은 繼續 低下하여 蘇聯政府는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西方諸國으로부터 借款, 技術을 導入하여 蘇聯經濟의 沈滯를 挽回하려고 試圖하고 있음. 이것이 蘇聯이 美國, 日本과 關係改善을 하려는 根本要因이 되고 있음.
- 다. 그러나 經濟改革의 推進과 西方諸國으로부터의 技術, 借款導入은 必然的으로 蘇聯經濟의 自由化를 促進시키며 동시에 이는 現 共產黨指導層의 權力의 弱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判斷됨.
- 라. 蘇聯의 指導層은 政治權力을 繼續 確保하면서 蘇聯經濟의 發展을 圖謀하기 위해 西方諸國으로부터 技術, 借款導入을 하여 蘇聯經濟를 混合經濟의 形態로 維持하려고 試圖하고 있다고 判斷됨.
- 마. 蘇聯經濟의 落後現狀은 지나친 中央集權的인 統制와 蘇聯 共產黨指導層이 政治權力을 繼續 確保하기 위해 蘇聯經濟의 自由化를 抑制하려는데 根本要因이 있음으로 政治改革이 없는한 蘇聯經濟 成長率의 下落現狀은 繼續될 것이라 展望됨.

(73.3.2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

蘇聯, 美國에 對中共 共同 核報復協定 提議

<內容要約>

1. 最近 蘇聯이 1970年 秘密裡에 中共의 核攻擊이 있을 境遇 美國과 共同 報復行動을 취하자는 提案을 美國에 했다는 事實이 밝혀졌다.
2. 이것은 最近 出刊된 「존·뉴하우스」著 「Cold Dawn, The Story of Salt」(現在 The New Yorker 誌에 連載中)에서 밝혀졌는데 그는 그러한 蘇聯의 提議를 「蘇聯의 中共 恐怖症을 生하게 보여 주는것」이라고 描写하고 있다.
3. 蘇聯의 이와 같은 提議는 처음 「헬싱키」 SALT 協商時 蘇聯代表 「블라디미르·세메노프」가 美國代表 「제라드 스미스」에게 했었다고 한다.
「뉴하우스」의 著書에 따르면 「헬싱키」에서 「세메노프」는 「第3 核 勢力에 依한 刺戟的 攻擊」에 注意할 것을 要求한바 있었다. 그는 1970.7.7일 「비엔나」에서 있었던 한 音樂會에서 이 問題를 「스미스」에게 다시 提起하고 3日後 正式 提議했다고 한다.
4. 「세메노프」의 提案은 美·蘇가 다른 核國家의 「刺戟的 行動이나 攻擊을 予防하기 위해 共同 대처하며 만약 그러한 事態가 發生하면 응징할 수 있는 共同 報復을 취한다는 計劃이었다. 그러나 蘇聯은 「刺戟行動」이 무엇을 意味하는지는 分明히 하지 않았다.
5. 「뉴 하우스」는 이러한 蘇聯의 提案은 「事實 다른 核勢力에 對한 超強大國의 同盟을 提議한 것에 不遇하며 이 提議는 分明히 中共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英國, 仏蘭西 두 核國家를 包含하고 있는 「나토」를 憤慨시킬 危險이 있었다」고 쓰고 있다.
6. 美國은 即時 蘇聯의 이러한 「아이디어」를 拒絶하고 「나토」國家에 速히 通報했다고 한다. 「뉴하우스」는 「아마 「키신저」가 1971年

6月 北京에 갔을때 周恩来에게 이러한 蘇聯의 反中共 態度를 알렸을지는 將來에는 밝혀질것 *이라고 쓰고 있다.

7. 「뉴하우스」는 蘇聯의 提議에 대한 美國의 反應은 *斷然 否定的* 이었다고 한다. 美國의 한 高位官吏도 「뉴하우스」의 著書에 대하여 論評하면서 이 事實을 確認했다. 그는 蘇聯의 「아이디어」는 慎重한 것이 아니었으며 美國도 그것을 蘇聯의 中共에 대한 過敏한 恐怖感 程度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8. 蘇聯은 「뉴하우스」의 책이 発売된 것에 當惑하고 있다. 왜냐하면 蘇聯은 *蘇聯이 美國과 結託하여 中共에 敵對的인 陰謀를 하고 있다*는 中共의 主張을 否定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分析 및 評價>

1. 協商過程에서 蘇聯이 美國에 대하여 對中共 共同 核報復 提議를 했다고 公開한 「뉴하우스」(전 美上院 外交分科委 補佐官)의 陳述은 美國政府 高位官吏도 是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根拠있는 主張으로 보임.
2. 蘇聯이 中共의 核增強을 警戒하고 있다는 事實은 國際關係에서 露出되고 있는 中·蘇間의 深刻한 反目으로 미루어 보아 充分히 予測되고 있었으나 美國에 그러한 提議를 했다는 것이 밝혀진 점은 새로운 重大 事實임.
3. 蘇聯이 提議하고 있는 것은 美·蘇 두 超核國家間의 核均衡 속에서 惹起될지도 모를 第3核國家들에 의한 *刺戟的 行動*을 予防, 対処 하자는 것이지만 그 *刺戟的 行動*이 무엇을 뜻하는지 分明히 하고 있지 않은점만 보아도 中共의 核成長을 阻止하려는 意圖가 分明함.
4. 美國이 이러한 蘇聯의 提議에 否定的 態度를 취한 理由는

가. 蘇聯側 提議가 慎重한 것이 못되며

나. 核問題에 대한 協商의 相對者인 蘇聯과는 아직 核協力이나 共同
行動을 할 段階가 아니며

다. 英國, 仏蘭西와 같은 「나토」 核國家들을 刺戟시키고 싶지 않고

라. 中·蘇間의 紛爭에 超然한 立場을 견지 兩國과 다같이 關係改善을
意圖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判斷됨.

〈美·中共 關係〉

北爆再開로 對美關係 凍結

〈內容要約〉

1. 「베트남」 平和會談의 決裂, 北爆의 強化등 平和에 대한 期待는 當分 間 어려워진 지금 越盟과 「베트남」의 背後勢力으로서 一貫하여 온 中共의 動態가 注目된다.
2. 지난 12.20 中共 外務省은 公式聲明에서 "中國人民은 今後도 從來와 같이 그의 國際主義的 義務를 斷乎히 遂行하여 越南 人民의 抗美 救國戰爭이 徹底하게 勝利할 때까지 全力으로 支援을 繼續할 것이다" 라고 한 바 있다.
3. 中共은 어떠한 事態下에서도 越南解放 鬪爭을 積極 支援할 것은 確實하다. 그러나 美·中共會談, 日·中共 國交正常化等 積極的인 平和共存 外交의 展開와 어떻게 適應시킬 것인가가 重大한 課題이다.
4. 따라서 越南 平和會談의 난항과 더불어 美·中共 關係는 當分간 現狀으로 凍結될 것으로 보인다.

〈分析 및 評價〉

1. 中共은 建國 이래 始終하여
 - 社會主義 國家와의 紐帶
 - 平和 共存
 - 解放鬪爭支援等 3個 外交原則을 들고 있다.
따라서

- 越盟과의 團結紐帶
 - 對美 平和共存의 努力
 - 越南解放勢力에 의 支援 等도 위 原則을 各各 具體化 한 것이다.
2. 美·中 接近과 越盟支援도 相互 矛盾되는 것은 아니며, 지난번 「홍콩」에서 伝하여진 中國 共産黨 非公開 文書에 의하면 「닉슨」의 訪中은 匪細匪,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革命人民 특히 越南人民의 反美鬪爭을 支援하는 다른 하나의 方法이기도 하다. 그들 革命人民은 美帝國主義者들이 會談「테-블」에 精神을 파는 사이를 利用하여 한발 한발 勝利를 爭取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3. 中國의 革命史가 보이드시 會談과 戰鬪는 矛盾하는 것이 아니라 最終的 勝利를 向한 戰略의 兩面性을 뜻하고 있다.
 4. 따라서 越南 平和協商의 膠着과 中共의 繼續的인 越盟支援도 美·中共關係를 根本적으로 危懸롭게 만들지는 아니할 것이며, 오히려 越盟에 壓力을 加하여 終戰을 서둘 것으로 判斷됨.
더우기 最近 中·蘇 關係의 惡化는 對美關係의 好戰을 더욱 必要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72.12.26 마이니찌新聞)

美·中共關係의 第3幕

<內容要約>

1. 「헨리·키신저」 美大統領 安保 特別補佐官은 北京으로 부터 매우 重要的 「뉴스」를 가지고 올 것이다.
2. 白堊館은 「닉슨」이 周恩來와 現在 맺고 있는 關係를 直接的으로나, 間接적으로 더 以上 繼續하여 나갈 것이다.
3. 여러가지 理由로 보아서 美·中共 關係가 새 段階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직은 賭博에 가까운 것이다.

4. 北京과 「와싱턴」에 通商代表部가 設置된다는지 總領事館이 設置된다는지 하는 것은 別問題다.
5. 이 이름들은 그리 重要的 意味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이런 式으로 길이 열린다면 現地 代表가 可能하다.
6. 美国側에서는 台灣에 있는 美駐屯軍을 더 減縮한다고 할 것이다.
7. 그러나 現在 中共 指導者들의 마음에는 台灣이라는 것은 한 象徴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8. 北京이 憂慮하고 있는 것은 蘇聯이 中共의 核 攻擊力을 除去시키기 위하여 防禦目的을 띤 先制攻擊을 하지 않을까이다.
9. 時期的으로 現在가 中共의 核 攻擊力을 抹殺시키던가 아니면 너무 커짐으로서 除去하기 困難한 段階까지 되든가 하는 分岐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0. 여하튼 간에 中共이 念慮하고 있는 것만은 確實하다.
11. 最近 中共을 訪問한 英國과 伊太利의 外交官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周恩來 首相의 가장 念慮하는 것은 蘇聯의 威脅이었다고 한다.
12. 여하튼 中共은 蘇聯에 대한 일종의 強迫 觀念에 사로 잡혀 있다.
13. 이런 뜻에서 中共이 보는 美国의 匪細匪에 있어서 役割은 또 다른 하나의 側面을 가지고 있으며, 東南匪에 繼續 머물음으로써 越盟의 蘇聯側 傾斜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14. 美·日 安保体制도 오히려 好意的으로 본다.
15. 여하튼 美·中共 關係는 새로운 段階에 들어 섰으며 今番 「키신저」의 北京訪問이 注目된다.

<分析 및 評價>

1. 「키신저」 特別補佐官은 2.15-19에 걸쳐 中共을 訪問 毛沢東, 周恩來 등과 一聯의 會談을 갖고 東京으로 向發한 바 있다.

2. 「키신저」의 다섯번째 中共訪問時 이번에 討議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 代表部の 年内 設置問題
 - 台灣駐屯 美軍 撤收問題
 - 科学 및 文化交流의 擴大問題
 - 中共 抑留 美軍 捕虜 釈放問題
 - 「크메르」 및 「라오스」 問題 等임.
3. 中·蘇 対決의 深刻한 様相과 더불어 美·中共 接近으로 因한 蘇聯側의 反撥이 予想되며
4. 한편 中共은 蘇聯의 中共 封鎖 努力에 대한 美国의 協力を 要求함으로
5. 美国으로서는 有利한 立場에서 勢力의 均衡을 設定할 수 있다.
6. 中共의 現在 核能力이 蘇聯의 先制攻撃에 의하여 抹殺될 수 있는 마지막 機會에 処하고 있다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中共의 核攻撃力이 크게 發展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73.2.16 아메리칸뉴스)

「키신저」補佐官의 中共訪問과 美中共 共同声明에 對한 分析 및 評價

「키신저」 美大統領 特別補佐官의 2.15- 19일까지 5日間에 結친 中共 訪問에 뒤이어 2.22 「워싱턴」과 北京에서 同時に 共同声明을 發表하였다.

1. 共同声明 内容

- 가. 1972年の 上海 「콤무니케」의 再確認
- 나. 「닉슨」 訪中 以後의 兩國關係의 進展이 雙方에 利益이었음을 確認한다. 兩國關係 正常化의 時期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認識의 一致

라. 貿易, 科學, 文化 및 其他의 分野에서의 交流擴大의 具體的 計劃에
合意

마. 가까운 將來에 雙方의 首都에 連絡事務所를 設置

바. 兩國關係 正常化는 「아시아」와 세계의 緊張緩和에 貢獻한다는 點에
서 一致

2. 「키신저」의 中共訪問을 前後한 周辺情勢

가. 金裕植 外務部 長官 西獨, 英國, 美國을 訪問

1) 美國 「로저스」 國務長官과 會談 (73.2.22)

2) 「키신저」 補佐官과 만나 北京會談 內容 聽取 (73.2.25)

나. 北韓의 움직임

1) 北韓, 韓國에 平和條約 締結을 提議 (73.2.13 日本日刊新聞報道)

2) 北韓人民軍 總參謀長 오진우, 韓國과의 耐久戰도 不辭하겠다고 聲明
(73.2.7)

3) 北韓外相 許煥 中共訪問 (73.2.9-13)

駐韓美軍의 撤収를 美國에게 要請하도록 提議

다. 東南亞 情勢

1) 「키신저」 補佐官 中共訪問 途上에 「하노이」訪問, 越盟과 合同經
濟委員會의 設置에 合意

2) 「아시아」 緊急 外相會議 開催 (73.2.15)

越盟을 包含한 「아시아」의 地域的 擴大問題와 越盟 復旧事業
支援問題 討議

3) 「라오스」의 休戰成立 (73.2.21)

3. 中共訪問後, 「키신저」 補佐官의 記者會見 內容

7.22 「키신저」 補佐官은 「화이트·하우스」에서 記者會見을 갖고 美·中共 共同聲明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說明함.

가. 美國과 台灣과의 關係

美國은 繼續해서 台灣과의 外交關係를 維持할 생각이며 이번 中共 訪問에서 台灣으로 부터의 美軍의 撤収에 관해서는 論議하지 않았다. 지금 곧 撤退할 計劃도 없다. 그러나 「닉슨·독트린」의 線에 따라 台灣으로 부터의 撤収가 段階的으로 實施될 것이라고 陳述함.

나. 連絡事務所

嚴密한 公式外交上의 事項을 除外한 모든 分野를 處理하게 될 것이다.

다. 美軍捕虜의 釈放

1967年 이래 中共에 抑留되어 있는 2명의 美軍捕虜(操縱士)가 곧 釈放될 것이다.

라. 兩國의 人的交流 計劃

今年中에 「피라델피아」 交響樂團, 高校教師, 議會, 「바스켓」, 水泳 「팀」등의 訪中에 合意

마. 兩國의 凍結財産의 解体問題

이 問題에 관해서는 「베트남」問題로 열리는 「파리」 國際會議에 出席하는 兩國 外相間에 討議가 開始될 것이다.

※ 美國의 企業이 (中共政權이 樹立되기 前에) 中國에 갖고 있던 2억5천만불의 債權과 中國이 美國國內에 갖고 있는 7천6백만불의 凍結財産을 말함.

4. 金外務, 北京會談內容 聽取

7.25 金外務는 「키신저」 補佐官을 白聖館으로 訪問하여 다음과 같은 北京會談 內容을 聽取하였음.

가. 韓國問題

- 1) 韓國問題가 討議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主要議題는 아니었고 韓國에 不利한 어떠한 決定이나 討議는 없었다.
- 2) 그러나 北京에서 北韓外相 許煥과 周恩來간에 韓國問題가 어느 程度 論議되었으며 「키신저」와 中共指導者들과의 會談에서는 얼마나 큰 比重을 차지했으며 어떠한 方向에서 이야기가 進行되었는지에 關係서 金外務는 論評을 拒絶함.

나. 駐韓 美軍의 減縮問題

「키신저」 補佐官으로부터 駐韓 美軍을 逐年 撤收할 計劃은 없고 韓國의 安保를 위한 美國의 支援을 繼續 保障받음.

5. 分析 및 評價

가. 華·中關係 第3局面에 突入

第1, 第2局面을 거쳐온 美·中 兩國關係는 今番 「키신저」의 中共 訪問으로 美·中 關係改善의 具體적인 事項을 討議, 合意하고 關係改善에 따르는 障礙要素를 일단 除去함으로써 今後 兩國간의 交流의 急増을 가져오고 事實上의 外交關係를 맺는 第3局面에 突入하였음.

第1局面: 1972.2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으로 美·中 關係改善의 基礎를 確立

第2局面: 「키신저」의 一聯의 中共訪問을 통한 막후 交渉으로 越南 戰의 休戰이 成立

※ 이와 같은事態進展으로 보아 漸次 台灣問題는 淘汰되고 美國이 中共을 正式 承認하는 第4局面이 展開될 것으로 判斷됨.

나. 今番 「키신저」, 中共 首腦會談의 特徵

- 1) 「키신저」의 中共首腦와의 會談에 併行하여 兩國間の 專門家들의 會談이 開催되었음.
- 2) 共同聲明이 지극히 簡略하여 共同聲明上의 合意事項은 兩國에 連絡 事務所를 設置하는데 限定되고 있음.
- 3) 共同聲明이 「키신저」의 中共訪問後 7日이나 지난 후에야 發表되었음.

※ 그러므로 共同聲明 그 自体보다도 共同聲明의 背後에 介在하고 있는 合意事項이 더 큰 意義가 있는 것으로 分析됨.

다. 共同聲明에서 台灣問題가 欠如된 理由

- 1) 台灣周邊의 政治, 軍事的 「베린스」를 당분간 現狀 維持 狀態로 두는 것이 兩國의 理解에 一致
- 2) 美軍 撤退後의 台灣 海峽의 空白狀態를 蘇聯의 極東艦隊가 占領하게 될 것이라고 憂慮했기 때문이라고 分析됨.

라. 台灣駐屯 美軍의 撤退問題

共同聲明에는 전혀 言及이 없으나 台灣駐屯 美軍 8,000 餘名 中 6,000 名의 撤退에 關係서 美國이 中共側에 通告하고 中共이 이에 同意하였다는 說이 나돌고 있는 것과 「키신저」 補佐官의 記者會見 內容을 미루어 보아 台灣駐屯 美軍의 撤収問題에 關係서 具體的으로 合意한 것으로 보이며 段階的인 美軍撤収가 곧 實施될 것으로 評價됨.

마. 連絡事務所 設置問題

共同声明에서 設置키로한 連絡事務所는 貿易뿐만 아니라 広範한 権限과 外交特權을 保留하고 있어 事實上の 大使館의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美·中 兩國은 앞으로 正式承認關係 일보전의 外交關係를 맺게 될 것으로 評價됨.

바. 台灣과의 外交關係

「키신저」의 中共訪問後 美國은 台灣과의 外交關係를 繼續 維持할 것이라고 言明했으나 台灣에서 美軍이 全員 撤収하게 되는 경우 台灣問題는 自動적으로 中國의 國內問題로 轉換되어 국공합작과 같은 平和적인 方法으로 解決하게 될 可能性도 있다고 評價됨.

사. 韓半島問題

1) 駐韓美軍 撤退問題

中共이 駐韓美軍을 蘇聯의 「아시아」 進出과 日本의 對韓國 進出의 對抗勢力으로 看做하고 있음으로 中共側으로부터 駐韓美軍의 撤退에 대해서는 深刻한 問題를 提起하지 않았을 것으로 判斷됨.

2) 平和條約締結, 兵力減縮問題

「아시아」情勢를 緩和시킨다는 美名下에 南·北韓의 平和條約締結問題, 南·北韓 兵力減縮問題, 韓國軍의 現代化 計劃의 沮止問題等에 대해서는 中共側으로부터 強力한 要求가 있었을 것으로 判斷됨.

아. 中共의 影響力 擴大(展望)

1) 1971年 中共이 「유엔」에 加入되기 前에는 中共을 承認한 國家가 60餘個國에 不過했던 것이 今年에 들어 中共을 承認한 國家가 80個國으로 急增하였음.

2) 現在 韓國과 友好關係에 있는 東南「아시아」의 諸國도 中共을 承認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번 「키신저」의 中共訪問을 契

機로 더 共을 承認하는 國家가 더 增加할 것으로 보이며 中共의 世界情勢와 「아시아」情勢에 미치는 影響力도 急增하게 될 것으로 評價됨.

- 3) 따라서 中共을 強하게 意識하고 있는 「아시아」의 諸國家는 韓國이 主体로 創設된 「아스팍」을 瓦解시키고 中共과 越盟을 包含한 새로운 「아시아」 協力機構를 創設하려는 움직임을 露骨化시킬 것으로 展望됨.

5. 對備策

가. 「아스팍」을 存続시키기 위한 外交活動의 強化

나. 「아스팍」의 性格을 대폭 轉換하여 이를 母體로 새로운 「아시아」 地域協力體制를 提唱하여 中共과 越盟을 包含한 「아시아」 地域協力體制를 形成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機先을 制壓 (73.2.28)

中共의 台灣宥和政策

1. 內容要約

가. 美國은 中共이 台灣에 宥和政策을 써서 和解하려 한다는 確信을 얻었다.

나. 「데이비드 브로스」 中共 駐在大使를 輔弼할 「알프렛·젠킨스」氏는 中共은 台灣問題에 性急한 解決을 期待하지 않으며 台灣問題가 兩國의 完全한 大使館 設置에 障礙라고 했고 中共이 台灣에 軍事行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 中共은 台灣政府와 適當한 시기에 和解를 할 必要가 있으며 또 可能하다고 했다.

라. 「키신저」를 따라서 여러번 中共에 갔던 「젠킨스」는 越南戰의 解決結果로 美·中共間의 連絡事務所 設置를 決定하게 되었다고 했다.

마. 昨年 中共指導者들과 會談할때 關係改善의 3가지 主要 障礙物이 있었다고 했는데

1) 越南에서 殺生이 繼續 恣行되기 때문에 越南戰의 終熄이 가장 急한 것이었고

2) 나머지는 「아시아」의 美軍駐屯과 台灣問題였다고 부언했다.

2. 分析 및 評價

가. 「헨리·키신저」 美大統領 補佐官이 北京을 訪問, 5月1日을 期해 連絡事務所를 設置하기로 했고 美 「씨·아이·에이」 諜報員을 釈放하여 昨年 2月 「닉슨」의 北京訪問 이래 改善되온 兩國關係의 正常化에 拍車를 가했다.

나. 蘇聯이 最近 中·蘇 國境地帶에 5萬兵力과 9個 核武器 貯藏所를 增強했고 또한 中共이 이 地域에서 對蘇境界를 強化할 만큼 이 地帶의 不安이 增大되고 있다.

다. 中共은 美國과 關係改善은 됐으나 對蘇紛爭의 繼續的 存在는 繼續 威脅의인 것이며 또 最近 美國의 對蘇 貿易改善 등으로 台灣問題보다는 列強國間의 勢力關係가 큰 核心問題로 當장 台灣問題 解決에 신경을 안쓰려고 하는 것이다.

라. 美國은 「브르스」大使로 하여금 中·蘇紛爭을 緩和시키며, 蘇聯의 對 中共 攻擊을 瓦解시키는 架橋役을 맡으며 台灣問題는 當분간 未解決 問題로 남겨 두자는 속셈이다.

마. 美·中共 接近이나 中·蘇紛爭은 이미 進行되어도 事態가 더욱 進展된데 不過하다. 最近 日·蘇의 接近은 美·中·日本의 關係처럼 「아시아」에서 政治情勢에 劃期的 變化를 가져올 것이다.

바. 日·蘇의 接近 加速化는 美国과 中共을 刺戟하게 됐고 蘇聯은 中·蘇紛糾에서 日本의 中立化를 피하고 있으므로 中共도 台灣問題에 宥和를 내세우는 이면에는 「아시아」에서 列強의 勢力均衡에 신경을 쓰는 것이다. (73.3.21 아메리칸뉴-스)

中共, 駐美連絡事務所長에 황진을 任命

3.30 中共의 駐美 連絡事務所長에 現 「파리」大使인 황진을 副所長에 外交部 儀典局長인 韓叙를 各各 任命

<分析 및 評價>

1. 72年 2月 「닉슨」大統領의 北京訪問 이래 漸進的인 交流를 통해 相互接近을 推進해 오다가 지난 2月 「키신저」·周恩來 會談에서 相互 連絡事務所 設置에 合意하여 美国側에서는 이미 「부루스」氏를 駐 中共 事務所長에 任命(3.15)한 바 있음.
2. 美·中共 兩國은 이미 連絡事務所 代表들이 外交相의 公式職名을 갖지 않을 뿐 다른 特權은 完全히 賦与받게 될 것이라고 한 點으로 미루어 이번에 赴任되는 兩國所長들은 모든 外交業務도 取扱하는 事實上의 大使役割을 하게 될 것임.
3. 兩國 連絡事務所에서는 우선 政治性을 덜면 通商, 科學, 文化, 人事交流等 廣範圍한 實質問題들이 다루어 질 것으로 보이나 正式外交關係 樹立時까지 政治的인 問題들도 함께 다루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分析됨.
4. 황진은 毛沢東의 측근으로 對非共產國家 協商의 名手로 알려졌고 「닉슨」 中共訪問 以後 駐「파리」 美国大使와 兩國關係 改善을 위해 協議해 왔으며 中共의 많은 外交官 가운데 唯一한 黨 中央委員이기도 함.

5. 中共이 이러한 人物을 任命한 것은 對美外交에 對해 큰 比重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積極的인 外交活動을 통해 在美 自由中國 大使館의 存在를 無意味하게 하려는데 目的이 있는 것으로 보임.
6. 그러나 美國이 對中共接近, 台灣 公約遵守라는 二重政策을 쓰고 있는 한 美·中共 外交樹立은 長期間이 걸릴 것으로 判斷됨.

<日·蘇 關係>

田中首相「브레즈네프」에게 親書傳達

1. 內容 要約

가. 3.7 日本外務省은 「나이세끼」(新関) 駐蘇 大使가 「모스크바」에서 「브레즈네프」 蘇聯共産党 書記長과 會見, 「다나카」首相이 同 書記長에게 보내는 親書를 傳達하였다고 發表하였다.

나. 「다나카」首相의 親書 內容

- 1) 日本과 蘇聯은 서로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간에 어쩔 수 없는 隣接國이다.
- 2) 隣接國은 友好關係를 맺지 못하면 바람직한 事態는 없으므로 友好關係의 增進을 推進하고 싶다.
- 3) 昨年 10月 「오히라」外相이 訪蘇, 第1次 日·蘇平和條約의 交渉을 實施하고 第2次 交渉을 1973年에 하기로 되어 있다. 이 事實을 토대로 하여 平和條約交渉을 今年에 꼭 開催하고 싶다.
- 4) 우리나라도 蘇聯과의 國際關係를 友好的으로 展開하고 싶다. 그 하나의 예로서 「시베리아」開發問題에 깊은 關心을 갖고 있다. 이 問題는 現在 交渉中에 있으며 이것이 成熟된 現 段階에서 우리는 이에 대처하겠다.
- 5) 昨年 日·蘇 兩國의 最高首腦의 親書가 交換되었으나 우리는 今年에도 이를 계속함으로써 日·蘇兩國 首腦間의 間斷없는 對話를 계속하고 싶다.

2. 分析 및 評價

가. 「다나카」首相의 親書는 日・蘇 平和條約을 包含하여 日・蘇關係 전반에 대한 日本側의 基本 자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蘇聯側의 반응에 따라 「다나카」首相의 訪蘇까지 期待되고 있어 日本側은 「브레즈네브」의 回信에 비상한 關心을 보이고 있음.

나. 「다나카」首相이 親書를 送付하게 된 동기는 작년 12月 「브레즈네브」書記長이 蘇聯訪問 50주년 祝賀會의 席上에서 73年中에 第2次 大戰의 結果로서 생긴 日・蘇間의 懸案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 점에서 발단된 것으로 評價됨.

다. 日本政府가 「다나카」首相의 親書送付에 노린 점은.

- 1) 「다나카」首相이 世界 3극중에서 美・中을 訪問하여 남어지 1극(蘇聯)을 무시하였다라는 인상을 蘇聯에 주고 있음으로 이 機會에 이를 불식하고
- 2) 북방 領土問題와 「시베리아」 開發問題를 별개로 해결하려던 從來의 방침을 是正하여 북방영토 問題를 「시베리아」 開發問題와 關聯시켜 해결함으로써 對蘇 交涉에서 유리한 位置를 점하며
- 3) 「다나카」首相의 訪蘇實現 可能性과 「다나카」首相의 訪蘇가 實現되는 境遇의 利害得失을 타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評價됨.

라. 또한 社會主義諸國의 大使以外에는 直接 會見을 한 바 없는 「브레즈네브」 書記長이 이례적으로 「니이세끼」 駐蘇大使를 直接 만나 親書를 받아들인 것은 原料輸入의 海外依存度가 높은 日本을 「시베리아」 開發에 유치함과 동시에 日本의 對中共 接近을 牽制하기 위한 것으로 判斷됨. (73.3.7 요미우리)

日本の 새로운 對蘇會談 提議

1. 內容要約

가. 蘇聯駐在 日本大使 「킨야·니이제기」는 7日 「브레즈네프」書記長을 訪問하고 「다나카」首相의 親書를 傳達하면서 2時間 반동안이나 會談을 했다.

나. 親書의 內容은

1) 蘇聯의 「시베리아」 天然資源의 開發에 있어서 日本이 적극 참여할 의사 表明

2) 日, 中共의 外交關係 設置는 絶대로 蘇聯에게 敵對行爲를 內包하지 않는다는 點

3) 第2次 世界大戰後 蘇聯이 점유하고 있는 4個의 섬(「시코탄」, 「하보마이」, 「쿠나시리」와 「에트로트」)의 返還 要求를 포기하고 蘇聯과의 平和條約에 署名할 意思가 있다.

다. 「브레즈네프」는 이에 만족을 表明한 것으로 전해졌고 「다나카」 日本首相이 곧 蘇聯을 訪問할 것으로 전해졌다.

2. 分析 및 評價

가. 過去 日·蘇 關係는 領土問題가 平和條約에 主要 障害物로 되었었으나 이번 제의로 日·蘇關係가 改善될듯한 印象이다. 過去 日本은 4個의 섬이 返還되지 않고는 어떠한 平和條約도 締結하지 않겠다고 主張해 왔었다.

나. 昨年 가을 「오히라」 日本 外相이 蘇聯을 訪問했을때 「그로미코」 蘇聯外相과 새平和條約 會談에 關係서 論議하고 어느 정도의 合意를 본 것으로도 分析된다.

다. 「키신저」 美大統領 安保担当 特別補佐官이 ‘毛沢東’을 訪問한 後

곧 이런 關係가 이루어지는 것은 匪細匪에 있어서의 새로운 政治的 均衡 즉 美·蘇·中共과 日本 4 大國의 勢力均衡을 찾아보자는 底意가 있다고 評價된다.

다. 蘇聯은 美國과 中共이 外交的 連絡事務所를 設置하는데 不安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日本 역시 「닉슨」行政府가 中共과의 秘密 外交를 한계 대해서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현금 日本은 中·蘇紛爭에서 蘇聯의 약점을 노려서 蘇聯과의 會談에서 有利한 立場을 摸索하자는 것으로 評價된다.

마. 그러나 日本과 蘇聯의 關係는 過去 100年동안 歷史적으로나 時間적으로 복잡한 關係에 있었고 서로 敵對心을 가져왔다.

바. 또 日本이 4 個의 섬 返還을 포기하면서 平和條約을 맺겠다는 이면에는 아직 未 開發地로 되었고 中·蘇紛爭의 問題點으로 되어있는 「시베리아」共同開發에서 經濟的 實利를 追求함과 同時에 中·蘇紛爭의 政治的 關係에도 관여해서 어떤 「이니시아티브」를 잡아 보자는 目的이 있다고도 評價된다. (73.3.8 아메리칸뉴-즈)

最近 日本의 蘇聯과의 正常化 움직임

1. 內容要約

가. 3月6日 「다나카」首相은 「브르즈네프」에게 보내는 親書에서 금년 내에 平和條約 會談을 再開하자고 요청했다.

나. 蘇聯과 中共이 分裂되고 兩極體制가 끝난 過去 10여년동안 「모스크바」와 北京은 各各의 움직임을 보였고 美國이 1971年 中共과 和解함에 따라서 多極化時代로 突入되었다.

다. 同時에 日本은 새 外交를 펼쳐야되겠다는 것을 直覺했다.

라. 日本은 中共이 友好關係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고 또 美國이 蘇聯에

- 계 敵行爲를 하지 않고 中立의 立場을 취한다는 것도 알았다.
- 마. 그러나 日本이 軍事力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中共에게는 아무 매력도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 바. 美國이 過去의 關係를 격하시키고 다극체제의 均衡狀態로 轉換에서 새로운 關係를 맺는다면 美·日 同盟의 安全이 없어지지 않나하고 日本은 두려워했다.
- 사. 이런때 蘇聯은 日本에게 추파를 던지며 昨年 1月 蘇聯外相이 日本親善訪問을 했다.
- 아. 또 蘇聯은 모든 領土問題를 解決하자는 그들의 主張을 되풀이 하지 않았다.
- 자. 이는 곧 日本이 「후카이도」와 「크릴도」사이에 있는 4個의 섬이 協商의 主題로 될수 있다는 希望을 품게했으며 日本側은 2次大戰後 領土問題가 平和條約을 매듭짓지 못하는 유일한 「이슈」로 간주했다.
- 차. 中共은 다음 段階를 취해서 日本首相이 갈리자 日本과의 和解를 급속히 이루어 世界를 놀라게 했다.
- 카. 亞細亞에서 蘇聯의 팽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美·日 安保條約이라는 것을 日本은 알게 되었다.
- 하. 또 思想的으로나 國民의 感情을 考慮해서도 日本이 台灣과 通商 내지 文化交流를 계속해도 正常化를 하겠다고 했다.
- 파. 그러나 蘇聯은 日·中共의 새로운 關係가 蘇聯에게는 直接的인 敵行爲라고 단정하고 4個의 섬 返還 協商 可能性을 提議해 보기로 했고 昨年 가을 「오히라」外相이 蘇聯을 訪問했음에도 平和條約 協商은 시작되지 않았다.
- 거. 現在 日本政府는 基本的 合意가 이루어진 後에 「시베리아」 天然資源 開發에 積極 參與할 意思를 보였는데 이는 곧 蘇聯이 願하는 「티우멘」 石油 開發에 輸出入銀行의 10억불을 출 意思가

있다는 것을 表示한 것이다.

너. 또한 日本이 「시베리아」 開發에 合意를 하기 전에는 절대 4개의
섬 返還을 固執하지 않겠다는 뜻을 內包하고 있다.

더. 蘇聯은 日本의 이러한 提議에 만족을 表示했고 「브레즈네프」는 과
거 兩國關係는 “말이 다닐 수 있는 길밖에 없었으나 인제는 自動
車가 다닐 수 있는 「아스팔트」길”로 改善할 때가 왔다고 비유해
서 말했다.

2. 分析 및 評價

이번 「다나카」首相의 「브레즈네프」에의 親書傳達로 日·蘇關係가 急
進展을 보게 되는 것은 日·蘇 兩國間에 다음과 같은 利害의 共通點
이 있기 때문이라고 分析됨.

가. 日本의 立場

日本은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통해 美·中, 美·蘇를 주축으로 하는
3極體制를 日本이 參與하는 4極體制로 轉換시켜 日本의 對中, 對蘇
對美 關係에서 影響力을 強化시키려는데 底意가 있다고 評價됨.

- 1) 通貨危機, 貿易競爭과 같은 問題로 美國과의 關係가 상당히 冷却된
點
- 2) 日本의 產業은 中東의 石油에 依存하고 있는데 中東紛爭의 解決展
望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點
- 3) 印度, 「파키스탄」 戰爭後 印度洋을 掌握한 蘇聯이 海軍力을 계속
증강하고 있어 이것이 日本 유조선의 安全航海에 威脅이 되고 있
다는 점.

나. 蘇聯의 立場

- 1) 美·中, 日·中 關係改善이 蘇聯에 對抗하는 中共의 힘을 強化시켜

출 것으로 判断、日本の 对中共接近을 牽制하려는 점

2) 日本의 軍備增強은 亞細亞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을 減少시키게 될 것으로 보고 日本과의 關係正常化를 통해 日本의 軍備增強을 牽制할 수 있다는 점

3) 美国과 蘇聯이 太平洋에서의 패배를 노리고 있는 現時点에서 蘇聯이 日本과 關係改善을 함으로서 太平洋地域에서의 勢力擴張이 容易하다는 점

다. 日本은 이렇듯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통해서 經濟的인 實利를 追求하며 对美協商은 물론 对中共 協商에서도 日本의 立場을 強化할 수 있다고 評價됨.

라. 한편 蘇聯은 日本의 对中共接近을 牽制하고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既存 美国의 勢力權을 잠식하여 对亞細亞 進出을 積極的으로 推進할 수 있는 与件이 造成될 것으로 評價됨.

마. 日·蘇關係 正常化의 最大争点으로 되어 있는 北方領土 返還問題에 있어 日本이 이를 포기하고 금년내에 蘇聯과의 平和条約을 締結하게 될 것인지는 疑問視됨. (73.3.9 크리스찬 싸이언스 모니터]

日·蘇「시베리아 쉐메니」油田開發 靑写真 発表

1. 内容要約

가. 日·蘇 經濟委員會는 3.8 蘇聯 「시베리아」의 「쉐메니」유전개발에 관한 基本 契約原案을 밝혔다.

나. 同 基本契約에 의하면 蘇聯側에서 要請한 10億弗의 「뱅크·론」(銀行間借款)을, 日本의 輸出入銀行을 中心으로 約 20個 銀行이 参与하는 大型 「신지케이트」가 맡기로 되어 있다.

다. 金利에 關해서 輸出入銀行 80%, 銀行 20%의 境遇 金利는 6.25%.

輸出入銀行 70%, 銀行 30%의 경우 金利는 6.5%로 한다는 2個案이며 4年間に 分割 融資하기로 되어 있다.

라. 輸出入銀行을 “核”으로 하는 「신지케이트」에는 「후지, 미쯔비시」 「미쯔이」, 日本장기신용, 日本興業銀行 등이 中心이 될 것이다. 各銀行의 負擔額에 대해서는 金후 檢討하게 되어 있다.

마. 「뱅크론」의 金利에 대해서는 2個案中 어느 것을 採択할 것인가는 未定이나 蘇聯側이 6%의 金利를 主張하고 있어 金후 兩國의 交渉의 最大争点이 될 것이다.

2. 分 析

가. 「츄메니」 유전개발은 「시베리아」開竅의 3個「프로젝트」(「츄메니」, 「야끄르뜨」, 「사하린」) 중의 하나임.

나. 同計劃은 「시베리아」의 「츄메니」에서 「나호드카」까지에 이르는 6,600 「키로미터」에 「파이프라린」을 부설하고 日本에 年間 2,500萬~4,000萬톤의 原油를 供給하기로 하는 것임.

다. 現在까지 民間機關인 日・蘇 經濟委員會가 中心이 되어 蘇聯側과 埋藏量의 現地 調査等을 進行시켜 왔음. 蘇聯側은 10億弗의 借款을 要求했으며 日本은 8億弗이면 開竅이 可能하다고 하여 異見差 異를 보여 왔음.

라. 「다나카」首相은 1.17의 施政方針 演說에서 「시베리아」開竅에 積極的으로 参与하겠다. 는 意思表示를 한데 이어 3.6 에는 「브레즈네프」에게 親書를 보내고 「시베리아」開竅에 義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3. 評 価

가. 日本政府가 「츄메니」유전 개발에 本格的으로 나선 理由

- 1) 經濟的으로는 世界的인 「에너지」危機 現狀과 美·日 石油 輸入 競争의 격화를 豫想하며 事전에 이에 대처
- 2) 近距離에 있는 「시베리아」로부터의 原油輸入의 運賃이 低廉
- 3) 政治的으로는 美·中, 日·中의 關係改善과 中·蘇紛爭으로 困境에 처해 있는 蘇聯의 弱點을 利用, 懸案問題로 되어 있는 北方領土, 平和條約交渉에서 有利한 立場을 確保
- 4) 여태까지 蘇聯은 日本의 對中共接近의 反作用으로 日本에 강경한 態度를 취하며 對日關係 正常化를 遲延시켜 왔음. 이에 대하여 日本은 對中, 對蘇 等距離 外交를 展開하여 蘇聯이 갖는 의구심을 解消시키고 同時에 亞細亞에 있어서 美·中·蘇와 더불어 4極協助 體制의 一員으로 登場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判斷됨.

나. 蘇聯이 日本의 「시베리아」開發을 歡迎하는 理由

- 1) 經濟的으로는 最近에 대두하기 시작한 農工業의 沈滯를 타개하기 위해 先進工業國, 특히 「시베리아」와 近距離에 있는 日本으로부터의 長期 借款과 技術導入을 통감
- 2) 政治的으로는 日本의 對中共 接近을 牽制
- 3) 原料輸入의 海外依存度가 높은 日本의 經濟的인 弱點을 노려 平和 條約締結과 北方領土交渉을 蘇聯에게 有利하도록 展開
- 4) 蘇聯이 계창하고 있는 亞細亞 安保體制 構想에 亞細亞諸國이 冷淡한 態度를 취하고 있음으로 亞細亞에 있어서 經濟的인 影響力이 큰 日本의 호응을 얻기 위한 것으로 判斷됨.

다. 日·蘇 關係 正常化의 最大의 争點

日·蘇關係 正常化의 成敗를 左右하는 것은 北方領土의 返還 問題가

될 것으로 判斷됨.

- 1) 만약 蘇聯이 北方領土를 返還하는 경우 이는 國際的인 先例가 되어 蘇聯 支配下의 旧領土의 返還을 要求하고 있는 中共의 立場을 間接的으로 強化시켜주는 結果가 될 것임.
- 2) 따라서 蘇聯은 日本에게 北方領土 問題를 排除한 平和條約 締結을 要求할 것이며 日本은 對蘇 關係의 正常化의 길을 트기 위해 北方領土를 포기하는 듯한 「제스츄어」를 쓰고 있으나 事態 進展에 따라 北方領土 問題를 包含한 平和條約 締結을 主張하게 될 것으로 展望됨. (73.3.9 니혼게이자이)

「크레믈린」 日本과의 關係改善 追求

1. 內容要約

- 가. 蘇聯 官用 通信 「이스베스치아」紙는 最近 日本과의 劇的 關係 改善과 広範한 經濟協力을 위한 日本의 現實的 外交를 극구 찬양 하면서
- 나. 日本이 中共과 「外交的 계임」을 하지 말도록 警告했다.
- 다. 「다나카」首相의 平和條約會談 再開 提議後 公式的인 蘇聯의 論評 이었다.
- 라. 上記 新聞은 2次大戰後 蘇聯이 점유하고 있는 4個의 섬같은 問題가 掲載되지 않는다면 兩國 友好에 障害가 될 理由가 없다고 했다.
- 마. 그러나 日本이 美國과 음모하며 中共과 關係改善을 하면서 蘇聯에게 「外交的 遊戲」를 하지 말라고 警告했다.
- 바. 蘇聯의 平和 愛護政策에 있어서 日本이 疑心할 아무 理由도 없으며 蘇聯은 日本 安保에 威脅을 줄 立場에 있지 않다고 했다.

사. 美, 日 中共 3 國이 匪細匪를 支配한다고 보는 蘇聯으로써 關係改善을 위해서 蘇聯은 相互 經濟協力을 提議하고 있는 것이다.

아. 특히 「시베리아」 天然資源 長期 開發을 위한 協定이 맺어진다고 해도 關係의 劇的인 變動은 없을 것이라 했다.

자. 몇일 前까지만 해도 蘇聯側의 의아로 日·蘇 關係는 冷淡했었으나 「브레즈네프」와 蘇聯 駐在 日本 大使와의 會談으로 外交 專門家들은 4 個의 涉 返還問題를 제쳐 놓고 平和條約 會談이 急進展 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가. 蘇聯의 官營 通信이 日本의 提議를 찬양했다는 것은 現 國際 權力 構造에서 蘇聯이 日本의 立場을 認定한 것으로 分析되며 이는 日本의 外交的 勝利이다.

나. 그러나 日本이 中共과 緊密한 關係를 취하는 것에 대해 蘇聯의 의아는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急進展은 尙장 期待하기 힘들다.

다. 昨年 日·蘇 貿易額이 10 億弗은 약간 초과했는데 貿易이 活潑해 질 것이며 「시베리아」 天然資源 즉 石油「가스」와 石炭開發을 위해 10 億弗의 日本資金과 技術이 投入될 것이다.

라. 完全한 結論에 도달했다고는 볼수 없으나 日·蘇 兩國官吏들은 兩國의 關係가 새 局面에 突入했다는 事實을 認定하고 있다.

마. 「外交的 介入」을 하지 말라는 蘇聯側에 대해서 日本은 現 國際 情勢를 어떤 強大國과 協議없이 獨自的으로 해 나간다고 主張한다.

사. 日·蘇 關係 改善의 첫 結果는 다음달 「시베리아」開發을 위해서 「모스크바」를 訪問하는 日本代表의 訪問時 判明될 것으로 評價된다.

아. 또 「에너지」危機때문에 蘇聯 石油에 関心이 많고 中共과의 紛爭 때문에 蘇聯은 日本에 関心을 쫓는 것이다.

(73.3.13 아메리칸뉴-스)

列強의 訪問外交

1. 內容要約

- 가. 3月6日 「다나카」首相의 親書가 「브레즈네프」에게 傳達된 後 「브레즈네프」는 3月28日 日本駐在 蘇聯大使를 통해서 「다나카」首相의 蘇聯訪問 招請을 했다.
- 나. 日本官吏들은 日本国会가 散會되는 今年 5月이나 6월에 「다나카」首相이 蘇聯을 訪問할 것으로 示唆했다.
- 다. 또 「다나카」首相은 「닉슨」大統領과 會談하기 위해서 今年 여름 美國을 訪問할 것이라 했다.
- 라. 그 以外에 「다나카」首相은 西歐羅巴와 東南亞細亞를 巡訪할 計劃인 것으로 전해졌다.
- 마. 한편 美國官吏들은 去年 6月 「닉슨」의 蘇聯訪問 答禮로 「브레즈네프」가 6月頃에 美國을 訪問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 바. 現在 美議會에서 固執하는 蘇聯의 「教育說」제지에 蘇聯이 양보할 可能性이 많으므로 「브레즈네프」의 美國訪問說은 더 짙어졌으며 「셀즈」美 財務省 長官이 蘇聯을 訪問했던때 論議됐는지도 모른다고 國務省官吏들은 말했다.

2. 分析 및 評價

- 가. 「다나카」首相은 지난번 選舉에 敗北에서 그의 政治的 地位와 人氣를 올리기 위해 蘇聯 訪問을 試圖한다고도 보는 것은 國內的 理由로 보고

- 나. 對外的으로는 蘇聯과 平和條約 締結 및 「시베리아」開發 問題와 國際적으로 日本의 位置 強化를 目的으로 한다고 본다.
- 다. 「옵서버」들은 日本이 美國에게서 「이오지마」를 包含한 「브닌」 열도를 먼저 찾고 後에 「오끼나와」를 찾는 方式으로 蘇聯과도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두 작은 도서부터 蘇聯과의 協商에서 찾고 後에 나머지 큰 두 섬을 찾는 方法을 採択할지도 모른다고 본다.
- 라. 蘇聯이 「시베리아」開發을 考慮해서 日本의 체면을 維持시키는 것으로 두 작은 도서의 返還을 양보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마. 「닉슨」·「브레즈네프」會談時에는 經濟的 問題가 主要骨자가 될것이다.
- 바. 蘇聯은 農産物輸入等 長期的 利益追求를 생각하고 있으나 問題는 蘇聯이 美國에서의 輸入을 어떻게 處理할 것인지 또 蘇聯의 天然資源開發에 美國이 어떤 態度로 나올 것인지 오랜時間의 타협이 必要로 할 것이다.
- 사. 越南戰이 끝이기 前에는 蘇聯 高位 官吏들은 「브레즈네프」 美國訪問의 時急性을 示唆하지 않았으나 現在 早期訪問의 必要性이 不可避하게 됐다.
- 첫째 美國 輸出入 銀行으로부터의 借款이 實질히 必要하고
 둘째 「트럭」工場 建設과 양수기의 開發을 위해서 借款과 貸付가 尙 進行中이기 때문에 訪問 時日이 달라 질것이다.
- 아. 또 유대인 移民에 대한 「教育說」를 廢止한다면 關稅化 貸付에 대한 美議會의 承認이 달라질 것이며, 蘇聯은 美國으로부터 「最惠國의 待遇」를 받을 것이다.
- 자. 美國도 「시베리아」開發에 關心을 갖고 있으므로 「브레즈네프」訪問時 經濟關係에 대한 廣範한 意見을 交換할 것이다.
- 차. 「다나카」首相의 美國 訪問時 越南 休戰後 亜細亞 情勢와 變動換率制 實施에 따른 對美 輸出減少, 輸入增大等이 問題가 대두될 것이다.

카. 「다나카」의 蘇聯, 美國訪問과 「브레즈네프」의 美國訪問 또 中共 高位層의 今年 가을 美國訪問등 4大列強의 訪問 外交가 한창이 돼서 日本은 美・中共・蘇聯에 비위를 맞출 것이며 日・中共 수교에 안간힘을 쓰는 蘇聯을 달래고 美國과 日本의 對立感情 解消에 努力할 것으로 評價된다. (73.3.29 뉴욕타임스)

蘇聯 田中首相의 訪蘇를 延期

1. 內容要約

- 가. 蘇聯은 8月下旬으로 豫定되어 있던 「다나카」首相의 「모스크바」訪問을 단지 不便하다는 理由로 延期해 줄것을 日本政府에 要請하였다.
- 나. 「오히라」外相에게 이와같은 蘇聯政府의 「메세지」를 傳達하면서 日本駐在 蘇聯大使 「트로야노프스키」는 8月下旬의 「다나카」首相의 「모스크바」訪問이 어찌서 不便한가 하는 理由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 다. 日本政府 소식통은 이번 延期措施가 最近 「시베리아」天然資源開發에 임하는 日本의 態度에 대해서 蘇聯政府가 不滿을 表示한 것과는 아무러한 關聯도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
- 라. 20個 銀行으로 構成된 日本의 「신지게이트」는 2個月前에 서부 「시베리아」 「츄메니」유전개발에 10億弗을 貸与하기로 合意를 보았으나 日本政府는 아직까지 이를 (借款)承認하지 않았다.
- 마. 「모스크바」駐在 日本特派員들은 蘇聯政府가 日本의 「시베리아」開發政策에 影響力을 行使하기 위한 意圖를 명백히 갖고 있는 것이라고 報道하고 있다.
- 바. 蘇聯政府가 또한 現 「다나카」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日・中間의

關係正常化가 進展되고 있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사. 日本의 新聞들은 蘇聯政府가 「다나카」 日本政府의 地位를 저락시키려는 것이 이번 延期措置를 낳게한 또 다른 要因이라고 報道하고 있다.

아. 지난 4月 「브레즈네프」書記長이 「다나카」首相에게 보낸 서한은 日本首相이 平和條約을 締結하고 「시베리아」의 天然資源을 共同으로 開發하자고 提議한 서한에 대한 답장이었다.

자. 「다나카」首相은 戰後 處理問題의 一環으로서 2次大戰後 蘇聯이 점령한 4個의 北方領土를 日本에 復歸시킬 計劃을 밝힌 바 있다.

차. 「모스크바」의 「다나카」首相의 延期要請을 傳達한후 「트로야노프스키」大使는 蘇聯邦 最高會議議長 「알렉세이·시프코프」의 招請으로 되어있는 日本 國會議員團(10 ~ 12名)의 招請狀을 傳達하였다.

카. 同 招請狀은 日本 自民党内에서 影響力을 갖고 있으며 日·蘇 友好聯盟議長인 「이시다 히로히도」씨 앞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타. 「이시다」씨는 이 招請狀을 受諾하고 超党的인 立場에서 代表團의 構成員을 선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 分析 및 評價

가. 이번 蘇聯政府에 의한 「다나카」首相의 訪蘇 招請 延期措置는 一聯의 訪問外交를 통해서 昨年 12月 總選에서 저락된 威信을 回復하려던 「다나카」政府의 權威를 더욱 저락시키는 結果를 가져온 것으로 分析됨.

나. 日本駐在 蘇聯大使는 이번 延期措置에 아무런 政治的인 配慮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要因이 作用한 것으로 보임.

1) 6.18 부터 시작되는 「브레즈네프」의 美國訪問, 친구주 安保會議

(7月開催 豫想) , 東・西兵力削減會談 (9月開催豫想) 等 一聯의
歐美와의 對話를 集大成한 後에 日本과 首腦會談을 開催하는때는
보다 많은 時間이 必要한 點

2) 西獨, 美國과의 經濟協力이 豫想外로 急進展하여 「시베리아」天然資
源 共同開發에 있어서 對日本 依存度가 強化되고 選擇權을 保有하
게 되었다는 점

3) 「다나카」行政府의 領導力을 毀損시켜 日本의 對中共 接近에 타격
을 가하려는 底意를 內包하고 있다는 점

다. 이와같은 蘇聯의 多目的인 意圖가 主효하게 되는 境遇 앞으로 開催
될 美・蘇 首腦會談에서 蘇聯은 보다 有利한 立場에서 交渉이 이루
어지게 될것으로 展望됨.

<日・中共 關係>

日・中共關係의 推移

<內容要約>

1. 駐中 日本大使館의 開館

가. 1.11 駐中日本大使館(北京, 三里屯 外交人員弁公大樓 七層, 71, 72, 61号)의 活動이 正式으로 始作되었음.

나. 大使館員

- 林祐 - 臨時代理大使外 8 名
- 中國人「스텝」4 名
- 日本人職員 3 名 (未到着)

다. 駐日本 中共大使館도 가까운 時日안에 開設될 予定임. (初代臨時代理大使에 米國鈞를 1.14. 任命)

2. 經濟交流 및 對中共 「프란트」輸出問題

가. 1963. 「요시다」覚書에 의하여 中斷되었던 對中共 「프란트」輸出은 1972.9.29 國交回復以來 活潑한 相談이 繼續되고 있음.

나. 日本政府는 對中共 「프란트」輸出을 위한 日本輸出入 銀行資金의 融資를 活用할 方針을 이미 決定

다. 對中共 「프란트」延払輸出에 관하여 1973年 予算案에 이미 反影

라. 日本 「구라레」등 5 個會社의 對中共 「프란트」輸出에 있어 年利; 6%, 期間; 5 年의 條件으로 許可할 方針임을 시사

마. 日本 「나카소네」通商相등 一行 12 名이 北京을 訪問

○ 訪問人員

- * 「나카소네」通商相
- * 稻山嘉寬 (신일철사장) 日・中經濟協會會長

- * 土川元夫 「나고야」鐵道會長
- * 中司清 "종연" 化学工業會長
- * 大久保 協會專務理事
- * 小松 通商局長
- * 大田 市長 4課長등

○ 期 間; 1973.1.11 - 1.21 予定

○ 目 的

具体的인 相談보다는 国交回復에 따른 貿易, 技術交流등 今後的 日中 經濟關係의 円滑化를 위한 相互理解를 깊이 하기 위하여

3. 中共産 原油輸入問題

가. 最近 中共은 中國化工出口公司를 通하여 日本에게 原油 20万吨을 輸出할 것을 알려왔음.

나. 이에 對하여 日本은 東京, 關西財界가 協力하여 곧 中共産 原油輸入을 위한 새로운 会社를 設立하기로 內定되어 있음.

다. 將次는 年間 100万~300万吨은 될 것으로 予想하고 있음.

라. 原油 輸入問題의 始發은 1972.8 稻山을 團長으로 한 經濟人代表團의 訪中時 周恩来와의 會談에서 日本이 今後 輸入을 가장 希望하는 것은 石炭, 鉄鉍石이 아니라 原油임을 밝힌바 있었다.

마. 中共의 原油輸出 提案理由는

- 日本의 出光興業등이 蘇聯에서 商業「베이스」에 의한 年間 200万吨을 輸入하고 있는 外에 새로이 蘇聯 「츄메니」産 原油輸入計劃에 對한 政治的 견제試圖
- 1972.1.11 日, 中共貿易高는
對日輸出; 4億3千4百萬弗
對日輸入; 5億2千5百萬弗 인바
均衡을 위한 對日輸出 拡大를 爲하며

- 大慶 油田의 增産速度가 너무 빨라 石油情勢施設 및 貯藏施設의 不足等이 理由로 보임.

<分析 및 評價>

1. 日・中共間의 外交關係는 「나카가」首相의 中共訪問時 一括處理됨으로 서 國交가 回復(1972.9.29) 되었으나 大使館은 아직 開設되지 못하고 있던중 우선 駐中 日本大使館이 속般 開設된 것임.
2. 日本이 当初 期待했던 것과 같은 急速한 經濟交流의 伸張은 어렵다고 判斷되는것 같으나 「프란트」類 輸出을 비롯한 經濟交流의 擴大에 꾸준한 努力을 傾注하고 있음.
3. 日本이 石油類 需要增加에 따른 供給地 分散化努力의 一環으로 蘇聯등 으로부터 輸入을 擴大하려 하고 있을뿐 아니라 良質의 中共産 原油輸入을 推進하고 있음.

日本, 「나카소네」通商 中共訪問後 記者會見

지난 1.17 부터 中共을 訪問한 「나카소네」 日本通産相은 1.25 帰國 하여 「하비다」, 「도규」, 호텔에서 가진 記者會見에서 中共訪問 結果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陳述함.

1. 內容要約

가. 周恩来首相은 日, 美安保條約에 關해서 「他國의 問題임으로 異見을 말하고 싶지 않으며 이것을 容認하거나 支持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大國이 核軍備를 強化하고 있는 現情勢下에서 日本이 自衛를 위해 軍備를 갖추는 것은 當然하다」라고 말했다.

나. 周恩来首相과의 會談內容은 일체 公表않기로 約束했다고 前提하면서

「나카소네」通産相은

- 1) 國際情勢와 中·日 兩國의 役割
- 2) 越南前後의 亞細亞情勢
- 3) 「유엔」改編問題
- 4) 世界의 資源問題
- 5) 日·中 兩國의 平和友好促進

등의 重要한 政治問題에 關하여 率直한 意見交換을 했다고 밝혔다.

다. 經濟問題에 關해서는 貿易協定, 航空協定の 締結問題등 広範圍하게 中共側과 會談하였다.

日·中 農業의 “共存公營”을 위해 日·中 兩國의 專門家들이 交渉을 하도록 決定을 지었으며 먼저 官脇 全國農業中央委員會會長을 中共에 派遣키로 했다.

다. 明年 「오사카」에서 開催되는 中共博覽會開催에 關해서는 劉希文(中共國際貿易促進委員會代表)이 中心이 되어서 積極的으로 檢討하고 있다는 回答을 받았다.

<分析 및 評價>

가. 「나카소네」通産相의 中共訪問은 昨年 9月 日·中共間의 國交가 正常化된 以來 最初의 關係訪問으로서 日·中關係改善을 擴大 發展시키는데 큰 意義가 있는 것으로 分析됨.

나. 今般 「나카소네」通産相의 中共訪問의 主目的은 政府間의 貿易協定을 締結하기 위한 具體的인 日程을 協議하는데 있었다고 判斷됨.

다. 日·中共間의 貿易協定の 締結이 實現되는 경우 여태까지 覺書貿易에만 依存해 오던 日·中 兩國의 貿易은 民間水準의 領域을 벗어나 本格的인 段階에 들어서게 되며 이를 契機로 日·中 兩國間의 關係는 더욱 緊密해질 것으로 判斷됨.

라. 周恩來首相이 日·美安保條約과 日本의 軍備擴張에 對해서 방관적인

態도를 取한 것은 中共이 蘇聯의 軍事的인 威脅에 直面해 있으며 越南戰後의 蘇聯의 對亞細亞 進出을 日本의 軍事力으로 어느정도 견제하려는 計算에서 나온 것이라 評價됨.

마. 또한 明年봄 「오사카」에서 開催키로 되어 있는 中共博覽會開催에 中共側이 積極的인 協力を 約束한 것은 中共이 自國의 商品을 日本國民에게 널리 紹介하여 日本에서의 販路를 開拓하기 위한 것이라고 評價됨. (73.1.22 마이니찌新聞)

中共, 日本에 大使館 開設

1. 內 容

- 가. 73.2.1 中共은 駐日 中共 臨時代理大使 米國鈞을 통해 東京市內 「뉴·오다니」「호텔」에 첫 駐日大使館을 開設하고 正式으로 外交業務를 開始했다.
- 나. 北京駐在 日本大使館은 73.1.11 駐中共 臨時代理大使 「하야시 유이찌」(林祐一)에 의해 開設된 바 있다.
- 다. 駐日中共 臨時代理大使 米國鈞은 「뉴·오다니」「호텔」의 15層에 準備된 事務所에 鐵製의 看板을 달고 「발코니」에 5星紅旗를 달았다.
- 라. 兩國政府는 今年 3月中에 初大大使를 相互 交換키로 確認하고 日本側은 「고가와 헤이시로」(小川平四郎) 外務省 研修所長의 起用을 決定하고 中共側에 「아그레망」을 請求한 바 있으며 中共側도 곧 美國軍 臨時 代理大使를 통해서 初代大使의 「아그레망」을 要請할 것으로 보인다.

2. 分析 및 評價

가. 日本과 中共은 「다나카」·周恩來共同聲明(72.9.29)에서 “兩國政府는 國際法 및 國際慣習에 따라 相互間의 首都에 雙方大使館의 設置 및 그 任務遂行을 위해 必要한 모든 措置를 取하고 될 수 있는 한 早速히 大使를 交換할 것을 決定하였다”고 規定한 以來 相互 大使館設置에 熱意를 보여왔다.

나. 日本과 中共은 大使館設置을 위해

1) 73.1.11 駐中共 日本 代理大使 「하야시」를 中共에 赴任시켜 大使館을 開設케 하였으며

2) 73.1.31 駐日中共 代理大使 米國鈞을 日本에 赴任시킨 바 있음.

다. 米國鈞 駐日中共臨時 代理大使는 “「도쿄」工業大學”出身으로 現在까지 中國 國家科學委員會副局長兼 國際貿易促進委員會 技術顧問을 歷任하였는 바 中共 「비닐론」視察團團員(62.12) 中共貿易代表團員(64.

4)으로 日本을 訪問한 바 있음.

라. 米國鈞 駐日中共臨時 代理大使는 初代大使의 赴任時까지 日本側과 日中 共同聲明에 規定된 航空協定, 漁業, 貿易協定の 締結交渉에 臨時 代理大使로 活躍하게 될 것임으로 今後 日·中共 兩國間의 關係는 曆 緊密해질 것으로 評價됨. (73.2.1 마이니치新聞)

日·中共外交의 本格化(航空, 漁業協定 促進)

<內 容>

1. 3.27 中共의 初代 駐日大使 陳楚가 任地到着하여 28日 「오히라」 外相과 會談할 予定이며 「오가와」駐中共 大使도 29日 出發할 것임.
2. 日·中共 兩國外交는 昨年9月 正常화된 以來 半年만에 本軌道에 오르게 된 것임.

3. 이에 따라 日本政府는 航空, 漁業 등 実務協定締結交渉이 促進되어 兩國關係도 一層 緊密化될 것으로 期待하고 있음.
4. 日本은 現在 予備交渉이 終了된 航空協定과 함께 漁業協定에 대해서도 早急に 타결시킬 方針으로 航空, 漁業 兩協定交渉을 併行해 나갈 생각인 것임.

<分 析>

1. 日·中共 兩國은 今年 1월부터 各各 臨時 代理大使가 赴任한 以來 現在 初代大使의 赴任과 함께 本格的인 外交活動을 展開하기 始作했음.
2. 먼저 北京에서 予備會談을 가진바 있는 航空協定은 日·台路線을 維持하면서 日·中共 航空協定 締結은 困難하다는 判斷임.
3. 그러므로 日·中共 航空協定은 日本政府의 日, 台路線에 關한 결단 여하에 달려있는 것으로 協定이 締結되기까지는 相當한 期間이 걸릴것으로 보임.
* 30日 開催予定인 韓·日航空會談時 日本側에서 韓國上空 運行許可를 協議條件으로 들고 나올 可能性있음.
4. 日·中共間에는 1954年의 民間「베이스」의 漁業協定이 있으나 今年 6月로 期限이 滿了되고 있어 兩國大使의 赴任과 함께 航空協定과 漁業協定도 併行해서 推進할 것으로 보이며
5. 이어서 貿易, 郵便, 通信, 氣象 등의 実務協定을 順次的으로 推進할 것이며 平和 友好問題, 匪細匪의 地域協力機構設置 등 政治問題도 兩國大使의 正式赴任을 契機로 活潑히 펴 나갈 것으로 보임.

陳楚 駐日中共大使

1. 中共外交部 1級의 蘇聯通으로 71年 中共의 「유엔」代表團 次席의 身分으로 活躍한 바 있음.
2. 性格은 매우 섬세하고 예리한 判斷力을 가지고 있으며 「유모어」가 넘쳐흐르는 교묘한 話術을 가진 위인임.
蘇聯·東歐局長, 「아시아」, 北「아프리카」局長, 新聞局長職을 歷任한 바 있으며 1956년부터 3年間을 「모스크바」駐在 1965年 駐「가나」大使를 歷任한 바 있음. (요미우리 新聞)

日·中共關係의 發展

<內容要約>

1. 中共의 初代 駐日大使로 「첸·주」가 3월 27일 「도쿄」에 着任, 日本의 初代 駐中共大使 「하이시로·오가와」가 3.30일 北京에 着任했다. 이러한 大使의 交換은 지난 9月 29일 「다나카」와 周恩來가 北京에서 合意한 日·中共 外交關係樹立過程의 終結을 뜻한다.
2. 「다나카」·周恩來 合意以來 日·中共間의 接觸은 점점 擴大되어 大使館의 開設, 親善使節의 交換, 商事의 交換, 航空協定의 討議 등이 있었다.
3. 「다나카」가 지난해 劇的인 中共訪問을 통해 日本國內 政治의 關心을 불러 일으키긴 했지만 兩國關係의 基本的인 「패턴」을 불태 外交關係의 樹立 또는 發展에 있어서 中共의 意圖가 크게 支配해 왔다.
4. 中共의 対日戰略
日本의 中共問題 專門家들의 見解에 의하면 日·中共關係 發展에서 나타난 中共의 意圖는 다음과 같다.
가. 中共은 最優先的인 敵이 되는 蘇聯이 匪細匪에 進出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日本을 利用

나. 台灣을 國際社會로부터 孤立시키고 台灣에 대한 發言權을 強化하기 爲해서 日本을 利用

다. 中共自體의 經濟建設을 爲해서 日本의 先進된 技術과 經濟에 接近 하려는 것등

5. 蘇聯에 對한 견제

가. 最近 中共은 蘇聯을 견제하려는 意圖에서 「시베리아」에서의 日·蘇 油田共同開發에 日本의 參與를 公式적으로 反對하고 있다. 最近 中共의 對日政策 決定에 重要한 立案者의 하나인 「라오·진·치」(日·中 友好協會會長)는 日本 記者들에게 「시베리아」에서 開發될 油田이 “中共을 侵略하는 蘇聯의 「탱크」와 飛行機에 燃料을 供給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나. 中共은 2次大戰後 蘇聯이 占領하였던 「후카이도」 北端의 4個島嶼에 대한 日本의 主張을 公同연히 支持하고 있다.

6. 台灣問題

가. 中共은 前에 國府(台灣)에서 使用하던 大使館 建物を 中共에 讓渡 하도록 日本에 壓力을 加함으로써 최소한의 勝利를 거두었다. 그러나 日本은 아직도 未決로 남아있는 台灣의 將來에 對하여는 中共의 主張을 결코 容認하고 있지 않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

나. 그러나 日·台灣間의 外交關係 斷絶에도 不拘하고 貿易去來量은 漸增 하고 있다.

日本의 對中共, 對台灣貿易去來量比較

	1972 年 度		外交關係斷絶後 5 個月間 貿易量의 增加率
	輸 出 額	輸 入 額	
對 台 灣	11 億 弗	4 億 2 千 1 百萬	51% (貿易額 7 億 4 千 1 百萬)
對 中 共	6 億 9 百萬 弗	4 億 9 千 1 百萬	21%

7. 産業交流問題

中共은 日本産業界(自動車에서 原子力에 이르기까지)를 研究하기 위하여 지난 6個月동안 많은 사람을 派遣했다. 그러나 아직 이 分野의 交流에는 더 時間을 要한다.

8. 日本官吏들은 對中共關係의 發展이 日本에는 많은 利益을 가져 오지는 못했으나 美國이 우회하면서 새로운 均衡이 取해지는 亞細亞에서 日·中共關係의 發展은 政治적으로 重要的 意味를 갖는 것이라고 結論짓고 있다.

9. 앞으로 日·中共關係가 發展하면 大使의 交換과 더불어 航空協定, 漁業協定, 貿易協定 더 나아가 平和條約까지 予想된다.

<分析 및 評價>

1. 이번 日·中共兩國을 大使를 交換함으로써 지난해 9月 「다나카」가 中共을 訪問하고 周恩來와 合意한 公式的 外交關係 樹立을 爲한 形式的 作業을 끝냈다.
2. 兩國 初任大使의 「프로필」을 보면 「첸·추」는 지난 「유엔」總會 때 中國代表團의 副團長을 歷任한 사람으로 中共의 巨物級 外交官이며 「이이시로·오가와」도 美國, 「홍콩」, 「인도네시아」, 「벤마크」 등지에서 外交官生活을 한 亞細亞通의 노련한 外交官으로 兩國關係의 出發이 갖는 重要的 意味를 反映하고 있다.
3. 中共의 對日戰略은 다음과 같은 意圖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 가. 蘇聯의 亞細亞進出 沮止
 - 나. 台灣에 對한 發言權의 強化
 - 다. 國內經濟開發을 위한 先進된 日本 技術經濟와의 接觸
4. 이와같은 中共의 對日 戰略에 對應한 日本의 立場은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分析된다.

- 가. 새로운 国内政治構造속에서 強大國의 대열로 比약하려는 큰 意志
- 나. 蘇聯과의 「시베리아」油田共同開發, 北方領土問題의 解決 나아가 對 蘇關係 戰後問題의 終結
- 다. 台灣과의 經濟關係 貿易持續
- 라. 中共大陸을 向한 經濟的進出의 熱望
5. 이러한 日·中共의 立場은 現在 公式的 外交關係의 樹立段階에 까지 發展할 수 있도록 實際的인 問題속에서 共通分母를 찾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日·中共間의 關係發展은 産業, 經濟, 技術交流 등 實用的 方向에서 더욱 展開될 展望에 있으며 航空協定, 漁業協定, 貿易協定 등의 어려운 問題를 남겨두고 있다.
6. 이제까지의 日·中共關係 發展에 있어서는 中共의 「이니셔티브」가 크게 作用하는 基本「패턴」을 보여왔다. 앞으로의 展開에 있어서도 中共의 立場과 戰略的 意圖가 크게 作用할 것으로 展望된다.

(73.3.28 뉴욕타임즈)

中共, 日本에 石油輸出

<內容要約>

1. 日本은 처음으로 中共으로 부터 石油을 輸入하기 始作했다. 지난 4月末 中共은 通商國際價格으로 日本에 約 100 万吨의 石油을 팔았다. 日本石油開發會社 (지난 2月設立) 는 來年까지 中共으로 부터 300 万吨石油을 輸入하리라 한다.
2. 今年初 日·中共間의 石油協商은 中共側이 너무 高價를 要求하기 때문에 좌절되었었다. 日本도 中共이 繼續的인 石油供給을 保障할 것과 日本技術의 參與를 要求하고 있다.
3. 中共은 日本과의 交易을 促進시킬 必要가 있다. 더욱기 日·蘇間 「튜메니」石油協同開發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지금 中共이 日本과의 石油交易을 增大한다는 것은 外交的 意味가 介入되는 問題이다.

4. 中共은 來年度 石油輸出을 增加시킬 能力이 있다. 中共은 지난 數年 間 年平均 20%의 石油生産增加를 보였다.

1969	1,400 万吨
1970	1,800 万吨
1971	2,400 万吨
1972	2,800 万吨

앞으로 數年間 中共의 石油生産量은 急増할 것이 予想된다.

5. 그러나 中共은 現在 精油施設이 不足하다. 中共은 이 問題를 解決하기 爲해 文化革命以來 많은 努力과 投資를 해왔다.

中共은 새로 大規模 石油化學, 精油工場을 建設中이다.

6. 中共은 外國으로부터 技術을 輸入하는 것에 關心을 갖고 있지만 1950年代 蘇聯의 技術指導 經驗을 不快하게 생각하고 있다.

<分析 및 評價>

1. 今年 初부터 日·中共間에는 石油貿易協商이 있었으며 最近 日本을 訪問한 오승지 日·中 友好協會會長은 日·蘇間의 「시베리아」油田, 天然 「캐스」 共同開發을 非難하고 日本에 石油를 팔 用意가 있음을 公認한 바 있음.

2. 中共이 日本에 石油輸出을 기도하는 理由는

가. 對日 交易擴大의 一環

나. 石油化學工業建設을 위한 日本技術導入

다. 日·蘇間 經濟的 接近을 견제하려는 政治的 意圖

등으로 分析됨.

3. 日本이 中共으로부터 石油을 사들이려는 의도는

가. 世界的인 "「에너지」위기" 때문에 石油輸入 競争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나. 中東石油은 運搬의 難點이 있고 硫黃分 含有量이 크며

다. 中共에 技術進出企圖

등으로 判斷됨.

4. 日本은 最近 石油需要가 激增 (今年需要量 2億8千萬噸) 不足한 「에너지」資源을 充當하기 위해서 蘇聯과 「시베리아」油田 天然「가스」共同開發計劃을 推進하는 한편 中共과 石油輸入協商을 벌려 中·蘇間 政治的 對立關係를 利用 商業的 利得을 取하려는 것으로 보임.

(73.5.30 크리스찬, 싸이언스, 모니타)

〈中·蘇 關係〉

中共, 蘇聯을 非難

1. 內容要約

가. 3.7 中共은 蘇聯이 極東地域의 數個都市名을 中國式 地名에서 蘇聯式 地名으로 바꾸기로 決定한데 對하여 이는 中國領土라는 中共의 主張을 흐리게 하려는 非難한 政策이라고 非難함.

나. 이번 決定은 非難이 地域이 한때 中國領土였다는 證據를 抹消하기 爲한 것으로 보인다. 는 「뉴욕, 타임즈」紙의 論評을 인용하고 「뉴욕, 타임즈」紙가 非難의 正鵠을 짚었다. 고 말했다.

다. 露語로 改名된 都市名

1) 이 만(伊 曼) - 「다르비친스크」(露語로 멀리 있는 江이라는 뜻)

2) 「스찬」(蘇 昌) - 「빠르찌잔스크」(露語로 「지리」의 都市라는 뜻)

3) 「베이스찬」(北蘇昌) - 「우그레가멘스크」(露語로 石炭이라는 뜻)

4) 「리호진」(里伏錦) - 「루드노이」(露語로 광석이라는 뜻)

라. 中共은 蘇聯이 侵略者를 記念하기 爲해 中共侵略의 元凶인 「하바로프」와 「모라비에프」의 이름을 딴 「하바로스크」(中國名 伯刀)와 「모라비에브카」 등의 都市名을 改치려하지 않고 있다고 非難함.

2. 分 析

가. 中·蘇紛爭의 經過

1) 理念 紛争의 開始

1956年 蘇聯共産黨 第20次大會에서 「호르시초브」의 「平和共存論」과 戰爭기피론, 「스타린」격하運動으로 中·蘇紛争이 開始됨.

2) 理念 紛争에서 國家的 理解關係의 紛争으로

1960年以來 연해주와 「카자프스탄」 접경지대에서 國境紛争이 惹起되어 中·蘇紛争은 理念紛争에서 國家的 理解關係의 紛争으로 타락함.

3) 적대적 對立

가) 1966年 中共의 文化革命이 始作된 以來 中·蘇 紛争이 격화, 當時의 中共憲法에 「蘇聯 수정주의 타도」를 明示

나) 1969年 3月 연해주 「우수리」江의 「다만스키」도에서 大대의 武力衝突이 惹起되어 中·蘇兩國은 적대적으로 對立

나. 最近 中共의 對蘇 非難 논조

1) 中共의 最大의 적은 蘇聯이라고 公式 宣言

'73.1.1 인민일보는 「中共의 最大의 적은 蘇聯」이라고 公式 宣言하고 蘇聯의 中共封鎖政策은 失敗했다고 非難

2) 日本의 北方領土返還을 積極 支持

日本의 北方領土 反還要求를 積極 支持하여 蘇聯의 中共領土 占領의 不當性を 強調

3) 蘇聯의 對 亞細亞 進出을 非難

蘇聯이 主張하는 亞細亞安保體制의 構想에 對하여 이는 蘇聯이 中·蘇 國境에서의 軍事的 壓力을 背景으로 하여 印度大陸-印度洋-東南亞細亞-「브라지 보스토크」를 連結하는 새로운 「中共포위망」을 形成하려는 戰略이라고 非難

다. 極東地域 一部 地名改名 非難의 발단

이번 中共이 蘇聯을 非難한 것은 '소련방 最高 소비에트 보고
'73年 才1号' 極東地域의 몇개 都市名 變更에 関한 政령'을
指摘하여 非難한 것임.

3. 評 価

가. 蘇聯의 이번 改名措置는 中共의 旧領土에 対한 要求를 封鎖하기
위해 取해진 措置인 것으로 評價됨.

나. 蘇聯의 改名措置에 対한 中共의 非難은, 中共이 앞으로 紛爭地域
에 対한 領土權問題를 遲延시키겠다는 의의를 나타낸 것으로 判斷
됨.

다. 또한 中共의 對蘇 非難은

- 1) 蘇聯으로부터의 軍事的인 壓力에 대하여 警戒하고
- 2) 蘇聯의 對亞細亞 進出에 對한 경각심을 鼓吹하기 위한 目的도 지
니고 있다고 評價됨. (73.3.8. 마이니찌)

中·蘇間 大戦이 爆發할 것인가?

(國境衝突說을 中心으로)

1. 序 言

가. 72.12.11 익신보도, 中部亞細亞 中·蘇國境에서 中共兵士들이 兇경하
여 蘇聯兵士 5名과 유목민 若干名을 殺傷

나. 中共外交部 이를 強力否認, 蘇聯外交部는 이 事件에 對해 是認도, 否
認도 하지 않았다.

2. 「유엔」에서의 격렬한舌戰

- 가. 中共이 「유엔」加入 即時 印·파戰爭 발발, 인, 파兩國의 後見人도 바로 蘇聯과 中共이었으며, 인, 파간 戰爭이 치열할때 中·蘇兩國代表도 「유엔」에서 치열한 설전을 展開, 마치 戰爭 当事者가 인, [파]도 아닌 中·蘇인것 같았다.
- 나. 當時 「유엔」總회에서 投票에 붙였을때 절대 多數국이 印度의 侵略을 非難, 印度에게 각각 撤軍을 要求하였으나 蘇聯만이 이에 부표를 던졌음.
- 다. 最近 蘇聯이 불명예로운 일을 많이 해서 中共의 攻擊資料가 되어 왔으며 「유엔」에서의 설전에서 참패를 당하게 되어 이번에 國境 衝突事件을 날조, 中共을 공격하려는 짓임에 틀림없음.

3. 美·蘇, 蘇·美 位置의 전도

- 가. 中·蘇紛爭以來 中共이 蘇聯에 對하여 攻擊을 強化하였지만 美·蘇라는 式으로 美國을 才1 號로 取扱했었으나 美·中共 接近後부터 蘇·美라고 하고 있음.
- 나. 中共이 갑자기 西方國家들과의 關係를 180度 轉換시킨 理由는 蘇聯이 百萬大軍을 中·蘇國境에 배치함으로써 이에 對抗하기 爲에 對西方關係를 變更한것임.
- 다. 中共이 西方國家들과 關係를 맺게 됨으로써 交流가 增進되어 西方의 民主와 自由를 배우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됨으로써 中共內部的 平和도 進展될 것임.

4. 武力鬭爭은 불원

- 가. 蘇聯의 中共威脅은 過去 帝政러시아에 依해 占領한 광대한 土地를
뺏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爲한것.
- 나. 中共은 帝政러시아에 빼앗긴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니고 過去에
맺었던 不平等 條約의 基礎위에서 兩國의 實際的인 狀況에 依해 現
在의 國境線을 수정하자는 것이며
- 다. 現在도 國境會談이 繼續되고 있으므로 雙方間 戰爭이 爆發할 可能性
은 없음.

5. 分析 및 評價

- 가. 1960 年頃부터 표면화된 中・蘇理念 紛爭은 漸次 擴大되어 수많은
國境衝突을 誘發시켰으며 最近에는 10. 1 中共 國慶節記念 3 個紙
共同社說에서 蘇聯의 武力擴張, 對中共 軍事威脅等에 對한 強力한 非難
을 展開하여 再次 경화되는 傾向을 보여왔음.
- 나. 지난날의 中・蘇國境紛爭이 中・蘇理念紛爭에서 蘇聯의 주도권 喪失과
關係가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 이번 事件도 蘇側이 날조한 것으로
볼수 있으나 雙方間 國境駐屯 兵力增強, 결렬한 相互 非難등을 勵案
하면 衝突 可能性이 濃厚한 것으로 보임.
- 다. 一般적으로 蘇聯이 中共侵略準備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中共은 이
미 初步的인 核武器를 가졌고 地域이 광대하고 人口가 많아 「체코」
침공처럼 손쉽게 압다는 點과 大戰을 爆發시킬만큼 원수진 일도 없
다는 것으로 보아 侵攻意思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 라. 中共의 目的은 蘇聯 소멸이 아니고 世界共產主義 運動의 주도권 장
악, 非同盟 및 共產陣營에서의 盟主가 되는 것이고, 蘇聯은 계정「러
시아」에 依해 占領한 광대한 領土保衛라는 것을 上記할때 앞으로

国境에서의 些少한 衝突은 있겠으나 大戦은 爆發하지 않을 것으로 判断됨. (73.1.1 展望)

中·蘇紛争과 美国

<内容要約>

1. 다같이 核彈頭 「미사일」을 保有하고 있는 中·蘇間의 5,000「마일」 접경은 世界에서 가장 위태로운 国境線이 되고 있다. 몇몇 美国 軍事 專門家들의 研究에 依하면 이 地域의 戰爭 可能性은 반반이라고 한다.

가. 蘇聯側의 軍事狀況

- 国境地方에 40個 攻撃師團(기갑부대 보유)配置
- 後方に 수십개의 机动핵 「미사일」配置
- 長距離 「미사일」中共 기양

나. 中共側의 軍事狀況

- 世界 最大의 陸軍(前後方 活動要員 300万名 包含)
- 50余個의 「미사일」配置
- 中央亞細亞 山岳地帶에 長距離(3,400 마일) 「미사일」配置中

2. 「닉슨」은 中·蘇間의 紛争이 世界戰爭을 誘發할까 걱정하고 있다.

그는 亞細亞에서의 核戰爭은 美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3. 蘇聯은 中共이 처음 원폭실험을 한 1964年以後 亞細亞의 国境을 強化하기 始作했다. 1969年初부터 蘇聯은 中共의 核에 對한 予防攻撃을 示唆하고 있다.

4. 「앤더슨」은 처음으로 1969年 6月 「크레프린」의 강경론자들이 中

中共의 핵建設을 抹殺하기 爲한 攻擊을 속고하고 있다고 報告한 바 있다. 그의 陳述은 8月 當時 CIA局長 「리차드 헬름즈」에 依해 確認됐었다.

5. 그 以後 蘇聯의 高位 外交官들은 종종 「中共이 핵국가가 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고 말해왔다.

1970-71年間に 蘇聯은 兵力 및 物資의 동부 移動을 격증시켰었다.

6. 「닉슨」大統領은 1年前 「크레믈린」에서 「브레즈네프」와 대좌했을 때 美國은 中共에 對한 蘇聯의 攻擊을 美國의 國家利益에 對抗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警告했었다.

7. 가. 美國의 軍事專門家들은 中·蘇가 衝突했을 境遇 蘇聯이 中共을 焦土化할 수 있는 核能力을 保有하고 있다는에 意見을 같이하고 있다. 나. 그러나 中共도 蘇聯의 攻擊에 對한 待避施設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中共은 또 蘇聯의 도시들을 攻擊하기 위한 「미사일」을 配置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配置될 3,400 「마일」 「미사일」은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를 攻擊할 수 있는 것이다.

8. 專門家들에 依하면 中共의 戰略은 蘇聯의 擴張된 戰線을 괴롭히는 大規模 「게릴라」戰爭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中共은 蘇聯의 生命線이라 할수 있는 「시베리아」橫斷 鐵道를 攻擊하려할 것이다.

9. 中·蘇間의 이러한 戰爭可能性은 「닉슨」을 괴롭히고 있다. 「닉슨」은 外交로써 中·蘇戰爭을 預防하려 한다. 이제 「모스크바」, 「와싱턴」間의 「할·라인」과 같은 또 하나의 「와싱턴」-北京間 「할·라인」架設이 時急히 要請된다.

<分析 및 評價>

1. '60年代 중반부터 激化하기 始作한 中·蘇紛争은 最近 国境 地方의 軍事的 緊張이 高潮되는등 戰爭의 危險이 增大되고 있음.
2. 中·蘇紛争이 3 大國關係에 미친 影響
 - 가. 蘇聯은 美國에게 對中共核予防攻撃 또는 對中共 核共同 보복을 提議하고 中共의 核成長을 警戒하는등 中共封鎖를 爲한 對美接近
 - 나. 中共은 美·蘇結託을 저지하기 爲해 美國과 緊張緩和試圖
 - 다. 美國은 中·蘇戰爭을 利用 中·蘇와 多같이 關係改善 協商試圖
3. 中·蘇間의 紛争은 美國이 追求하는 「데탕트」政策에 有利한 條件을 提供하는 것이며 美國은 中·蘇 어느 한편에도 偏중하지 않는 초연한 立場에서 實리를 追求하면서 中·蘇戰爭 抑制를 기도할 것으로 展望됨. (73.5.27 퍼레이드)

中共, 蘇聯의 軍事的 威脅을 警戒

1. 內容要約

- 가. 中共의 전역에 걸친 모든 大小都市에서는 蘇聯의 攻撃 威脅에 對処하기 爲한 坑道構築 作業이 進行되고 있다.
 - 塹도를 깊이 파고 糧食을 비축하라 라는 毛沢東의 말이 도처에 걸려있다.
- 나. 中共을 訪問하는 各계 各층의 訪問客에게 緊張感을 造成해주는 것은 蘇聯의 軍事的 威脅이 박두하고 있다는 데 對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백만의 蘇聯軍이 北方接境地帶에 配置되어 있으며 적외에 찬 宣傳이 끊이지 않고 「蒙古」의 邊방에는 蘇聯의 軍事力이 增強

되고 있다는 것등이 그것이다.

- 다. 1959年 中共이 蘇聯으로부터 받은 強한 「쇼크」는 中共으로 하여금 오늘에 보는 바와 같은 對蘇政策을 낳게한 根源이 되고 있다.
- 라. 蘇聯은 中共과의 約定을 破기하고 여러 産業分野에서 從事하고 있던 顧問官과 技術者를 撤收하여 中共의 모든 産業施設의 建設은 「中途半端」의 狀態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對한 元凶은 當時 首相이었던 「호르시초브」이었다.
- 마. 몇년전 中共의 「로푸·놀」에 있는 核開發 施設에 對하여 蘇聯의 先제공격이 있을뻔 하였다는 설이 나돈 바 있다. 이러한 사태발전은 불발에 끝이고 말았으나 오늘날 蘇聯은 이에 對한 中共의 보복으로 「모스크바」나 「레닌그라드」와 같은 都市가 犧牲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바. 이와 같은 見解는 中共의 核「미사일」의 發展過程을 考慮한에서 나온 말이다. 中共의 高位官吏들은 中共은 決코 超大國家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들은 「美國이나 蘇聯은 最高 正상에 到達하여 있다. 이것은 위태로운 狀態이며 우리는 超大國 對열에 들어서기를 願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 사. 中共에 依한 攻擊의 可能性이 稀薄하더라도 緊張과 적의가 緩和되리라고 보기는 困難하다.
- 아. 中·蘇兩國間에 造成되고 있는 적의의 根源은 「짜르」時代下의 中國時代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아야 한다. 그때 제정「러시아」는 印度掌握을 궁극적인 目標로 하고 亞細亞에 浸透하여 왔다.
- 자. 제정「러시아」는 유럽의 열강들과 같이 當時 無力했던 中國을 공

락하여 中国領土의 큰 部分을 약탈하였다. 2次大戰後 中共에 返還된 「大連港」이 이에 屬한다.

차. 1969年 中共은 公式聲明을 통해 다음과 같이 言明하였다.

- 1) 中·蘇國境紛爭이 지금처럼 첨예화된 責任은 全적으로 中共側에 있지 않다.
- 2) 中共은 제정 「러시아」가 不平等 條約을 맺어 약탈한 領土에 對하여 返還을 要求한 적이 없다.
- 3) 이에 反해 이러한 不平等 條約의 規定에 依拠하여 中共의 領土를 要求하며 더구나 中共이 法的으로 認定하고 있는 領土를 要求하고 있는 것이 바로 蘇聯이다.
- 4) 이와 같은 領土擴張政策에 立脚한 蘇聯政府의 領土慾이 中·蘇接境地帶의 紛爭地域을 새로 만들고 있으며 이것이 國境紛爭의 根源이 되고 있다.

카. 國境紛爭은 理念鬭爭으로 因해 強化되고 있다. 中共은 蘇聯을 「수정주의」, 「社會帝國主義」라고 부르고 있다.

2. 分 析

가. 1956年 蘇聯 共產黨 第20次 黨大會에서 「호르시초브」의 平和 공존과 「스탈린」格下運動으로 始作된 中·蘇理念紛爭은 國家的 理解關係의 紛爭으로 發展하였음.

- 1) 1959. : 蘇聯은 中共에 派遣하였던 技術者를 一方的으로 撤収하고 原子彈 「생플」 提供을 거부
- 2) 1969. 3 : 연해주 「우수리」江의 「다만스키」도의 帰屬問題를 둘러싸고 大대의인 武力衝突을 惹起

나. 中共이 蘇聯에게 빼앗겼다고 主張하는 領土

- 1) 1858. 5 : 「아이군」條約으로 滿洲東北方에 있는 約 60 万平方 km
- 2) 1860. 11 : 北京條約으로 연해주외 約 40 万平方 km
- 3) 1864. 10 : 「합성」條約으로 「카자흐스탄」接境地帶의 約 44 万平方 km
- 4) 1881. 2 : 「신강·이리」條約으로 신강地域의 約 7 万平方 km

다. 最近 中共의 對蘇 非難 논조

1) 領土 改名을 非難

'73. 3. 7 中共은 蘇聯의 極東地域의 수개 都市名을 中國式 地名에서 蘇聯式 地名으로 바꾸기로 決定한데 對하여 「비열한 획책」이라고 非難

2) 蘇聯의 「亞細亞 集團安保體制」構想을 非難

지난 4. 12 「에카페」總회에서 中共代表 安致遠은 「한조대국이 東南亞의 「에게모니 掌握을 爲해서 그 勢力을 擴張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며 西南亞細亞로부터 極東 그리고 印度洋으로부터 太平洋에 이르기까지 그의 武力을 誇시 이 地域國家들의 主權을 侵權하고 安全에 威脅을 주고 있다고 指摘

3) 近 유럽 安保會議에 對한 攻擊

最近 中共은 近 유럽 安保會議 予備會議이 開催되고 있는데 對하여 이는 유럽의 安保를 圖謀하려는 모임이 아니라 유럽의 緊張을 造成하는 會議라고 攻擊

3. 評 価

가. 越南戰後 中·蘇關係는 改善되기는 커녕 오히려 兩國間의 批判 「聲

페인」이 敵化되고 있으며 特히 中共의 對美接近이 擴大됨에 따라 中・蘇兩國의 對立의 樣相은 더욱 深刻해지고 있음.

나. 蘇聯이 가장 境界하고 있는 點은 「닉슨·독트린」에 依해 縮小해 가고 있는 美國의 軍事力을 代身해서 美國, 中共, 日本間에 반소적인 聯合이 形成되어 이 3大國의 影響下에 반소적인 性格을 갖는 勢力이 東南亞에 구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임.

다. 또한 中共은 中・蘇國境에 있어서의 蘇聯의 軍事의 壓力을 強하게 느끼고 있으며 越南戰後 蘇聯이 美國의 後退로 惹起되는 틈을 利用하여 印度大陸에서 東南亞細亞, 日本을 맺는 對 中共包圍網을 形成하고 있다고 警戒心을 強化하고 있음.

라. 最近 中共이 對外的으로는 勿論 對內的으로 對蘇 非難運動을 強化하고 蘇聯의 軍事的인 侵略이 박두하고 있는듯한 雰靄氣를 造成하고 있는 點은 領土返還에 對한 執念을 拋棄하지 않고 있으며 실리외교를 추구하려는 저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評價됨.

3) 其他 主要對外關係

〈美 國〉

「닉슨」의 越南平和가 全東南亞 國家에 미치는 影響

1. 內容要約

- 가. 「닉슨」大統領은 西部 白堊館에서 越南, 「라오스」, 「캄보디아」, 泰國,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比律賓 訪問을 끝내고 온 「애그뉴」副統領의 帰國報告를 받고 越南平和協定이 東南亞細亞 여러나라의 運命을 決定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 나. 「애그뉴」가 8個國을 訪問하는 동안 이 나라들의 重要 關心事는 「티우」 越南大統領의 態도와 越南 復旧問題였다.
- 다. 美國은 越南 休戰後 「라오스」와 「캄보디아」 休戰이 곧 成立될 것으로 본다.
- 라. 「닉슨」大統領은 「하노이」와 中共訪問을 끝내고 帰國하는 「키신저」補佐官과 國家安保會議 議員들과 印度支那를 包含한 東南亞細亞에 대해서 討議할 것이다.

2. 分析 및 評價

- 가. 「키신저」의 「하노이」와 北京訪問, 「애그뉴」副統領의 東南亞巡訪, 越南 休戰 協定 保障에 관한 國際會議 그리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休戰 등에 따라 美國의 東南亞와 太平洋 沿岸에 대한 美國의 政策이 한달 以內에 判明될 것으로 보인다.
- 나. 美國이 印度支那 3個國의 休戰協定을 直接 다루느냐 또는 3個國 自身에 맞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國際機構를 통해서 監視하느냐

나하는 問題와 美國이 過去 4半世紀 동안 이 地域의 同盟國들과의 相互 防衛協定과 軍事基地를 계속 維持하느냐 하는 問題가 대두된다.

다. 東南亞 條約機構, 日本, 台灣, 比律賓과의 相互防衛協定 그리고 濠洲와 「뉴질랜드」와 맺고 있는 「언저스」同盟, 또 韓國, 日本, 泰國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과 東南亞 海域을 防衛하고 있는 7艦隊 등의 問題가 提起된다.

라. 中共은 現在 國內 政治 經濟問題와 蘇聯과의 紛爭으로 이웃 여러 나라에게 直接的인 危險存在은 아니나 「키신저」의 北京 訪問中 다음 問題가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1) 台灣의 美軍 撤収
- 2) 美國, 中共間의 貿易, 文化, 言論 및 體育交流
- 3) 印度支那·「파리」平和會談에 對한 兩國의 立場 再考
- 4) 蘇聯의 亞細亞에 對한 影響 膨脹 문제
- 5) 「캄보디아」休戰에 따라 中共에 滞在하고 있는 「시하노크」의 問題
- 6) 北韓 外相 許茨의 北京訪問에 따라 駐韓 美軍의 撤収와 「언커크」 解体問題等

마. 「키신저」補佐官은 周恩來와의 會談에서 越南 休戰後 復旧費 配定 問題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며, 蘇聯의 越盟에 對한 10億弗 援助說에 기인되는 中·蘇 各측에 對한 討議도 주목된다.

바. 中共 北韓 外相間의 共同聲明에 따라서 北韓이 間接적으로나마 西歐와 外交를 펼치려 한다는 點에서 韓國도 이에 對한 對備策이 시급하다. (73.2.11. 「워싱턴 포스트」지)

美国 大企業人들의 東独行

<內容要約>

1. 中共, 蘇聯 다음은 東独인가?
2. 이달초 美国의 有力한 實業人들(大部分 「칼리포니아」出身)이 通商会談을 갖기 위해 東独에 到着하였다.
3. 美国側 代表團의 면모를 보면 「록크히드」 航空会社 社長을 비롯하여 「아메리카」銀行 및 「칼리포니아」, 「유니온」銀行幹部, 「칼리포니아」, 「유니온」石油会社, 「록웰」國際投資会社 등등 大企業의 幹部들이 包含된다.
4. 東独은 最近 蘇聯 및 COMECON 國家들과의 貿易量에 關係없이 長期 低利 信用條件이라면 어느 國家와도 通商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5. 지난 2年동안 東独의 外國貿易銀行은 「런던」에서 많은 金을 購買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東独中央銀行은 지난해 日本으로부터 多量의 美国「달러」를 信用貸付 받았다고 한다.
6. 東独政府는 美国 代表團에게 重要 外國貴賓에게만 베푸는 宮庭「리셉션」에는 東独 科學技術省 長官 「돌리우쓰」, 「슈루벤티우트」가 參席했다.

<分析 및 評價>

1. 이번 美国과 東独間의 通商会談은 지난해 東独 國務相 「케아르트 바일」이 美国을 訪問했을때 처음 시작됐음.
2. 美国 實業人들은 이번 東独訪問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갖는 것으로 分析됨.
가. 東独市場의 開拓(現在의 國際收支不均衡을 타개하려는 努力의 一環

으로)

나. 合作投資의 可能性 타진

3. 東獨側에서는 美國과의 通商會談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關心을 갖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가. 特許權의 賣買

나. 科學技術情報의 交流 (西獨과 比較하여 低水準에 있는 技術의 發展을 위해)

다. 美國과의 通商條件 打診 X 東獨內 資本不足을 「카바」하기 위한 美國 資本의 必要)

4. 이번 美國, 東獨間의 通商會談은 東·西獨 關係의 現實的 立場은 東獨에 대해서 상투적 經濟關係를 發展시키려는 美國의 立場은 조만간 같은 分斷國家인 韓國에도 適用될 수 있으리라는 展望을 排除할 수 없다. (73.4.10. 「크리스찬·사이언스·모니타」)

「닉슨」, 「브란트」會談에 對한 展望

<內容要約>

1. 5月 「와싱턴」을 訪問하도록 되어 있는 「브란트」 西獨首相과 「닉슨」 大統領間의 會談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討論될 것으로 期待된다.

가. 西方의 紐帶關係

나. 國際的 財政問題

다. 東西關係

2. 「닉슨」이나 「브란트」는 多같이 西歐 駐屯 美軍의 撤収問題때문에 苦心하고 있다.

3. 비록 兩 首腦는 政治 「이메올로지」의으로는 相反된 目的을 가질지

모르지만 다같이 歴史的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지닌 實用主義者이기 때문에 外交政策에 있어서 커다란 類似點이 있다.

4. 「브란트」는 지난 수개월 동안 蘇聯·東獨 또는 東歐諸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해 온갖 方法으로 그의 東方政策을 追求해 오고 있다.
5. 「닉슨」도 蘇聯과 戰略武器, 「유럽」安保에 관한 協商을 벌이는 등, 對決의 時代로부터 보다 建設的인 關係로 履行하는 方法을 찾아 主要 共產國家들과의 「베랑프」를 追求해 왔다.
6. 이 兩指導者는 다같이 그들의 政策을 西歐와 美國間의 健全한 同盟 關係持續이라는 確고한 假定에 基礎해 왔다.
7. 最近에 와서 이러한 基本的 假定은 침식을 당하고 있다. 「닉슨」이나 「브란트」는 近來 西歐의 同盟關係가 困難을 겪고 있으며 美國이 西歐에 繼續 殘留하는 것은 이제 正當하지 못하다는 警告를 듣고 있다.
- 가. 美國 上院을 支配하는 民主黨이 60萬 海外駐屯 美軍(그 半이 西獨에 駐屯)의 減縮을 圧倒的으로 決議한 事實은 큰 契機가 된다.
- 나. 西獨 社會民主黨內의 젊은 左派勢力이 계속 西獨 駐屯 美軍의 全面 撤収를 要求하고 있는 事實도 重要하다.
8. 이러한 傾向은 이상스럽게도 「닉슨」이나 「브란트」에 의해 追求되고 있는 緊張緩和 政策이 현저한 成功을 걸음에 따라 더욱 促進돼 왔다.
9. 蘇聯의 「브레즈네프」는 5月 中旬 西獨을 訪問하고 다시 6월에 美國을 訪問하게 될 것이다.

<分析 및 評價>

1. 「닉슨」이나 「브란트」의 外交政策은 美國과 西歐間의 健全한 同盟 關係를 持續한다는 基本假定에 基礎하고 있는 점에서 一致한다.
- 가. 「닉슨」의 그의 對蘇 政策에 있어서 西歐의 安全은 계속 美國의

保障을 要求하고 있다는 것을 前提한다.

나. 「브란트」는 美國의 防衛第1線은 中央 「유럽」이라는 信念을 갖고 있다.

2. 그러나 「닉슨」과 「브란트」는 最近 緊張緩和政策을 推進해 가는 過程에서 다음과 같은 國內政治的 苦悶(당장 外交政策에 威脅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에 처해 있다.

가. 美國上院 民主黨의 「유럽」駐屯 美軍問題에 대한 強경태도는 「닉슨」에게 政治的 壓力이 되고 있다.

나. 西獨 社民黨內 젊은 黨員間에 反美感情이 發展하고 있는 경향(左派 勢力은 中동)은 現 指導體制의 維持와 깊은 關聯이 있다.

3. 時期的으로 이번 「브란트」의 다음과 같은 點에서 意義를 찾을 수 있다.

가. 5月 「브레즈네프」 西獨訪問 直前

나. 5月 東·西獨間 基本條約의 國會 批准 直前

다. 7月 「브레즈네프」 美國訪問前

4. 이번 「닉슨」·「브란트」會談에서는 東·西 關係가 主題가 될 것이며 다음과 같은 展望이 可能하다.

가. 東·西關係 展望을 위한 美國과 西歐 유대關係(軍事的, 經濟的)의 緊要性 再強調

나. 東·西間 緊張緩和를 發展시키기 위한 새로운 可能性 타진

5. 最近 「브란트」의 正常外交 행각은 다음과 같은 目標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가. 東·西獨 基本條約의 國會비준을 앞둔 國內政治 분위기 造成

나. 그의 東方政策을 一次的으로 마무리 짓는 作業

다. 東西關係 및 東獨問題에 關한 새로운 可能性 또는 現實性의 檢討

라. 美·蘇 強大國과 더불어 九州問題에 對한 西獨의 積極적 役割 摸索
(73.4.12 「더·이브닝·스타 앤드·데일리·뉴스」)

台灣駐屯 美軍의 增強

<內容要約>

1. 지난해 「닉슨」大統領은 上海 共同聲明에서 台灣 駐屯 美軍 撤収를 約束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台灣의 美軍規模나 戰鬥能力이 增強되고 있다. 美軍減縮計劃은 아직 살아 있지만 언제 그것이 實現될지는 不確實하다.
2. 台灣의 狀況은 「인도차이나」事態와 直接的인 關聯이 있다. 지난 가을 美國은 戰鬥폭격기 2個中隊를 台灣으로 이동시켰다.
3. 台灣의 美國 大使館 및 軍事代弁人들은 이 事實을 얘기하질 꺼리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時日內에 戰鬥機들이 撤収하리라고는 豫想되지 않는다.
4. 이밖에 台灣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은 9,000 ~ 10,000 名의 兵力과 指揮參謀部와 通信要員(전파탐지, 「레다모니터」등) 등이다
5. 上海 共同聲明(1972.2.28)에서 美國은 台灣으로부터 美國의 軍隊와 軍事施設을 撤収한다는 窮極的인 目的을 確認한다. 이 地域에 緊張이 사라짐에 따라 台灣駐屯 美軍이나 軍事施設을 漸進的으로 減少될 것이다"라고 表現했었다.
6. F4 「펜텀」爆擊機 2個中隊는 台灣에 있던 約40 臺의 F5 戰鬥 「젯트」機(自由騎士)를 越南에 派遣함으로써(美國은 越南終戰直前に 韓國 「이란」·台灣으로부터 100 臺의 F5 機를 越南에 보냈다) 惹起된 台灣 空中防衛의 차질을 「카버」하기 위해서 「오끼나와」에서 「칭.창.강」基地로 옮겨온 것이다.
7. F4는 攻擊能力을 가진 最高의 戰鬥機다. 美國은 이러한 戰鬥機를 台灣에 提供함으로써 中共과의 敵對的 대치를 擴大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8. 남은 F5A는 F5E로 代置될 것이다. F5E는 사격범위가 制限돼 있고 폭탄 運搬能力이 없어 攻擊的 威脅이 적다. 台灣에 F5E를 生産하는 計劃이 樹立돼 있으나 몇년 걸릴 것이다. 그동안은 美國의 生産品으로 充當될 것이다.
9. 비록 中共이 지금은 台灣을 얻으려는 平和的 努力에 몰두하고 있다 하더라도 美國으로서는 台灣防衛를 도와줄 公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分析 및 評價〉

1. 最近 美國이 「오끼나와」基地로 부터 F4 「팬텀」戰闘機 2個中隊를 台灣으로 이동시킨 것은 越南에 차출되었던 F5 40台的 대체품으로 攻擊力의 增強이라기 보다는 단지 台灣 防衛目的을 갖는 것으로 보임.
2. 지난해 美·中共間의 上海 共同聲明은 “緊張이 減少됨에 따라 台灣 駐屯 美軍이나 軍事施設을 漸進的으로 減少”한다고 하여 美軍撤収에 緊張減少를 前提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未決로 남아있는 印支·「캄보디아」事態는 美軍의 台灣駐屯 계속의 明分을 提供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3. 中共도 蘇聯과의 대치때문에 굳이 攻擊的 意味만 없다면 美軍의 台灣駐屯을 默認하여 美國으로 하여금 既存防衛 公約을 遵守한다는 측면을 살려 주면서 長期的인 台灣政策을 企圖하려는 것으로 判斷됨.
4. 美國은 中共과의 敵對的 대치를 擴大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既存 防衛 公約을 遵守한다는 立場을 견지, 台灣의 戰略的 價值를 保存하려 할 것으로 展望됨. (73.5.31 「이브닝·스타·앤드 데일리·뉴스」)

美国, 蒙古와의 外交摸索

<内容要約>

1. 美国이 蒙古와 外交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接觸을 해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消息通에 의하면 美国과 “蒙古人民共和国” 官吏들이 最近 「유럽」 또는 亞細亞 國家의 首都(兩國이 다같이 大使館을 가지고 있는)에서 接觸을 가졌으며 公式的 國家關係를 再開하기 위한 細部的 協商이 지금 進行中이거나 아니면 곧 開幕될 것이라고 伝한다.
2. 美国務省은 蒙古에 大使館을 開設하기 위해 노련한 外交官을 選拔했으며 추운 겨울이 오기전에 그를 「우란 베이토」(蒙古首都)에 派遣하길 希望하고 있다. 그는 「윌리엄·부라운」이라는 사람으로 中·蘇 問題 專門家며 中國語와 蘇聯語를 驅使할 수 있다고 한다. 내일까지 그는 英國 「리드」大學校에서 蒙古의 教育을 마치리라 한다.
3. 國府 台灣 政府는 最近의 事態發展을 주시할 뿐이다. 外交部部長 「차·웨·필」博士는 最近 “우리는 通報받았다. 우리는 美国國務省에 게 우리의 立場을 確實히 했다”고 말했다. 차박사는 蒙古가 中國의 一部이며 따라서 獨立國家처럼 外交關係를 가질 수 없다고 主張하는 台灣의 立場은 變함없다고 말했다.
4. 世界 國家들은 台灣의 主張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蒙古는 1961年 「유엔」에 加入됐고 大部分 國家들이 承認하고 있다. 日本도 지난해 蒙古와 外交關係를 樹立했다.
5. 美国의 境遇는 좀다른 점이 있다. 美国의 蒙古에 처한 態度는 台灣에 처한 政治的 支援의 尺度가 되었는데 蔣介石 政府는 美国에 그러한 行動을 포기하도록 影響力을 行使했으며 美国도 蔣介石을 자극시키지 않으려 했다.
6. 그러나 美国은 中共과도 關係正常化를 할 정도로 事態가 變했다.

台灣도 「유엔」의 석을 中共에 뺏기는 등 外交的 試練을 당하면서 보다 實用主義로 轉換하고 있다.

7. 2次大戰直後 國民黨政府(장개석)는 蒙古를 國民投票에 따라 獨立시키기로 蘇聯과 合意하였다. (1945.10.20日 國民投票 結果 蒙古獨立이 實現됐다.) 그러나 國民黨政府가 中共에게 本土를 상실한 以後 1951年 蔣介石은 蒙古의 獨立을 撤回했다.
8. 中共은 蒙古의 獨立을 受諾하고는 있으나 毛沢東은 여전히 蒙古 領土에 대한 野心을 가지고 있다. 1950 ~ 1960年代 초반에 걸쳐 中共은 蘇聯과 蒙古에 대한 影響力을 다루었다.
9. 美國務省 官吏들은 中·蘇間의 鬭爭을 觀測하기 위해서도 蒙古에 外交使節을 보내고 싶어한다.
蒙古는 最近 蘇聯의 壓迫을 拒否하고 同時에 中共의 影響力을 追求하려는 經濟援助 提議를 拒絶했다.
10. 蒙古에는 現在 約3萬의 蘇聯軍이 駐屯하고 있다. 蒙古에 있는 英國 仙蘭西 등의 大使館은 中·蘇間의 다툼을 注視하고 있다. 이제 美國도 그런 狀況을 直視하고 싶어한다.

<分析 및 評価>

1. 最近 美國이 蒙古와의 外交關係 樹立을 摸索하고 있는 事實은 美國이 中共과의 關係改善으로서 事實上 外交關係를 樹立한 以後에 進展된 狀況이며 美國外交 政策이 現實적으로 適應되고 있는 方向을 보여주는 點에서 重要視됨.
2. 美國은 以前부터 蒙古와의 外交關係 開設을 希望해 왔으나 蒙古는 中國을 合法的으로 代表하는 國府의 領土이며 그를 獨立國家視하여 外交關係를 맺는 것을 反對한다는 蔣介石의 主張과 台灣을 政治적으로 支援해야 할 立場때문에 保留돼 왔던 것으로 보임.

3. 그러나 最近 中共의 「유엔」加入등으로 台湾의 國際的 地位나 發言權이 弱화되고, 中共과의 關係正常化등으로 台湾에 대한 美國의 政策的 比重이 輕視되는 경향등 狀況의 變化가 美國으로 하여금 蒙古와의 外交樹立을 적극 모색하도록 해준 背景이 된것으로 判斷됨.
4. 台湾도 最近 外交的 試練에 당면하여 現實主義的 政策轉換이 不可避했으며 특히 去年 日本과 蒙古와의 外交關係 樹立을 契機로 蒙古에 대한 領土主權등 非現實的인 主張에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5. 蒙古는 中·蘇 接境에 위치한 地理的 要因과 歷史的 背景으로 보아 中·蘇間의 影響力 競合 地域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爭鬪는 특히 最近 中·蘇 國境紛爭이 激化함에 따라 더욱 兇惡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蒙古 自身은 中·蘇의 影響力을 다같이 거부하고 독립성을 確保하기 위해 美國의 介入을 希望할지도 모르며 美國도 이러한 狀況을 利用 中·蘇 紛爭의 現場에다 外交使節을 보내는등 匪細匪 共產國家에 影響力을 擴大하는 積極外交를 시도해볼만하므로 美國과 蒙古間의 外交的 접촉은 實現될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됨.

(73.6.2 「이브닝·스타·앤드·데일리 뉴스」)

<日 本>

日本, 越盟과의 外交關係 樹立交渉

日本政府는 2.8. 越南이 全 「베트남」을 代表하는 唯一 政府이다. 라는 従來의 見解를 修正하여 越盟과의 國交正常化에 임할 方針을 굳히고 있다.

1. 內容要約

가. 2.6 越盟勞動黨機關紙 「니안잔」紙 編輯長 「호안춘」이 “日本과의 國交樹立을 歡迎한다.”라고 発言한 것이 日本에 전해졌다.

나. 越盟側이 이렇듯 柔軟한 態度를 表示한데 對해 日本政府는 이를 越盟과의 關係를 改善하고 나아가 外交關係를 樹立하는데 있어서 좋은 條件이 造成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 「니카이도」관방장관은 이와 關聯하여 2.8의 記者會見에서 앞으로 의 對越盟政策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陳述함.

- 1) 今後 對越盟政策은 従來의 對越南政策에 拘碍받지 않는다.
- 2) 人道的 立場에서 越盟에 緊急援助를 한다.
- 3) 本格的인 對越盟 復興計劃을 다른 나라와의 協力の 形態로서 實施한다.
- 4) 이를 위해 곧 外務省의 担当官을 越盟에 派遣한다.

2. 分 析

가. 問題의 反應을 일으킨 越盟 勞動黨 機關紙 編輯長 「호안춘」은

政府의 外交当局者는 아니나 越盟政府 首腦의 意向을 充分히 反映할 수 있는 立場에 있으며 越南休戰後 처음으로 越盟側이 對日關係에 關한 發言을 하였다는 點에서 注目視됨.

나. 同 編輯長은 2.6 日本의 東京放送 特派員과의 會見에서,

- 1) 日本政府는 美國의 越南 侵略戰에 協力하였으나 그것은 過去의 일로 돌리며 兩國과의 關係 正常化가 必要하다.
 - 2) 日本政府의 「사이곤」政府와의 關係는 越盟과의 國交樹立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
 - 3) 日本의 對越盟 援助를 歡迎한다라고 越盟側의 意向을 밝힌바 있다.
- 다. 이보다 앞서 73.2.2 日本의 「오히라」外相은 「越南政府가 全「베트남」을 代表하지 않는다」라고 衆의원 豫算委員會에서 公式으로 認定한 바 있으나 이번 官房長官의 發言에서 더욱 明確한 形態로 나타나고 있음.

나. 越南 休戰以後 越盟에 對한 各國의 經濟復興 計劃이 具體化되고 있으며 越盟을 承認하려는 움직임이 顯著하게 나타나고 있음.

1) 美 國

美國의 印度支那 復興援助額은 5年間 總額 75 億弗, 이 중 對越盟 經濟援助額은 約 25 億弗에 달할 것으로 보임.

2) 「카나다」

이미 越盟 承認

3) 濠 洲

越盟과의 國交 樹立交涉을 開始함.

4) 英國, 「프랑스」

이미 「하노이」에 代表部 設置

5) 「핀란드」, 「아이슬랜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에 이어 昨年부터 今年에 걸쳐서 越盟을 承認하려고 하고 있음.

3. 評 面

가. 越南의 休戰成立, 急「템포」로 越盟을 承認하려는 世界の 움직임, 世界各國의 對越盟戰後 復旧計劃이 具体化되고 있는 新局面을 맞이하여 日本政府는 「越南이 前「베트남」을 代表한다」는 從來의 立場에 對한 修正이 不可避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判斷됨.

나. 越盟側의 外交關係 樹立希望에 對하여 日本政府가 민감한 反應과 熱意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今年안으로 日本과 越盟과의 外交關係가 樹立될 可能性이 농후하다고 評價됨.

〈蘇 聯〉

「브란트」의 「브레즈네프」西獨訪問 招請

〈內容要約〉

1. 西獨首相「브란트」는 蘇聯共産黨 書記長 「브레즈네프」가 5월 12 ~ 17 일간 西獨을 訪問하도록 招請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지난 1971年9月 「브란트」, 「브레즈네프」, 「크리미아」會談後 「브란트」西獨政府는 「베르린」4 國協定の 合議를 비롯해서 1970年 締結된 對蘇, 對「폴란드」友好條約의 비준, 東獨政府와의 基本條約締結을 成功的으로 遂行해 왔다.
3. 이러한 作業들은 蘇聯이 提案한 「헬싱키」에서의 「유럽」安保, 協力會議, 또는 中央「유럽」減軍에 관한 「비엔나」會談을 實現시키는 契機를 만들어 주었다.
4. 그러나 아직도 「브란트」政府는 지난해 12月合議된 東·西獨間 基本條約에 對한 議會의 비준을 얻는 問題와 對「체코」關係 正常化의 問題를 남겨 놓고 있다.
5. 西獨政府消息通에 의하면 東·西獨 基本條約에 對한 議會의 비준投票가 5月中 「브레즈네프」訪問 直前에 있을 것이라고 한다.
6. 西獨, 「체코」關係 正常化 問題는 「문헨」條約(1938年 「히틀러」가 「체코」의 分割을 強要한)의 無効性을 西獨이 認定하라는 「체코」의 要求에 對해 雙方이 滿足스러운 公式을 찾는 方向에서 解決을 摸索하고 있다.
7. 「브란트」首相은 「브레즈네프」가 西獨을 訪問하기 전에 獨·蘇間 文化, 科學交流 協定속에 西「베르린」을 包含시킴으로써 西「베르린」問題에 對한 蘇聯의 態度 緩和를 期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 最近 蘇聯外交官들은 西獨이 西「베르린」을 對外的으로 代表하며 關係를 維持할 수 있다. 고 明示한 「베르린」4 個國 協定에도 不拘하고 西「베르린」은 西獨과는 別개의 한 領土로 取扱되어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分析 및 評価>

1. 이번 「브란트」의 「브레즈네프」 西獨訪問 招請은 지난 1971年 以來 本格化되었던 「브란트」政府의 東方政策과 蘇聯의 「유럽」緊張緩和 政策이 堅은 成功的인 結果를 確認하고 새로운 進진을 摸索하는 契機를 만들려는 것으로 分析됨.
2. 「브란트」西獨政府는 「유럽」의 平和속에서 獨逸 統一을 實現한다는 政策의 基礎위에 다음과 같은 當面問題를 안고 있음.
 - 가. 東·西獨 基本條約의 國會 비준
 - 나. 「베르린」問題
 - 다.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와의 關係 正常化
3. 「브란트」政府가 東·西獨 基本條約 國會비준 投票를 앞두고 「브레즈네프」의 訪獨을 希望한 것은 國內政治的 效果를 거냥하는 뜻으로 分析됨.
4. 西獨 下院의 議席分布로 보아 비준通過는 無難할 것으로 展望되나 基民당의 反對와 「베르린」問題에 대한 蘇聯과의 見解差는 크게 論難될 問題點으로 남아 있음.
5. 「브레즈네프」의 西獨訪問이 實現되고 東·西獨 基本條約의 國會批准이 끝나면 西獨, 「체코」關係 正常化에도 큰 進展이 期待된다. 이러한 西獨, 「체코」關係 正常化는 類似한 西獨·「헝가리」, 西獨·「불가리아」關係의 正常化를 促進하게 될 것이 展望됨.
6. 「브레즈네프」는 지난 1971年 10月 仏蘭西를 訪問한 以來 두번째로

西方側 國家를 訪問하는 것이 된다. 蘇聯으로서는 「브레즈네프」의 西獨訪問時 그들이 提案했던 「유럽」安保會議을 進전시키도록 西獨의 協調를 要請하고 그동안 追求해 온 「유럽」의 緊張緩和을 더욱 堅固한 段階로 發展시키는 契機를 만들려 할 것으로 予想됨.

이렇게 緊張緩和의 기틀이 確立되면 蘇聯은 對「아시아」政策에 있어 보다 有利한 立場을 確保하게 될 것임.

7. 東·西獨間 基本條約이 國會批准을 얻어 東·西獨間의 緊張緩和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西獨이 推進하고 있는 東方政策을 통한 獨逸의 統一 問題는 現狀固定化로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評價됨.

(73.3.29 뉴-욕 타임스)

蘇聯, 北歐諸國에 外交攻勢 強化

< 內容要約 >

- 가. 蘇聯首相 「코시긴」이 5日間(73.4.2 ~ 6) 에 걸친 「스웨덴」訪問을 끝내고 4.6 歸國하였다.
- 나. 蘇聯邦 最高會議 副議長 「포드고르니」도 蘇聯, 「핀란드」友好協力 相互 援助條約 25周年 紀念行事에 參加차 4.3 부터 「핀란드」를 訪問中에 있다.
- 다. 또한 蘇聯共産黨 書記長 「브레즈네프」도 今年 5월에 西獨을 訪問하기로 予定되어 있다.
- 라. 最近의 蘇聯新聞들은 이 3거두의 北歐諸國訪問에 관한 記事를 大 大的으로 報道하고 「크레브린」의 「트로이카」 訪問外交가 歐洲를 中心으로 新展開를 開始하였음을 인상지으려고 하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 가. 蘇聯 3거두의 「스웨덴」, 「핀란드」 및 西獨의 同時 多발적인

訪問外交는 越南戰의 休戰이 成立된 지금 歐洲의 現狀固定化 政策에 拍車를 加하기 위해 그 具體的인 方案으로

- 1) 全 歐洲安保會議의 6月開催를 위한 포석
- 2) 東·西獨 基本條約의 批准을 促進
- 3) 蘇聯 西獨關係의 一層 安全化와 경협강화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나. 이번 蘇聯 3거두의 訪問外交가 4.6 「스웨덴」의 北韓과의 國交樹立決定과 때를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스웨덴」政府의 同決定에는 蘇聯의 影響力이 作用했을 것으로 分析됨.

다. 「스웨덴」은 傳統的으로 親西方國家이었으나 美國이 越南戰 介入을 擴大하자 「스웨덴」政府는 美國의 越南政策에 대해 辛辣한 攻擊을 加하고 歐洲安保會議의 開催를 支持하는 등 親西方政策에 修正을 加하여 왔음.

라. 이런 點으로 미루어 보다 이번 「코시긴」의 「스웨덴」訪問은 最近 惡化되어 있는 美國과 「스웨덴」의 外交關係를 逆利用하여 蘇聯의 影響力을 扶植하려는데 目的이 있었다고 評價됨.

마. 「핀란드」역시 「스웨덴」의 뒤를 이어 北韓과의 外交關係를 樹立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同國의 首都 「헬싱키」에서는 昨年 11月以來 歐洲安保會議를 위한 準備會議가 開催되어 있음.

사. 그러므로 「포드고르니」는 이번 「핀란드」訪問을 통하여 主權國인 「핀란드」當國에 予定한 대로 今年 6月에 歐洲安保會議가 開催되도록 多角的인 說得工作을 展開하였을 것으로 判斷됨.

아. 또한 蘇聯은 이번 外交訪問時 北韓의 國際的인 地位向上의 일환적으로 北歐諸國에게 北韓을 早速히 承認해 주도록 慫慂했을 것으로 보이며 「스웨덴」의 뒤를 이어 北韓을 承認하려는 여타 北歐諸國의 움직임을 더욱 活潑해질 것으로 展望됨. (73.4.7. 오미우리)

西独, 蘇 頂上會談 및 評價

- 蘇聯共産黨 書記長 「브레즈네프」는 5.18 ~ 21 (4日間) 西独을 訪問 「브란트」首相과 正常會談을 갖었음.
- 独·蘇正常會談의 結果 兩國間에는 經濟, 技術, 産業協力, 文化協力, 航空에 관한 3個 基本協定을 締結하고 共同聲明을 發表했음.

< 內容要約 >

1. 經濟技術 産業協定

- 가. 兩國政府 및 業界代表가 參與하는 經濟企劃 委員會 設置
- 나. 西独 民間業界는 「시베리아」天然「가스」開發을 위한 資金 및 「파이프」등을 蘇聯에 提供하고 蘇聯으로 부터 「가스」등 原料를 供給받는다.
- 다. 양국은 技術情報, 特許, 免許의 廣範圍한 交流를 實施하고 工場設置, 産業現代化등에 協力
- 라. 協定期間 10年, 즉시 發効

2. 文化協力 協定

- 가. 書籍, 歷史的, 文化財, 「텔레비필름」, 科學者, 學生, 教授, 觀光客, 運動選手, 藝術家, 作家, 演芸人의 交流增進
- 나. 兩國間의 상대關係를 解消하기 爲해 學校教科書에 兩國의 歷史, 地理, 文化등을 올바로 紹介
- 다. 協定은 5年間 有效

3. 航空協定

- 가. 西独의 「루프트한자」航空社 旅客機가 7月31日부터 週1回 「모스크바」에 就航, 蘇聯의 「에어로프로프」國營航空도 西独에 就航할 수 있다.

나. 「루프트한자」旅客機는 西「베르린」을 經由해서 蘇聯으로 갈 수 있다.

다. 「루프트한자」旅客機는 「시베리아」를 거쳐 東京에 就航權을 갖는다.
(飛行時間 6時間 短縮 可能)

라. 協定은 兩國이 廢棄를 宣言할 때까지 有效

4. 共同聲明 內容

가. 1970年 締結된 西獨, 蘇間 相互 不可侵 條約의 바탕위에서 相互 協力關係를 增進시키며, 兩國關係와 主要 國際問題의 協議를 爲해 定期的인 協議體制 樹立에 合意

나. 「베르린」問題

○ 1971年 「베르린」에 關한 4大國 協定은 中部「유롭」의 緊張緩和와 西獨・蘇關係改善의 基本의 前提條件이다.

○ 兩國은 4大國 協定을 嚴格히 遵守, 實行할 것을 다짐한다.

다. 「유롭」安保會議

「유롭」安保會議가 「유롭」의 恒久的인 平和, 安保, 協力體制를 마련할 수 있도록 積極 뒷받침

라. 中部 「유롭」相互減軍

參加國들의 安保를 해치지 않는다는 原則하에 「유롭」平和를 鞏固히 하는 方向에서 合意點이 모색되야 한다.

< 分析 및 評價 >

1. 「브레즈네프」의 西獨訪問을 前後 最初로 이루어진 蘇聯首腦 訪問인 것으로 1969年以來 西獨이 積極 追求해온 東方政策과 蘇聯이 企圖하는 「유롭」現狀固定化 政策이 實質的인 收穫을 건우게된 첫단계인 것으로 分析됨.

2. 會談結果

이번 西獨·蘇聯頂上會談의 結果는 西獨이 蘇聯에 對한 經濟的 支援을 約束함으로써 西「베르린」問題에 對한 蘇聯側의 讓步를 얻어내고 蘇聯은 西「베르린」問題를 讓步하는 代身 經濟的 實利를 取한 것으로 兩側의 得失을 要約하면

가. 西獨의 得點

- 1) 4 大國 「베르린」協定遵守 確認
- 2) 蘇聯에 投資市場 開拓
- 3) 對蘇關係 改善 (東歐 共產國家와의 國交定常化 契機)
- 4) 民間航空의 蘇聯就航權 獲得
- 5) 交流의 擴大

나. 蘇聯의 得點

- 1) 西獨, 技術資本의 導入 - 經濟的 沈滯의 克服
 - 「호르로스」綜合製鐵工場 共同設立 合議 (50 億弗 規模)
 - 「시베리아」天然「가스」開發에 西獨技術, 資本參與
 - 技術情報, 特許, 免許交流
- 2) 「유럽」安保 협력회의기틀 마련
- 3) 東·西相互減軍協商에 對한 西獨側 讓步
(「東·西相互 均衡減軍」 - 「中歐相互減軍」으로 表現)

다. 西獨의 失點

- 1) 「유럽」의 現 國境線 承認
- 2) 東歐에 對한 蘇聯의 支配權 認定
- 3) 西「베르린」統治權에 對한 主張留保
- 4) 兩 獨逸의 公認

라. 蘇聯의 失點

- 1) 西「베르린」問題 讓步
- 2) 獨逸系 蘇聯市民의 移民出國 許容

3) 「이데올로기」의 오염(西方의 自由風潮 유입)

4) 西獨의 經濟的 浸透

3. 西「베르린」의 問題

가. 「브란트」는 4 大國 「베르린」協定 遵守를 確認받는 方法으로 西「베르린」에 대한 西獨의 代表權을 事實上 認定받음으로써 그의 東方政策에 대한 國內不滿을 무마하는데 成功한 셈임.

나. 그러나 이후 蘇聯과의 모든 協定에서 西「베르린」을 包含시키자는 主張을 관철시키지 못하여 西「베르린」에 대한 西獨統治權問題는 아직도 協商의 余地를 남겼음.

다. 西「베르린」問題에 대해 蘇聯이 소극적 讓步를 보인 것은

○ 東獨에 대한 體面을 維持하고

○ 對美協商의 機를 남겨두자는 저의로 보임

(美國은 西「베르린」에 대한 西獨의 代表權을 蘇聯이 認定하지 않으면 東·西獨「유엔」加入을 비토하겠다고 主張하고 있음)

라. 西「베르린」問題에 대하여 蘇聯은 東獨의 견제를 받고 있어 앞으로 계속 曖昧한 態度를 견지할 것으로 展望됨

4. 國際的 立場

가. 西 獨

○ 西獨은 蘇聯과 對等한 協商을 實現함으로써 東獨에 對해서 相對的으로 政治的 立場을 強化하고 獨逸 統一問題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견지하게 됨.

○ 전후의 現實을 承認하는 立場에서 推進된 「東方政策」이 蘇聯과의 關係正常화를 達成함으로써 일단 結실을 본 셈이고 以後 「브란트」의 現實政治는 이제 「西方政策」에 역점이 옮겨갈 것으로 展望됨.

나. 蘇 聯

- 蘇聯은 西獨과의 關係正常化를 達成하여 「유럽」의 現狀固定을 鞏固히 하고 蘇聯領土의 「유럽」政變을 安定시킨 結果로 「아시아」에 關心을 集中할 수 있게 됨.
- 西獨과의 協議체널을 確保함으로써 既存의 「프랑스」창구와 더불어 西歐의 交流擴大를 위한 基盤을 強化했음.

5. 評 価

- 가. 西獨·蘇聯頂上會談의 結果는 東·西關係가 이미 實質的 協力關係로 發展하고 있음을 反映하며 東·西共存體制가 具體化되는 것을 意味함.
- 나. 蘇聯의 積極的인 對西方接近政策은 명분보다는 實利(經濟的 追求)와 勢力均衡(對中共 牽制)에 基礎하는 것으로써 東·西外交에 있어 現實主義가 普遍化해가는 現狀으로 볼 수 있음.
- 다. 現狀을 安定하는 立場에서 「이데올로기」的 共存·協力關係를 發展시킨 「유럽」식 緊張緩和은 이후 하나의 선예로 作用·韓半島에 미칠 影響도 적지 않을 것임. (73. 5. 24)

蘇聯의 對西方 交易擴大

<內容要約>

1. 蘇聯은 美國·西獨등과 같은 西方國家들과 莫大한 交易을 計劃하고 있다.
2. 「브레즈네프」는 지난 5月8日 「키신저」와 향후 20年동안 2,500億에 達하는 美·蘇間 交易을 發展시킬 것을 討議했다고 전한다.
3. 消息通에 의하면 「브레즈네프」는 訪獨中 「브란트」와도 그와 맞먹는 언약이 있다고 한다.
4. 西獨과 蘇聯間의 貿易은 지난 1972年 1年동안 27.6%나 增加하였으며 (貿易額 12億 「달러」) 금년 1/4 반기에 비해 72%나 增加를

기록했다.

5. 蘇聯은 「에너지」資源(天然「가스」, 石油等)과 純金등을 供給하고
西獨은 工場建設支援消費品, 貨物自動車, 道路建設裝備등을 供給하고
있다.
6. 「브레즈네프」訪獨中 이루어진 協定 및 共同 聲明에서도 獨·蘇間
廣範圍한 經濟交流를 다짐하고 있다.
7. 東歐 國家들은 蘇聯이 西方과의 大的인 商談때문에 그들에 대한
公約을 無視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東歐 共産國들은(東獨을 除外하고는) 蘇聯의 豊富한 原料資源을 消化
시켜주지 못한다.
8. 「브레즈네프」의 對西方 交易擴大를 爲하 代當한 政策의 成敗는 美
國이나 西獨, 日本의 工業이 蘇聯의 要求에 부응할 수 있는 能力
여부에 달려 있다.

<分析 및 評價>

1. 蘇聯은 近來 東·西間 緊張緩和를 促求하는 過程에서 美國, 日本, 西
獨등과 交易增大 및 經濟協力 摸索등 實利外交를 展開, 積極的인 對
西方接近을 試圖하고 있음.
2. 蘇聯이 西方側과의 交易을 積極化하려는 意圖는
가. 西方側의 先進技術과 資本을 導入, 國內工業建設
나. 國內的인 經濟沈滯의 克服
다. 豊富한 原料, 資源(「에너지」등) 需要市場 開拓
라. 中共을 封鎖하려는 政治的 意味등으로 分析됨
3. 西方側 美國, 日本, 西獨과 같은 工業國家들도 最近 深刻한 「에너지」
資源의 不足을 겪고 있으며 또 發達된 工業, 技術의 投資市場을 開
拓, 海外 經濟進出을 企圖하고 있으므로 蘇聯과의 交易增大가 바람직

할 것으로 判斷됨

4. 東·西間 協力關係는 다같이 經濟的 理由(蘇聯의 原料, 西方側의 技術, 資本)와 政治的 必要(緊張緩和)를 갖고 있어 政治的 意味와 經濟的 동기가 복합되면서 더욱 促進될 것으로 展望됨.

〈中 共〉

中共은 NATO와 日本의 再武裝 두둔

1. 内容要約

- 가. 中共은 最近 反蘇政策으로 歐羅巴 共同市場을 認定하고 또 北大西洋 條約機構와 日本의 再武裝을 歡迎하여 왔다.
- 나. 「뉴차이나」紙는 最近 獨逸 南西쪽에서 있었던 「나토」의 「레터스 4作戰」을 紹介하면서 目的은 東歐 攻擊準備를 하는 것으로 풀이 했다.
- 다. 中共은 歐羅巴 安保會議를 하는 동안 歐羅巴가 「핀란드」化가 되지 않을지 念慮하며 結果적으로 軍備를 縮小한 歐羅巴가 無防備狀態에서 蘇聯의 攻擊下에 들어 가지나 않을까 念慮하는 것이다.
- 라. 歐羅巴 安保會議에 관해서 中共의 「유엔」代表가 中共의 基本方針을 밝힌 것이다.
- 마. 즉 安保會議는 두 強大國에 影響을 주는 永久的인 決定이나 形式에 치우치는 機構를 만드는 핑계를 해서도 안되며 歐羅巴 여러 나라는 團結해서 두 強大國의 主導權 行使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 바. 北大西洋條約機構야말로 蘇聯의 侵略 防禦에 必要 不可欠한 것이며 最近 中共은 「나토」가 攻擊「블럭」이다 또는 「獨逸의 膨脹과 軍國主義」란 말을 쓰지 않고 있다.
- 사. 몇개월 전만해도 中共은 日本의 再武裝을 非難해 왔으나 中共은 現在 日本의 再武裝에 「感謝」를 表示하고 있다.
- 아. 周恩來는 日本이 當분간 美國의 核 그늘하에 있게하고 窮極的으로는 美國과의 防衛條約을 繼續 維持하면서 中·蘇 國境紛爭에서 蘇聯軍의 增強을 牽制시켜 보려는 것이다.

차. 1972年末 「中間地帶懷疑論」을 따르면 第3의 世界는 西歐羅巴와 日本, 「카나다」 그리고 豪洲였으나 現在 中共은 이 「중간지대」에 軍備強化를 두둔하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가. 얼마전까지만해도 中共은 北大西洋條約機構의 解体와 日本의 再武裝을 強力히 反對했으나 現 中·蘇 紛爭으로 인한 中共의 立場 強化를 위해 「나토」의 強化와 歐羅巴 安保會議 成立을 妨害해 보자는 것이다.

나. 歐羅巴에서 東西의 팽팽한 對決이 있으므로서 蘇聯軍의 東歐羅巴 駐屯 蘇聯軍의 中·蘇 國境地帶 增強을 막자는 意圖도 內包되고 있다.

다. 西歐羅巴에서 經濟, 軍事面으로 強國인 獨逸을 非難하지 않는 것은 中共이 獨逸과도 紐帶를 깊게해서 蘇聯의 牽制를 피해 보자는 것이다.

라. 日本의 再武裝이 곧 「아시아」에서 또 다른 日·蘇 對峙狀態를 造成해서 蘇聯의 防衛力 分散을 피하는 한편 中共이 日本을 자기편으로 끌어 들이려는 수셈으로 評價된다. (73.3.8 저멘트리분)

中共外交 「유럽」에 擴大

1. 內容要約

가. 越南問題가 解決되자 中共은 그의 外交를 全 世界로 強化하고 있다.

나. 中共外相은 西歐羅巴, 東歐羅巴와 北「아프리카」 여러나라를 訪問할 計劃인데 「文化革命」後 高位 外交官으로서는 처음 있는 것이다.

다. 政治 「음씨버」들은 蘇聯의 影響을 低下시키기 위해서 歐羅巴에 外交活動을 強化하는 것이며 蘇聯이 外交關係를 맺지 못하고 있는

- 「스페인」과 中共은 外交關係를 맺고 있다.
- 라. 中共이 西歐羅巴와 政治的 紐帶를 強化하고 北大西洋條約機構나 「유럽」 安保를 後援하므로 蘇聯은 當황하고 있다.
- 마. 過去 中共은 美國의 歐羅巴 介入을 反對해 왔으나 現在 「나토」등 美國의 歐羅巴 關係를 非難하지 않고 있다.
- 바. 過去 蘇聯은 歐羅巴 相互 減軍會議을 支持하는 態度를 보였으나 中共 系統의 歐羅巴 여러나라는 歐羅巴 安保會議과 協力에 反對하고 있다.
- 사. 外交 「음서버」들은 中共이 繼續 蘇聯의 歐羅巴 關係를 現狀 維持 시키기 바라며 蘇聯도 2次大戰後 歐羅巴 事態를 그대로 存統시키고 그들의 關心을 極東으로 轉換시켜 보려는 생각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 아. 아마도 中共外相은 「몬톤」「파리」와 「벨그라드」등 歐羅巴 首都를 訪問하여 관심사를 討論할 것이며 今年 9月 「퐁피두」 仏蘭西 大統領이 北京을 訪問할때쯤 中共, 歐羅巴 關係改善의 큰 契機가 될 것이다.

2. 分析 및 評價

- 가. 中共이 外交活動을 歐羅巴 全域으로 擴大함에 따라서 蘇聯은 中共을 牽制하기 위한 歐羅巴 緊張緩和를 위한 政策의 變化가 있을 것으로 分析된다.
- 나. 中共은 北大西洋條約機構가 繼續 存統되고 蘇聯과의 對立을 維持시켜 蘇聯의 兵力이 極東으로 移動되지 않겠음 集中的 努力을 할 것이다.
- 다. 그러나 蘇聯은 「헬싱키」의 歐羅巴 安保會議에 熱誠을 보이지 않으며 「뷔엔나」 相互 減軍會議는 더놓고 反對하고 있다.
- 라. 그 理由는 美國이 中共과 和解하고 越南戰이 끝나고 美國의 外交가 歐羅바로 集中되자 蘇聯도 이에 對應하는 措置로써 繼續 맞서는 것

으로 分析된다.

- 마. 그 例로 蘇聯은 몇일새에 「미사일」을 裝備한 2만톤급의 「체리콧터」 航空母艦 「모스크바」호와 5隻의 新형 驅逐艦을 地中海로 增派할 만큼 歐羅巴에 신경을 쓰고 있다.
- 바. 日本의 새 平和條約 會談 提議는 蘇聯으로서 中共을 牽制할 수 있는 또 다른 有利한 立場에 서게 될 수도 있다.
- 사. 이제 中·蘇의 紛爭은 單純한 中·蘇 國境에서 武力衝突만이 아니고 世界 全域에 걸쳐 두 共產國의 「헤게모니」爭奪 外交가 벌어질 기 세가 充分하다고 評價된다. (73.3.15 美 國 新聞)

中共의 外交攻勢

1. 內 容

中共外相 姬鵬飛는 「파리」會談으로 延期되었던 東西「유럽」과 北「아프리카」 訪問外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旅行은 文化革命 이래 처음인 最高位級 人士의 外交行脚이 될 것임.

< 分析 · 評價 >

- 1. 中共은 「유엔」加入 이래 對西歐外交를 強化하기 위하여 仏蘭西 外相 및 英國 「홀」外相의 中共招請, 西獨과의 外交關係樹立等 社會體制가 다른 이들 國家와의 緊密한 紐帶關係의 發展을 圖謀해 왔음.
- 2. 이번 희봉비의 西歐訪問은 昨年 11月 中共 副外相 喬冠華의 英·仏 巡訪時 이들 國家들과 事前 協議된 것으로 보임.
- 3. 中共은 西歐政治 共同體에 대한 確固한 支持態度와 非公開的으로 「유럽」 安保와 「나토」에 대해 激勵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美軍

撤収에 관해 거의 言及하지 않는 반면 蘇聯이 推進하고 있는 「유럽」 安保會議, 相互減軍會議을 反對하고 있음.

4. 이것은 蘇聯이 中·蘇 國境에 專念하지 못하도록 「유럽」問題에 關心을 들리게 되기를 바라는 所致이며 회봉비의 이번 巡訪에서 西歐諸國과 이 點에 關해 重點的으로 討議할 것으로 보임.
5. 中共의 西歐接近 深度에 따라 相對的으로 北韓의 「유럽」 進出을 促進하게 되고 「유럽」諸國의 北韓承認에 觸媒作用을 할 可能性이 큰 것으로 分析됨.
6. 이와 같이 中共이 「유럽」 外交에 注意를 기울이는 것은 外交政策 執行過程에서 蘇聯 封鎖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分析되며 蘇聯의 影響力을 最大限으로 牽制하려는 것으로 判斷됨.(73.3.28 국내신문)

印度, 中共과의 解氷造成

<內容要約>

1. 近來 印·中共間에 相互關心을 보여주는 徵兆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2. 그러나 두 나라 어느 누구도 外交的 「이니셔티브」를 行使할 加망은 적다. 왜냐하면 蘇聯이 그들을 갈라놓고 있는 커다란 障礙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3. 印度에게는 蘇聯이 武器를 供給하고 工業發展을 支援하는 重要한 存在가 되며 中共에게는 蘇聯이 저주의 對象이 되고 있다.
4. 그러나 印度는 開發途上國家들(특히 東南「아시아」의)에게 印度가 蘇聯 衛星國이라는 印象을 주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다.
5. 印度는 또 中共과의 友好關係를 굳힌다면 國防에 드는 財貨를 福祉問題에 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6. 中共側의 立場에선 南「아시아」에 대한 蘇聯의 主導權을 蚕食한다는

것은 적어도 負擔輕減의 意味가 된다.

7. 그러나 兩側은 다 現實的 均衡을 깨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8. 印度와 中共의 關係를 잘라놓은 또 하나의 基本原因은 印度·「파키스탄」간의 오랜 敵對關係이다.
9. 印度 外務省 소식통은 “中共이 印度半島의 새로운 現實을 認定하기 前에는 和解란 意味없는 얘기”라고 한다.
10. 周恩來는 印度와의 關係 및 「방글라데쉬」 承認 拒絶을 正当化하기 위해 93,000 명의 「파키스탄」 捕虜問題를 들고 나왔다.
11. 「뉴델리」의 觀測者들은 印度가 戰爭 捕虜問題에 대한 世界輿論을 意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印度政府 消息通은 印度가 「파키스탄」 捕虜를 釈放함으로써 中共과의 關係를 緩和하기를 希望한다는 觀測을 強力히 否認한다.
12. 지금 印度나 中共指導者들이 어려운 일을 피하고 있다는 事實만큼은 疑心할 바 없다.
13. 印度와 中共은 大使級에서 外交的 關係를 充分히 檢討하게 될 展望이 크다.
14. 그러나 印度나 中共은 이러한 움직임이 알려지고 있는데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態度이다.
15. 印度 新聞 「칼람」이나 中共專門家들이 생각하고 있는 鼓舞的 徵兆는 다음과 같다.

가. 中共이 「뉴델리」大使館에 顧問級 外交官을 派遣한 點

나. 北京의 印度 非難 放送 및 시킴國境에서의 對印度軍 宣傳放送의 中斷

다. 印度政府가 最近 中共旅行者에게 「뭄베이」空港 기착을 許容한 點
라. 兩側政府 外交官들의 頻繁한 接觸

마. 兩側代表의 定期的 會合 (印度議會는 이를 否認했으나 한 政府消息

通에 의해 確認됨)

16. 印度의 高位 外務省 官吏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最近 모든 積極的 「제스처」를 다했다. 中共은 反應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美國처럼 살살 기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17. 그는 또 美國은 中共과 20 餘年間 敵對關係를 持續했지만 印度는 中共의 「유엔」加入을 오랫동안 支持했으며 國府台灣을 承認하지 않았다는 點을 指摘했다.
18. 그는 또 近來 印度 支持者들은 中共에게 關係改善을 위해 “人間的인 正義”를 發揮할 希望을 分明히 했으나 中共은 “우리를 검은 眼鏡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9. 中共은 印度의 態度가 自身을 平和追求者로 보이게 하려는 努力에 不過하다고 主張한다. 한 中共外交官은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은 참으로 유치한 것”이라고 한다.

<分析 및 評價>

1. 지난 10 餘年間的 印·中共間 敵對關係가 最近 解氷의 弱은 徵兆를 보여 주고 있는 點은 國際政治 權力關係의 通例的 過程속에서 解明된다.
2. 이제까지 印·中共 關係에 難點이 되고 있던 主要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가. 兩國關係에 作用하고 있는 蘇聯의 압력
 - 나. 印度·「파키스탄」간의 敵對關係
3. 兩國關係에 대한 相互立場은 다음과 같다.
 - 가. 印度의 立場
 - 非同盟路線의 堅持 (지나친 親蘇關係는 第3世界 國家들에 대한 나쁜 印象을 줄 것이다)

- 国内福祉問題의 重要性 抬頭 (中共 과의 緊張緩和는 國防費를 福祉問題로 轉用할 수 있을 것이다)
 - 印·「파」戰後 問題의 원만한 處理
- 나. 中共의 立場
- 印度와의 關係改善은 적어도 南「아시아」에서 蘇聯의 影響力을 蚕食할 수 있다는 判斷
 - 印·「파」戰後 「파키스탄」의 利益 擁護
4. 兩國은 당장은 現實的인 國際均衡을 깨트릴 어떠한 試圖에도 조심스러운 態度이므로 兩國關係의 將來는 다음과 같이 展望된다.
- 가. 兩國間에는 文化交流 貿易關係의 增進등이 實現될 展望이 있다.
- 나. 그러나 옛날과 같이 「兄弟的 友誼」를 다짐하는 것과 같은 同志的 關係의 回復은 어려울 것이다.
- 다. 印·中共間의 國境問題는 여전히 争点으로 남는다.
- 라. 그러나 印·中共間의 緊張關係는 緩和의 方向으로 發展될 展望에 있다.
- 마. 그렇게 되면 中共은 蘇·中共國境에서의 軍事的 立場을 強化할 수 있을 것이다. (73.4.5 와싱턴 포스트)

中共外相 희봉비의 西歐訪問

<內 容>

中共·姬鵬飛外相은

1. 英·仏 兩國을 公式訪問, 兩國首腦들과 會談

가. 歐洲安保에 關聯된 諸問題

나. 中共의 對 EEC 協調 強化問題

다. 「홍콩」에 中共代表部 設置問題

<分析 및 評價>

1. 中共은 「유엔」 加入 이래 對西歐 外交強化를 위해 英·仏 外相의 中共訪問 招請, 西獨과의 外交關係樹立等 緊密한 紐帶關係의 發展을 圖謀해 왔음.
2. 이와 같은 中共의 對西歐 發展 기도는 美·蘇 兩「블럭」을 牽制하는 勢力으로서 EC 를 活用, 全歐洲安保會議 兵力削減 등에서 西側이 蘇聯에게 一方的 讓步를 압도록 EC 특히 英·仏에 제동 役割을 期待하는 저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3. 한편 中共이 지난 2월에 英國과 戰鬪機 購入 意思를 打診한 바 「프랑스」와도 「컴퓨터」에 非常한 關心을 보이는 등 國防, 農·工業分野에서 漸次 對西方 傾向을 보인 것으로 分析되며
4. 이번 「회」의 英國訪問에서 「홍콩」에 中共代表部 設置問題를 論議한 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히드」 英國首相의 年内 訪中 招請이 受諾되어 兩國의 外交關係는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分析됨.
5. 以上에서 볼때 「회」의 西歐訪問은 世界問題에 대한 意見調整, 中共의 第1公敵인 蘇聯의 牽制, 先進工業, 技術의 積極導入을 위한 實利追求等 中共 外交의 幅을 넓히고 多元的 效果를 거두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으로 評價됨. (73.6. 나혼게이사이)

나. 東 西 關 係

1) 歐洲安保 會議

東西「유럽」의 互協商

<內容要約>

1. 西方側 外交界는 「유럽」에서 冷戰을 終熄시키려는 互 東·西間 協商의 劇的인 進展을 期待하고 있다.
2. 그 互 協商은 「헬싱키」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安保協力會議 豫備會談과 「비엔나」에서 開催되고 있는 相互 均衡 減軍(MBFR) 協商이다.
3. 安保 協力會議는 「유럽」國家間에 보다 넓은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協力の 基礎를 마련함으로써 關係를 改善하려는 目標를 갖고 있다.
4. 한편, 相互 均衡 減軍 協商에서는 中央「유럽」에 대치하고 있는 「나토」國과 「와르쏘」條約國들간의 相互 減軍과 같은 軍事的 側面이 다루어지고 있다.
5. 「나토」司令部의 15個國 代表들은 이 互 協商의 進展에 대해 樂觀的인 期待를 갖고 있다.
6. 復活節 休會에 들어가 있던 「헬싱키」安保 協力會談은 25日 다시 열릴 豫定이며, 6月初 까지는 議題를 確定짓게 될 것이라고 「옵서버」들은 보고 있다.
7. 지난 1月31日에 公式 開催된 「비엔나」 相互 減軍會談은 「헝가리」의 軍事力 및 「헝가리」駐屯 蘇聯軍을 減軍의 範圍에 包含시키는 問題를 놓고 膠着狀態에 빠졌었다.
8. 그러나 兩側은 妥協案에 接近하고 있는것 같다. 妥協案은 豫備會談

- 과정에는 한가지를 偏見없이 參席시키자는 「나토」側 提議에 따라 「헝가리」 參加資格問題에 便法을 쓰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9. 한편 소식통들은 「브레즈네프」의 6月 美國訪問으로 이러한 膠着狀態가 打開될 것 같다고 展望한다.
 10. 「닉슨」에게는 「유럽」駐屯 美軍의 減縮을 要求하는 議회의 深刻的 壓力때문에 이번 減軍協商을 進展시키는 問題를 重要視해야 할 立場에 처하고 있다.
 11. 「비엔나」會談의 進展은 蘇聯이 美國과의 關係改善을 위해 支拂해야 할 代價를 意味한다.
 12. 또 相互 減軍 協商과 安保協力會議은 아무런 公式的 連結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相互 減軍 會談의 膠着은 곧 蘇聯이 바라고 있는 安保協力會議의 進前을 해치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3. 消息通에 의하면 「브레즈네프」나 「크레믈린」 指導者들은 西方側이 減軍會談을 「메탕프」의 必要 不可欠한 要素로 看做하고 있는 點을 注目하고 있다.
 14. 따라서 減軍會談의 膠着狀態는 곧 (아마도 「브레즈네프」 美國訪問前에도) 解消되리라는 信念이 들고 있다.
 15. 「나토」側은 또 蘇聯側의 態度가 6月末 本會議을 앞둔 「헬싱키」會談의 進展에 있어 穩健이 된다고 生覺하고 있다.
 16. 西方側은 特別히 蘇聯이나 그 「블럭」國家들이 “人道的인 接觸”의 길을 열어주길 바라고 있다. 「나토」側은 「유럽」安保 協力會議의 結果로써 東·西間 交流가 보다 自由로워지기를 期待한다.
 17. 이러한 西方側의 要求가 滿足되면 6월까지 議題를 確定하는데 더 이상 어려운 障礙는 없을 것 같다.
 18. 安保協力會議 議題에는 이러한 人導的 接觸 이외에도 政治的 安保 또는 經濟的, 環境的 協力에 관한 問題가 包含된다.
 19. 우선 蘇聯은 安保協力會議을 통해 現存의 國境線을 認定받음으로써

2次大戦中 얻은 領土를 合法化하려는 希望을 満足시킬 수 있을 것이다.

20. 또 이것은 參加国들간에 武力使用에 의한 紛争解決의 可能性을 輕減시켜 줄 것이다.

21. 共産国家들은 또 經濟的 協力問題를 提起하여 그들의 生産物에 대한 모든 差別的 障壁을 없애려고 할 것이다.

22. 蘇聯은 「유럽」國家間的 紛争을 取扱하는 永久的 機構의 樹立에 관한 議題를 包含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西方側은 이 問題에 대해 조심스러운 態度다.

<分析 및 評價>

1. 지금 「유럽」에서는 東·西間 冷戰을 終息시키려는 두개의 協商, 即 「유럽」 安保協力會議과 相互 均衡 減軍을 위한 豫備會談이 併行되고 있음.

2. 이 두 協商은 公式的인 關聯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時期的으로 동시에 성을 갖고 있으며, 協商當事國들이 두 協商에 다 같이 利害關係를 갖고 있는 點에서 進行上 緊密한 平行關係에 있음.

3. 이 두 協商에 대한 兩側의 戰略은 다음과 같이 分析됨.

가. 西方側은

1) 「유럽」緊張緩和를 爲해서는 먼저 東·西 相互 均衡減軍이 成就해야 한다는 立場이며

2) 蘇聯이 바라고 있는 安保協力會議의 代價로써 相互 均衡減軍 協商에 대한 蘇聯側의 讓步를 얻어낸다.

나. 蘇聯側은

1) 政治的, 經濟的 問題를 다루는 安保協力會議를 爲先 成就시킨다는 立場에서

- 2) 이로서 蘇聯은 現 國境線을 固定化하고 西方側과의 經濟的 協力을 打開한다는 利點을 노리며
 - 3) 減軍會談을 安保會議를 爲한 協商條件으로 繼續시키며
 - 4) 結局은 西歐로부터 美國의 撤收, 西方同盟體制의 分解에 의한 西方側의 弱화를 促求함으로써 有利한 立場을 確保
4. 그러나 이러한 2元的 協商方式은 쌍방이 어느하나도 拋棄할 수 없는 利害關係를 갖고 있기 때문에 緊密한 關係를 가지면서 進展될 것이나 별 成果를 期待할 수는 없는 것으로 評價됨.
5. 「유럽」 緊張緩和를 위한 두개의 協商過程에서 볼때 最近 活潑한 頂上外交
- 가. 「브레즈네프」 西獨訪問 豫定
 - 나. 「브레즈네프」 美國訪問 豫定
 - 다. 「브란트」 美國訪問 豫定
 - 라. 「닉슨」 「유럽」訪問 豫定
- 등은 이 會談들의 進前을 爲하여 약간의 打開策이 있을 것으로 展望됨.
- (73. 4. 21 「와싱턴·포스트」)

歐洲安保會議 予備會談

<內容要約>

1. 「유럽」安保會議를 爲한 準備過程을 東·西 緊張緩和가 지금 어느段階에 와 있으며 얼마나 빨리 進展되고 있는가 또 어느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指標가 된다.
지금 「헬싱키」는 「유럽」政治의 實驗室이 되고 있다.
2. 蘇聯은 西方側 外交官들이 期待했던 以上으로 많은 讓步를 보여주고 있다.

- 가. 蘇聯은 歐洲 安保會議 性格 自体에 關해서 重要한 讓步를 하고 있다. 卽 蘇聯은 會議가 原則의 宣言뿐 아니라 緊張緩和를 前進시키는 實際的인 成果를 다루도록 하자는 西方側 要求를 受諾했다.
- 나. 또 蘇聯은 文化的 接觸問題에 관한 議題에 讓步했다.
- 다. 通商問題에 있어서도 蘇聯은 積極的인 讓步를 보였다.
3. 가. 蘇聯의 東歐 同盟國家들은 一般적으로 蘇聯의 路線에 따르고 있으나 「루마니아」를 필두로 점차 다양성있는 主張을 增加해가고 있다.
- 나. 「폴란드」의 한 消息通은 本 會議가 始作되어 通商, 經濟協力, 文化的 問題들은 討議하게 되면 “「블럭」의 利害를 초월한 民族的 利害關係의 表現이 增大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消息通은 또 “비록 社會, 經濟體制가 다르더라도 그러한 問題에 있어서 東이나 西냐하는 것이 問題될 必要가 없으며 問題쳐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4. 가. 「나토」는 同盟國間에 갈등과 異見의 徵兆가 점점 나타나고 있으나 대체로 紐帶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 나. 「벨지움」,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나토」의 弱小會員國들은 美國이나 西獨이 蘇聯과의 緊張緩和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느낀다.
- 다. 歐洲 共同市場 9 個國들은 그들간의 政治的, 經濟的 問題에 影響을 미칠 美國의 決定에 忠告하러 한다.
- 라. 「나토」에 가담하지 않은 「유럽」國家들(「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말타」)은 「나토」國들과 합세하여 文化的 接觸을 自由化하도록 蘇聯에 壓力을 가하고 있다.
5. 歐洲 安保會議 豫備會談은 緊張緩和에 대한 東·西間 概念의 差異가 있으며, 아직도 冷戰의 概念들이 分明히 殘存하고 있음을 들어내고

- 있다.
- 가. 西方側은 文化的 接觸 默示的으로는 社會主義 國家의 自由化를 企圖)에 초점을 두고 있고
- 나. 東側은 經濟協力을 보다 緊密히 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6. 이와 같은 概念의 差異를 完化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는 單純한 議題의 文句를 作成하는데도 그렇게 오랜 討議가 必要하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 가. 예를 들어 지난주 文化分科委員會 議題의 序文을 成案하는데 34 國 大使들이 교박 이틀이 걸렸다.
- 나. 6 個月이나 지난 지금도 아직 「유럽」國家 關係를 支配할 10 個 基本原則에 合意를 보지 못하고 있다.
7. 豫備會談 參加國들은 來週中 또는 6 月 1 日까지는 作業을 끝내려고 한다.
8. 歐洲 安保會議은 다음과 같은 3 段階로 開催될 것이다.
- 1 段階 - 34 個 「유럽」國家(美國, 「캐나다」包含)들의 外相會議 議題의 承認
 - 2 段階 - 4 個分科委員會 및 其他 小委員會
 - 3 段階 - 外相會議 또는 政府首腦會議(共產側 提議)
9. 西方側 國家들간에는 아직 歐洲 安保會議에 對해서 “크게 德볼 것도 없고 損害볼 것도 없다”는 식의 展望이 一般的이다.
10. 그러나 지금 「헬싱키」에서 進行되고 있는 “주요 발기식”의 緊張緩和은 美國이 期待했던 以上으로 中·小國家들간에 熱情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한 「루마니아」인은 “이번이야말로 우리가 두 強大國 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安保体制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유럽」을 이룩할 기회"라고 말했다.

<分析 및 評価>

1. 歐洲 安保를 爲한 「헬싱키」 豫備會談은 東·西獨關係 정상화, 獨蘇 關係改善등과 最近 蘇聯이 西方側에 對하여 어느정도 主争點을 讓步함으로써 本會談 開催로 한발 다가서고 있음.
2. 蘇聯側 讓步의 理由
 - 가. 豫備會談 過程에서는 西方側이 自由로운 文化的 接觸 問題를 討論할 議題에 關心을 기울였는데 반해 共產側은 經濟協力問題를 強調하여 東·西間 緊張緩和 概念의 差異를 露呈하였고 이러한 差異가 協商을 어렵게 해왔음.
 - 나. 蘇聯의 東·西間 自由로운 文化的 接觸問題를 討議하자는 西方側 提議에 反對하는 것은 그러한 提議가 共產圈의 自由化를 기도하는 저의를 숨기고 있다고 우려한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다. 그럼에도不拘하고 蘇聯이 西方側 提議에 讓步한 西方國家들의 緊要한 主張을 받아들여 줌으로써 소극적인 西方側을 積極 協商으로 유도, 조속히 「유럽」 安保會議을 成就시켜 西方國家의 先進技術을 도입 「유럽」의 現狀安定等을 達成해 보자는 일보 後退戰術로 評価됨.
3. 豫備會談이 進展됨에 따라 東歐共產國家들이 獨自의 主張을 들어내고 西歐 同盟國間에도 異見이 속출하는등 中·小國家들의 民族的 主張이 增大하고 있는 것은 「유럽」 國家들이 美·蘇 強大國의 絶對的 影響에서 脫皮, 歐洲 緊張緩和에 主体的으로 參與함으로써, 國家의 實리를 추구하려는 열망으로 評価됨.
4. 豫備會談이 合意에 到達하여 歐洲安保會議 本會議 開催가 實現되더라도 具體的인 問題(通商, 經協, 文化的 交流등)에 關한 協商이 進展되면 民

族的 利害關係가 들어날 것이 豫見되며 또 東·西間에는 여전히 冷戰
的 對決意識이 殘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蘇聯은 最近 東歐에 武力
을 增強하고 있다) 安保會議의 조속한 成果를 期待하기는 困難한 것
으로 判斷됨. (73.5.24. 더·센)

全歐洲安保會議 予備會談 10個原則 提示

1. 內容 要約

- 가. 「헬싱키」에서 開催되고 있는 全歐洲安保會議 準備會議의 消息通이
5.31 말한 바에 依하면 準備會議의 代表團은 國家間의 關係를 規
制하는 10個項目의 原則에 對해서 合意하였다.
- 나. 이 제원칙은 7月初에 「헬싱키」에서 開催될 것으로 보이는 外相會
議에 提出된다.
- 다. 그러나 이번會議에서 各國은 각기 自國의 立場을 말한데 끌이고 9
月 中旬頃에 各種委員會가 開催되었을때 철저한 檢討가 이루어질 것
으로 보인다.
- 라. 밝혀진 바의 10個項目의 原則은 다음과 같다.
- 1) 國家間의 平等과 主權의 尊重
 - 2) 武力에 의한 威脅의 不行使
 - 3) 國境의 不可侵
 - 4) 領土保全
 - 5) 紛爭의 平和的 解決
 - 6) 內政 不干涉
 - 7) 思想, 良心, 宗教의 自由를 包含한 人權 및 基本的 自由의 尊重
 - 8) 民族의 平等과 自決
 - 9) 國家間의 協力

10) 國際法에 따른 義務와 遂行

2. 分析 및 評價

가. 蘇聯의 제창에 의해 72.11.22 부터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本會談 開催를 위한 準備會談이 開催되고 있으며 지난 4.25 부터 始作된 최종 豫備會談에서는 本會談에 上程할 議題를 討議하여 왔음.

나. 豫備會談의 開催過程에서 兩國의 主張點을 보면

1) 蘇 聯

- 가) 歐洲의 安全確立과 武力 不行使
- 나) 經濟協力 및 通商擴大

2) 西方側

- 가) 文化的 接觸의 自由化(人物, 思想의 東·西交流 促進)
- 나)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철폐
- 다) 軍事練習의 사전 통고

다. 西方側이 提示한 “文化的 接觸의 自由化” 問題를 重要하고 兩側間이 對立하여 오던중 이번에 發表된 10 個項目의 原則에 변모된 形態(思想, 良心, 宗教의 自由를 包含한 人權 및 基本自由의 尊重)로 나마 西方側의 主張이 관철된 것은 蘇聯側의 讓步에 依한 것으로 判斷됨.

라. 蘇聯側의 讓步는 蘇聯이 「브레즈네프」 書記長의 訪美를 순조롭게 實現시키기 爲한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評價되며 이로 인해 全歐洲 安保會議(本會談)의 7月初旬 開催의 展望이 밝아진 것으로 展望됨.

(73. 6. 1 「마이너지」신문)

2) 相互均衡 減軍會談

東西相互 均衡減軍會議 予備會談開催

<內容要約>

1.31 「빈」에서 “東西相互 均衡減軍 會議” 豫備會談이 「나토」加盟國 7 個國 (美·英·西獨·「캐나다」·「베네룩스」3 個國) 과 「바르샤바」條約機構 5 個國 (蘇聯·東獨·「체코」·「폴란드」·「헝가리」) 이 參加한 가운데 開催되었다.

<分析 및 評價>

1. “東西均衡減軍會議”는 蘇聯의 歐洲安保·協力會議 開催提議에 對한 對항조치로 1968.5 「나토」閣僚理事會가 提議한 것이었음.
2. 1972.5 美·蘇 首腦會談時 일괄타결되어 양회의를 分離하여 併行시키되 時期的으로 一致할 것을 合意한 바 있었음.
3. 「나토」제국은 1972.11.16 「바르샤바」條約機構 5 個國에게 1973. 1.31 「제네바」에서 開催할 것을 提議하였으나 蘇聯側의 1.31 「빈」開催要請을 받아들여 (1.28-29 「나토」가맹국 代사급회담에서 合意) 蘇聯에 통고, 公표되었다.
4. 동 豫備會談은 軍事的 側面에서 東西「유럽」의 緊張緩和를 促進시키기 爲한 것으로서 政治的 側面에서 解決하려는 “東西「유럽」 安保協力會議” (「헬싱키」에서 豫備會談 開催中) 및 擴大 EEC 를 中心한 東西 「유럽」 經濟協力 問題와 더불어 「유럽」의 도서관 平和共存을 爲한 기틀을 마련하려는데 目的이 있음.

5. 東西問의 對立되는 問題點은

가. 參加國 問題

1) 蘇聯側 主張

- 兵力減縮國家 및 減縮軍隊 駐屯國家
- 中立國을 包含, 參加를 希望하는 모든 國家
- 特히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參加를 要請

2) 美國側 主張

- 會談의 실무적 進行을 원함.
- 直接的인 軍縮 關係國으로만 제한
- 「나토」 7個國外에 주변國인 「노웨이」, 「덴마크」, 「이태리」, 「그리스」, 「터키」등을 「업서버」로 參加 要請

- 3) 따라서 中부「유럽」에 兵力을 動員하고 있는 關係國들이 本 會談에 參席하게 될 것으로 보임.

나. 地상군 減縮 該当地域 問題

1) 蘇聯側 主張

- 中부 「유럽」地域

2) 美國側 主張

- 「나토」 및 「바르샤바」條約機構가 兵力을 集中시키고 있는 中부 「유럽」, 即 西獨·東獨·「체코」·「헝가리」등을 包含하는 地域

- 3) 따라서 兩側의 큰 見解差異는 없다.

다. 減軍의 均衡問題

1) 蘇聯側 主張

- 「유럽」駐屯 美軍 및 蘇聯軍의 同時 撤収

2) 美國側 主張

- 어느 한쪽의 不리한 方向으로의 軍縮은 反對
- 地理的 要素 및 特殊性의 考慮 要求

- 時期 및 規模에서 均衡이 維持되는 相互 段階的 減軍
- 減軍대상은 外國駐屯軍 및 本土軍과 그의 武器 및 施設도 包含.
- 適當한 確認 및 監視의 必要

3) 따라서

- 가) 同時撤軍의 境遇에 美軍은 3千「마일」 以上の 곳으로 移動하여 야 하는것에 비하여 蘇聯軍은 단지 3百「마일」 밖으로 移動하면 되는 바와 같은 減軍案에 美國은 따를 수 없으므로
- 나) 數的인 減縮보다도 安保均衡에 重點이 주어질 것으로 보임.

라. 核武器 減縮問題

現在 美·蘇間에 별도로 進行되고 있는 戰略武器 제한회담 (SALT) 에 立입할 것으로 보임.

마. ○ 東西獨 關係基本 條約

- 獨蘇 條約
- 獨·波 條約

등의 締結로 歐洲에서의 緊張緩和 및 和解가 進展되고 있으며, 美·蘇間 戰略武器 制限會談이 本格的 段階에 들어가 있으며 歐洲安保協力會議 豫備會談이 進行되고 있음으로 東西 冷戰體制의 遺產物인 「나토」와 「바르샤바」條約 機構간의 軍事的 對決狀態는 금번 會談의 進展에 따라 어떤 形態로든지 緩和될 것으로 展望됨.

<參考> 「나토」 및 「바르샤바」條約機構 戰力比較

	나	토	바르샤바條約機構
總兵力	110만 5천	(미군 31만)	136만 5천 (소군 60만)
戰鬪師團	58개	사단	103개 사단
戰車	8,100 대		21,200 대
戰鬪機	2,850 대		5,360 대

	나	토	바르샤바條約機構
爆 擊 機		16 대	270 대
艦 艇		449 정	369 정
潛 水 艦		141 정	229 정
核 彈 頭		7,000 발	3,500 발

資料出處： 英國 戰略 研究所 (73.3.2)

東 · 西減軍會議

<內容要約>

1. 금년 9月 또는 10月에 열리기로 내정되고 있는 東·西 相互 減軍會議(本會議)를 앞두고 西方側 「나토」國家들과 共產側 「바르샤바」條約國間의 豫備會談이 열리고 있는 「비엔나」에는 90여명의 外交官들이 2個月동안 基本規約과 議題의 作成, 參加國의 範圍를 둘러싸고 마치 1814-15년의 「비엔나」會談을 방불케 하는 「마라톤」外交를 벌여왔다.
2. 兩側은 形式的으로는 피차가 「블럭」대「블럭」이라는 立場을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적대적 軍事同盟間에 가로놓여 있는 相互 불신감을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3. 豫備會談 過程에서 나타난 兩側의 견해차는 다음과 같다.
 - 가. 共產側의 主張
 - 1)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를 會議 參加國에 包含시킬 것.
(西方側 原案에는 包含되지 않았음)
 - 2) 會議 參加國의 範圍를 美國 또는 「캐나다」를 包含한 西方 關係國에 까지 開放할 것.

3) 「헝가리」에게는 「유서버」資格만 認定할 것.

(단, 이태리를 参加国으로 하면 「헝가리」의 参加国 資格을 認定할 용의가 있다.)

나. 西方側의 希望

1) 爲先은 東西 減軍會議을 中央「유럽」에 直接的인 軍事的 責任이 있는 國家에 限定하고 地中海 地域을 包含시키는 問題는 뒤로 미룰 것.

4. 이러한 쌍방의 見解差를 解決하려는 広範圍한 幕後 努力이 繼續되어 왔다. 그 結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参加問題는 그들에게 「유서버」의 지위를 認定하는 선에서 일단 解消되었다.

5. 그러나 아직 「헝가리」의 参加資格問題는 未決된채 本會議 開催를 左右할 重要な 열쇠로 남아 있다.

<分析 및 評價>

1. 지난 1月31日부터 열리고 있는 이번 東·西 相互 減軍會議를 爲한 豫備會談이 벽두부터 會談 参加国 範圍問題를 둘러싸고 심한 異見을 들어내고 있는 점은 蘇聯의 歐洲 戰略과 「나토」國家들의 意圖가 상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分析됨.

2. 蘇聯이 参加国 範圍를 擴大하려는 것은 米제 6 國대를 包含한 地中海의 「나토」 우세지역을 相互減軍 대상으로 包含시키려는 저의로 分析됨.

3. 西方側이 参加国 範圍를 中央「유럽」에 局限시키려는 理由는 다음과 같이 分析됨.

가. 中央「유럽」이 密集된 地理的, 軍事的 대치를 이루고 있는 地域이며 나. 東·西 쌍방의 軍事的 均衡이 이루어져 漸次的인 減軍의 實現이 용이할 것이고

다. 現 段階에서는 流動的이고 不確實한 狀況에 있는 地中海 地域에 대

한 討議를 보류하려는 希望等

4. 이에 대해 蘇聯側이 「항가리」를 相互 減軍會議 대상地域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은 「항가리」와 같은 地域에 蘇聯軍 駐屯(現在 「항가리」에는 4 만의 蘇聯軍이 駐屯하고 있음)을 繼續함으로써 東歐에 對한 「브레즈네프·독트린」의 有効성을 견지하려는 뜻으로 分析됨.
5. 結局 東·西 相互 減軍會議 自体의 成果보다는 이를 통한 「유럽」 安保 協力會議 推進을 意圖하고 있는 蘇聯의 基本立場 때문에 東·西 相互 減軍會議는 「유럽」 安保 協力會議 予備會談進展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發展할 것으로 展望됨.
6. 이번 東·西 相互 減軍會議 豫備會談은 東·西兩 軍事力 同盟體制가 갖는 最初의 直接協商이란 點에서 큰 意義가 있는 것으로 評價됨. 그러나 오랜 두 敵對的 軍事同盟國間의 基本的인 相互信賴회복, 더 나아가 實際的 減軍을 實現하는 段階까지는 장구한 時間을 要할 것임.
7. 窮極의으로 東·西 相互 減軍會議의 意義는 緊張緩和를 指向하는 國際政治 構造속에서 찾아질 것임. 따라서 東西減軍會議의 現實的 成果는 「유럽」의 緊張緩和의 복잡한 政治的 背景이 成熟된 後에나 可能한 것으로 判斷됨. (73. 4. 3 「코리아 타임스」)

美·蘇·中部「유럽」駐屯 兵力減軍合意에 接近

1. 內容要約

- 가. 「워싱턴」의 信賴할 만한 消息通에 의하면 美·蘇 兩國은 中부 歐洲의 일부의 地上軍 削減에서 合意에 接近하고 있다.
- 나. 美國은 西獨駐留의 제 7군의 1부를 蘇聯은 東獨駐留軍의 일부를 撤收하는 것이 相互減軍의 一段階가 될 것으로 보아진다.
- 다. 北大西洋 條約機構의 消息通에 의하면 「키신저」美大統領 補佐官의

5月 訪蘇時 美國은 西獨에 駐留 하는 186,000 名의 兵力中에서 26,000 名, 蘇聯은 東獨에 駐屯하는 約 205,000 名중에서 26,000 名을 撤收하는 것에 合意하였다고 한다.

라. 美政府 消息通은 이를 否定하고 있으며 「키신저」 訪蘇時에는 中部 「유럽」의 相互 兵力 削減問題에 對해서는 極히 概括的인 對話만이 이루어졌다고 언명하였다.

마. 그렇다 하더라도 相互 均衡減軍을 要求하고 있는 「닉슨」 行政府의 主張과 이를 反對하고 있는 蘇聯의 主張 가운데서 어느쪽이 選択될 것인지는 아직 分明치 않다.

바. 相互 均衡減軍은 地理的인 條件과 密接한 關聯하에 있다. 東獨에서 撤收하는 蘇聯軍은 불과 300 「마일」 후방의 蘇聯領土로 撤收하게 되는데 반해 美軍이 撤收하는 境遇에는 大서양을 건너 3,000 「마일」을 後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分 析

가. 72.1.31 부터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開催되고 있는 相互均衡 減軍 豫備會談은 그간 會談의 進行過程에서 蘇聯과 「나토」側의 主張이 對立하여 일시 膠着狀態에 빠져 있었음.

1) 蘇聯의 主張點

- 「헝가리」駐屯 蘇聯軍을 減軍대상에서 제외 (「옵서버」로서의 參加를 要求)
- 會談名稱에 異議提起 ("均衡" 語句를 삭제)
- 1:1의 兵力 減縮

2) 「나토」의 主張點

- 「헝가리」를 減軍對象에 包含
- 地理的 特殊性을 考慮한 "均衡減軍"

나. 이렇듯 膠着狀態에 빠져있던 豫備會談은 「브레즈네브」의 美國 訪問을 앞두고 美·蘇 兩國이 각기 讓步를 함으로써 73.5.14 全体會 議를 開催하는등 활기를 띠기 始作하였음.

1) 蘇聯의 讓步

○ 「항가리」내의 蘇聯軍을 더 以上 增強하지 않을 것을 確약

2) 美國의 讓步

○ 會談名稱에서 相互 均衡減軍을 相互 減軍으로 讓步

○ 「항가리」問題에서 一応 讓步하여 「항가리」는 「옵서버」로 參加키로 됨.

다. 上記와 같이 美·蘇 兩國의 讓步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나토」 側의 主張대로 "均衡減軍"을 할 것인가 아니면 蘇聯의 持論대로 1:1의 減軍을 할 것인가하는 問題에 있어서는 아직 完全한 타결을 보지 못하여 本會談 開催의 最大爭点으로 「클러즈·얼」되어 있었음.

· 評 価

가. 本 「뉴욕·타임즈」紙의 記事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美·蘇 兩國의 中部「유럽」駐屯의 第1段階 減軍이 蘇聯의 主張대로 1:1의 比率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이나 美 行政府가 이를 拒否하고 있는 점이 주목시됨.

나. 美 行政府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은 「브레즈네브」의 美國訪問時 蘇聯에 經濟援助와 技術援助를 제공하는 대가로 1:1의 減軍이 아닌 均衡減軍을 貫徹시키는 方向에서 최종타결을 보려는 의의를 갖고 있는 때문인 것으로 評價됨.

{ 73. 6. 3. 「아메리칸 뉴-스 뉴욕타임즈」 }

3) 戰略武器 制限 會談

美·蘇 第2期 第2次 戰略武器 制限會談 開催

1. 內容要約

- 가. 美·蘇 兩國은 3.13 「제네바」에서 第2期 第2次 戰略 兵器 制限 交渉을 再開하였다. 첫 會談은 3.12 1시간 30분에 걸쳐서 實施 되었으며 두번째 會談은 3.13 오전 11시부터 美國 代表部에서 실시 되었다.
- 나. 이번 會談에 美國 首席代表로서는 신임 「존슨」(전국무차관) 씨가 參加하였으며 蘇聯側 수석대표로서는 繼續 「세모노프」 外務차관이 參加하고 있다.
- 다. 交渉의 內容은 始終 蔽秘에 붙여져있으나 제1기 交渉에서 거의 取扱되지 않은 「엠 아이 알 비」(다탄두 각개 유도 「미사일」)의 質的 制限問題, 戰略爆擊機 및 「前衛基地體系」라고 부르는 美國의 在歐洲 戰術 兵器 問題가 초점이 될 것이다.

2. 分 析

- 가. 1969年 11月 부터 繼續된 제1기 戰略武器 制限 交渉은 1972.5. 26에 최초로 合意에 到達하여 「모스크바」에서 다음과 같은 條約 과 協定이 조인된 바 있다.
- 「에이 비 엠」(탄도탄 요격 「미사일」) 「시스템」의 制限에 關한 條約
 - 공격용 戰略 「미사일」의 制限에 關한 期限 5年間의 暫定協定
 - 이 暫定協定을 潛水艦 「미사일」에 적용하는데 關한 議定書

나. 상기 3개 條約과 暫定協定の 主要 內容

1) 「에이 비 엠」 「시스템」의 制限에 관한 條約

가) 美·蘇 兩國은 각기 「에이 비 엠」을 2개소에 展開할 수 있으며 1개소에 각각 100基 都合 200基까지의 요격 「미사일」 및 發射台를 配置할 수 있다.

나) 「에이 비 엠」條約은 5年마다 再檢討된다.

2) 攻擊 「미사일」의 制限에 관한 協定

가) 兩國이 각기 保有할 수 있는 「아이 시 비 엠」과 「에스 엘 비 엠」(水中 發射 「미사일」)의 총수는 「에스 엘 비 엠」境遇는 1972.5.26 現在, 「아이 시 엠 비」의境遇는 1972.7.1 現在 이미 就役하고 있거나 또는 建造中에 있는 數量을 基礎로 한다.

나) 近代的인 "중" 「아이 시 비 엠」은 이 이상 展開하지 못하나 潛水艦 發射대 및 「미사일」의 교체는 자유롭게 認定되어 있다. 또한 1964年 以前에 展開한 「아이 시 비 엠」發射대를 이와 동수의 새로운 「에스 엘 비 엠」發射管으로 交替할 수가 있다.

다) 이 條約에 따라 美·蘇 兩國은 다음과 같은 공격용 「미사일」의 保有와 改良이 可能하다.

美 國

種 別	현 保 有 (건조중포함)	旧型 아이시 비 엠을 新型 에스 엘 비 엠으로 交替	結 果
아이 시 비 엠	1,054 基	1054기 - 54기 (이중 54기를 에스 엘 비 엠으로 교체)	1,000 기
에스 엘 비 엠	656 기	656기 + 54기	710 기
彈道 미사일	41 隻	41척 + 3척 (54기를 설치하는데 필 요한 수)	44 척
潛 水 艦			

蘇 聯

種 別	현 보 유 (건조중포함)	旧型 아이 시 비 엠을 新型 에스 엘 비엠으로 交替 (予想)	結 果
아이시비엠	1,618 기	1618기 - 210기 (이중 210기를 에스 엘 비 엠으로 교체)	1,408 기
에스엘비엠	740 기	740기 + 210기	950 기
近代的潛水艦	56 척	56척 + 6척 (이유가 불명확함)	62 척

다. 美·蘇 戰略武器의 優劣 比較

- 1) 美国: 戰略武器 分野에서 美国은 質的인 面에서 蘇聯보다 앞서고 있음. 特히 「엠 아이 알 비」에 있어서 美国의 우세는 현저함 美国은 「엠 아이 알 비」에 장치된 複數彈頭를 個別的으로 유도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수중발사 「미사일」이 「엠 아이 알 비」化 되어 있음.
- 2) 반면 蘇聯은 量的인 面에서 美国보다 우세하나 아직까지 「엠 아 이 알 비」를 完成시키지 못하였음. 「엠 아이 알 비」에 장치된 複數彈頭를 個別的으로 유도할 수 있는 能力이 없으며 일정 地域을 「카바」하는데 끌이고 있음.

라. 제2기 1次交渉 (72.11.21-12.21)에서는 “앞으로 討議될 問題의 一般的인 範圍에 對해서 了解가 이루어지고” “討議는 有益하였다” 라는 「커뮤니케」를 發表한 것 이외의 合意內容에 對해서는 일체 밝혀진 바가 없었다.

3. 評 価

가. 第2次 大戰以後 美·蘇는 軍費增強에 2兆弗 以上の 資金(美国이 約 1.3兆, 蘇聯이 1兆弗)를 消費하였음. 美·蘇 兩국이 軍縮과 戰略 武器 制限 交渉에 열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莫大

한 軍費負擔을 경감하기 爲한 것으로 分析됨.

나. 戰略武器에 있어 美國이 質的으로 우세하고 蘇聯이 量的으로 우세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점이 交渉의 主要課題로 될 것으로 判斷됨.

1) 蘇聯에 비해 攻擊用 戰略 武器의 質的인 面에서 優위를 차지하고 있는 美國은 이런 狀態를 繼續 維持하기 爲해 質的開發을 現狀凍結시키며 第1次 協定에 따르는 地上, 水上 「미사일」의 量的인 열세를 없애려고 시도할 것임.

2) 반면 美國에 대해서 量的인 面에서 優勢한 蘇聯은 量的인 規制를 한 現在의 暫定協定을 恒久的인 것으로 만들고 海外 駐屯 美軍을 本土에 몰아 넣기 爲해 「유럽」과 「아시아」에 展開되어 있는 美軍의 戰略爆擊機에 對하여 規制를 가하려고 시도할 것임.

3) 그러나 이와 같은 兩國은 主張이 날카롭게 對立하고 相互 讓步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이번 交渉은 난항을 하게 될 것으로 展望됨.

다. 特히 第1次 協定の 준수 여부를 監視하는 監視團을 構成하자는 美國側의 提議가 蘇聯側에 의해 거부된 事實이 있으며 이번 交渉에서도 蘇聯側이 이에 응하지 않게 되는 境遇 交渉의 進展은 없을 것으로 展望됨.

라. 美國에서 「솔트」의 所管이 軍縮國에서 國務省의 NSC으로 이관되고 首席代表를 國防省 出身인 「존슨」으로 교체된 事實은 美國政府의 軍縮에 대한 자세變化를 意味하는 것으로 注目시됨.

(73. 3. 13. 「요미우리」신문)

다. 分断国 關係

1) 東·西独 關係

東·西独 基本条約 批准 分析評價

西独下院은 5月11日 東西独 關係 正常化를 為한 基本 条約을 批准하
였다.

<内容要約>

- 武力行使 拋棄
- 国境 不可侵
- 内政 不干涉
- 經濟, 科学, 文化, 体育 諸分野 協力
- 東西独 住民의 相互 自由 往来
- 「유엔」 同時加入等

<分 析>

가. 下院의 批准 投票 狀況

贊成：	社民党	268 票
	自民党	
反对：	基民党	217 票
	基社党	
기권 및 결석：		5 票

중으로 社民黨과 自民黨이 推進하는 基本的인 友好條約이 通過
나. 東·西獨의 「유엔」 同時加入案도 可決 通過시켰다.

贊 成 - 365 票

反 對 - 121 票

기권 및 결석 - 4 票

○ 東西獨 基本條約 批准에는 基民黨이 團合하여 反對 하였으나 「유엔」 加入問題에 있어서는 基民黨과 基社黨에서도 贊成하여 圧倒的인 지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다. 下院의 批准으로서 東西獨은 분단의 법문화되어 相互 적대 關係를 解消하고 東西獨 住民들의 相互訪問, 經濟, 文化 交流등이 促進될 것임.

라. 「유엔」 同時加入 問題도 可決되고 또 「유엔」 5대 常任理事國들도 東西獨 「유엔」同時加入을 同意하여 東西獨이 1973年 가을 同時 加入길이 열렸다.

마. 西獨이 東西獨 基本條約締結을 단행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불우하게 처해있는 서백림을 구제하려는 저의에서 나왔지만 國際緊張 緩和의 趨勢를 감안하여 취해진 措置라고 判斷됨.

바. 「브란트」수상이 「유엔」加入은 西獨의 장래를 위해 有益하고 西獨의 「유엔」加入은 現實的으로 必要하다고 主張한 것을 보면 分斷현상을 막아드려 現實政治를 실행하여 점진적인 統一政策을 推進하여 보자는 것으로 評價됨.

사. 이 關係정상화 基本條約은 東西獨間에 타협에 의하여 이루어진 政策으로서 漸進的인 統一政策을 수립하고 있는 우리로서 現在 南北對話가 膠着狀態에 들어가는 것을 볼때 東西獨 接近方法이 研究 대상으로 問題가 됨. (73. 5. 12)

2) 越南問題

越南平和協定 分析

1. 休戰은 1. 27 24:00時 (韓國時間 1.28 09:00時 越南時間 1.28 08:00)에 發効 時限없이 實施)
2. 「인도차이나」 全域 에서 잡힌 全美軍捕虜의 休戰發表 60日內 全員 釈放
3. 同 期間內 越南內 美軍事要員 全員 撤収
4. 越南 政府軍 및 「베트남」은 現位置에서 休戰
5. 協定調印 30日以內 國際會議 開催
6. 美國은 越南에 對한 軍事介入 및 內政干涉을 아니함.
7. 美國 및 모든 聯合軍은 協定調印 60日內 軍事基地 廢鎖
8. 越南政府軍 및 「베트남」은 兵力, 軍事顧問官, 兵器, 彈藥 및 모든 戰爭物資의 導入을 不許
但, 定期交替는 許容
9. 越南政府 및 「베트남」은 休戰發効後 90日 以內 채포된 越南 民間 人 釈放을 爲해 最善의 努力
10. 美國 및 越盟은 越南人의 自決權認定, 民主選舉 通해 政治的 將來決定
11. 越南政府 및 「베트남」은 一切의 보복 行爲를 禁하며 民主的 自由保障
12. 「티우」派 · 「베트남」· 中立派는 同等한 3派로 民族和解團結協議會 構成
13. 越盟軍, 越南軍, 「베트남」 등 各派 軍隊問題는 外勢의 干涉없이 解決
14. 南北 「베트남」의 統一은 平和的方法으로 段階的 推進
15. 17度線은 暫定的인 것이며 政治的 軍事的 分界線은 아님
16. 「크메르」 및 「라오스」의 休戰은 除外되었으나 中立을 尊重

17. 外國軍은 「크메르」 및 「라오스」에서 軍事活動中止, 戰爭物資 再投入 抑制
18. 美國은 戰後 復旧에 寄與
19. 美, 越盟, 越南, 「베트남」은 4者共同 調査委員會 構成, 포로송환, 美軍 撤収, 外國軍 撤収, 基地廢鎖등을 實踐
20. 越南, 越盟은 17度線의 民間人往來 및 정상관계 樹立을 爲하여 적절한 措置
21. 越南, 越盟은 軍事同盟 및 「블럭」에 不加担, 外國의 基地 및 軍事顧問官의 駐屯 不許
22. 議定書에 「로저스」美國務長官 및 「구엔. 트. 린」越盟外相 만이 署名

〈問題點別 合意內容〉

1. 戰爭行爲의 中止

- 가. 休戰이 發効하는 即時로 美軍과 聯合軍은 現位置에 머문다 그 方式은 4者共同 軍事委員團이 決定한다.
- 나. 越南軍과 「베트남」은 現位置에 머문다. 그 方式(占領地域, 駐屯形態등)은 2者共同 軍事委員會가 決定한다.

2. 外國軍의 撤収

- 가. 60日內에 美軍 및 모든 外國軍은 撤収한다.
- 나. 60日內에 美軍 및 外國軍의 軍事基地는 撤収를 完遂한다.
- 다. 越盟軍과 「베트남」은 現位置에 남는다.

3. 捕虜交換

- 가. 60日內에 모든 軍 및 民間人의 捕虜는 釈放한다.
- 나. 行方不明者에 對한 情報를 交換한다.

4. 軍事休戰線

가. 17度線上을 따르는 軍事休戰線은 단지 잠정적인 것일뿐 政治的이나 領土的인 境界가 아니다.

나. 南北越南은 이 잠정적인 軍事休戰線의 非武裝地帶를 尊重한다.

5. 民族和解 團結委員會의 構成

가. 構 成

「티우」派, 「베트콩」派, 中立派의 3個派로 構成되어 滿場一致制에 依拠 行動한다.

나. 性 格

非政府的인 性格을 가짐.

다. 任 務

1) 休戰 90日 內에 南部越南의 國內問題를 解決하는 協定에 調印한다.

2) 休戰協定의 實現과 和解, 團結의 達成

3) 自由民主 總選舉의 組織과 地方選舉의 管掌

6. 兩者 共同 軍事委員會의 設置

가. 構 成

越南, 「베트콩」

나. 任 務

雙方이 占領하고 있는 地域과 駐屯 形態를 決定한다.

7. 4者軍事委員會의 設置

가. 構 成

美, 越盟, 越南, 「베트콩」 (滿場一致制)

나. 活動時期

休戰調印後 即時 發動, 60日 內에 活動을 始作한다.

다.任 務

- 1) 休戰의 實施
- 2) 休戰監視
- 3) 捕虜交換의 監視

8. 國際管理 監視委員團의 設置

가. 構 成

1) 監視委員團

「카나다」, 「인도네시아」, 「폴란드」, 「헝가리」 代表로 構成
(萬場一致制)

2) 國際監視軍: 1,160名

나. 設置時期

休戰協定 調印後 即時 設置, 任務를 遂行한다.

다. 任 務

- 1) 國際會議가 一定한 準備를 할때까지 이 協定規定의 履行을 管理監視함에 關聯되는 問題를 4当事者에게 報告한다.
- 2) 越南內 兩当事者에게 報告할 事項도 같은 節次에 의한다.

9. 國際會議의 構成

가. 構 成

美國, 越盟, 中共, 「프랑스」, 소련, 國際監視團 4個國, 「유엔」事務總長

나. 會議開催: 協定調印後 30日以內

다. 任 務

- 1) 休戰의 보장과 平和의 維持
- 2) 越南民族의 基本權 尊重과 自決權의 保障
- 3) 印支半島의 平和를 保障

10. 「크메르」와 「라오스」問題

- 가. 1962年의 「제네바」協定을 遵守, 兩國의 中立과 領土를 尊重한다.
나. 外國軍은 「라오스」와 「크메르」에 對한 모든 軍事行動을 中止하
고 軍隊投入을 中止한다.
다. 兩國의 軍隊問題는 外國의 干涉없이 兩國國民이 解決한다.

<韓國軍의 撤収問題>

- 가. 73.1.24 朴大統領은 駐越 殘餘兵力의 即刻 撤収와 越南平和 再
建에 積極 協調할것을 發表
나. 73.1.24 劉 國防長官은 越南政府와 緊密히 協調해서 3. 28 以
前에 韓國軍의 撤収를 完了시키겠다고 言明

<分析 및 評價>

1. 美·中, 美·蘇의 和解接近으로 因한 中·蘇의 越盟支援 減少와 美
軍의 大量 北爆 및 美國의 戰爭終熄努力이 休戰을 成立케 하
였다고 分析됨.
2. 美國이 「名譽로운 後退」를 爲하여서는
 - 最少限의 體面維持
 - 美軍捕虜의 釈放
 - 「사이곤」政府維持에 對한 保障이 이루어 질것을 도모하여 왔다.
따라서 現狀態로서는 우선 美國의 一次的인 目的은 이루어졌다고 評
価됨.
3. 越盟, 「베트콩」側은 以上の 美國側 最少限의 要求線까지는 讓步
하였으나 聯合軍 撤収後의 政治的 및 軍事의 事態發展에 큰 關心
과 期待를 하고 있음이 確實함.
4. 越南의 政治的 將來問題는 많은 虛點과 疑問點을 包含한채 紛爭및
冷戰이 繼續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

가. 17도선의 法的性格이 모호함으로서 越南, 越盟關係가 19年前 狀態로 되돌아 갔으며

나. 選舉의 準備管理와 協定の 遵守 監視등의 役割을 할 民族和解 團結 國民協議會가 「사이공」政府 「베트남」 中立派로 構成되래 全員 合意制로 되어 있음으로 運營이 困難함.

다. 越南에 總統 남을 14萬餘名の 越盟軍 거취문제

라. 「크메르」와 「라오스」에는 協定이 適用안됨으로서 軍事的 浸透의 基地化 可能性의 상존

5. 平和協定締結後

越盟側은 現 戰線休戰으로 因한 越南內 占領地域을 교두보로 하여 越南全城 赤化를 目標로하며 「티우」政權은 現在의 有利的한 立場을 바탕으로하여 分散되어 있는 越盟軍 및 「베트남」占領地域을 평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評價함.

6. 美國은 海外 紛爭 介入 回避政策을 다짐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友邦에 對한 共產侵略에 對하여 直接的인 防衛의 責任을 避하려고 할것임.

7. 따라서 共產 威脅下에 있는 國家들은 依存아닌 自위력 向上을 도모할 것이며 多辺外交의 推進을 戒할것임. (73. 1.25)

越南平和協定 調印以後의 問題點

<內容의 要約>

1. 休戰의 實現과 國際監視委의 機能問題

4者合同 調査委員會

兩者共同 調査委員會

國際管理 監視委員會

國際會議等 4個機關이 監視役割을 할것이나 그 가운데 國際管理 監視委員會의 役割이 가장 重要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음.

- 1,160名 内外의 監視團이 모든 軍事休戰線을 効果적으로 監視할수 없다.
- 戰鬪가 發生時 現地에 가서 兵力을 撤収시킬 權限이 있는지 分明치 않다.
- 兵器의 交替交換 監視에서 双方의 現保有 兵器 數量的 確認 困難
- 「게리라」戰의 「베트콩」兵力 確認 困難

2. 越盟軍 撤収問題

越盟軍 (越南政府推定 = 20萬, 美軍推定 = 15萬)의 撤収는 双方 軍事力減縮에 따라 協議하기로 되어있으나

- 制限된 數의 監視軍으로서는 撤収에 따른 公正한 監視가 困難하며

3. 捕虜의 釈放問題

가. 美國軍의 行方不明者 總數는

1,900名인바 그 가운데

捕虜 - 600名

行方不明 - 1,300名

나. 越盟 및 越南軍側 捕虜는

越南側 約 5千名

越盟側 約 5萬名으로 推定되나

- 越盟側 主張은 15萬의 捕虜를 包含한 30萬의 政治犯 釈放이다. 協定에서는 「捕虜가 된 越南市民」이라는 애매한 表現때문에 「티우」政權은 政治犯들을 捕虜交換時 釈放할 可能性은 적다.

4. 民族和解 團結委員會 問題

休戰成立 30日 以內 越南政府, 「베트남」間 協定調印後 「티우」政府 「베트남」 및 中立勢力의 3派 平等으로 民族和解 團結委員會를設置키로 되어 있으나

- 委員會의 設置가 疑問視되며
- 設置되더라도 實質的인 合意없이 相互 비난장화할 우려가 크다.

5. 總選舉

自由 民主選舉를 行하며 세목은 兩當事者間 協議에 依하거나 民族和解 團結委員會에서 決定하기로 되어 있으나

- 選舉의 種類, 選舉區, 投票方法等이 明確치 않다.

6. 國際會議

休戰協定後 30日 以內에 開催되며 參加國은 英, 仏, 中, 蘇 및 休戰 監視委員會 4個國 (「카나다」, 印尼, 「폴란드」, 「헝가리」) 戰爭當事 4個國, 「유엔」事務總長으로 되어 있으나

- 越南問題의 根本的 解決指針이 없으며
- 開催地等 具體的인 問題가 分明치 않다.
- 開催地가 되더라도 平和協定 및 附屬文書의 確認程度로 끝나고 問題點을 깊이 다뤄 解決할 希望은 거의 없다.

7. 「라오스」 및 「캄보디아」問題

國境內에서 外國軍의 軍事活動을 終結짓고 撤軍하기로 되어 있으나

- 이미 介入된 狀態에서 軍事活動만 정지됨으로 根本的인 問題는 解決이 不可能하다.
- 美·中·蘇의 各 影響下에서 內戰化할 危險은 繼續남는다.

<分析 및 評価>

1. 國際監視委가 構成된 後

- 制限된 少数의 監視團員에 의한 效果的 監視役割의 困難
- 当事者が 包含됨으로서 自己側에 有利하게만 努力할것임
- 全員一致制의 事實上 不可能性 때문에 休戰 監視委의 役割을 期待 하기가 어려울 것임.

2. 越盟軍의 撤収는 越盟內 復旧事業을 위하여 實現될 展望도 있는 反面 「베트콩」으로 變身될 境遇 分間이 困難하며 共產側 「게리라」戰의 저력이 될 수도 있음.

3. 가. 美軍捕虜의 交換은 順調로울 것이나 越南軍 및 共產軍의 捕虜交換 에 있어서는 優勢한 立場인 越南側의 態度에 따라 展望이 決定될것 으로 보임.

나. 特히 政治犯의 釈放은 하지 않을 것으로 展望됨.

4. 民族 和解團結 委員會를 통한 3者間 理解의 調整은

- 中立勢力의 모호함과 立場세력화 可能性
- 各者 主張의 事實上 均衡調整이 어려운 點등으로 役割의 成功可能性은 稀薄할 것임.

5. 또한 軍事的으로도

越南軍과 「베트콩」이 各己 占領하고 있는 地域의 明確한 區劃이 없 으며 가변적인 경합지역이 많음으로 영역확보와 擴張을 爲한 競爭만이 熾烈할것으로 보임.

6. 越南側은 現在의 有利한 立場을 最大限으로 活用, 「베트콩」 및 越盟 軍을 漸次 소탕 명정할 計劃으로 보이며 越盟側은 越南內 도처에 構築하여 놓은 占領地域을 中心으로 漸次로 全國을 赤化시킬 計劃인 것

으로 評價됨. (73.1.25 「니홍 게이사이」)

越南休戰協定 調印과 蘇聯의 反應에 對한 分析評價 (「푸라우다」紙 (73.1.23-1.28)의 關聯記事를 中心으로)

다음은, 越南 休戰協定の 調印을 前後하여 소련의 黨機關紙 「푸라우다」紙 (73.1.23-1.25)에 記載된 관련 기사를 記事別로 要約하고 分析 評價를 加한 것임.

1. 記事別 內容要約

가. 「베트남」人民들은 平和를 要求하고 있다. (73.1.23 日字 5 面記事)

1) 「베트남」人民들은 「베트남」의 平和를 要求하고 있다. 美帝의 侵略을 反對하는 鬪爭을 展開하면서 「베트남」人民들은 勝利를 爭取하기 爲해 勇감성, 강인성, 愛國心과 不退戰의 意志를 나타내고 있다.

2) 自由를 守護하고 自主獨立을 爭取하려는 「베트남」人民의 鬪爭은, 世界的인 支持를 받고 있다. 世界 도처의 數百萬 人民들은 美國의 侵略行爲를 中止하라고 要求하고 있다.

3) 「나잔」紙는 그의 論說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人類는 即刻的인 平和를 要求하고 있다. 「베트남」人民이 成就한 勝利와 함께 美國人民과 世界人民들의 鬪爭은 「베트남」에서 戰爭을 中止시키고 平和를 가져오게 한 平和協定을 調印하는데 重要的 役割을 하였다.

나. 「베트남」 人民의 勝利 (73.1.25 日字 4 面記事)

1) 오늘 「베트남」 平和協定을 調印하기 爲해서 「베트남」 人民共和

國外相 | 구엔 주이 친] 이 「하노이」로 부터 「파리」로 떠났다.

- 2) 大統領 관저에서 開催된 성대한 祝典에서 「판 반 돈」 首相은 다음과 같이 演說하였다. 「이것은 自由, 自主獨立, 平和를 爲해서 싸운 「베트남」 人民의 偉대한 勝利이다. 또한 이것은 「베트남」 人民의 軍事的, 政治的, 外交的인 偉대한 勝利이다. 그리고 이것은 「베트남」 人民들과 兄弟的인 社会主義 國家의 人民과 世界 다른 나라 人民들이 軍事的으로 一致團結해서 거둔 偉대한 勝利이다.」
- 3) 오늘 전 「베트남」 人民은 偉대한 勝利를 爭取한데 對하여 큰 기쁨을 나타내고 있으며 「베트남」 人民은 平和協定과 附屬文書를 嚴格히 遵守할 것이며 相對便에게 「베트남」에 平和를 保障하고 印度支那와 東南「아시아」에서 長久的인 平和가 保障되도록 平和協定을 嚴格히 遵守해 주기를 要求하고 있다.
- 4) 「베트남」 人民은 平和와 祖國統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아갈 것이다.

다. 蘇聯 人民들은 「베트남」의 平和協定 調印을 歡迎하고 있다.

(73.1.26日字 5面記事)

蘇聯 人民들은 「파리」에서 調印된 「베트남」 平和協定에 對해서 축하하고 贊成하고 있으며 各界 各層의 反應은 다음과 같다.

- 1) 蘇聯邦 노동 조합 중앙명의 회의 성명
 - 가) 「베트남」에서의 帝國主義 侵略의 中止와 平和回復은 「베트남」 人民이 쟁취한 歷史的 勝利이다.
 - 나) 이것은 또한 民族解放宣傳과 臨時 革命政府의 기치 밑에서 싸운 「베트남」 內의 全 愛國的인 勢力이 희생적인 鬪爭으로 쟁취한 成果이다.
 - 다) 「베트남」에서의 戰爭 中止는 형제적인 「베트남」 人民에게 繼續的이고 全面的인 援助와 支援을 해온 社会主義諸國과 國際共產

主義 運動이 거둔 커다란 勝利이다.

라) 「프로레타리아」帝國主義에 立脚하여 소련의 노동자 階級과 職業 同盟은 「베트남」人民이 鶴首苦待하던 平和를 公고히하고 「베트남」人民이 自己問題를 獨自的으로 解決할 權利를 回復하도록 하는데 不可決한 援助와 支持를 할 것이다.

2) 蘇聯의 「베트남」 支援 委員會

가) 「베트남」 支援委員會는 「베트남」 平和協定の 達成에 對하여 熱烈히 歡迎하는 바이다.

나) 蘇聯 人民들은 英雄的인 「베트남」人民들과의 兄弟的인 團結을 強化하겠다는 決心에 넘쳐있다. 良心的인 世界人民의 課題는 調印된 平和協定을 確固히 하여 實踐시키는데 있다.

3) 蘇聯 平和擁護委員會

「베트남」 平和 協定の 調印은, 「베트남」人民을 積極的으로 支持하고 「베트남」 人民은 正當한 鬪爭에 全面的인 援助를 해은 世界平和 愛護勢力의 커다란 勝利이다.

4) 蘇聯 女性同盟

가) 「베트남」에서의 平和의 達成은 帝國主義의 侵略을 反對 하는 鬪爭에서 용감성과 불퇴전의 강인성을 發揮한 「베트남」 人民의 偉大한 勝利이다.

나) 平和協定이 「베트남」人民共和國으로 하여금 成功的으로 社會主義를 建設하고 南部「베트남」으로 하여금 民主主義를 發展시키도록 實踐되어야 할 것이다.

라. 蘇聯人民의 連帶責任과 지원 (1973.1.27日字 4面記事)

蘇聯人民들은 「베트남」平和協定이 調印된데 對하여 熱烈한 歡迎을 보내는 바이다.

가) 「레닌」의 國際主義的 團結原則에 忠實한 蘇聯人民들은, 蘇聯人民과

「베트남」人民間의 友誼를 強化하고 發展시킬 것이다.

나) 이것은 「베트남」問題를 正常化하는데 重要하고도 實際적인 進전을 가져왔다.

2) 蘇聯邦 外國 및 「베트남」文化 友好 幹部會

가) 同 幹部會는 「베트남」의 戰爭中止와 平和回復에 關한 協定이 調印된데 對하여 큰 기쁨으로 祝賀하는 바이다.

나) 우리 蘇聯人民은 蘇聯共産黨과 蘇聯政府가 「베트남」人民의 便에서서 確固하고 徹底한 支援과 援助를 한 것을 자랑으로 삼고있다.

3) 退役委員會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鬪爭에서 蘇聯과 다른 社會主義諸國의 決定的인 支援과 進歩적인 平和愛護 人民의 一致된 支援을 받아가며「베트남」人民이 거둔 勝利는 世界의 反帝國主義 勢力의 勝利이다.

4) 法律家協會

蘇聯 法律家들은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英雄적인 鬪爭에서 「베트남」人民이 勝利를 쟁취하데 對하여 「베트남」人民共和國의 勞動者와 「베트남」의 愛國的 人士에게 眞心으로 祝賀하는 바이다.

5) 蘇聯邦 赤十字 執行委員會

바야흐로 「베트남」땅에는 平和가 찾아오고 있다. 우리는 「베트남」의 兄弟들이 앞으로 蘇聯邦赤十字 執行委員會의 恆久的인 團結과 支援을 期待할 것임에 틀림 없다고 確信하는 바이다.

6) 蘇聯 「저널리스트」聯盟

가) 蘇聯의 「저널리스트」들은 싸우는 「베트남」人民과 「베트남」의 言論人에게 援助와 支持를 보였으며, 戰鬪적인 友誼와 團結을 強化시켰다.

나) 蘇聯 「저널리스트」들은 平和協定이 調印되고 遵守되기를 希冀한다.

마. 「베트남」人民의 偉大한 勝利 (73.1.28 日字 社說)

- 1) 1. 27 「파리」에서 「베트남」에서 戰爭을 中止하고 平和回復에 關한 協定이 調印되었다. 平和協定은 美國의 侵略的인 行爲를 中止하고 「베트남」에서의 美軍과 外國軍의 完全한 撤収와 美國의 「베트남」 問題에 對한 內政干涉의 中止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다.
- 2) 美帝의 戰略은 侵略戰爭을 擴大하면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先驅者의 하나인 「베트남」人民共和國을 抑壓하여 印支半島 人民들의 民族解放 運動을 阻害시키고 世界 反帝國主義的인 平和愛護 勢力의 團結性을 破壞하려고 試圖하였다.
- 3) 「베트남」人民이 쟁취한 成果의 歷史的 意義는 다음과 같다.
 - 가) 人類에게 自由를 爲해 鬪爭하는 英雄主義의 模範을 誇示하고 고무 시켰다.
 - 나) 東南 「아시아」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立場을 強化
 - 다) 世界 社會主義 陣營의 威力을 誇示
 - 라) 國際情勢를 緩和
- 4) 「베트남」人民의 犧牲的이고 決定的인 鬪爭과 社會主義 陣營의 全面的인 援助와 未曾有의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團結은 侵略을 저지하는 要素로 되고 있다.
- 5) 東南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社會主義國家, 「베트남」共和國 아들·딸들의 戰功은 全世界的인 民族解放 鬪爭의 歷史의 한 「페이지」를 裝飾하였다.
- 6) 人民들의 物質的, 精神的인 力量을 總動員하고 蘇聯과 其他 社會主義 國家의 援助에 힘입어 胡志明에 의해 育成된 「베트남」의 勞動黨은 侵略者의 公使와 함선에 의한 공격을 무력케할 程度로 「베트남」人民共和國을 短時日內에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 7) 南, 北 「베트남」 人民의 勇猛성과 團結의 힘은 소위 侵略者들의

越南戰의 勝利計劃을 무절렀으며 「베트남」問題를 政治적으로 解決하는 協商에 應하도록 만들었다.

- 5) 「베트남」人民들이 쟁취한 커다란 勝利에 對하여 蘇聯人民들은 기쁨과 滿足으로 받아 들이는 바이다. 蘇聯 共產黨과 蘇聯政府는 恆常 自己의 피해 및 苦難 일처럼 「베트남」의 兄弟들에 對한 全面的인 援助를 해왔다.
- 9) 帝國主義 侵略者들이 爆擊을 加하여 「베트남」人民共和國을 破壞할 때 蘇聯은, 「베트남」人民共和國의 人民軍이 짧은 期間內에 現代的인 裝備로 武裝이 되도록 하는데 必要한 모든 것을 援助하였다. (對空 「미사일」, 砲, 戰鬥機 등)
- 10) 蘇聯 共產黨 中央委員會, 蘇聯 聯邦 最高會議 幹部會議, 蘇聯 內閣은, 「베트남」平和協定の 調印에 즈음하여 「베트남」人民共和國에 보내는 「메시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蘇聯人民의 생각과 感情을 表現하였다. (다음 項目 參照)

바. 蘇聯政府가 越盟에게 보내는 「메시지」(73.1.28 일자 1面記事)

- 1) 蘇聯 共產黨 中央委員會 蘇聯 聯邦 最高會議 蘇聯政府와 全 蘇聯人民들은 「베트남」의 愛國者들이 越南戰의 休戰과 平和回復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쟁취한데 對하여 兄弟的 「베트남」人民에게 熱烈한 祝賀를 보내는 바이다.
- 2) 美軍을 비롯한 外國軍을 越南 땅에서 몰아내고 美國의 「베트남」에 對한 干涉의 中止를 規定한 休戰協定이 調印된 것은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鬪爭에서 거둔 偉大한 勝利이며 오늘날에 있어서 어떠한 外來의 힘도 自己의 權利를 爲해 싸우는 人民의 意志를 굴복시킬수 없다는 事實을 雄辯적으로 證明해 주었다.
- 3) 蘇聯人民은 「베트남」 人民이 困境에 處하였던 戰時에 「베트남」의 모든 兄弟들의 便에 서서 援助를 하며 侵略者를 反對하는 鬪

爭에서 「베트남」人民을 支持하였다.

- 4) 社会主義 諸國의 友好的인 協力과 社会主義 諸國의 共産黨과 勞動黨 「베트남」問題와 관련하여 반제국주의 鬪爭을 積極的으로 展開한 平和 愛護 勢力의 努力은 越南休戰協定을 達成케 하는데 重要한 要因이 되었다.
- 5) 「베트남」 人民과 共同步調를 取해온 國際的인 움직임은 平和民族的인 自主 社会正義를 實現하려는 世界人民들의 意思를 明白히 表現하고 있다.
- 6) 「베트남」 人民共和國은 東南「아시아」에 있어서의 社会主義의 先조기지며 이 나라는 戰爭에서 받은 傷處를 治愈하고 經濟的인 潜在力을 強化하며 民族的인 獨立을 위해 싸우며 自主的인 發展의 道에 들어선 人民들의 모범으로써 社会主義의 體制를 建設해 나갈 것이다.
- 7) 「베트남」 땅에서의 平和回復은 東南「아시아」의 情勢를 正常化 시키는데 寄与하게 될 것이며 國際情勢를 緩和하고 東南「아시아」와 다른 大陸에서의 社会主義 運動과 民族解放鬪爭을 展開하는데 有利한 조건을 조성해 줄 것이다.
- 8) 蘇聯人民은 兄弟的인 「베트남」人民의 成功을 眞心으로 기뻐하고 있으며 전사에서 처럼 새로운 段階에 있어서도 正當한 「베트남」人民의 便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 9) 蘇聯 人民들은 休戰協定이 統一, 民主, 平和, 自主的인 「베트남」을 造成하는데 寄与하도록 實踐되리라고 確信하는 바이다.

2. 分 析

- 가) 蘇聯政府는 越南休戰協定을 다음과 같은 立場에서 「베트남」人民의 「偉大한 勝利」라고 評價하며 大大的인 歡迎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

- 1) 越南 平和協定の 調印은 人民解放鬪爭의 하나의 象徴으로서 越南人民의 英雄的인 戰爭과 社會主義 陣營의 積極的인 支援과 世界平和 愛護人民의 勝利로 이끈 世界史的인 意義를 갖는 一大 事件이다.
- 2) 美軍을 비롯한 外國軍의 撤収로 越南問題는 越南人 스스로가 解決할 수 있는 途徑을 마련했다.
- 3) 越盟은 東南「아시아」에 있어서의 社會主義 陣營의 先鋒으로서 남게 될 것이다.
- 4) 社會主義 陣營의 威力을 誇示했으며 東南「아시아」에 있어서의 社會主義의 立場을 強化했다.
- 5) 世界情勢와 東南亞情勢의 緊張을 緩和시키는데 寄與할 것이다.
- 6) 世界의 어떠한 「侵略勢力」도 「正義의 戰爭」인 民族解放鬪爭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教訓을 남겼다.

나. 「뿌라우다」紙는 休戰協定 전문을 紹介하였으나 (73.2.26 일자 4面) 社說, 論說, 記事를 통해 越南땅에서 美軍과 其他 外國軍이 撤収하게 되었다는 點만을 強調할뿐 休戰協定 條文에 對한 구체적인 論評과 이해득실에 關해서는 전혀 言及하지 않고 있음.

다. 蘇聯의 對越盟 援助가 越南戰遂行에 寄與한 點에 對해서는 強調하고 있으나 中共의 對越盟 援助에 對해서는 全혀 言及하고 있지 않으며 「社會主義 陣營의 支持와 援助」라는 말로서 莫然하게 表現하고 있음.

라. 越南戰後의 處理問題에 對한 蘇聯의 基本立場을 다음과 같이 闡明하고 있음.

- 1) 蘇聯은 戰時에 「베트남」人民을 지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繼續해서 支援하고 援助한다.
- 2) 越南 平和協定은 遵守되어야 할 것이며 越盟이 社會主義國家로 發展되고 越南이 民主主義 國家로 維持, 發展되도록 實踐에 옮겨야 한다.

3. 評 価

가) 越南 休戰協定の 調印을 世界史的 意義를 갖는 「베트남」 人民의 偉
대한 勝利라고 強調하고 있는 點은,

- 1) 中途半斷式으로 끝난 越南戰을 “勝利로 이끈 民族解放鬪爭의 「모
델·케이스」”로 宣傳
- 2) 美國의 威信을 저하시키 「닉슨·독트린」에 따른 「아시아」 地域
에서의 美國의 撤退를 促進
- 3) 民族解放 鬪爭은 언제나 勝利할 수 있다는 確信을 고취하려는 目的
을 두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나. 蘇聯이 越南休戰協定の 調印을 大大的으로 歡迎하게된 또 다른 이유
는 :

- 1) 美·蘇를 주축으로하는 平和 共存政策을 展開하는데 癌的인 存在였
던 越南戰이 終結됨으로서 이의 次要因素이 除去
- 2) 對越盟 援助를 重要하고 美·蘇가 共同步調를 取하지 못하고 있는
때 대한 非難을 모면
- 3) 蘇聯의 對越盟 軍事, 經濟援助에 따르는 負擔을 輕減할 수 있는 地
에도 있다고 評價됨.

다. 休戰協定 條文에 대하여 전혀 論評을 回避하고 있는것은, 越南의 休
戰을, 越盟과 社會主義陣營의 一方的인 勝利로 끝났다는 印象을 주기
위한 配慮에서 나온것이라고 評價됨.

라. 中共의 對越盟 援助에 對해서 言及을 回避한것은 저간의 中共의 對
越盟 援助와 越南休戰을 앞두고 活潑히 展開되고 있는 美, 中關係改
善에 對한 不滿에서 나온 것이라 判斷됨.

마. 蘇聯은 戰時 越盟에 年間 約 9億弗의 經濟, 軍事援助를 해왔으며,
上記 蘇聯政府의 闡明으로 보아 금후에도 이와 비슷한 水準의 經濟
援助를 하게될 것이라 展望됨.

4. 越南戰이 國際情勢에 미친 影響

가. 國際情勢 一般에 미친 影響

- 1) 強大國의 弱小國家에 對한 影響力減少
- 2) 戰後 世界秩序를 支配하던 美·蘇 兩國 體制에서 多원화 時代로의 履行을 促進
- 3) 強大國에 對한 懸상고정화 政策의 抬頭

나. 美國에 미친 影響

- 1) 美國의 힘에 對한 確信의 쇠퇴감이 國內에 반영
- 2) 厭戰思想의 高潮
- 3) 「닉슨·독트린」을 낳게 한 根本要員이 됨.

다. 共産陣營에 미친 影響

- 1) 對越盟 援助를 必要한 中·蘇 兩國의 對立(共同步調를 期하지 못함)으로 國際共産主義 運動의 分裂을 招來
- 2) 國際共産主義 運動의 利益에 自國의 利益을 從屬시켜야 한다는 「프로레타리아」國際主義 原則의 瓦解

가) 越南戰이 激化된 時期에 中共과 蘇聯이 競爭적으로 「닉슨」大統領의 自國訪問을 實現시키므로써 越南戰 때문에 自國의 利益을 犧牲시킬 수 없다는 것을 例示

나) 「닉슨」大統領의 「통킹」灣의 機雷封鎖, 越南休戰協定 締結直前に 대대적인 越盟爆撃을 加했음에도, 美, 蘇兩國은 自國의 利益을 考慮하여 수수 방관함.

라. 韓國에 미친 影響

- 1) 強大國에 對한 依存度를 減少시켜야겠다는 國民의 覺醒을 고취
- 2) 自強, 自立, 自主의 主体思想의 抬頭

마. 北韓에 미친 影響

- 1) 萬若 北韓이 戰爭을 挑発하게될때 果然 中共과 蘇聯이 北韓을 積極 支援해 줄것인가의 疑問이 提起
- 2) 越南戰의 例는 北韓全域의 초토화를 覺悟하지 않고서는 北韓이 戰爭을 挑發하지 못한다는 事實을 보여주었음.
- 3) 越南에서의 美軍의 撤収는 駐韓 美軍의 撤収를 高집하는 北韓에게 하나의 高우적인 事實이 되고 있음.

繼續적인 戰鬪로 會議成果 暗澹

1. 內容要約

- 가. 오늘 12個國 外相과 「유엔」事務總長 「발트하임」이 越南國際會議에 參석한다.
- 나. 그러나 休戰後에도 戰鬪가 繼續돼서 그 前途가 암담하다.
- 다. 이번 國際會議는 印度支那 平和를 다루는 3번째 國際會議로써 첫번째는 1954年과 1962年에 두번째가 있었다.
- 라. 美國과 越盟은 이미 越南과 「베트콩」側과 平和協定에 對한 具體的 合意를 보았다.
- 마. 이번 會議의 主要目的은 美國, 蘇聯, 中共, 英國과 仏蘭西가 또 다른 戰爭을 防止하는 平和 協定을 비준할 것이다.
- 바. 上記 5個國 以外에 越南, 越盟과 「베트콩」代表와 4個國 休戰監視國인 「카나다」, 「폴란드」, 「헝가리」와 「인도네시아」가 參席한다.
- 사. 美國과 越盟代表가 會議의 議長이 될것이다.

2. 分析 및 評價

- 가. 今年會議는 6月8日에서 7月21日까지 繼續된 54年 「제네바」會

議 보다 짧은 것이며 62年の會議은 「라오스」의 中立化를 꾀했었다.

나. 금번 會議의 目的은 1月 27日 調印된 越南 休戰에 관해서 :

- 1) 休戰協定 調印을 認定하며
- 2) 戰爭 終結 保障
- 3) 越南에서 平和維持
- 4) 「베트남」國民의 基本權利를 尊重
- 5) 越南國民들에게 自信이 決定할 수 있는 權利 부여
- 6) 인도지나 半島에서 平和에 寄与하고 平和를 保障하자는 것등이다.

다. 또 다른 目的은 4個國 休戰監視委員團과 2個國 合同 軍事委員會의 平和 監視機能을 監督하는 것이 될것이다.

라. 이번 會議에서 休戰協定 違反을 監督하는 國際 常設機構가 만들어질 지도 모르며 越南과 越盟間의 經濟協力問題도 다루어질 것이다.

마. 한가지 問題는 越南과 「베트남」代表는 越南의 政治的 將來에 대해 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바. 「슈만」 仏蘭西 外相이 歡迎 演說을 할것이며 各國代表는 「알파벳」 順序로 會議場에 착석할것이며 54年 「제레바」會議때 共同議長이었던 蘇聯과 英國은 여러나라의 反對로 제한될것이다. 또 「하노이」側은 「유엔」事務總長이 되는 것도 反對한다. (73.2.25 「로이타」통신)

「파리」12個國 國際會議에서 調印된 宣言文에 對한 分析評價

「파리」國際會議에 參席한 12個國 外相들은 73.3.2 「파리」의 國際會議 「센터」에서 「파리」平和協定과 同意정서의 遵守와 印支平和의 保障을 約束하는 12個國 共同宣言에 正式 調印하였다.

1. 内容要約

가. 概 要

- 1) 調印日時 : 73.3.2 (第3次 本會議)
- 2) 調印場所
「파리」國際會議 「크레베르」國際會議 「센터」
- 3) 調印國
美, 英, 蘇, 中共, 「프랑스」, 越盟, 越南, 「베트콩」, 「카나다」,
「헝가리」, 「폴란드」, 印度네시아 12個國 (「유엔」事務總長은 參
席하였으나 宜言文에 署名은 하지 않음)
- 4) 條約文構成 : 前文 및 本文 9個項

나. 共同宣言要旨

- 第1條 : 12個國 当事者들은 1. 27日字 「베트남」平和 및 議定書를
유의하고 이를 承認했다.
- 第2條 : 当事者들은 1. 27日字 平和協定이 獨立主權 領土保全에 對
한 「베트남」人民의 熱望과 民族的 權利 및 越南人民의 自
결뿐만 아니라 世界 모든 國家들의 平和에 對한 熱望을 充
足시키고 있음을 認定한다.
- 第3條 : 會議參加者들은 「베트남」平和協定 調印 4 当事者들이 合意한
公約을 嚴肅히 유의한다.
- 第4條 : 모든 当事者들은 「베트남」人民의 基本權을 嚴格히 尊重할 것
을 嚴肅히 다짐한다.
- 第5條 : 會議 參加者들은 다른 모든 나라에 對해 「베트남」人民의 民
族的 基本權과 越南人民의 基本權을 嚴格히 尊重할 것을 促
求한다.
- 第6條 : 美國, 越盟, 越南 및 「베트콩」은 共同으로 또는 個別的으로

會議參加國에 대해 休戰違反 事項을 報告할 수 있다.
이들 4 자는 「카나다」, 「헝가리」, 「인도네시아」, 「포렌드로」 構成되는 休戰管理 監視委員團으로부터 報告를 받고 이 報告를 共同으로 또는 個別的으로 會議 參加國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權利를 갖는다. 各國은 또한 원한다면 「유엔」事務總長에게 通報할 수 있다.

第7条: 重大한 休戰違反 事件이 發生할 境遇 4 個國은 必要한 措置를 취하기 위하여 共同으로 또는 個別的으로 다른 會議 參加國들과 協議할 수 있다. 國際會議은 美國과 越盟의 共同 要請에 의해 再召集될 수 있다. 美國과 越盟이 合意하지 못하는 境遇에는 會議參加國 6 個國이 會議를 緊急召集할 수 있다.

第8条: 會議參加國들은 美國, 越盟, 越南, 「베트콩」 4 자가 「베트남」 平和協定에서 約束한 「라오스」 및 「코메르」의 獨立, 主權, 單一性, 領土保存 中立을 위한 公約을 留意한다.

第9条: 宣言은 調印과 함께 즉각 發効된다. 12 個 政府의 署名은 어느 國家의 承認을 意味하지 않는다.

다. 各國 代表의 主張

共同宣言文 作成 過程에서 나타난 各國 代表의 主張과 意見 差異는 다음과 같음.

1) 越盟代表

가) 이 國際會議은 「베트남」에 관한 會議이며 「라오스」, 「캄보디아」問題를 상정해서는 안된다.

나) 이 會議 參加者中에는 臨時 革命政府를 남「베트남」人民의 代表로서 認定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다) 여러 國家의 援助와 美國의 전후 援助는 別個의 問題이다.

2) 越南代表

이 國際會議은 1954. 52年의 「제네바」協定の 延長線상에 있는 것이며 參加國 代表는 南·北「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主權, 領土保存, 內政不干渉을 尊重하겠다고 協約해야 할 것이다.

3) 「카나다」代表

가) 停戰違反 事件을 處理하는 國際的 常設機關을 設置해야 한다.

나) 國際的 常設機關으로는 「유엔」이 適合하다.

다) 본 提議가 貫徹되지 않으면 國際管理 監視委에서 脫退하겠다.

4) 蘇聯代表

가) 國際的 常設機關의 設置를 反對한다.

나) 問題는 모든 当事者가 義務와 責任을 完遂하는데 있다.

5) 美國代表

가) 「카나다」代表의 提議를 支持하나 그 機關은 簡單한 것이 좋다.

나) 이 國際會議에서 「라오스」, 「캄보디아」問題가 取扱되기를 希望한다.

6) 「유엔」事務總長

가) 國聯이 戰後 「베트남」復興에 協力할 用意在 있다.

나) 國聯이 特定한 役割을 主張할 생각은 없으나 支援要請이 있는 境遇 國聯이 責任을 질 用意在 있다.

2. 分析 및 評價

가. 이번 共同宣言文의 調印으로 交戰当事者끼리만 署名한 1.27의 越南 休戰協定이 國際적으로 再確認되고 重大한 休戰協定의 違反이 있을 경우 따라 國際會議을 再召集하는 길을 열어놓는데 意義가있다고 分析됨.
나. 그러나 停戰違反 事項을 裁決하는 國際的 常設機關을 設置하고 파리

國際會議에서 「라오스」, 「캄보디아」 問題를 括 取扱해야 한다는 「카나다」, 美國의 案이 좌절되어 從前대로 4 個國 決定 署名國이 停戰 違反事項을 最終적으로 責任지게 되어 이에 對한 根本적인 解 決策이 講究되지 못하였음.

다. 越盟과 蘇聯이 「카나다」와 美國의 案을 反對한 것은 :

- 1) 「유엔」을 비롯한 外部勢力의 干涉과 介入을 排除
- 2) 「파리」國際會議의 유명무실화
- 3) 休戰協定을 遵守하지 않으며
- 4) 越南內에서 地域上으로 「베트콩」이 차지하고 있는 地域이 보다 広範圍하여 政治的 鬭爭을 통해서 越南을 赤化하는데 自信을 갖고 있는데 그 理由가 있다고 判斷됨.

라. 本 宣言文은 越南 休戰協定을 國際적으로 再確認하고 重大한 紛爭이 發生하였을때 이를 「파리」國際會議에 上程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 으는데 不過하며 越盟의 主張이 많이 받아들여져 紛爭防止를 為한 具 體的인 措置가 講究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앞으로도 「베트콩」에 의 한 休戰協定 違反事項이 統出될 것으로 展望됨.

마. 6. 25 動亂 當時 休戰協定締結을 앞두고 「파리」에서 19 個國 國 際會議 (참전 15 個國과 韓國, 北韓, 中共, 蘇聯)가 開催되었으나 실패 로 끝난 事實이 있으므로 이번의 「파리」 12 個國 國際會議의 休戰 後 越南處理의 推移過程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美國側, 「하노이」의 經濟援助 警告

1. 內容 要約

가. 美國防長官 「엘리웃 리차드슨」과 國防次官 「윌리엄 클레멘트」씨는 越盟側이 休戰協定을 違反하면 美國의 援助가 없다고 警告했다.

나. 두 사람은 同時に 美国은 平和에 깊은 関心을 가지며, 休戰協定을 違反하고 侵略을 恣行하는 쪽에게는 어떠한 援助도 考慮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 오는 7月1日에 始作되는 1974年 會計年度에 美国의 對 印度支那 軍援과 軍備는 29億弗이 될것이라고 시사했다.

라. 上記 29億弗中 19億弗은 越南,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軍援이 되고 나머지 10億弗은 이 地域에서의 美国이 軍事維持費인데 休戰協定이 遵守되지 않는다면 充分한 額數가 아니라고 했다.

마. 「리차드슨」의 記者會見 要旨는 :

- 1) 74會計年度의 美国의 對外 援助費가 前後 東南「아시아」復旧에 充分치 않다. 「에이.아이.디」基金은 國防省의 所管이 아니므로 國防省에서는 15億弗을 最上으로 策定할수 있는데 7億 5,500萬弗은 集團安保障衛費이고 7億 9千 100萬弗은 軍事援助費로 割當할計劃이지만 議會에서 削減될듯하다.
- 2) 74會計年度의 美国의 國防費는 850億弗인데 東南「아시아」에 割當되는 復旧費는 29億弗이 된다.
- 3) 비록 29億弗이 充分치는 않아도 現在 「인도지나」에서는 半 戰爭狀態에 있다. 73年 會計年度의 越南과 그 友邦의 軍事援助費는 62億弗이었다는 것을 想起시켰다.

2. 分析 및 評價

가. 「리차드슨」과 「클레멘트」의 이와 같은 發言은 前後 印度支那 復旧費에 對한 議회의 支持를 얻으려는 側面과 「하노이」側에게 조속한 戰爭終結을 중용하는 것이라 볼수 있다.

나. 國防長官 「리차드슨」은 戰爭의 종식상태가 每日 每日 늦어지면 그만큼 援助費가 줄어 들것이라고 시사하는 이면에는 援助費가 아주없

어지는 것이 아니라 休戰을 빨리 이루어 戰後 復旧費에 對한 會議의 支持를 빨리 얻어 보자는 美 行政府의 意圖라고 본다.

다. 美國은 2次世界大戰後의 「마-살 폴덴」이 成功했든것과 같이 越南을 위시한 東南亞諸國에 經濟援助를 成功的으로 成就시킴으로써 世界輿論을 얻어 보려는데 또 다른 目的이 있다고도 본다.

라. 한편 美國은 越盟이 繼續 休戰協定을 違反하고 戰爭을 擴大하면 또 다시 戰爭에 介入할 意思가 充分히 있다는 面을 暗示하고 있는 것으로 看做된다.

越南平和를 為한 美·仏의 共同努力

<內容要約>

1. 悲劇적인 越南戰爭의 종막을 보이려하므로 美國國民들도 「인도차이나」의 榮耀로운 平和를 為한 「넉슨」大統領의 努力속에 감추어진 秘密을 알 때가 된 것 같다.
2. 우리는 2年間의 길고 多難한 協商을 為해 努力한 「퐁피두」大統領과 그의 外務相 「모리스 슈망」의 重要한 役割을 指摘하려 한다.
3. 仏蘭西가 「파리」協商過程에서 遂行한 그의 役割을 감출수 있었던 外交的 信증성은 놀랄만큼 完璧했다.
4. 「퐁피두」大統領은 이달 初旬 한 記者會見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다른 어느나라보다도 이 協商에 깊이 關여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眞心으로 協商이 成功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는 또 「넉슨」과 相互 意見交換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그것은 “外交的 禮儀와 慎重 때문에”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5. 지난해 9月 21日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키신저」의 “極秘” 「파리」訪問에 言及했다.

“지금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프랑스」나 나 個人이 그 會談에 助力했다는 事實, 또 그것이 完全히 秘密로 지켜졌었다는 事實을..... 말해줄수 있다.”

6. 「슈망」은 「텔레비」放送을 통해 “仏蘭西는 有力하게 行動하고 있으며”, 仏蘭西의 役割을 “緊要한 것”으로 評價될 수 있다고 했다.
7. 「퐁피두」의 조심스런 發表에 根拠해서 「뉴욕·타임스」의 「실즈버거」記者는 12.20日 「파리」發信記事로 仏蘭西가 平和協商을 돕기爲해 可能な 役割을 했으며 「퐁피두」가 「키신저」를 여러번 만났다고 보도했다.
8. 「실즈버거」는 12.15日 記事에서 「슈망」의 9月29日 「닉슨」을 만난 以後 “最終合意 또는 다른 和解의 調整에 對한 仏蘭西의 責任을 闡明했다”고 했었다.
9. 「슈망」은 11月16日 國會에서 “어쨌든 協商의 마지막 段階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 分明하다”고 했다. 그는 「퐁피두」政府의 役割이 “조심스럽지만 有力한것”이라고 表現했었다.
또 그는 「닉슨」 「로저스」, 「키신저」 그리고 非公式적으로 越盟側 代辦人과 接觸을 가졌다고 했다.
10. 「파리」의 「프랑·외르」紙는 12月9日에 美國과 越盟이 다같이 平和의 장도를 출발한 그들에게 「프랑스」는 「아시아」問題에 關한 그 의 經驗을 가지고 助力해 줄것을 希望하고 있다”고 보도할 수 있었다.
11. 同 新聞은 또 當時 協商의 교착에 對한 憂慮를 表示하면서 「부랴셀」로 부터 특별히 이곳을 訪問한 「키신저」가 어제 「퐁피두」大統領을 訪問한 것과 그에게 「슈망」을 訪問한 것은 아마 이러한 困頓을 打開하려는 目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12. 「퐁피두」政府의 見解가 白廳館의 見解에 接近돼 있다는 事實은1972年 5月7日 다음과 같은 「슈망」外相의 말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越南에서 어느 한쪽에 의한 다른 한쪽의 併呑이나 또는 南部越南에 越盟의 모사품과 같은 政府를 樹立하는 것은 모두 政治的 解決을 追求하는데 있어서 有益하지 못하다.

協商에 의한 解決의 可能性은 南部越南에 獨立된 中立政府를 樹立하는 것과 比例한다”

13. 「퐁피두」는 지난해 「닉슨」의 北京訪問과 「모스크바」訪問에 對해 好意的이 었다. 그는

“그러한 訪問이 平和를 爲해 適切하다는 것이 分明하다. 그것은, 오늘의 世界를 形成해 온 모든 文明國의 不可避한 關係를 새롭게 하는 한 方法이다”라고 했다.

14. 모든 이면의 얘기가 알려지면 「인도차이나」의 榮光로운 平和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仏蘭西 政府가 한 役割은 더욱 分明히 밝혀질 것이다.

15. 近 200餘年 지속해 온 美國과 仏蘭西의 깊은 友誼關係는 다시 한번 다져지게 됐다.

<分析 및 評價>

1. 越南戰 종결을 위한 平和協商 過程에서는 仏蘭西 「퐁피두」政府가 重要한 役割을 遂行한 것으로 보인다.

2. 美國이 協商過程에서 仏蘭西의 助力을 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分析됨.

가. 「인도차이나」問題에 對한 仏蘭西의 經驗利用.

나. 中間 調整者的 役割의 適任者

3. 仏蘭西가 越南終戰問題에 參與하려는 意圖는 다음과 같이 分析됨.

가. 「인도차이나」는 過去 그들의 植民統治地域이었으며 오랜 理解關係를 갖는 地域이다.

- 나. 世界的問題에 참여함으로써 強大國 「이미지」를 浮刻할 수 있을 것이다.
4. 仏蘭西가 制限하고 있는 越南問題 解決方式은 南部越南에 中立政府를 樹立함으로써만이 政治的 解決이 可能하다는 立場이다.
5. 仏蘭西가 繼續 越南平和 樹立作業에 참여할 展望으로 보아 越南問題의 政治的 解決過程에서도 仏蘭西의 主張이 重要한 意味를 갖는 것으로 判斷됨.
6. 그러나 越南問題의 將來는 어떠한 國際的 解決方式 보다도 越南人 自身의 손에 달려 있다는 立場에서 본다면 모호한 中立化案은 “政治的 解決”이 아니라 “政治的 問題提起”가 될 것이다.
7. 이런 觀點에서 現 「티우」越南政府는 보다 自強태세를 整備해야할 立場에 處해 있다고 判斷됨.

「인도차이나」問題에 對한 「닉슨」의 選擇

< 內容要約 >

1. 金明官 白堊館에서는 越南戰에 關한 重大決定이 있으리라는 徵兆가 있다. 「헤이그」大將이 掃國한 以來 大統領은 決心을 내릴 充分한 時間을 보냈다.
2. 大統領이 해당해야할 問題는 적어도 한달전부터 나타나기 始作했다. 大統領의 措置에는 다음과 같은 選擇이 있다.
- 가. 美國은 많은 犧牲과 어려운 協商에 爲해 얻어진 終戰協定을 越盟이 세멋대로 破壞하는 때도 本체 만체할 것인가?

- 나. 아니면 越盟側으로 하여금 終戰協定에 순종하도록 하는데 必要的한 강
경조치를 取함으로써 결말을 볼 것인가?
3. 지금 大統領이 當面하고 있는 이러한 選擧의 問題는 어느 政治指導者
에게 부과된 問題보다도 冷嚴한 것이다.
4. 「닉슨」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다음에 내릴 그의 결정이 어떤 것이
리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는 온갖 努力과 危險 그리고 國家的 犧
牲으로 이루어놓은 協定이越盟側의 約束 違反으로 破壞될때 決코 辭
任할 人物은 아니다.
5. 우리는 越盟指導者들에게 約束을 지키도록 大統領이 할수 있는 모든것
을 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건우길 期待해야 한다.
6. 그러나 「닉슨」이 그러한 決心을 하게될지, 그리고 越盟指導者들이 그
들의 상술적인 約束違反을 中斷하게될지는 좀더 두고 볼일이다.
7. 大統領의 어려운 選擧를 더욱 어렵게하는 要因은 또 다른데 있다.
「닉슨」은 美國史上 처음 天才的인 秘密外交를 成功的으로 수행해 오
고 있는 大統領이다.
8. 우리는 모든 意味를 理解하기 위해서 美國의 새로운 中·쏘 關係를
考慮해야한다. 그러나 이 事實은 公開되지 않고있다.
9. 事實을 살펴보면 :
- 가. 中共은 그들의 核 發살을 企圖할 朝鮮의 予防攻撃에 대해 威脅을 느
끼고 있다. 새로운 美·中共關係는 蘇聯의 威脅에 共同으로 처한
다는 어떤 “非公式的 同盟關係”에 立脚한다는 것.
- 나. 「닉슨」大統領은 그러한 蘇聯의 攻撃을 抑制하기로 決心했다는 것
다. 새로운 美·蘇 關係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朝鮮의 모험을 抑制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世界權力關係의 基調를 마련하려는 意圖에서 考察된다는 것.

10. 그러면 이와같은 모든 事實들은 越南問題에 關한 大統領의 選擧과 어떻게 連關되는가?

11. 中共이나 朝鮮은 美國의 態度를 觀望하고 있다.

가. 萬若 「닉슨」 大統領이 消極적으로 越南에서의 排除를 承認한다면, 中共은 美國과의 “非公式的 同盟關係”를 過少評價하게 될 것이다.
나. 美國의 힘이 至極히 弱화돼 보이면 朝鮮으로서는 그들이 積極적으로 準備해오던 中共에 對한 無慈悲한 冒險을 企圖하기가 더욱 쉬워졌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12. 이러한 것들은 大統領이 直面하게 될 選擧에 있어서 重要한 決定要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秘密外交時代에서 이러한 것들을 큰 소리로 대체될 수는 없는 것이다.

<分析 및 評價>

1. 最近 越盟側에 의한 平和協定違反 事件이 擴大됨에 따라 美國은 現在 어떠한 對應策을 講究해야 할 것인가 하는 選擧問題에서 困難한 立場에 處해 있는 것으로 分析됨.

2. 現在 美國으로서 選擧할 수 있는 對應策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想定할 수 있음.

가. 戰爭의 再開

나. 制限된 北爆再開 및 其他 軍事的인 再開

다. 經濟的인 壓力

라. 美·中·蘇 3個國에 의한 政治的 解決

3. 이번 「로저스」 國務長官의 外交白書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美國이

- 越南戰의 停戰을 높이 評價하고 있는 點으로 보아 全面的인 戰爭의 再開는 없을 것으로 判斷됨.
4. 그러나 이미 越盟沿岸의 地雷 除去作業을 中止하고 越盟에 대한 偵察 飛行을 實施하고 있는 點등을 미루어 볼때 때에 따라서는 制限된 範圍內的 北爆再開의 可能性을 全히 排除할 수는 없다고 判斷됨.
5. 現在 實施中 措置中에서 가장 有力한 것은 다음과 같은 經濟的인 壓力이라고 判斷됨.
- 가. 現在 「파리」에서 開催되고 있는 合同 經濟委員會의 中止 (거 조 치함)
- 나. 戰後 越盟復旧事業에 對한 美國의 援助規模의 削減 乃至 防止
6. 또한 政治的으로는 中·蘇의 對立을 利用하여 中共과 蘇聯으로 하여금 越盟에게 休戰協定을 遵守하도록 影響力을 行使케 하는 方法을 選取할 可能性이 甚다고 評價됨.

3) 國共合作

中共, 台灣工作에 積極的인 姿勢

73.3.1 日字 人民日報는, 中國人民政治協商의 全國委員會가 73.2.28 午後 台灣國民이 1947 年에 이르킨 "2.28" 事件 26 週年을 紀念해서 開催한 座談會의 內容을 大體的으로 報道하며 台灣에 對한 和平公작을 展開하였다.

1. 內容要約

가. "2.25 事件" 이란 1947.2.27 台北市內에서 담배를 팔던 할머니가, 蔣介石의 官憲에게 驅打되어 抗議하다가 2 名이 被殺된 流血事件이 일어나고 이 事件을 契機로 다음날 台北市內에서 抗議 「데모」가 發生하여 全國民이 봉기한 事件이다.

나. 이 座談會에는 요승지 (廖承志) 씨와 國府軍의 著名한 戰略家였던 부작의 (傅作義) 가 演說을 하였으며 그 要旨는 다음과 같다.

1) 廖承志의 演說要旨

가) 台灣이 解放되어 祖國의 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서야 1,600萬의 台灣同胞는 大陸人民과 같이 참된 國家의 主人이 될 것이다.

나) 國련에서의 合法的인 權利의 回復, 中美關係의 改善, 中·일 國交 正常化의 實現, 89個國과의 外交關係의 樹立, 「베트남」과 「라오스」戰線의 實現 등으로 台灣 解放鬭爭에 一層 有利한 情勢가 造成되었다.

다) 두 개의 中國을 認定하려는 모든 커다란 타격을 받고 날로 파산의 길을 걷고 있다.

라) 過去에 重大한 誤謬를 犯한 人士라도 現在의 社會主義祖國을 擁護하고 祖國의 統一을 爲해 전력한다면 모든 예를 갖추어 歡迎할 것이다.

2) 傅作義의 演說要旨

가) 祖國統一이라는 신성한 事業앞에 우리가 어찌 상담을 하지 못할 理由가 있겠는가?

나) 日本이 降服한後 毛沢東은 스스로 中京에 가서 蔣介石과 화평회담을 開催하지 않았는가. 화평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 지금 당장 정식회담을 開催할 수 없다면 大陸의 實情을 보고, 親兄弟와 友人을 만나보게 하도록 사람을 파견해도 좋다.

라) 公開로나 非公開로도 좋다. 政府가 반드시 秘密을 지키고 또 往來의 自由와 安全保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信用해 주기를 바란다.

마) 毛沢東을 비롯한 中共의 指導者들은 蔣介石集團에서 일을 한 “過去의 罪”에 대해서 責任을 묻지 않을뿐만 아니라 最近 數十年以來 政治的 또는 生活面에서 좋은 待遇를 받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 가. 本 座談會는 中共이 台灣國民의 本土復歸를 호소하고, 蔣介石, 毛澤東 會談을 시사하며 本格的인 和平공작을 전개한 點으로 座談會의 性格을 超越한 “重大會議”의 性格을 띠고 있어 注目視됨.
- 나. 日·中·美·中의 關係改善으로 台灣의 國際的인 孤立이 되고 있는 狀況에서 台灣이 중여지책으로 中共의 호소에 應하게될 可能性이 있다는 判斷下에 中共이 이러한 和平공작을 展開하게된 것으로 判斷됨.
- 다. 또한 中共은 台灣에 對한 和平공작을 展開함으로써 台灣의 本土復歸가 곧 實現되는 듯한 印象을 國民에게 주어 蔣介石 政府의 立場을 더욱 困境에 몰아넣기 爲해 이러한 미소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됨.

第3次 國共合作 可能性 檢討

1. 內 容

가. 序 文

- 1) 中共問題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것은 中共, 國府 2個政府 問題임.
- 2) 이 2個 政府가 台灣海峽을 끼고, 對立, 分裂을 繼續할것인가? 最終的으로는 어떠한 方式으로 解決될 것인가?
- 3) 美·中共 接近 以後 美, 國府關係는 이완되어 가고 있으며
- 4) 蔣介石總統이 別世한다면 台灣에서는 重大한 變化가 發生할것임.

나. 3者 國共合作論의 拾頭

- 1) 1957. 周恩來 1, 2次 國共合作은 國民黨이 政權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으나 이번에는 쉽게 될것이며 3次會談이 이미 進行되고 있다. 萬一 實現된다면 永久한 合作이 될것이다.

- 2) 1970. 9. 政治局의 좌경로선 代表者 陳伯達이 도래되고 周恩来外
交路線의 抬頭로 한때 中斷되었던 3次合作論이 다시 싹트기 始作
- 3) 以後부터 中共側은 “꼭 台灣을 解放시켜야 한다”에서 “中國人民
은 台灣을 解放시킬 權利가 있다”로 變하여 平和的인 方法으로의
台灣問題의 解決을 暗示
- 4) 美國記者 故 “스노”의 發表文 內容
 - 가) 中共은 蔣介石이 萬一 台灣省의 終身主席이 되기를 願한다면 어느
程度의 自治權을 蔣氏에게 保障할 것이다.
 - 나) 美, 中共 接近을 勘案할할때 北京, 台灣間에도 秘密會談을 始作할
可能性이 있다.

다. 美國은 國共合作을 希望

- 1) 中共이 1957年 (美, 中共 大使級 「바르샤바」 會談) 과 1971年 (周恩來, 「키신저」 會談後) 兩次에 걸친 國共合作論의 抬頭는 美. 中共이 接近하든때 發生
- 2) 美國은 은연중 國共合作을 극력 支持하고 있음. 例로서 1971.4 美國務省 聲明에서 “台灣의 主權은 國際적으로 解決해야 될 未解決 問題이다.” “中共, 國府兩當事者間에 直接談判을 希望한다.” 는 矛盾이 드러나고 있음.
- 3) 「너슨」 中共訪問後부터는 “國際적으로 解決해야 한다”는 말을 強調하지 않고 있음.

바. 中華民國의 運命

- 1) 蔣總統이 健在하는限 台灣은 如何한 變化가 없을 것이나 일단 別世한다면 國民黨 內部, 軍部, 大陸人과 本土人間의 紛爭이 빈번할것임.
- 2) 蔣經國이 繼承한다해도 역겨웠던 經驗不足으로 父親의 大業을 喪失하고 말것임.

3) 世界 各國이 그렇듯이 美國도 自國의 利益만을 追求하고 있는 傾向을 돌이켜볼때 中共과 修交하고 台灣과 斷交한다는 것은 時間問題일것임.

4) 美國과의 斷交는 外交的으로 完全히 孤立됨은 勿論 對外 貿易도 重大 危機에 빠지게 될것임.

5) 台灣當局이 할일.

가) 美國과 斷交하기 前에 民主制度를 確立해서 最少限 官, 民間의 矛盾과 原住民, 大陸人과의 間隔을 매꿔야 한다.

나) 外交的 影響을 받지 않는 對外 貿易關係의 確立

다) 軍隊內部에 中華民國과 共存 共死할수 있는 体制과 사기를 진작시킬것.

마. 最惡의 4個狀況

蔣介石 死後 美國과 斷交해도 台灣當局이 現在와 같이 處理한다면, 台灣의 將來는 다음과 같은 結果를 招來할것임.

(1) 少壯 軍人들이 政變을 일으킬 可能性

(2) 中共의 策動下에 무장봉기 可能性

(3) 政局이 混亂하게 되면 蘇聯과 結탁할 可能性

(4) 3次 國共合作이란 名目下에 “中華民國”이란 國號를 버리고 반독립적 地方自治 政府의 出現 可能性

2. 分析 評價

가. 中共은 1·2次 國共合作에서의 成功으로 大陸을 奪取한지 24年 동안 “台灣解放”을 입버릇처럼 외어오다가 最近 對外的 여건 호전에 힘입어 또 다시 合作方法으로 台灣의 宗主權 取得에 熱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分析됨.

- 나. 1957. 周恩来가 第3次 會談이 進行되고 있다 *고 한말은 當時 國府의 位置로 보아 「유엔」에서의 地位確固, 中(台), 日 條約締結 및 美, 中(台) 安保 協定이 締結된지 얼마되지 않는 時期임으로 國共合作에 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當時의 合作提議는 完全히 失敗한 것으로 分析됨.
- 다. 「武力解放論」에서 「平和解決」으로의 轉換은 中·蘇 國境에서 蘇聯軍의 威脅을 意識한 點도 있겠으나 美·中 關係 호전으로 萬一 美7 艦隊가 撤收하게 된다면 國府側이 蘇聯艦隊를 유치시킬 것이란 點도 計算한 것으로 分析됨.
- 라. 美側은 하루속히 中共과 接近하여 國交를 回復하고 싶지만 一朝一夕에 盟邦을 헌신짝처럼 버릴수 없는 立場임으로 國共이 平和的으로 解決하여 合作이 回復된다면 美國의 무거운 點은 自然的으로 벗어지게 될 것이 分明하며,
- 마. 國府는 1971.11 月부터 外交的으로 많은 打擊을 받고 있어도 아무런 動搖없이 지내고 있으나 現在의 趨勢로 미루어 美國과의 斷交와 否는 빠르면 2, 3年 늦으면 4, 5年內에 判決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때 「中華民國」의 運命은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分析됨.
- 바. 美, 中共關係 改善에 따른 相對的인 台灣 地位弱화, 華僑들의 中공 傾向 등 內外與件의 弱化에 의해 점차적으로 合作可能性이 커질 것이라는 點도 있겠으나 現在 「아프리카」 등지에서 蘇聯官員들과의 接觸을 維持하고 있다는 點을 勘案할때 蘇聯과 結탁하여 獨立을 繼續 維持할 可能性도 있는것으로 判斷됨.

中共, 台湾路線의 緩和

< 內容要約 >

1. 近来 中共은 蔣介石政府가 滅亡할 時期가 무르익어 간다고 台湾人들에게 大대의인 宣傳을 펴고 있다.
2. 북경성 人民解放軍 宣傳放送은 從來의 “台湾을 解放시킨다”는 도전적인 말대신 “祖國의 統一”이라는 平和的 語句로 바뀌고 있다.
3. 宣傳의 內容
 - 가. 美国은 이제 더이상 台湾의 後援者가 아니다.
 - 나. 朝鮮의 美国代役을 警告
 - 다. 台湾 獨立의 反對
4. 86歲인 蔣介石의 健康은 秘密에 덮여 있으나 回復되기 어렵다는 소식이다.
5. 그의 아들 蔣經國은 半世紀동안의 民族, 共產對決에 있어서 協商이란 있을 수 없다고 強硬 態度를 보였다.
6. 數週日前 「스페인」이 中共을 承認했을때 台湾의 反應은 “「스페인」과 모든 分野에서 傳統的 意義에 立脚해서 쌍무적 關係를 유지할 義務가 있다”하고 發表하였다.
7. 中共의 「오·첸·치」(日·中友好協會 會長)는 最近 “蔣介石派 軍部, 行政府 要因들은 祖國統一에 寄與할 機會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愛國者들에게는 應분의 待遇를하며 지난날의 過誤를 용서한다”고 말했다.
8. 中共은 台湾, 朝鮮關係에 神經을 쓰고 있다.
9. 蔣經國이 中共과의 協商을 拒絶하는 強硬態度가 朝鮮과의 結탁에 根拠한 것인가 與否는 알길이 없다.
10. 中共은 “中共人民의 結合”이라는 單純한 感情的 호소만 할 뿐, 再統

일후 台灣에 對한 어떤 특별한 待遇를 約束하고 있지는 않다.

<分析 및 評價>

1. 最近 中共의 台灣에 對한 宣傳內容은 다음과 같은 效果를 企圖하는 것으로 分析됨.

가. 最近 外交的 困境에 對한 台灣에 對한 心理戰的 效果

나. 台灣, 朝鮮接近의 警告

다. 對美關係를 考慮한 平和的 「이미지」의 浮刻

라. 台灣에 對한 協商의 誘導

2. 台灣의 國際情勢는 蔣介石의 健康惡化로 그의 아들 蔣經國의 後繼問題가 早晚間 抬頭할 것으로 보아 中共이 이러한 台灣의 國內情勢의 狀況을 利用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3. 다음과 같은 文脈에서 볼때 台灣과 朝鮮의 接近 可能性도 없지 않다고 判斷됨.

가. 蔣經國 個人的 성향 (朝鮮留學, 朝鮮人案內)

나. 最近의 은밀한 接觸 소문

다. 台灣의 外交的立場 (• 敵의 적은 同志 • 라는 公式)

라. 朝鮮의 對「아시아」關心

4. 台灣의 將來에 對한 「음서버」들의 見解

가. 「티베트」와 같은 形態의 自治性

나. 台灣의 獨立

다. 台灣內 資本家, 指導層에 對한 특별한 條件을 約束하는 國共合作

5. 3次 國共合作 不可能性的 要因

가. 蔣介石의 生存

나. 蔣經國의 強硬한 協商反對의 立場

다. 中共이 如前히 統一後 台灣의 地位에 對한 특별한 대우를 約束하지 않고 있는 點.

6. "3次國共合作" 可能性의 要因

가. 蔣介石이 死亡한 境遇

나. 最近 台灣의 外交的 困境을 打開하려는 努力이 失敗할 境遇

다. 美·中共外交關係 樹立以後

라. 台灣의 國內的 內紛이 惹起될 경우

7. 가. 以上과 같은 可能性의 判明은 時期的으로 蔣介石 死亡後가 될 것이 다.

나. 蔣經國이 積極的으로 親, 友關係를 發展시켜 간다면 相對的으로 台灣은 強硬한 立場을 緩和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그러나 中共이 蔣經國에게 滿足할만한 條件으로 "合作"을 提議해 온다면 協商의 可能性도 있다.

國共 和解의 움직임

<內 容>

1. 中共, 今年 8月 25日 開催予定인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選手 招請 親善卓球選手權大會에 台灣選手 招請
2. 台灣指導者들과 親交를 맺어왔으며 지난 60年間 親日이기도한 中共의 全國人民大會 代議員인 張治中(日 - 章士釗)이 갑자기 「홍콩」訪問
3. 張治中의 「홍콩」到着과 때를 맞춰 台灣의 前 行政院長인 張群이 곧 「홍콩」에 到着할것임.

〈分析 및 評價〉

1. 最近 中共은 對內外的인 與件好轉에 힘입어 平和的 方法에 의한 “台灣 解放”에 努力을 集中해 왔음.
 - 가. 72.10.1 中共 國慶日에 「홍콩」, 「마카오」, 台灣으로부터의 中國人華僑의 招請
 - 나. 72.11.18 “中國政府는 台灣이 꼭 祖國의 품속에 復歸할 것임을 굳게 믿는다.”
 - 다. 73.2.28 中共 人民政治 協商會議副主席인 부작의, “지금이 祖國의 統一을 爲한 最高의 適時”임을 強調
 - 라. 73.3.17 「홍콩」의 「스타」紙, 中共이 「홍콩」駐在 自由中國言論人을 은밀히 招請했다고 보도
 - 마. 73.4 ~ 5 訪日中이던 요승지, “台灣中國人의 本土 復歸促求” “이들이 本土訪問을 願하면 歡迎할 것이며 鄭重하게 돌려 보내겠다”
2. 上記의 事實들을 勘案할때 中共이 從來의 強硬한 主張에서 後退, 漸次 유연한 表現을 쓰기 始作하였는데 이는 自由中國內에서의 中共支持熱을 高潮시키기 위한 策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3. 이번 中共의 自由中國 卓球選手 招請도 自由中國內에서의 中공傾향을 부채질하는 同時에 蘇聯과의 接近 可能性을 意識한 予防策등으로 보임.
4. 張治中의 「홍콩」 유입설은 台灣側에서 蔣氏가 老齡임을 들어 台灣 有力者와의 接觸說을 否認하고 있으나 蔣氏가 前 中共平和會談時 國民黨 代表였다는 點을 생각할때 「홍콩」에 왔다는 事實이라면 國共交涉을 이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台灣系 「구름」과의 接觸은 可能할 것으로 보임.
5. 現在 自由中國은 비록 國際社會에서 疎外되고 있지만 經濟發展에서는,

前年比 42.5% 増加했으며 国民所得도 372 弗이나 되어 国共交渉을 서
둘러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勘案할 때 国共合作說은 根拠가 稀薄한 것
으로 評價됨.

라. 国 際 機 構

1) 「아스팍」

「아스팍」 今年開催는 困難

1. 内容 要約

- 가. 亜細亞 太平洋 閣僚會議 (「아스팍」)은 加盟国인 日本, 「오스트라리아」, 「뉴지랜드」가 中共과의 国交樹立으로 「아스팍」의 存立基礎가 흔들리고 있음.
- 나. 日本 外務省當局은 今年여름 泰國이 「방콕」에서 開催키로 되어있는 第8次 「아스팍」을 開催하기에는 困難한 情勢에 놓여 있으며 「아스팍」이 自然 消滅하리라는 事態까지 予想하고 있음.
- 다. 觀례상 「아스팍」이 開催되기 前에 6, 7 回の 常任委員會가 開催되어 題題등에 關해서 相談하기로 되어 있으나 昨年 6 月 서울에서있은 第7次 「아스팍」開催以後 한번도 常任委員會는 開催된바 없음.
- 라. 日本政府가 이와 같은 애매한 態度를 取하고 있는 것은 日, 中共國交正常化에 따른 파문이 아직 남아 있는 이때 日本이 앞장서서 發言함으로써 會員国에 動搖를 일으키는 것과 같은 事例가 發生하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있음.
- 마. 때문에 日本政府는 「아스팍」으로부터의 脱退乃至는 台灣追放이라는 方針을 正面으로 내세우는 일은 回避하려 하고 있음.

바. 日本政府는 現在 「아스팍」의 開催가 當分間 延期되더라도 文化, 社會「센터」, 經濟協力「센터」등의 「아스팍」의 共同事業은 存続되기를 希望하고 있음.

2. 分 析

가. 「아스팍」은 1966年 韓國의 提議로 創設되었으며 地域開發을 爲해 政治, 經濟, 社會, 文化의 分野에서 意見交換을 통해서 協力關係를 圖謀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음.

나. 「아스팍」의 會員國은 韓國, 日本, 「필리핀」, 越南, 「말레지아」, 「뉴지랜드」, 「타이」, 「오스트라리아」, 自由中國등 9個國으로 構成되어 있음.

다. 第7次 「아스팍」會談은 72.6 서울에서 開催되었으며 當時 會員國 外相이 首席代表로 參席하는 關係에서 벗어나 日本, 「말레지아」, 濠洲가 外相 아닌 人物을 參席시켜 前例없는 소극적인 態度를 취한바 있음.

라. 第2次 「아스팍」會談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點은 社會制度를 달리하는 地域內의 國家制度 門호를 開放하는 方向으로 「아스팍」의 性格 전환을 향해 있음.

3. 評 価

가. 「아스팍」會員國들이 第5次 「아스팍」會談을 앞두고 애매한 態度를 취하고 있는 것은 美, 日의 對中共 關係가 改善되고 있는 狀況에서 中共을 지나치게 意識하고 있는데 原因이 있다고 評價됨.

나. 日本이 第8次 「아스팍」會談의 開催에 對해서 慎重할 態度를 취하고 있는 것은 급진되고 있는 中共과의 國交正常化에 지장을 주지 않는 範圍內에서 「아스팍」의 성격 전환을 期待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다. 특히 「오스트라리아」 노동党政權은 第8次 「아스팍」 會談 開催에 부정적인 態度를 取할것이 予想되고 있으며 「오스트라리아」가 「아스팍」에서 脱退하는 境遇, 餘他 會員國들에게도 부정적인 影響을 미칠 것으로 予想됨.

라. 그러므로 「아스팍」은 軍事, 政治的인 性格을 떠난 순수한 經濟, 文化 協力 機構에로의 性格 轉換이 促進될 것이다.

4. 對備策

가. 「아스팍」은 다른 地域이나 第3國에 對하여 政治的으로나, 軍事的으로 對抗하는 機構가 아님을 會員國에 說得하여 「아스팍」으로 부터의 脱退를 防止해야 할 것임.

나. 軍事, 政治的인 性格을 떠나 純粹한 經濟, 文化 協力機構로서 繼續 維持, 發展시켜야 할 것임.

日本, 새로운 「아시아」機構 創設을 提議

73.1.16 「오히라」外相은 「아시아」 군사회주차 特別 講演會에서 行한 「日本外交의 当面 課題」라는 題目의 演說에서 今後의 日本의 對「아시아」 政策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言及함.

1. 內容要約

가. 日本과 中共이 和解를 하고 「아시아」 問題를 함께 協議할 수 있는 體制가 되지 않고서는 「아시아」를 求할 수 없다.

나. 「아스팍」에는 日本이 加入되어 있으나 中共은 들어있지 않다. 그리고 會員國인 호주, 「뉴지랜드」는 最近 政權이 交替되었다.

다. 今後 政治問題에 關해서 「아시아」 全域을 包含한 地域協力体制를 創設하는 것이 「아시아」 政策에 있어서 最大課題이다.

2. 分析 및 評價

가. 最近 日本政府는 日, 中國交樹立, 越南和平의 迫頭,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어서의 勞動黨의 執權등을 勘案하여 새로운 「아시아」 政策을 모색하여 은바 이번 「오히라」 外相의 새로운 「아시아」 協力機構에 關한 發言도 이러한 方針에서 나온것임.

나. 새로운 「아시아」 協力機構에 關한 「오히라」 外相의 發言은 「아스팍」과 같이 반공색이 짙은 구협력기구의 存続은 日本이 對中共 接近政策을 推進하는데 있어서 支障을 초래할 것이라는 計算에서 나온 것으로 判斷됨.

다. 또한 日本政府가 中共을 包含한 地域協力기구를 구상하고 있는 것은 最近 日本商品의 海外進出의 急增으로 歐洲공동체와 「아시아」 諸國의 反撥을 惹起하고 있어 商品 輸出의 依存도가 높은 日本으로서 새로운 市場개척을 하기 위해서 中共과의 多角的인 提携가 不可避하게된 데에 根本 底意가 있다고 判斷됨.

3. 對備策

가. 「아스팍」의 반공적인 色彩를 불식하고 純粹한 經濟, 文化協力機構로서 維持, 발전시킬것.

나. 共產國家에도 門호를 開放할것

× 이렇게 함으로써 「아스팍」을 解体하려하거나 脫退하려는 會員國의 대의명분을 事前에 封鎖할수 있다고 判斷됨. 共產國家에 門호를開放하드래도 이들 國家가 「아스팍」에 參與하지 않을 것이 明白하

기 때문임.

消滅의 길에 들어선 「아스팍」

1. 內容要約

- 가. 第 8 次 「아스팍」의 開催 予定地인 泰國의 「방콕」에서는 새로운 「아시아」情勢가 전개되고 있는 現 狀況에서 「아스팍」을 開催한다는 것은 無理이라는 觀測이 支配的이다.
- 나. 日本과 主催國 「타이」를 비롯해서 「아스팍」의 會員國은 表面的으로는 “해체”라든가 “연기”라든가 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채 「아스팍」을 “동면상태”로 놓아두자는 암묵의 표시가 「타이」政府와 「방콕」駐在 會員國 大使間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 다. 主催國인 「타이」는 「타이」에서 「아스팍」을 죽였다 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는 態度를 보이고 있으며 「아스팍」의 運營에 對해서는 “檢討中”이라는 말뿐, 아무런 見解해 나타내지 않고 있다.
- 라. 「방콕」駐在의 各대사관은 다른 會員國의 생각을 탐색하는 일이 본국정부로 부터의 “特命事項”으로 되어 있으며 회합 席上에서 他國의 의중을 탐지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 마. 會員國中에서 「아스팍」의 存統을 強力하게 希望하고 있는 韓國의, 김용식 外務部長官은 2.10 記者會見에서 「아스팍」의 발전적 策 案에 응할 의향 이 있음 을 시사한바 있다.

2. 分析 및 評價

- 가. 「아스팍」 閣僚會議를 開催하는 境遇에는 次期 開催地의 政府와 會

員國의 駐在 大使가 事前에 実行 委員會를 구성하여 5, 6회의 會
晤를 하기로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한번도 開催한바 없음.

나. 「아스팍」 會員國이 第8次 「아스팍」 開催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態
度를 取하고 있는 理由:

- 1) 美·日 兩國의 對中共 國交正常化, 越南休戰 등 一連의 事態進展으로
 因한 「아시아」 情勢의 變化
- 2) 호주와 「뉴지랜드」의 中共 承認
- 3) 「타이」를 비롯한 「아시아」 諸國은 「아시아」의 新情勢에 對備,
 새로운 地域協力 體制를 모색
- 4) 「아시아」 諸國이 中共을 지나치게 意識하고 있는 나머지 반공색이
 짙은 「아스팍」을 경원

다. 「아스팍」의 開催가 今年여름으로 박두하였는 데도 「타이」 政府를비
 못한 會員國이 「아스팍」의 開催를 경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
 행위원회 的 開催도 不可能하며 “해체”한다든가 “연기”한다든가의 明
 確한 決定조차 내리지 못한 애매, 모호한 狀態가 繼續되리라고 전망
 됨.

3. 對備策

가. 純粹한 경제, 社會, 文化協力키로 전환

나. 이를 母體로하여 새로운 地域協力機構에로의 擴大 發展

「아스팍」 第1次 常設委員會 開催

1. 內容要約

가. 概 要

- 1) 開催日時 : 73.3.13 (下午 2 時間)
- 2) 開催場所
「방콕」 (「차리 차이 춘하반 * 泰國 外務次官 主催)
- 3) 참가국
韓國, 日本, 台灣, 「필리핀」, 泰國, 越南, 「뉴지랜드」 등 7 個會員國
「방콕」駐在大使 (「말레지어」, 호주는 不參)
- 4) 討議內容
「아스팍」의 將來와 相互 協力問題를 協議

나. 會議成果 (共同聲明)

- 1) 「아스팍」의 將來와 「베트남」의 將來問題등을 包含한 「아스팍」에 관련된 諸般問題를 協議, 有益한 見解를 交換
- 2) 印度 「차이나」戰後 이 地域의 經濟開發을 促進하기 爲한 「아스팍」小委員會를 構成키로 合意
- 3) 次期 「아스팍」常設委員會가 가까운 將來에 開催된다는데 合意

2. 分 析

가. 우리 政府의 主도로 1966年 創設된 「아스팍」은 第7次 「아스팍」이 開催된 以後 一部 會員國들의 脫退와 반대 現狀으로 存廢의 危機에 直面하고 있음.

나. 3. 12 「말레지어」가 「아스팍」에서 脫退한다고 宣言한데 이어 3. 13 호주가 次期 「아스팍」에 不参加하기로 결정하고 양국이 이번에 開催된 「아스팍」常設委員會에 不参加하였음.

다. 뿐만아니라 中共을 承認한 바 있는 日本은 3.13 「아스팍」의 해체는 불가피하다는 가정하에 將來의 「아시아」協力問題를 제검토중에 있다고 보도함.

라. 이와같은 움직임으로 보아 各會員國이 「아스팍」에 임하는 태도는 .

다음과 같이 分析됨.

1) 日 本

가) 地域協力の 必要性을 認定하나 現 段階에서는 「아스팍」의 開催에는 反對하고 있음.

나) 日本의 主導하에 「아스팍」이 解体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고 하며 「아스팍」의 지연적인 소멸을 기대하고 있음.

다) 「아스팍」대신에 日本의 主導下에 中共을 包含하는 새로운 「아시아」協力機構의 形成을 모색하고 있음.

2) 「뉴지랜드」

「아스팍」의 有効性을 認定하나 政治的 性格을 없애야 한다고 主張하고 「아스팍」에 關係가 아닌 사람을 派遣하고자 하고 있음.

3) 韓國, 泰國, 「필리핀」, 越南

「아스팍」의 地域 協力機構로서의 功헌을 認定하고 地域協力機構가 必要한 以上 더 훌륭한 地域協力機構가 마련되지 않는한 「아스팍」을 維持, 發展시켜야 한다는 立場을 取하고 있음.

3. 評 価

가. 次期 「아스팍」의 開催를 앞두고 會員國들의 補助의 不一致는 美中日中關係改善으로 中共의 영향력이 增大함에 따라 中共을 지나치게 意識하여

1) 台灣과의 동석을 反對하고

2) 中共과 越盟을 包含한 새로운 「아시아」協力機構를 協成하려는데, 그 原因이 있다고 평가됨.

나. 이번 「아스팍」常設委員會의 開催를 보게 됨으로서 「아스팍」을 自然消滅에의 길로 이끌려던 日本의 의도가 制禦되어 일단 「아스팍」의 危機는 모면하였다고 평가됨.

다. 그러나 다음에 開催되는 第2次 「아스팍」 常設委員會에서 「아스팍」 開催에 合意 하더라도

1) 「파스팍」 대신 중공을 包含한 새로운 「아시아」 協力機構의 形成을 모색하는 日本의 수수방관하는 態度를 지속하고

2) 台灣이 會員國으로 남는한 「아스팍」은 앞으로 明白만을 維持하고 實効성이 없는 地域協力機構로 진락할 가능성이 짙다고 評價됨.

라. 그러므로 「아스팍」의 존속하느냐 못하느냐는 今後 日本의 態度와 台灣이 會員國으로 남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크게 左右될 것으로 判斷됨.

4. 對備策

가. 昨年 서울에서 열린 第7次 「아스팍」에서 韓國側에서 의해 「아스팍」의 성격전환이 闕名되었음에도 아직 일부 會員國家들이 이를 充分히 納得하지 못한 경향이 보임으로 「아스팍」의 성격전환에 對한 認識을 徹底히 周知시켜야할 것임.

나. 會員國의 殆半이 台灣과의 同席을 反對하고 있음으로 「아스팍」을 存続시키기 위해서는 會員國으로서의 台灣의 地位에 對한 再檢討가 必要함.

日本, 「아스팍」을 代身하는 새로운 協力機構 摸索

1. 內容 要約

가. 「말레지어」의 脫退宣言, 우리나라(日本)가 第8回 「아스팍」 開催 延期등에 의해서 「아스팍」은 事實上 解体直前의 狀態에 놓이게 되었다.

나. 이에 수반해서 日本外務省은 「아스팍」을 대신하는 새로운 「아시아」
太平洋協力機構의 設立을 檢討하기 始作하였다.

다. 現在 外務省은 經濟問題에 한하지 않고 政治問題를 包含하여 「아시아」,
太平洋諸국이 討議하는 協力機構를 設立할 구상을 갖고 있으나
東南亞細亞 開發會議등 既存地域 協力機構를 改編할 可能性도 있는것
으로 되어있다.

라. 이 新機構에 對하여 外務省은 「아스팍」이 갖는 있는 반공색을 一
掃하고 文化社會「센터」등 「아스팍」의 下部機構는 될수 있는한 新
機構에 吸收할 의향을 갖고 있다.

3. 分 析 및 評 価

가. 日本政府가 「아스팍」을 代身하는 새로운 「아시아」·太平洋地域協
力 機構를 摸索하고 있는 것은 「아스팍」이 事實上 解体되고 「아스팍」
의 創設當時와는 判異한 東南「아시아」의 情勢變化에 基礎를 두고
있다고 分析됨.

나. 日本이 摸索하고 있는 새로운 地域協力機構는 아직 明確한 形態를 띠
고 있지 않으나 現在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이 分析됨.

- 1) 새 協力機構에는 中共과 越盟을 包含시킨다.
- 2) 「아스팍」이 지니고 있는 반공색을 一掃하고 「아스팍」의 下部機
構(文化, 社會「센터」등)를 새 機構에 吸收한다.
- 3) 新機構의 創設 또는 東南「아시아」 開發關係會議등 既存의 協力機
構를 改編할 수도 있다.
- 4) 새 協力機構는 經濟問題 뿐만 아니라 政治問題까지 다루는 協力の場
으로 하고 싶다.

다. 日本政府가 그들이 摸索하는 새로운 協力機構에 中共과 越盟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되풀이 強調하는 것은

- 1) 東南「아시아」問題는 中共의 參與없이 해결이 不可能하다고 意識하고 있으며
 - 2) 이러한 미소정책을 전개함으로써 日, 中關係 改善과 日本經濟의 共進出을 促進시키기 爲한 것에 基因된다고 評價됨.
- 라. 또한 日本政治가 既存 協力体制를 改編한 形態로서 새로운 協力機構를 設置하려는 것은
- 1) 「아스팍」이 汎「아시아」的 性格을 띠고 있는 唯一한 協力機構이므로 日本이 摸索하는 새로운 協力機構에 可能한 限 東南「아시아」諸國을 모두 包括하며,
 - 2) 「아스팍」의 存統을 強力히 要求하는 韓國, 越南등 一部 國家의 反撥을 撫摩하기 爲한것으로 評價됨.
- 마. 日本政府가 그들이 제창하는 새로운 協力機構 構想에 대해서 明確한 答辯을 回避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協力機構 創設에 對한 準備作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東南「아시아」諸國의 反應을 보아서 慎重하게 대처하려는데 底意가 있다고 判斷됨.

새로운 「아시아」協力機構에 南北韓 同時加入의 提起의 可能性

1. 最近 「아스팍」에 對한 會員國의 態度

가. 日本

- 1) 日本은 最近 「아스팍」의 解体와 中共과 越盟을 包含한 새로운 「아시아」協力機構의 必要性을 強調
- 2) 「다나카」首相, 「오히라」外相은 「에카페」에 參석한 各國代表團과 接觸하여 日本이 構想하고 있는 새로운 協力体制에 對한 意見을 打診

나. 「팔레시아」

- 1) 「아스팍」에서 脫退宣言 (73.3.12)
- 2) 「아시안」을 擴大하여 越盟, 「라오스」, 「캄보디아」, 「버마」까지 包含시켜 「아시안」의 地域的 擴大를 企圖

다. 호 주

次期 「아스팍」에 不參하기로 決定하고 3.13에 開催된 「아스팍」 第1次 常設委員會에 不參

라. 「뉴지랜드」

「아스팍」의 有効성은 認定하나 「아스팍」의 政治的 性格을 없애야 한다고 主張하고 「아스팍」에 閣僚가 아닌 사람을 派遣하여 「아스팍」의 격하를 試圖하려 함

2. 「에카페」總회에서 韓國의 代表권 조제에 對한 各國의 發言

가. 日 本

- 1) 韓國의 代表權問題에 對해서 異의를 提起하지는 않았으나 이어 北韓, 越盟의 「에카페」참여가 바람직하다고 보도 (73.4.11 每日新聞)
- 2) 越盟과의 早速한 國交樹立을 希望하고 있으며 日本外務省의 東南 「아시아」 第1課長을 「하노이」에 派遣 (4.14) 하여 國交樹立에 對한 越盟의 意見を 打診中

나. 中 共

“韓國과 北韓이 韓半島의 自主的 平和統一의 原則에 合意한 現時點에서 韓國만이 「에카페」總회에 代表로 나온 것은 非合理的이고 非正常的인 것으로서 遺憾스러운 일이다” 라고 異의를 提起

다. 蘇 聯

“韓國이 「에카페」에서 한반도 全体를 代表한다는 것과 越南이 越南臨時 革命政府 代身 참석하는 것은 거의 正常的인 것은 아니다” 라고 主張

3. 最近 東南亞 諸國의 對共產圈 接近

가. 「말레저어」

- 1) 東南「아시아」에서 最初로 越盟承認 (73.3.30)
- 2) 「유고」訪問團의 入國許容 (3月中旬)
- 3) 東獨代表團이 「구알라룸푸르」를 訪問하여 大使級の 外交關係 樹立에 合意 (74.4.4)
- 4) 北韓의 卓球「팀」을 招請하여 親善競技를 開催 (73.3.中旬)

나. 「타이」

中共과 國交樹立을 計劃中이며 우선 北京에 連絡事務所를 設置하기로 하는등 具體的인 方案을 摸索

다. 호 주

北韓과 이미 外交的인 接觸을 가졌다고 호주 外務省 代辦人이 밝힌 바 있으며 호주의 北韓承認에 對한 움직임이 씩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라. 「인도네시아」

委員團의 蘇聯, 「폴랜드」訪問을 予定하고 있음.

4. 分析 및 評價

가. 最近 「아스팍」의 會員國의 大部分이 「아스팍」의 解体와 이를 代

身하는 새로운 協力機構의 創設을 要請하고 있는 것은,

- 1) 中共의 영향력 增大
- 2) 탈 「이데오로기」現狀과 實利追求外交의 展開
- 3) 두개의 한국을 認定하려는 趨勢에 根拠를 두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나. 「에카페」總회에서 中共과 蘇聯이 韓國의 代表權問題에 이의를 提起하고 日本이 이에 同調하는 態度를 보임으로써 이런 傾向은 餘他會員國에도 波及될 것으로 보이며 韓國의 代表權問題는 「에카페」에서는 勿論 次期 「유엔」總회에서 一次 시련에 봉착하였다고 判斷됨.

다. 東南亞諸國이 對共產圈 接近을 強化하고 있는 가운데 「말레이저어」의 越盟承認은 餘他「아시아」諸國의 越盟承認을 促進하게 될 것이며 中共과 越盟을 明確하게 意識시키는 作用을 하고 있다고 判斷됨.

라. 特히 호주의 北韓과의 國交樹立 交渉과 「말레이저어」의 北韓과의 交流擴大는 두개의 韓國을 認定하려는 趨勢을 더욱 심화, 擴大시키게 될 것으로 展望됨.

마. 日本을 비롯한 東南「아시아」諸國이 「아스팍」을 代身하는 새로운, 「아시아」協力機構에 中共과 越盟을 包含시키는 것을 제일 條件으로 내세우고 있는 現趨勢로 보아 이 새로운 協力機構에 韓國과 北韓을 同時에 加入시키자는 題議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 警戒을 要함.

「아스팍」을 위요한 會員國의 最近動向

1. 「아스팍」을 위요한 最近의 動向

가. 第2次 「아스팍」常任委員會 開催

- 1) 日 時 : 73. 6. 1

2) 場 所: 泰國의 「방콕」

3) 참가국

韓國, 「타이」, 日本, 「필리핀」, 「뉴지랜드」, 越南, 台灣 7 個國

4) 會議進行狀況

○ 韓國, 越南, 台灣 - 「아스팍」의 7月 開催를 主張

○ 日本, 「뉴지랜드」, 「필리핀」 - 「아스팍」의 無期延期를 提議

5) 共同聲明要旨

가) 今年 7月 開催키로 되어있던 第 8次 「아스팍」 閣僚會議를 無期延期 하도록 決定

나) 「아스팍」의 下部機構인 文化「센터」(韓國), 技術「센터」(호주) 食糧肥料「센터」(台灣), 經濟「센터」(美國) 등 非政治적인 機構는 今後에도 活動을 繼續하도록 合意

나. 「韓國, 印度네시아」 外相會談 開催

1) 期 間: 73.6.4 - 6.8

2) 場 所: 서울

3) 會談者

韓 國: 김용식 外務部長官

印 尼: 「마리크」外相

4) 共同聲明要旨

가) 「아스팍」을 代身할 새로운 地域協力機構 創設에 共同努力한다는 데 原則적으로 合意 (새로운 地域協力機構의 성격 규정 - 未公開)

나) 地域內 모든 國家들이 「이데올로기」를 超越 地域內 問題에 關해 보다 緊密한 協助關係를 이룩하고 域內問題를 共同利益의 基礎위에서 스스로 解決한다는 必要성과 유용성에 合意.

다) 現在 두나라의 領事關係를 가까운 時日안에 大使級 正式外交關係로 昇格시킨다는 데 原則적인 合意를 봄 (共同聲明에는 言及이 안 됨)

라) 交易, 經濟協力增大를 爲해 두나라가 定期的인 高位會談을 開催키로 合意

2. 最近 「아스팍」에 對한 會員國의 態度

가. 日 本

- 中共과 越盟을 包含한 새로운 「아시아」協力機構를 제창, 「아스팍」의 自然消滅을 期待
- 第8次 「아스팍」閣僚理事會 開催의 延期措置를 大大的으로 歡迎
- 그리면서도 最近에 와는 새로운 「아시아」協力機構를 만들기가 아니라고 態度를 變更

나. 「말레지어」

- 73.3.23 第1次 「아스팍」 常任委員會 開催直前에 「아스팍」을 脫退
- 中共을 包含한 「아시아」 太平洋의 연합을 제창

다. 濠 洲

- 第1次, 第2次 「아스팍」 常任委員會에 불참
- 「포스트·아스팍」에 對備 中共을 包含한 새로운 地域 協力機構 設立을 積極 主張

라. 「뉴지랜드」

- 理念을 超越을 地域協力の 必要性을 主張
- 第2次 「아스팍」常任委員會에서 「아스팍」閣僚理事會의 無期延期를 提議

마. 「필립핀」

- 「필립핀」의 「롬」外相이 中共을 訪問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음.

3. 分析 및 評價

가. 「아시아」情勢는 아직 流動的인 局面이 남아있으나 미중 擴大時代의 開幕, 日·中 關係改善의 進展과 더불어 새로운 秩序가 定着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思潮의 一般的 傾向은 다음과 같이 分析됨.

1) 中共의 「아시아」國際社會에의 參與를 主張

中共의 影響力이 重大함에 따라 中共을 意識하는 傾向이 強化되고 있으며, 日本·濠洲·「뉴지랜드」에 이어 「아시아」諸國이 中共과 關係正常化를 하는 것은 時間問題이며 「아시아」國際社會에 中共의 參與를 強力히 主張하고 있다.

2) 「아시아」諸國, 自主性強調

東南亞諸國聯合(ASEAN)의 東南亞中立地帶 設定의 構想은 이의 端的인 表現임. 「아시아」諸國은 前後 獨立後에도 「아시아」의 冷戰構造에서 大國의 影響下에 움직여왔으나 「베트남」의 戰爭終結과 함께 大國 支配로부터의 脫却을 試圖하고 있다.

3) 強大國에 의한 「아시아」의 霸權爭奪을 不許

美·中·日·中이 聲明한대로 「아시아」의 靑靑을 占기 爲해 다투지 않는다*는 原則은 새로운 「아시아」의 淸칙으로 되어있다.

나. 이러한 一般的인 傾向은 「아시아」諸國이 「아스팍」과 새로운 論議되고 있는 地域協力 體制構想에 다음과 같이 集約적으로 表現되고 있음.

1) 「아스팍」에 對하여

- 「아스팍」의 消滅은 決定的이다.
- 「아스팍」의 下部機關은 存統시키되 새로운 創設되는 地域協力體制에 吸收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새로운 地域協力體制에 對하여

- 모든 「아시아」諸國은 地域協力體制의 必要性을 認定하나

- 特定國家에 의한 주도권 행사를 不許
- 새로운 地域協力機構는 理念을 超越한 協力機構이어야 한다.
- 「아시아」問題는 中共의 참여 없이 해결이 不可能함으로 中共의 참여는 不可決하다.

다. 以上과 같은 「아시아」諸國의 움직임으로 보아 새로히 摸索되고 있는 「아시아」지역협력체제의 範圍와 性格規定에는 다음과같은 問題點이 惹起될 것으로 判斷됨.

1) 中共을 排除하는 境遇

새로운 機構構成의 열쇠는 中共이 참여하는나 与否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임. 「아스팍」과 「아시안」會員國들의 動搖가 中共을 意識한 때문인 것으로 본다면 中共이 불참한 새機構에 많은 國家들이 忌避할 것이고 따라서 機構構成自体가 困難해질것임.

2) 中共에 門호를 開放하는 경우

中共에 門호를 開放한다해도 中共이 선뜻 참여할 것이나도 問題이려니와 中共이 들어온다면 政治的 色彩를 띠 憂慮가 있으며 一部 會員國의 資格問題와 北韓을 업고 나오는 境遇 韓國이 이를 어떻게 받아 들이느냐 하는 問題가 대두될 것임.

라. 여태까지 中共을 包含한 광역협력기구를 주장해오던 日本이 지금은 새로운 協力機構를 만들때가 아니라고 態度를 變更한 것은 日本의主 導下에 열리는 東南亞 經濟開發 閣僚會議을 契機로 이를 擴大,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는 底意에서 나온 것으로 評價됨.

마. 「아시아」諸國의 一般的인 傾向과 상기 問題點을 勘察하여 볼때 다음과 같은 性格을 띤 새기구의 創設이 可能할 것으로 判斷됨.

1) 會員國範圍

「이베올로지」를 超越한 모든 國家 即 中共까지를 包含한 広域協力 機構

2) 性 格

非政治的 機構로서 經濟, 社會, 科學, 技術, 文化, 「스포츠」에서의 緊密한 協助와 広範한 交流를 目標로 하는 機構
바. 그러나 中共을 참여시키는데 많은 問題點이 따르고 또한 「아시아」諸國間의 이질성을 규합하는 共通分母를 찾아 내기가 困難하여 새機構를 成就하기까지는 相當한 難항이 予想되어 앞으로 보다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展望됨.

2) 아세안

아세안 外相會議 開幕

2.15 「말레이시아」의 首都「쿠라라룸푸」에서 開催된 亞細안(東南「아시아」國家聯合) 外相會議는 1日間의 討議를 끝낸 후 共同發表(「프레스」·「스테이트먼트」)를 發表하고 當日 閉幕하였음.

1. 內容要約

가. 概 要

- 1) 開催日時: 73.2.15 (1日間)
- 2) 場 所: 「말레이시아」의 首都 「쿠라라룸푸」
- 3) 참가국 및 참가자
「인도네시아」(「마리코」外相), 「필리핀」(「로몽」外相), 「싱가폴」(「라자나르남」外相), 「타이」(「차차이」外務次官), 「말레이아」(「이스마일」副首相)

2. 共同發表 內容

- 가. 全 東南亞細亞諸國의 會議을 將來 適正한時期에 開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 「아시안」 會員國은 모든 東南亞諸國을 包含하도록 適當한 時期에 擴大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印度支那의 再建과 復興에 「아시안」이 參加할 用意가 있다. 이제 가지 點에 一應 合意에 到達하였다.

3. 分析 및 評價

- 가. 「아시안」은 1967年 地域內의 經濟, 社會, 文化 및 相互援助 增進과 安全을 圖謀할 目的으로 發足하였음.
- 나. 今番 外사회의 閉幕時에 發表된 合意內容을 共同聲明이라 하지 않고 共同發表라고 한것은 本 外相會議가 議題나 議事錄도 없이 率直한意見만을 交換하고 特別한 決定이나 결의를 하지 않기로 한데에 起因하는 것으로 分析됨.
- 다. 上記 5個會員國은 모두가 印度支那 情勢의 影響을 直接的으로 받는 나라들이며 最近의 越南戰休戰과 「키신저」補佐官의 越盟, 北京訪問등으로 새로히 造成된 東南亞情勢에 처한 対応策을 마련키 爲해 同外相會議가 開催된 것으로 分析되며 다음과 같은 問題가 集中的으로 討議되었을 것으로 判斷됨.
 - 1) 「아시안」의 地域的 擴大問題
 - 2) 越盟에 처한 復興援助 問題
 - 3) 東南「아시아」의 中立化의 具體化問題
- 라. 「아시안」의 地域的 擴大問題
最近 「아시안」은 동 聯合에 越盟, 越南, 「라오스」, 「크메르」, 「버마」등을 包含시켜 會員國을 擴大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음(「타

이」提案). 이 案에 「말레지아」, 印度네시아, 「싱가포르」가消極的, 乃至는 反對의 立場을 取해왔으나 이번 共同發表에서 原則的인 合意를 보여져 「아시안」의 擴大版인 東南「아시안」 10 個國 協力會議가 今年안으로 開催될 可能性이 濃厚하다고 評価됨.

나. 越盟에 對한 復興援助 問題

이 問題 亦是 共同發表에서 印度支那 復興에 參加할 用意가 있다고 合意한 點으로 보아 越盟에 對한 復興事業에 參與할 것이나 「아시안」諸國이 經濟的으로 微弱한 國家들임으로 美國과 日本의 對「아시안」 援助의 一部를 越盟에 돌리는 形態로 參與하게될 것으로 評価됨.

바. 東南「아시안」의 中立化의 具體化 問題

同 聯合은 1971 年末(「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을 앞두고) 東南亞 中立宣言에 合意한 바 있으나 美國의 軍事力에 當分間 依支하려는, 「싱가포르」, 「타이」가 内心 反對하고 있었음. 이번 共同發表에서 이에 對한 言及이 없는 것으로 보아 贊成國家(「말레지아」, 「인도네시아」)와 反對國家 사이에 意見이 完全히 解消되지 않은 것으로 評価됨.

마. 其 他

「필리핀」新憲法 公布

1. 內容要約

가. 「마르코스」 「필리핀」大統領은 지난 1.17 突然 大統領制에서 首相制로 移行하는 新憲法의 비준에 署名함과 同時에 戒嚴令을 無期 延長하는 法令, 最低 7年間 議會活動을 停止하는 法令을 宣言하고署

名했다.

나. 同 法令에 對한 署名은 1. 17 政府, 改憲議會, 全國 各地의 民間自治團體長, 各界代表等 4,500名을 大統領 官저에 招請하여 開催된, “市民大會”에서 行한 演說途中에 行해졌다.

다. 「마르코스」大統領은 “이와 같은 政治的 手段은 지난 1.10 부터 1.15 에 걸쳐서 全國 35,000個所에서 開催된 市民集會에서 나타난 國民의 소리를 反映한 措置이다”라고 陳述했다.

라. 新憲法의 主要內容

- 1) 大統領制에서 議員內閣制에로의 移行
- 2) 議會는 이원제를 廢止하고 一院制로 한다.
- 3) 私有財産制 制限
- 4) 農地改革
- 5) 勞動者의 權利保障
- 6) 外國人의 權利制限

2. 分 析

가. 「필립핀」의 「마르코스」大統領은 昨年 9. 22에 共產「게리라」에 對한 對策으로 戒嚴令을 宣布하는 一方

- 1) 新憲法을 承認할 것인가
- 2) 新憲法에 對한 國民投票을 할 것인가
- 3) 現行憲法에 基礎해서 大統領選舉를 實施할 것인가
- 4) 戒嚴令을 繼續 延長할 것인가

하는 등의 6個項目에 對한 國民의 소리를 蒐集하고 있었다.

나. 「마르코스」大統領은 昨年末 國民投票의 一時的 延期를 發表한데 이어 今年 1.17의 年頭敎書에는 “改憲討議課程에서 言論의 自由가 濫用되고 있다”는 理由로 國民投票을 延期해온 바 있다.

- 다. 「필립핀」의 旧憲法에는 大統領의 3選은 禁止되어 있으며 1969年에 再選된 「마르코스」大統領은 今年 11월에 大統領職을 喪失하게 되어있었다.
- 라. 이번 憲法改正으로 大統領制에서 議員內閣制로 政체가 바뀌었으며 同時에 「마르코스」大統領은 新憲法の 首相과 구헌법의 大統領을 兼할 強力한 權限을 無期限 갖게되었다.

3. 評 価

- 가. 戒嚴令이 宣布되어 「필립핀」의 治安狀態가 好轉되었으나 昨年 12月 「이마르다·마르코스」大統領 婦人이 被擊事件이 일어난 바와 같이 國內에 不安定 要素가 殘在해 있음.
- 나. 「마르코스」大統領이 新憲法草案의 批准을 正式 國民投票에 붙이지 않고 “市民集會”에서 新憲法の 採択을 強行한것은 同大統領이 合法的인 措置를 취할만한 餘裕가 없을 程度를 政治的인 危機가 緊迫했음을 意味하고 있음.
- 다. 또한 이번 「필립핀」의 憲法改正은 國際情勢가 격변하고 있는 現情勢下에서 體制強化를 促進한다 「아시아」諸國의 共通的인 現狀이라 判斷됨.
- 라. 以上과 같은 憲法の 改正과 非常措置로 일단 「마르코스」大統領의 體制強化는 達成되었으나 言論의 自由가 制限된 가운데 開催된 “市民集會”의 合法性 與否를 重要하고 論難이 提起되어 있는 것으로보아 今後 判斷이 惹起될 것이라 判斷됨.

4. 參考事項

「마르코스」大統領이 急變하는 世界情勢에 對備하여 體制強化를 試圖했다는 點에서는 우리와 相通되는 點이 있으므로 「필립핀」에 사람을派

遭하는 境遇가 있으면 이에 對한 깊은 研究를 시키도록하여 參考할 價値가 있다고 생각됨.

社會主義 諸國 憲法改正 現況

<內容要約>

社會主義諸國의 憲法改定이 한창이다. 蘇聯, 中國, 北韓 및 東歐諸國의 實例를 보면

1. 北 韓

가. 1972年 12月 27日 새로운 憲法을 採択하였음.

나. 그 特徵을 보면

1) ○ “自主的인” 社會主義 國家임을 強調 (第 1條)

○ 自立한 民族經濟의 土臺에 依拠한다 (第 2條)

○ “主體思想”을 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한다 (第 4條)

등과 같이 “自主獨立”을 되풀이하여 強調하고 있다.

2) 經濟建設面에서는 蘇聯에 크게 依存하여 왔으며 動亂때에는 中共의 支援軍으로 明白히 維持되었다.

1960年代 中, 蘇紛爭以後에는 兩國이 各各 北韓에 對한 發言權의 強化를 期하고 있는데 對하여

3) 北韓首腦의 主要 演說이나 新聞論調에서는 蘇聯을 “修正主義” 로 中共을 “教條主義” 로 批判하며,

4) 60年代 中盤부터는

思想의 主體性

政治의 自主

經濟의 自立

國防의 自衛

를 強調하여 왔음.

5) 이번 새로운 憲法은 이러한 立場을 法的으로 明文化한 것임.

다. 國家組織에 關하여서는

“蘇聯型”에서 中共型으로 轉換을 뜻함.

1) 國家主席制의 導入

2) 國家主席이 軍의 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의 委員長으로 統帥權을 掌握한것.

3) 정무원 (現在까지의 內閣) 制度등을 導入하였다.

따라서 北韓의 國家主席은 美國, 仏蘭西등의 大統領과 맞먹는 強力한憲法上的 權限을 가지게 되었다.

2. 蘇 聯

가. 1972.12.21 蘇聯共產黨 書記長 「브레즈네프」는 蘇聯邦 結成 50 周年 記念式 演說에서 “다음번 黨大會 (늦어도 1976年中 開催予定) 때까지는 新憲法의 草案을 發表할것이라고 言明.

그 要旨는

1) 黨의 指導下에 蘇聯의 社會主義 社會는 「프롤레타리아」가 指導的 役割을 担当하는 全 人民的인 社會主義國家로 成長하였다.

2) 蘇聯은 이미 共產主義 建設에 着手하였다.

3) 蘇聯의 國際的 地位에 큰 變化가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變化와세로운 條件下에 提起된 課題가 新憲法에 反映되지 않으면 안된다.

나. 따라서 現行 憲法 第3條에서 蘇聯의 全 權力을 代表하는 “勤勞者 代表議員 「소비에트」”을 “人民代表議員 「소비에트」”로 그 名稱을 바꿔야 한다는 見解가 나오고 있다.

3. 中 共

가. 中共의 新憲法은 1970. 8 ~ 9 中國共產黨 第9期 第2回中央委 全
休會議에서 그 草案이 審議되었음.

나. 西方側에서 探知한 內容에 따르면

- 1) 第1條에서 “勞動者 階級이 領導하는 勞動同盟을 基礎로 한 「프
롤레타리아」階級獨裁의 社會主義國家”임을 規定하고 있다.
- 2) 現行憲法(1954 制定)에서는 “人民民主主義의 國家에서 社會主義國
家로의 移行을 追求”하고 있었던 것을 이미 그 移行이 終了되었
음을 誇示하고 있다.
- 3) 毛澤東 思想이 中國의 精神的 支柱임을 憲法上 確認하였다.
- 4) 軍隊나 民兵 또는 最高 權力機關인 全國人民代表 大會등 모두는 黨
의 領導下에 있음을 明示

4. 東歐圈

가. 「체코」가 이미 1960. 7. 社會主義 建設의 完了를 宣言, 共產主義
에로의 履行을 目標로하는 新憲法을 채택하였으며,

나. 「유고」 「루마니아」가 그 뒤를 이었으며

다. 東獨은 1966. 4. “獨逸 民主共和國”이 獨逸民族 最初의 社會主義國
家임을 規定하는 新憲法을 採択

라. 그의 東歐諸國들은 1940年代 後盤에서 50年代初에 制定된 人民
民主主義의 憲法을 部分的 改正을 통해 現狀에 適用시키고 있다.

<分 析>

1. 北 韓

가. 北韓의 憲法改正 內容을 分野別로 要約하면

1) 社会主義 憲法으로의 履行

가) 政 治

人民民主主義 國家 - 社会民主主義國家

- 主權의 人民歸屬
- 主權의 勤勞者階級歸屬
- 「프롤레타리아」獨裁
- 革命政權

나) 經 濟

生産手段의 國家

生産手段의 國家 協同團體

協同團體, 個人

所有

個人法人所有

2) 自主路線의 憲法化

3) 中央集權的 國家機關으로의 改編

4) 平和統一 努力의 提示等

2. 蘇 聯

가. 現行憲法은 第1條에서 蘇聯은 勞動者와 農民의 社会主義 國家*임을 規定하고 있는데 1961年 第22回 黨大會에서 採択된 共産黨 綱領에서는 蘇聯은 이미 「프롤레타리아」獨裁를 發展的으로 解消하여 “全人民의 國家”가 되었음을 宣言한바 있다.

나. 新憲法에서는 勞動者階級이 指導하는 全 人民의 國家를 宣言할것으로 보임.

3. 中 共

蘇聯이 「프롤레타리아」獨裁 段階를 지나 全 人民의 國家로 轉換되었음을 強調한데 反하여 「프롤레타리아」獨裁를 繼續維持할 것을 宣言한 것은 對照的인 現狀임.

〈評 価〉

1. 北韓憲法の 改正은

- 가. 個人崇拜主義的 独裁憲法
- 나. 革命價值論的 統一戰略 固守
- 다. 社会主義 体制로의 南北對決
- 라. 對外的 宣傳 및 假飾的 宣傳 등을 排除한 것으로 判斷됨.

2. 蘇聯 憲法改正 予定은

1936. 12 採択된 現「소타린」憲法은 社会主義 建設期에 対応하는 것이었으나 이제 그 段階를 지나 共產主義 建設期에 맞는 内容으로 改正하려는 것으로 評價됨.

3. 中 共

- 가. 社会主義에서 共產主義에로의 移行은 “數世代”가 要하는 오랜 課程이며 그 移行期間中에 「프롤레타리아」權力を 維持하지 않으면 資本主義에로 逆行하게 된다는 것이 中共의 基本立場임 따라서 이 問題에 對하여 蘇聯과의 見解差異는 根本적으로 存在하고 있음.
- 나. 黨의 指導性を 強調한것은 새로운 “實權者”가 形成되지 못하도록하는것에 目的이 있는것으로 判斷됨.
- 다. 現 憲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임포 副首席은 毛沢東首席의 親密한戰友이며 後繼者이고 全國全軍의 副統帥임” (憲法 第2條)을 定하고 있는 條項도 削除될것은 當然한 것으로 보임.

4. 이와 같이 最近 社会主義 諸國의 憲法改正에 있어

- 가. 基本的으로는 「맑스·레닌」主義라는 共通의 土台를 가지면서도 各各의 個性을 나타내고 있다.

나. 이는

- 社會主義의 發展段階와 相異함.
 - 各國의 民族的 特性
 - 蘇聯에 對한 立場의 相異함에 의한 것으로서
- 다. 共產圈 諸國의 國利優先 追求現狀이 활발하여 짐에따라 分極化 現狀은 더욱 分明하여 질 것이며 憲法秩序도 現實에 適應하는 方向으로 改正된 것으로 보임. (73.1.13 「아사히」신문)

西歐의 對美·蘇關係

I. “西歐의 對美·蘇關係”에 對하여 여러 角度에서 考察하여 보면 根本的으로 確答을 하기가 어렵다.

1. 地圖上으로 볼때 西歐는 美國의 太平洋 건너편

가. 戰略的으로 重要한 彼岸에 놓여 있으며 기후 좋고 地理的으로 有利하며 交通이 發達한 條件으로서 亞細亞 歐洲大陸이 合친 번두리地帶이다.

나. 번두리 地帶는 여러 가지 理由로 이 兩大陸에서 支配的인 힘을 가진 蘇聯과 軍事的으로 競爭者인 美國의 利益이 相衝되어 있는 곳이다.

다. 그러므로 西歐가 現在軍事的으로 팽창일로에 있는 蘇聯에 反하여 美國과의 協助를 통하여 그의 獨立性을 安穩하게 하려는 것은 當然하다.

라. 西歐國家들이 自己들의 能力에 대한 自信感과 獨立性을 自己 스스로 보호할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理由에서 制限되어있다.

2. 軍事上의 힘 關係는 地政學的인 條件에 相對한다.

가. 核戰略上으로 西歐는 仏蘭西와 英國의 核能力만으로는 安全하지 못하다.

나. 歐羅巴에 있어서 地域的 힘 關係는 西歐 國家들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美國의 戰略的인 公約과 美國의 實質的인 軍事 參與를 통하여야만이 相對的 均衡을 維持할 수 있다.

○ 이 關係는 특히 中歐와 地中海 地帶에 相關된다.

다. 充分한 阻止力, 紛爭克服力과 確實한 防衛力이 歐洲와 美國 「파트너」 間에 共同努力으로 이루어져 恆常 機動態勢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라. 오늘도 어제와 같이 共同防衛 態勢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는, 將來에도 마찬가지다.

3. 가. 政治的 側面에서 西歐의 現狀은 軍事的 또는 地理的인 關係에서 보다 더욱 不利하다.

○ 統合된 西歐國家가 存在하지 않으며 國家聯合과 聯邦國家가 있을 뿐이다.

○ 西歐諸國들의 政治的 利益擁護는 民族國家 政治의 古典的 形式에서 찾고 있다. 相互間 第3國 特別히 美國과 蘇聯을 대상으로 하여 찾으려고 한다.

○ 이것은 共同政治目的의 確立可能性을 弱화시키고 그런 政策을 樹立하려는 展望을 減少시킨다.

○ 가끔 歐洲內의 對立때문에 西歐諸國들의 行動은 中立化 되어 있다.

나. 西歐諸國들의 行動은 西歐의 對外, 安保 및 防衛政策에 特別한 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여러 어려운 條件이 있지만 歐洲共同体가 經濟金融分野에서는 큰 共通點을 가질 수 있다. 歐洲共同体의 擴大는 많은 希望을 주고 있다.

다. 西歐의 政策問題 決定에 있어서는 政府의 首腦, 政府 또는 議會가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目的達成은 아직도 艱難하다.

4. 가. 兩超強大國間에 있어서 南歐의 立場과 問題는 西歐의 現狀을 通하여서 뿐만 아니라 兩超強大國間의 關係와 이 兩超強大國들이 世界政策에 있어서 西歐가 차지하는 位置 如何에 따라 決定된다.
- 나. 世界第2次大戰以後 數10年間 世界는 強大國들간의 緊張된 關係에서 支配되어 왔다. 이 強大國이 介入되거나 휘말려들어갔던 地域紛爭은 世界戰火의 危險을 招來하였으며 直接關係國家들의 利益을 등한히 하여 解決하려는 傾向을 가지고 있었다.
- 다. 2次大戰後에 歐洲를 도와 西歐에서 蘇聯의 武力的, 政治的, 經濟的, 掌握을 막으려는 美國의 決定은 韓國이나 越南이 犧牲되는 것과 같은 共同運命에서 歐洲를 救出했다.
- 라. 西方의 政治目的을 위한 發展(即 沮止, 危機克服 그리고 防衛) 充分한 軍事力關係, 西歐의 經濟力最培養, 美國과 西歐間의 緊密한 정치적 同盟의 持續, 이런 協助關係와 타협을 통한 共同利益의 發見은 오늘날 東西關係에 있어서 軍事力行使로 歐洲에서 政治目的을 達成한다는 것은 적당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으로 作用하고 있다.
5. 蘇聯은 最後通牒, 威脅, 公갈등을 써서 行動하였으나 「와르소」條約國以外는 歐洲에서 継続的인 成功을 건우지 못하였다.
- 그러나 兩超強大國間의 敵對意識,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와 自由民主體制의 生活樣式間의 對決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다. 이 敵對關係에 있어서 手段의 選擇에는 限界가 있으나 目的에 있어서는 制限이 없다. 軍事力關係가 等閑하게 된다면 이 競爭을 위하여서는 手段의 수가 늘어나게 된다.
- 北大西洋 同盟이 깨진다면 이런일이 일어 날 것이다.
- 東西間의 勢力均衡 維持와 政治關係 正常化는 歐洲形成을 爲한 継続的인 鬭爭과 兩超強大國間의 關係에 있어서 手段을 制限시킨다.
6. 蘇聯과 東歐國家와의 正常化는 西方同盟體制가 와해되지 않는 範圍內에

서 成就되어야 한다.

가. 強大國間의 敵對關係와 東西歐間의 敵對意識은 同盟体制의 結束如何에 따라 平和維持를 갈망하는 境界線에서 찾을 수 있다. 말하자면 美國은 西歐의 意思에 反하여 타협없이 蘇聯에게 어떤 態度를 取할 수 없다.

나. 이와 마찬가지로 西歐의 盟邦들은 共同的으로나 個別的으로 美國의 意思에 反하여 어떤 行動도 取할 수 없다.

東西間에 均衡된 努力關係 維持와 段階的인 關係正常化를 위해서는 美國과 西歐間에 繼續적으로 利益共同點을 發見해야 하며 이 利益追求를 實行할수 있는 것이 基本的인 전제가 된다. 이 두 요소들이 西歐의 自由와 獨立을 保障할 수 있다.

II.

1. 가. 우리는 現在 同盟國과 東西關係에 있어서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었다.

- 美國은 이 새 發展을 「너슨 독트린」으로 잘 表示하고 있다.
- 가까운 同盟國家들 特히 西歐諸國들과 日本 그리고 敵對國家들과 協商하라는 美國의 意思는 美國 對外政策의 課程을 決定한다.

나. 이로 말미암아 西歐의 自由는 美國과 西歐 同盟國家間의 利益一致 以下에 의하여 左右되며 權力中心과 理念의 敵對關係를 除去함이 없이도 東西間에 漸次的인 關係 正常化에 의하여 決定된 것이 라고 본다.

다. 西歐同盟國家의 現況을 자세히 觀察해보면 :

經濟面 :

經濟的 力點에 있어서 美國과 西歐는 大西洋同盟의 同等한 支柱가 된다.

- 西歐政治統合이 아직도 예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同等한 資格은 수자상으로 가능하나 구주에 있어서 政治的 統合力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 美國은 西歐가 수자적으로 美國과 비슷하므로 西歐로 부터 政治的으로나 經濟政策으로 많은 期待를 갖고 있다.
- 歐洲는 美國이 수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美國의 能力을 經濟政策에서 實行하도록 要求하고 있다.
- 現在의 國際通貨基金(IMF)과 關稅 및 貿易에 關한 一般協定(GATT) 體制代身에 80年代와 90年代에 새로운 世界貿易體制와 세계금융통화체제가 登場한다는 것은 政治指導者들의 意思 如何에 달려 있기 때문에 不確實하다.
- 美國과 西歐사이에 오래동안 繼續되는 貿易과 通貨政策的 差異는 對外 및 安保政策에 惡影響을 주고 있다.

2. 安保面 :

가. 西歐의 安全은 美·소間 核能力의 均衡에 關係없이 美國의 核戰略阻 止力에 基礎를 두고 있으며 歐洲에 對한 美軍事力의 充分한 參與에 의해 이루어진다.

- 西歐가 美國보다 同盟體制에 있어서 더 많은 財政的, 軍事的, 負擔을 진다하더라도 美國의 歐洲軍事駐屯은 매우 重要하다.
- 이 點에 있어서 實際的인 수자와 軍事政策的 運當間에는 不均衡이 있다.
- 機能上의 業務分掌과 負擔調整을 빙자한 여러 提案은 한쪽을 위 하여는 目的遂行을 便利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만쪽에게는 負擔되는 負擔을 지게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同盟의 共同協助가 困難해질 것이다.
- 意思差異는 盟邦에 必要한 연대의식을 해롭게 하고 同盟國家에間

隔을 넓게 함으로써 機能力을 弱화시켜 平和保存과 蘇聯에 對한 美
國과 西歐의 立場을 해친다.

- 大西洋同盟體制의 침식은 西歐에서 朝鮮이 影響力을 行使하는데 이
롭게 해준다.
- 나. * NATO 「독트린」과 *防衛와 緊張緩和 (Harmel-Bericht 1967)에
基礎하던 東, 西關係의 正常化 課程은 SALT 2次會談, 歐洲安保會議,
相互 減軍등으로 새 차원에 접어들었다.

- 西獨의 대외정책은 朝鮮 및 東西諸國과 關係를 改善하고 東獨과는
民族的 自決원칙을 犧牲하지 않고 人間的 尚存을 피하는 것이다.

1) 戰略 武器制限 :

수적으로 優勢한 朝鮮이 質적으로 強化되면 現在 유지하고 있는 均
衡이 問題된다.

2) 歐洲安保協力 會議

- 共同的으로 經濟 및 文化적 關心事와 또 安保問題에 대해서도 이
느정도 合意를 볼 可能性을 가지고 있다.
- 그러나 이것은 西歐統合을 妨害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可能하다.
- 가장 큰 争點은 人事 및 情報의 自由로운 交流와 西方側의 人間
적 尊嚴性에 對한 原則을 관철시키는 問題이다.
- 이 會議에서 朝鮮과 東歐間에 理解의 差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 그러나 西方側은 너무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

3) 相互 減軍 協商 :

- "적절한 힘 關係"는 유연성 있게 처処하는 전략에 均衡維持할 程
度의 勢力關係로 만들어 져서는 안된다.
- 그러나 雙方間에 不安定한 安全을 유지해가면서 수시 투입할수 있
는 軍隊를 均衡있게 減縮할 수도 있다.
- 協商自体나 協商의 結果만 가지고 東, 西間에 힘 또는 理解의 衡

뜻이 끝났다고 보는 傾向은 가장 위험한 일이다.

- 共產主義 理念, 軍事적 危險, 政治적 壓力에 對한 自活意志는 西歐의 自由와 獨立을 危險으로부터 保護하는 基本이 된다.
- 가장 큰 課題는 冒險과 危險속에서도 어떻게 機會를 잘 포착하느냐 하는 것이다.

Ⅲ. 結 論

1. 軍事的인 防衛力이 平和와 緊張緩和를 確保하는데 先제가 되며 共產主義理念의 防禦가 西歐의 自由를 保障하는 先제가 된다.
2. 美·蘇關係에 있어서 西歐는 特別한 役割을 하고 있다. 西歐는 그 自身의 目的, 外部로부터의 獨立, 社會의 自由로운 發展과 政治的 統合을 美國과의 同盟으로만 實現시킬 수 있다.
3. 西歐를 美國의 核戰略保護下에 끌어들이는 것은 安定된 歐洲의 平和秩序가 美國에게 利로운限 不可避한 것이다.
4. 安保上 重要한 問題에 關한 東西協商은 東西間의 繼統的인 絶對關係를 解消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協商은 西方의 政治的 軍事的 同盟을 維持할 것을 先제로 하고 있다.
5. 가까운 將來에 西歐의 防衛同盟이 確立되어 美國과 더불어 西方同盟體制에 있어서 同等한 支柱가 될 가능성이 적기때문에 西歐의 政治的 統合이 時急히 要請된다.
6. 가. 모든 西歐同盟국들의 戰鬪兵力은 過度한經費에 困難을 당하고 있다.
이 經費 애로는 特別히 運管面에서 나타나고 있어 投資를 要하는바 이 면에 投資하면 무기는 이미 老朽되는 結果를 招來한다.
나. 戰鬪兵力은 同盟國家들의 經濟力과 技術面을 참작하여 充分히 保有되어야 하며 最短期日內에 戰鬪想勢를 갖추도록 되어져야 한다. 모든 技術的 地理的 條件이 兵力을 維持하는데 活用되어야 한다.

- 다. 50年代 戰鬪兵力構造 概念은 現在 充分치 않다. 이 概念에 執着하면 實質으로 戰鬪力の 減退에 直而하게 된다.
7. 西歐의 盟邦은 平行的인 防衛努力을 漸次的으로 除去해야 한다. 지출을 절약하는 協助體制가 成立되어야 한다. 作戰上의 調和, 共同發展, 調達, 給養과 裝備의 손질, 共同訓練制度와 軍事機能의 分割등이 잘 調整되어야 한다.
8. 가. 歐洲의 共同協力은 歐洲防衛努力에 있어서 軍事 및 軍事政策的 效果를 높이는 同時에 歐洲에서 美軍駐屯兵力을 減少시키게 된다.
- 나. 美國이, 西歐에 戰略的 關心을 갖고 있는 것은 當然하다. 美國이, 萬一 그러한 戰略的 關心을 갖지않을 境遇 美國과 西歐에게는 各各 다른 結果를 招來할 것이다.
- 美國은 다른 方法으로 蘇聯에 對하여 均衡을 回復시킬려고 努力할 것이다.
 - 西歐는 充分한 抑制力을 갖지 못한채 蘇聯에게 壓力을 갖게 될 것이다.
 - 美國의 世界強國으로서의 地位는 影響을 받지 않을 것이다.
9. 가. 西獨은 오늘날 共同同盟體制에 현저한 軍事的 寄與를 하고 있다. 西獨은 앞으로 이러한 軍事的 寄與를 繼續할 것이다.
- 나. 또 西獨은 現在의 非能率的인 戰鬪兵力構造를 改編할 것이다.
10. 將次 數年間은 同盟體制關係에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 우리들時代에 가장 重要한 政治的 課題인 平和維持를 爲해 共同으로 偏見 없는 研究가 있어야 한다.

<分析 및 評價>

1. 筆者 「게오로그 레버」氏는 現在 西獨 國防長官이며 이 글은 1973. 2. 24日「문헌」에서 開催된 第10次 國際防衛問題 專門家會議에서 發表된 論文임.

2. 「게오로그 레버」長官은 美·蘇 勢力關係속에서 西欧의 自由와 獨立을 안전하게 確保하는 것이 窮極의인 西欧의 平和라고 보고 이를 達成하기 위한 歐洲 緊張緩和의 조건을 檢討하고 있음.
3. 西欧가 特徵的으로 갖는 軍事, 政治的 條件은
- 가. 美·蘇勢力이 상충되는 地政學的 位置
 - 나. 獨自의 核戰略能力의 不完全
 - 다. 蘇聯의 威脅에 對한 自衛能力의 制限
 - 라. 共同政治 目的의 취약(정치적 統合의 未達成)
 - 마. 經濟的 理解의 共通點(歐洲 共同市場 擴大 案觀)
- 等으로 이것은 西欧安保에 있어서 重要한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음.
4. 筆者와 같이 歐洲 緊張緩和의 展開課程을 東·南間 힘의 均衡과 그에 基礎한 政治的 關係의 正常化로 보는 觀點에서는 우선 西欧에서 軍事的 防衛力을 確保하고 政治的 統合을 達成하는 것이 歐洲平和의 先決問題라고 생각됨.
5. 筆者가 主張하는 西欧 防衛能力의 確保 方案이
- 가. 美國과 西欧의 同盟關係 維持(美軍 駐屯 繼續)
 - 나. 西欧에 對한 美國의 核保護等
- 美國의 役割 維持를 主張하고 있는 것은 防衛上 美國의 後援을 緊要하게 생각하는 西獨人의 立場을 反映하는 것이며 한편 西欧自體로서도
- 가. 同盟國家間의 協助防衛體制樹立(經費, 運營의 애로 打開, 軍事機能 分割等)
 - 나. 戰鬪兵力 概念의 改編(經濟的, 技術的, 地理的 여건을 考慮) 등 자위 能力向上을 強調하는 것은 歐洲政治 統合으로의 先決問題라고 評價됨.
6. 그러나 힘의 均衡關係 維持는 緊張緩和의 前提條件이 될 수는 있으나 緊張緩和의 目的이 되는 平和를 達成하기 위한 協商의 成功要素일 수는 없으므로 窮極의으로는 美·蘇 등 強大國과 1:1로 併存할수 있는 西欧의 政治적 統合體 形成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判斷함.

7. 西歐統合의 成功은 現在 併立하는 民族國家의 存在때문에 많은 애로가 予想되며, 더우기 美國의 影響力이 간유하고 있는 現實로 보아 難點이 있을 것이지만 西歐國家들간의 經濟的 共通點을 漸次 擴大해가게 됨에 따라서 政治的 統合의 機會도 더욱 增大할 것으로 展望됨.
8. 西歐의 經濟的 成長은 美國에 對한 獨自性을 增大시켜주고 있으며, 安保上 美國과의 同盟關係 維持는 對峙 協商에 있어서 有利한 立場을 保障하는 것이 되므로 筆者의 主張은 現實的인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評價됨.
9. 國際政治勢力의 다원화 傾向과 구조 긴장완화의 進展에 따라 解이해된 美·西歐間의 對峙關係를 諸 보완, 調整하려는 努力이 最近 美國의 “새대서양 憲章”제의 美·西歐 學者들의 安保問題 共同研究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歐洲 緊張緩和에 있어서 美·西歐間 結속의 重要性이 새롭게 認識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西歐의 協力關係가 繼續 유지될것으로 判斷됨. (73.3.8.서독정부관보)

2. 韓半島 關係

가. 4 大國의 韓半島 政策

<韓 國 關 係>

「닉슨」의 中共訪問이 韓國에 미치는 影響

1. 內容要約

- 가. 「닉슨」의 中共訪問 目的은 明確하였음. 즉 緊張을 解消하고 強大國 間의 戰爭可能性을 解消하는 것이었음. 그러나 「닉슨」의 中共訪問은 太平洋地域의 弱小國家들에 있어서는 戰後 25年間 支配해온 對外政策의 基本條件을 扞拭하는 結果를 가져왔음.
- 나. 韓國에 있어서처럼 이러한 變化가 劇적으로 이루어진 곳은 없었음. 韓國의 對外政策은 美國을 支持하고 蔣介石政府를 後援하는 것이었으며 現在 美國과 「티우」政權을 돕기위해 派兵을 하고 있음.
- 다. 韓半島는 歷史, 文化 및 民族의 由來로 單一國家였음에도 尤래를 찾아 볼 수 없을 程度로 굳게 分斷되어 있음.
- 라. 1953年 休戰이 되었으나 南·北韓 어느편도 자기들의 體制를 強要하는 方向에서 國家를 統一하려는 執念을 拋棄한 적이 없었음.
- 마. 1961年 韓國政府는 일찌기 내세웠던 “北進”이라는 挑戔的인 行爲를 中止했음에도 北韓은 「게리라」의 襲擊, 暗殺 其他 軍事的인 挑戔을 惹起하여 北韓에 대한 적개심은 最高潮에 達해 있었음.
- 바. 北京訪問에 대한 異例的인 說明을 하지 않고 「닉슨」이 北京訪問을 公布함으로써 韓國사람들은 앞으로 美國과 中共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기 始作하였음.
- 사. 毛沢東보다도 더 閉鎖的인 北韓사람들도 이와같은 憂慮를 나타냈었음. 韓國사람들과 北韓사람들 모두가 強大國을 더 以上 믿을 수 없다고

- 認識하게 되었으며 自己들에게 適合한 對外政策을 摸索하게 되었음.
- 아. 現在 雙方은 南北赤十字會談과 調節委員會를 通해서 接觸하고 있으나 이러한 政策의 變化가 25年 동안이나 分斷되어 있었고 그 동안에 蓄積된 積개심을 解消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問題점이 介在되어 있음.
- 자. 韓國側은 簡單한 問題에서 始作하여 政治的인 問題를 取扱해야 한다는 態度를 取하고 있으나 北韓側은 모든 問題를 단번에 解決할 수 있도록 政治的인 交渉부터 始作하자고 提議하고 있음.
- 차. 韓國側은 北韓側이 많은 共產主義者들을 韓國에 侵透시켜 共產主義 革命의 씨앗을 뿌리려고 한 對決에서 失敗한 것을 對話에서 成就하려고 하고 있다는 點을 確信하고 있음.
- 카. 北韓側이 意圖하는 바를 正確히 알아내기는 困難하나 明白한 것은 北韓側이 韓國側의 經濟的인 發展에서 有利한 位置를 占하고 있어 앞으로 情勢는 韓國側에 有利하게 展開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點임.
- 타. 韓國의 朴大統領도 個人所得 1,000 弗로 予想되는 1980年에 가서야 統一을 論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으며 統一은 數十年 걸리는 道程이라고 言及하였음. 그러나 雙方이 對話를 하는 동안 戰爭의 可能性은 없어질 것임.
- 파. 美國과 中共이 점차 傍觀者로 되고 있다는 事實이 南, 北이 對話를 하게 된 主要動機가 되었다고 指摘하지 않을 수 없음.

2. 分 析

- 가. 「닉슨」의 中共訪問이 匪細匪 弱小國家들의 對外政策을 一新시키는데 커다란 影響을 준 것으로 보고 있음.
- 나. 특히 南·北韓의 對話의 開始를 美國과 中共과의 關係正常化에 따르는 影響下에 이루어졌음을 是認하고 있음.

- 다. 또한 「닉슨」의 中共訪問은 南・北韓의 強大國들에 對한 信賴度를 低下시킴과 同時에 不信感을 調整시켰음을 認定하고 있으며 이것이 南・北韓이 對話를 開始하게 된 主要動機가 되었다고 評價하고 있음.
- 라. 北韓이 對決(武力挑發)에서 失敗를 하고 韓國의 經濟發展으로 앞으로의 情勢가 韓國側에 有利하게 展開될 것이라는 事實이 北韓으로 하여금 南・北對話에 應하게 된 主要要因으로 評價하고 있음.
- 마. 南・北韓의 接觸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統一이 成就되기 까지는 많은 時日이 所要될 것이라는 韓國側의 意見에 同意하고 있음.
- 바. 그러나 南北의 對話는 韓半島에서의 戰爭可能性을 拂拭하는데 寄與하게 될 것이라고 確信하고 있음.

3. 評 価

- 가. 南北의 對話를 韓半島에 있어서의 戰爭可能性을 拂拭한다는 觀點에서 歡迎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美國은 韓半島에서의 南・北韓의 現狀固定化에 찬의를 表示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됨.
- 나. 南・北韓의 強大國에 對한 不信이 南北의 對話를 가져오게 한 主要動機가 되었다고 強調함으로써 自國의 問題는 자기스스로가 解決하는 自主精神을 弱小國家들에게 은연중에 促求하고 있음.
- 다. 南・北의 接觸過程에서 많은 問題點과 難關이 予想되고 있으나 長期間 會談을 繼續하는 동안 좋은 成果가 再來하게 될 것이라는 美國의 希望을 表示하고 있음.

(73. 1. 3 「아메리칸 뉴스 뉴욕타임즈」)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展望

1. 內容要約

- 가. 日本政府의 큰 外交的인 課題의 하나는 日・中關係를 더욱 改善한다

- 는 것이나 南·北韓의 對話進展에도 慎重한 態度를 取하고 있다.
- 나. 그러나 日本政府는 韓國에 經濟援助를 通해서 民生安全을 促進하고 韓國과의 友好關係를 增進하는 一方 北韓關係에 있어서는 연래 擴大 傾向에 있는 人士, 文化, 經濟등의 交流를 一層 擴大하려는 姿勢를 取하고 있다.
- 다. 北韓은 南·北의 對話가 軌道에 오른 이래 日本에 대해서 柔軟한 態度를 보이고 있으며 昨年 9月 朴成哲 第2副相이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에 對하여 “等距離外交”를 要求하고 있다.
- 라. 한편 韓國政府도 日·中 正常化 當時에 있었던것과 같은 日本에 對한 不安感은 表面的으로는 갖고있지 않으며 따라서 日本은 韓半島의 兩 政權에 對해서 友好的인 關係를 發展시킬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고 보고 있다.
- 마. 그러나 南·北韓의 對話는 昨年에 있었던 것과 같은 進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對話가 核心問題에 들어가면 南·北의 政治, 社會體制가 相異하다는 點이 表面에 나타나 雙方이 妥協點을 찾기가 困難할 것으로 予測된다.
- 바. 때문에 日本政府가 韓半島에 대한 政策을 輕率하게 變更한다면 韓國과 北韓, 雙方으로부터 攻撃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生覺을 政府首腦들은 갖고 있다.

2. 分 析

- 가. 日本政府는 中共과의 關係改善의 擴大를 對外政策의 主要課題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對韓半島 政策도 커다란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음.
- 나. 南·北對話가 開始된 이래 北韓이 日本에 對해서 “等距離外交”를 要求하고 있는 점에 깊은 關心을 表明하고 있음.

다. 日本政府는 南北對話가 核心問題를 다루게 되면 南·北韓의 体制의 差異點이 크게 作用하여 始初에 있었던 것과 같은 急進展은 期待할 수 없다고 評價하고 있음.

라. 日本政府는 南·北의 對話의 推移過程을 銳意 檢討하고 있으며 南北 韓 雙方의 反발을 사지 않도록 今後의 對韓半島 政策展開에 慎重을 期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고 있음.

3. 評 価

가. 日本政府가 北韓의 「等距離外交」에 깊은 關心을 表明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今後의 對韓半島 政策을 南·北韓 雙方의 反발을 사지 않는 範圍內에서 展開시킬 것으로 判斷됨.

나. 韓國에 對해서는 北韓의 反발을 考慮하여 重工業部分에 대한 援助는 될 수 있는한 減少시키고 一般國民의 福祉問題와 直接 關聯되어 있는 部分, 즉 輕工業과 農村建設事業에 積極적인 援助를 하게 될 것으로 展望됨.

다. 한편 日本은 韓國과의 友好關係의 持續을 考慮하여 北韓政權의 要因의 日本招請問題등에는 慎重을 期할 것이며 體育團體, 經濟使節團 科學者들의 交流는 繼續될 것이라 展望됨.

라. 特別히 第8次 「아스팍」開催問題와 關聯하여 日本은 中共과 北韓의 反발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 會員國들의 決定에 따른다는 消極적인 態度를 取할 것으로 判斷됨. (73. 1. 8 「아사히」신문)

「레이어드」美國防長官의 國防報告書中 韓國關係 內容分析

1. 出處 및 動機

美國防長官 (1.20 退任予定) 「앨빈·레이어드」의 73.1.8 字 下院軍事委

員회에 提出한 104 「페이지」에 이르는 國防報告書中 韓國關係部分

2. 韓國關係內容의 要約

- 가. 局地的인 侵略威脅에 直面하고 있는 나라들은 侵略行爲가 발발할 境遇 이 威脅을 除去하고 自体防衛에 必要的인 兵力을 提供할 一次的인 責任을 져야한다는 것을 우리의 原則으로 삼고 있다.
- 나. 北韓이 中共의 直接 介入없이 南侵을 했을 경우 美國은 韓國이 그 1次的 防衛를 担当하도록 期待하고 있다.
- 다. 韓國이 自体防衛를 全的으로 專担할 態勢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다른 盟邦들처럼 그를 위한 財源이 不足한 狀態에 있기 때문에 美國의 軍事援助없이 自体防衛의 效果的인 行事が 不可能하다.
- 라. 美國의 對韓 軍援計劃이 計劃대로 履行된다면 美軍의 韓國駐屯은 必要없게 되고 또한 美國의 地上兵力에 期待하지 않고도 韓國에게 北韓의 南侵에 대한 效果的인 抑制力을 提供해 줄 수 있다.
- 마. 따라서 議會가 對韓 軍援計劃을 계속 支援해 주도록 促求한다.

3. 分析 및 評價

- 가. 同盟國 防衛에 있어 核우산은 계속 提供하되 局地的인 재래식 戰爭의 境遇에는 當事國이 그 1次的인 防衛負擔을 져야하는데 그러한 自体防衛力을 維持하기 위하여 美國의 軍援이 계속 必要함을 議會에 強調한 것임.
- 나. 美國이 蘇聯 및 中共과의 直接對決을 回避하려면 韓國과 같은 盟邦을 強化하여야 한다는 美國政府의 公式見解는 韓國에게 有利한 徵兆임.
- 다. 盟邦防衛에 있어 地上軍의 自國化와 海空軍 및 核抑止力에 의한 支援이라는 從來의 「닉슨·독트린」을 再強調한 것이기도 함.

라. 韓國軍에 의한 1次的 防衛義務의 強調는 韓國의 独自の 軍事行動의 行動半徑이 擴大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4. 對 備 策

- 가. 南北對話의 效果의 推進을 위하여서는 戰爭抑止刀으로서의 自衛能力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韓·美間에 合意된 安保支援計劃을 美國은 성실히 履行하도록 促求하여야 함.
- 나. 韓國의 防衛는 韓國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美國의 極東戰略가운데 重要한 一環임을 繼續 喚起시켜야 함.
- 다. 政治, 軍事的 對美依存度 減少에 따라 自衛刀의 向上을 위한 國防産業의 早速한 發展을 期하여야 함. (73. 1. 11)

日本, 「유엔」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對한 態度 決定에 苦心

1. 內容要約

- 가. 日本外務省은 最近 「스웨덴」, 「핀란드」의 兩國이 北韓을 承認한 것을 契機로 北韓承認國이 增加할 것으로 보고 이번 가을의 「유엔」 總會에서는 이미 “韓國問題討議 一年間延長案”이 可決될 展望은 稀 薄하다는 判斷을 굳히고 있다.
- 나. 때문에 外務省은 「유엔」總會에 臨하는 日本의 態度에 關해서 本格 的으로 檢討하기 始作하였으나 總會의 行方を 詰치기위해 5月上旬의 WHO 總會에서의 北韓加入問題를 重視하고 있다.
- 다. 北韓의 同機構에의 加入이 實現되면 「유엔」總會에서의 北韓招請, 韓 國問題討議가 支持를 받게될 것임은 거의 確實하며 外務省으로서는 WHO 의 結果를 報告 「유엔」總會에서의 日本의 態度를 決定하기로 하고 今月末에 WHO 에 臨할 基本方針을 決定한다.

- 라. 4.6 「스웨덴」이 北韓을 承認하고 同一 「핀란드」가 南北韓을 承認하여 現在
- 韓國承認國； 87 個國
 - 北韓承認國； 51 個國
 - 이中 南·北韓 雙方承認國； 17 個國이 되었다.
- 마. 外務省은 北韓承認國이 今後에도 계속 增加할 것으로 보고 이번 가을의 「유엔」총회에서 北韓을 「옵서버」로서 招請하고 이미 常駐 「옵서버」로 되어있는 韓國을 合하여 “韓國問題”를 討議하지 않을 수 없는 情勢가 造成될 公算이 크다고 보고 있다.
- 바. “韓國問題는 1947 年の 第 2 次「유엔」총회 이래 每年 「유엔」에서 討議되어 北韓의 招請이 焦點이 되어왔다. 1970 년까지 北韓의 招請이 否決되었으나 1971 年이 되어 “韓國問題”의 討議는 “一年間延長”이 決定되었고 翌年 1972 年에도 같은 決定을 보았다.
- 사. 昨年의 境遇 “一年間延長”이 어렵다는 觀測도 있었으나 昨年 7 月の 南, 北韓의 平和統一問題에 關한 首腦級 會談을 비롯한 南北韓의 對話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意見이 大勢를 이루어 結局 總회에서 贊成 70, 反對 35, 棄權 21 의 大差로 “一年間延長”案이 採択되었다.
- 아. 그러나 北韓承認國이 51 個國으로 增加하여 “一年間延長”案이 通過될 展望이 弱해졌을 뿐만 아니라 北韓의 「유엔」총회 招請에 대한 姿勢도 積極化되었다. 北韓은 3 月初旬 WHO 에 加盟申請을 하였으며 同機構에 加入되어 「유엔」事務總長의 認可가 있으면 韓國과 같이 常駐 「옵서버」로서 「유엔」本部에서 加盟國과의 接觸이 可能하다.
- 자. 5.7 「제네바」에서 開催되는 WHO 總회에서 過半數의 贊成이 있으면 加入이 可能하기 때문에 加入하게 될 公算이 크다. 加入이 되면 가을의 「유엔」총회에서의 北韓의 立場은 顯著히 有利하게 된다.
- 차. 또 南, 北의 對話가 「유엔」총회에서 韓國에게 有利하게 作用한 昨年の 例를 參酌하여 北韓은 現在 高姿勢를 取하기 始作하여 “對話

의 推移過程을 두고 보자" 라는 理由로 "1年間延長案"을 支持한 國家에 打擊을 주고 있다.

카. 外務省은 WHO 總會와 「유엔」總會는 聯關되어 있는 것으로 判斷하고 WHO 總會에서의 日本의 態度決定에 苦心하고 있다.

타. 外務省으로서는 北韓의 WHO 加盟問題에 있어서는 "一年間延長"方針을 推進하고 그 結果를 본 후에 「유엔」總會에 臨하는 態度를 決定할 것으로 보여진다.

2. 分析 및 評價

가. 日本外務省은 最近 北韓承認國의 增加에 따르는 北韓의 國際的 地位 向上으로 今年 가을의 「유엔」總會에서 "1年間討議延長案"이 成功할 可能性이 稀薄하다는 想定下에 從來의 韓國一辺倒의 對韓半島政策에 一大 修正을 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나. 日本 外務省이 分析한 否定的인 要因은 다음과 같음.

- 1) 「스웨덴」, 「핀란드」의 北韓承認決定을 突破口로 하여 北韓承認國이 앞으로도 계속 增加할 것이다.
- 2) 昨年 「유엔」總會에서는 "南·北對話"가 韓國側에 有利하게 作用했으나 今年에 들어 南·北對話의 不振으로 昨年 韓國을 支持했던 一部國家에 動搖를 일으키고 있다.
- 3) 現趨勢로 보아 이미 加入申請을 한 北韓이 WHO에 加入하게 될 公算이 크며 北韓이 同機構加入에 成功하면 常駐「옵서버」의 資格을 獲得하게 됨으로 「유엔」總會에서의 北韓의 立場은 크게 有利하게 될 것이다.

다. 現在 日本政界에서는 韓國의 對「유엔」戰略에 關해서 다음과 같은 對立되는 意見이 存在하고 있음.

- 1) 日本과 韓國과의 特殊한 關係로 보아 失敗하더라도 "一年間討議延長"을 支持해야 한다.

- 2) 形勢가 不利하다면 今後의 北韓과의 關係를 考慮하여 北韓의 招請을 支持해야 한다.
- 라. 이와같은 狀況으로 보아 日本政府가 次期 「유엔」總회에 臨하는 基本態度를 決定짓지 못하고 있는 點은 万若 日本이 推進하는 案이 否決되는 境遇의 「다나카」內閣에 대한 反應을 予想하여 慎重을 期하고 있는데 그 原因이 있다고 評價됨.
- 다. 따라서 日本政府의 對「유엔」基本方針은 5.7 부터 開催되는 WHO 總회에서 北韓의 加入与否의 結果를 본 후에 決定지어질 것으로 判斷됨.

3. 對 備 策

北韓의 WHO 加入을 積極支持 ((73. 4. 8 일본경제신문)

日本 對韓半島 政策樹立에 苦心

1. 內容要約

- 가. 日本 外務省은 韓國問題의 前哨戰이라고 하였던 WHO 總회에서 北韓의 加入이 實現되었기 때문에 今後의 情勢分析을 한 結果 다음과 같은 判斷에 이르렀다.
- 1) 「유엔」에서 韓國問題討議를 延長할 수 없는 情勢가 造成되었다.
 - 2) 따라서 次期 「유엔」總회에서는 南北韓同時招請下에 韓國問題討議가 開始될 것이다.
- 나. 「오히라」外相도 이와같은 情勢分析에 基礎해서 5.21 外務省幹部와 對應策을 마련키로 하였으나 現在 어떤 方針을 세울 것인가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는 狀態이다.
- 다. 北韓으로서는 次期 「유엔」總회에서 6月の ILO (國際勞動機關)

9月のITU(國際電氣通信聯合) 등의 加入實現을 試圖하여 地位強化를 더욱 노릴 것으로 外務省은 보고 있다.

라. 外務省은 北韓이 올 가을의 「유엔」總회에서 적어도

- 1) 「언커크」의 活動을 停止시킨다.
- 2) 駐韓美軍으로부터 「유엔」旗를 내리게 한다.
- 3) 駐韓美軍을 撤退시킨다.

등을 北韓 友好國을 통해서 議題要請을 할 것으로 予想하고 있다.

마. 北韓承認國은 52 個國이며 「말레지어」, 「아이스랜드」, 「덴마크」가 곧 北韓을 承認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가을의 「유엔」總회에서 “韓國問題討議延長案”이 可決될 可能性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바. 때문에 外務省은 “「유엔」總회에서 「討議延長案」提出은 不可能하며 南北同時招請은 避할 수 없다”는 見解를 굳히고 있다.

사. 또한 政府가 苦悶하고 있는 點은 “두개의 韓國”이라는 既定事實을 最後로 容認할 것인가에 대해서 明確한 態度를 取할 수 없는데 있다.

아. 또한 政府가 苦心하고 있는 點은 WHO 總회에서 日本이 “北韓加入 審議延長” 共同提案國으로서 失敗한데 對하여 野黨側의 攻勢가 予想되고 이것이 國會에서 外交論爭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하는 點이다.

자. 이와같은 情勢에서 外務省은 韓國, 美國과 情報交換에 尽力할 것이며 6月上旬에 日本을 訪問하는 金鍾泌國務總理의 움직임에 注目을 하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가. 日本 外務省은 北韓의 WHO 加入을

- 1) 次期 「유엔」總회에서 韓國問題討議를 더以上 延長할 수 없게 하고

2) 南北韓 同時招請을 不可避하게 만든 決定的인 契機가 된 것으로 判斷하고 있음.

나. 現在 日本政府는 全「메스콤」으로부터 日本이 WHO 總會에서 “北韓 加入審議一年延長” 共同提案國이 된데 對하여

- 1) 日本外交의 失敗
- 2) 時代에 逆行하는 處事
- 3) 北韓의 「유엔」加入을 支持하라는 등의 集中攻擊을 받고 있음.

다. 「오하라」外相은 “南北對話를 지켜본다는 基本方針에는 變함이 없다. 對北韓政策을 急轉換할 생각은 없다”라고 言明한 바 있으나 現在 日本政府는 韓國과 從來의 友好關係를 계속 維持할 것인가 아니면 두개의 韓國을 認定할 것인가 아니면 두개의 韓國을 認定할 것인가 하는 基存方針과 現實間의 「딜렘마」에 處해있음.

라. 日本政府가 對北韓政策에 對하여 明確한 態度를 決定하지 못하고 있는것 自体가 對北韓政策轉換의 當爲性을 깊이 意識하고 있다는 것의 証據이며 앞으로 있게 될 北韓의 「유엔」傘下機關 加入問題 (ILO, IAEA, ITU) 와 次期 「유엔」總會에서 對韓國 支持態度에 變化를 가져올 것으로 判斷됨.

- 1) WHO 總會에서와 같은 外交的인 實例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韓國, 美國등과 情報交換을 通하여 綿密한 情勢判斷을 實施할 것이다.
- 2) 國際會議에서 韓國이 提示하는 案이 勝算이 없을 경우 발을 매거나 大勢에 따를 것이다. (73. 5.21 「니혼게이카이」신문)

蘇聯의 韓國選手團 招請과 첫비자 發給에 對한 分析評價

1. 蘇聯政府의 異例的인 措施

가. 蘇聯, 「모스크바」, 「유니버시아드」大會에 韓國選手團招請

- 1) 國際學生競技大會 (「유니버시아드」) 의 蘇聯本部는 今年 8.15 부터 「모스크바」에서 開催되는 夏季大會에 招請狀을 韓國에 보내왔다.
- 2) 이 招請狀은 韓國 「올림픽」委員會 앞으로 5.20 郵送되었다.
- 3) 韓國은 이 大會에 男子排球, 女子籠球, 男女「테니스」등 3個種目에 46名의 選手를 派遣할 予定인 것으로 5.24. 밝혀졌다.

나. 蘇聯, 韓國人에 첫「비자」發給

- 1) 蘇聯政府는 5.26 「모스크바」에서 開催되는 國際劇藝術協會會議에 國內居住 韓國代表에게 入國査證을 發給하였다.
- 2) 立國査證을 받은 韓國代表 유덕형씨는 5.27 「모스크바」로 떠났다.
- 3) 「모스크바」에서 開催되는 國際藝術協會會議를 5.27 - 6.1 간에 걸쳐 開催된다.

2. 分 析

가. 이번 蘇聯의 韓國選手團 招請과 演劇人 유덕형씨에 對한 立國査證 發給은 國內에 居住하는 韓國人에 對해서는 史上最初의 일임.

나. 그간 韓國人의 蘇聯訪問에 對하여 蘇聯政府가 보여준 態度와 經緯는 다음과 같음.

1) 國內 居住 韓國人에 對해서

韓國政府는 1966.4 國務會議의 議決로 共產圈에서 열리는 모든 非政治的 國際會議, 學術會議에 政府 및 民間代表를 派遣키로 하였으나 그후 3회에 걸쳐 蘇聯이 立國査證을 發給치 않아 實現되지 못하였음.

- * 1966.5. 「모스크바」에서 열린 第2次 國際海洋學總會에 韓國代表 최상, 홍순우씨, 같은해 "淡水魚 調査管理 및 養魚세미나"에 정석조씨, 1971.10 "世界音樂大會"에 조상현, 김자경씨를 派遣하려 하였으나 蘇聯은 入國査証 發給을 拒絶

2) 海外居住 僑胞에 對해서

그러나 美國에 居住하는 韓國人學者에게는 蘇聯入國을 許容한 바 있음.

- * 1950年代末 이광수博士가 「뉴욕」州立大學教授의 資格으로 1969년에는 김영배教授 (「캘리포니아」大), 1970년에는 김호길教授 (「메릴랜드」核物理學), 1971년에는 임보현씨夫婦가 「모스크바」를 다녀온 바 있음.

다. 蘇聯政府는 1972.7.14 蘇聯近海 (「잠차카」)에서 漁撈作業中인 船員 14名과 함께 나포되어 抑留중이던 제55 동성호船長 文鍾河씨를 早期積放함으로써 韓國과 蘇聯과의 關係改善의 실마리를 쫓은 바 있음.

3. 評 価

가. 이번 蘇聯政府의 異例的인 措置는 韓國政府의 共產圈에 對한 政策轉換 理念을 超越한 國家間의 關係改善)에 對한 好意的인 反應이며 이런 好意的인 反應을 나타내게 된 것은 韓國政府와 어떤 關係改善의 길을 摸索하려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定着化시키려는데 연유한 것 이라고 判斷됨.

나. 이런 事實로 보아 이번 蘇聯政府의 措置에는 다음과 같은 底意를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 類推됨.

- 1) 中·蘇紛爭에서 中共의 立場을 孤立시키기 위해 韓國의 對中共接近을 견제
- 2) 亞細亞地域에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國家의 包摂

3) 蘇聯船의 韓國內에의 寄航地 確保

4) 80年代 「오림픽」을 「모스크바」로 誘致하기 위한 事前布石

라. 蘇聯政府의 이번 措施는 政治性이 稀薄한 分野에 限定되고 있으나 美·中間의 「평평」外交가 美·中關係改善의 실마리가 되었었다는 事實에 비추어 注目視되며 韓國政府의 一聯의 信號(1971年 「모스크바」에서 開催된 世界音樂大會에의 入國許可申請, 蘇聯船의 寄航을 認定하는 法改正등)에 對한 具體的인 反應인 것으로 評價됨.

4. 對 備 策

가. 中·蘇 兩國 어느 한편에 倚重이 없는 등거리外交의 堅持

나. 表面上 等距離外交를 표방, 中·蘇紛爭을 교묘히 利用하여 相對國을 誘因

다. 友邦國家들과의 紐帶關係에 저촉이 되지 않는 範圍內에서 段階的인 交流의 擴大 (73. 5. 30)

<北 韓 関 係>

「미쓰비시」, 北韓에 「프란트」輸出 자숙

<内容要約>

1. 지난 가을 北韓經濟使節團의 日本訪問등으로 日・北韓의 經濟交流가 活潑해질것 같이 보이던중 「미쓰비시」重工業의 河野文彦會長은 “今後 北韓의 國防力強化에 도움이 될 대형「프란트」의 輸出은 原則적으로 避할 意向”임을 밝혔다.
2. 「미쓰비시」會長이 北韓에 對한 지나친 接近을 避하려는 것은 “韓國의 朴大統領과 그와 친밀한 關係에 있는 藤野, 「미쓰비시」사장간 에 韓國에 威脅을 줄 生産設備의 對北韓輸出은 하지않기로 諒解가 成立”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3. 따라서 「미쓰비시」重工業은 製鉄등 대형「프란트」의 對北韓 輸出은 避할 것이며 最近에는 北韓으로부터 商談이 있었던 대형 「시멘트」 「프랜트」의 輸出이 깨졌다고 한다.
4. 「미쓰비시」가 이러한 方針을 정하게 된 背景은
 - 南北韓 對話過程에서 韓國側이 有利한 立場을 維持하게 하기 위하여 이以上 北韓의 軍事力增強에 도움이 될 施設輸出은 避하며
 - 現在로서는 日本 輸出入銀行資金의 使用이 어렵다는등의 理由가 있다.

<分析 및 評價>

1. 「미쓰비시」「그룹」은 韓國進出이 가장 活潑한 日本商社中の 하나로 서 繼續 親韓的인 立場을 維持하여 왔다.
2. 浦項製鉄의 現 103万吨 規模에서 260万吨 規模擴張計劃에도 參加하기

- 로 이미 內定되고 있는 바, 그 規模는 總 約3億弗로 予定되고 있음.
3. 新日本 製鐵 「미쓰이」「그룹」등의 大的인 北韓進出努力에 對하여 「미쓰비시」「그룹」의 繼續 韓國独占進出을 위한 措置인 것으로 判斷됨.

최용건의 蘇聯創建 50周年 演說要旨

다음은 1972.12.22. 蘇聯의 「크레믈린」에서 開催된 蘇聯創建 50週年 記念式에서 行한 최용건 (最高會議 幹部會議長) 의 演說要旨임.

1. 內容要約

- 가. 偉大한 「레닌」과 그가 創設한 蘇聯共産党的 指導밑에 全「러시아」의 勞動階級은 50年前에 世界最初의 社會主義國家 蘇聯을 建設하였다.
- 나. 이 「레닌」의 偉大한 勝利는 歷史的인 意義를 갖는 事件이었으며 이는 弱小民族을 이간, 말살시키려는 帝國主義者들에게 決定的인 타격을 주었으며 植民地 弱小國家 人民들의 民族解放鬭爭을 크게 고무시켜 주었다.
- 다. 偉大한 10月革命以後 社會主義는 한 나라의 範圍를 벗어나 世界的인 規模로 擴大, 發展되었다.
- 라. 北韓은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와 金日成의 領導下에 짧은 期間內에 北韓을 社會主義工業國家로 發展시켰다.
- 마. 金日成이가 提唱한 3個原則 (自主, 平和的統一, 偉大한 民族的團結) 에 基礎를 둔, 南·北韓의 共同聲明은 祖國의 統一을 成就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局面을 개척하였다.
- 바. "美帝國主義者들" 이 "朝鮮" 의 平和的 統一을 妨害하고 있으며 南韓에서 戰爭準備를 強化하고 있다.

사. 우리는 “美帝國主義者들”의 이 犯罪行爲를 糾彈하고 있으며 “朝鮮”의 統一問題는 어떠한 外國의 干涉이 없이 朝鮮人民들의 自體의 힘으로 解決되어야 한다고 絶연히 主張하는 바이다.

아. 우리人民은 歷史的인 祖國의 自主, 平和的인 統一을 成就시키고야 말 것이며 이것은 또한 우리民族의 偉大한 希望이다.

자. 우리人民은 蘇聯人民과의 友義와 團結을 貴重히 여기고 있으며 蘇聯과의 團結, 強化를 위해서 全力을 傾注하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가. 北韓을 찬양함에 있어서는 金日成의 이름을 들고 있는데 反하여 蘇聯을 찬양하는데 있어서는 「레닌」의 이름만을 들었을뿐 蘇聯의 現 指導層의 이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음. 이것은 ;

- 1) 北韓의 共產主義가 「맑스·레닌」主義의 正統派임을 強調하고
- 2) 蘇聯의 現 指導層이 修正主義的인 路線을 指向하고 있음을 暗示하며
- 3) 「맑스·레닌」主義의 理論問題에서 金日成이가 蘇聯의 現 指導層보다 優越한 人物임을 나타내려는데 底意가 있다고 評價됨.

나. 7.4 共同聲明과 南·北韓의 對話開始가 金日成이가 提唱한 3個原則에 基礎하고 있다고 宣傳한 것은 現在 進行되고 있는 南·北韓의 對話가 北韓의 主導下에 이뤄지고 있다고 오도하기 위한 것으로 判斷됨.

다. 美國이 韓國의 平和的統一을 反對하고 있다고 하여 韓國의 統一은 外勢의 干涉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으나 駐韓美軍의 撤収에 關해서는 言及하지 않았음.

이것은 ;

- 1) 中共이 駐韓美軍에 撤収에 따르는 日本의 對韓國進出과 蘇聯의 對 亞細亞進出을 견제하기 위해 駐韓美軍의 撤収를 달갑게 여기지 않

- 으며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時 「닉슨」·毛沢東間에 美軍의 撤
속적인 韓國駐屯에 關해서 문제가 成立한데서 오는 結果이며
- 2) 昨年6月 金日成이가 「워싱턴·포스트」誌의 「하리슨」記者와의 會
見에서 南·北韓의 平和協定 締結後에 駐韓美軍을 撤収시키자고 提
案한 바와같은 北韓의 政策變化를 가져오게 한데에 基因하는 것으
로 判斷됨.

北韓, 對中共 接近을 強化

1. 內容要約

가. 北韓의 對中共 蘇聯關係의 推移過程

- 1) 蘇聯, 中共의 敵對的 對立속에서 兩國에 國境을 接하고 있는 北韓
은 最近 對中共接近을 強化하기 爲해 活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2) 北韓은 8.15 解放以後 中·蘇兩國의 協力에 依存하는 政策을 取해
왔으나 1962年 「큐바」危機時에는 蘇聯과 1966年의 中共文化大
革命에서는 中共과 意見對立을 하여 兩國으로부터의 援助는 削減乃
至 取消되었다.
- 3) 그 때문에 1966年에는 主体思想에 基礎한 自主路線을 표방하고
中, 小 등거리 外交를 前面에 내세웠다.
- 4) 그러 尙중 昨年가을부터 對中共接近이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어 西方
側의 注目을 끌고 있다.

나. 北韓의 對中共 接近現狀

- 1) 1972.9 - 10에 걸쳐서 北韓의 文化代表團, 女性同盟代表團이 연달
아 中共을 訪問함.
- 2) 中共側에서도 이와 尙를 같이하여 中國共產黨活動家 휴가대표단,

青年代表團, 人民解放軍 축구「팀」을 北韓에 派遣한.

3) 1972.12 中共外相 최봉비가 北韓을 訪問 “朝鮮에 對한 軍事援助의 無償援助에 關한 協定”을 復活시켰음.

※ 同協定은 1971.9 當時의 황영승 人民解放軍 參謀總長이 中共을 代表해서 北韓과 締結한 것이지만 同參謀總長의 失脚으로 無効가 되어 있었음.

4) 1972.12.26 자 人民日報는 上記 中共外相의 北韓訪問에 對해 “兩國의 友好, 協力を 發展시키는 問題와 兩國의 關心事를 包含한 國際問題에 關해 友好的인 會晤를 하였다”고 發表함.

2. 分析 및 評價

最近 北韓의 對中共接近이 活潑하게 展開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 起因되는 것으로 分析, 評價됨.

가. 國際權力構造에서 5大強國으로 등장한 中共의 影響력이 北韓에 漸次 增大하고 있으며

나. 6個年 經濟計劃 (1971 - 76年)에서 重工業建設을 目標로 하고 있는 北韓은 經濟發展段階가 후진한 中共과의 協力에서 많은 잇점을 發見하고 있으며

다. 「유엔」加入, 國際的地位向上의 觀點에서 亞·「아」諸國에 強한 影響력을 增大시키고 있는 中共의 支持를 必要로 하며

라. 獨·蘇 條約以後 亞細亞에 積極적인 進출을 試圖하고 있는 蘇聯을 共同으로 견제할 必要가 있기 때문이라고 分析됨.

마. 한편 中共으로서도 蘇聯과의 對立的 見地에서 北韓을 自己편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分析됨.

3. 展 望

北韓이 現段階에서 中共일변도로 政策轉換을 한다는 것은 蘇聯이 즉각적인 반발을 사게 될 것임으로 蘇聯과의 友好關係를 持續하면서 中共과의 紐帶를 強化하는 方向에서 實利追求의 外交를 展開할 것으로 展望됨.

日外務省, 對北韓 外交를 再檢討

1. 內容要約

- 가. 日外務省은 昨年 7月 南北首腦에 의한 政治會談을 契機로 日本의 對北韓外交는 變更되어야 할 것이라고 判斷하고 있음.
- 나. 이러한 判斷은 南北韓이 여태까지의 敵對關係로부터 共存關係에 들어갈 可能性은 否定할 수 없게 되었다는데 根拠를 두고 있다.
- 다. 여태까지 韓國側은 “現在의 南北 友好「무드」에도 불구하고 北韓側의 韓國에 대한 侵略可能性은 減少하고 있지 않다”라고 強調해 왔었다.
- 라. 때문에 “韓半島에 있어서의 武力衝突의 可能性은 減少되고 있다”고 하는 美國의 立場과 對立하여 昨年 10月 朴大統領이 포고한 非常戒嚴令을 위요하고 美國과 朴大統領과의 對立은 感情的인 것에까지 發展했었다고 한다.
- 마. 그러나 지난 5일 「닉슨」·金鍾泌會談에서 이러한 韓·美間의 見解差異는 解消되고 歸路에 日本을 訪問한 金首相이 美國의 對韓半島 外交에 關해서 「다나카」首相과 「오히라」外相에게 說明했다.
- 바. 以上과 같은 一連의 會談을 通해서 “70年代 後半에 北韓과 共存關係에 들어간다”는 韓國首腦의 意向이 明白해졌다.
- 사. 한편 北韓側도 昨年 9月 朴성철 副首相이

- 1) 韓・日條約은 日本과 北韓과의 國交正常化의 障礙가 되지 않는다.
- 2) 日本과 北韓과의 國交正常化 條約을 締結해도 좋다는 意思를 表示한 바 있다.

2. 分析 및 評價

- 가. 日外務省의 對北韓 外交의 再檢討는 南北韓間에 解氷「무-드」가 造成되고 앞으로 共存關係가 繼續될 것이라는 判斷下에 이 機會를 포착하여 北韓과의 外交關係를 擴大(通常代表部設置등) 하려는 底意를 나타내고 있음.
- 나. 그러므로 韓國側의 反발을 사지않는 範圍內에서 文化, 「스포츠」, 經濟, 人的交流등의 面에서는 從來以上으로 北韓과의 接觸을 活潑히 展開할 것으로 予想됨.
- 다. 또한 韓國側의 態度 如何에 따라서는 北韓政治人의 入國, 對北韓 輸出入銀行資金의 使用까지도 許容하는 段階로 發展할 可能性이 있다고 判斷됨.

北韓 蹴球「팀」 團長 정광순, 日官房長官과 會見

1. 內容要約

- 가. 北韓의 高校蹴球「팀」 團長 정광순은 지난 1.29 「니카이도」 관방장관을 訪問하였다.
- 나. 同團長은 訪問席上에서 “멀지않은 時期에 日・北韓 兩國은 國交를 回復할 수 있을 것이나 그 前에 人士, 科學技術등의 交流를 實施하는 것은 有益하며 自民黨을 비롯한 各界人士들의 北韓訪問을 歡迎한다” 라고 陳述했다.
- 다. 이에 대해 「니카이도」관방장관은 “相好間의 利益을 圖謀하는 人士

交流를 促進하는 일에 나로서는 異意를 提起할 수 없는 問題이다”
라고 答弁하였다.

2. 分析 및 評價

- 가. 정광순은 지난 1.5 日本을 訪問하였으며 그가 이끈 平壤輕工業高校 축구「팀」은 5戰5勝의 記錄을 갖고 2.1 歸國할 予定임.
- 나. 정광순은 現在 北韓의 教育部 副部長(文交部次官에 相当), 對外文化 連絡協會副委員長, 「오림픽」委員會副委員長등의 要職에 있어 「스포츠」代表라기 보다는 巨物級 政治人이며 北韓의 要人이 日本의 閣僚와 公式會談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다. 정광순은 비록 高校축구「팀」團長의 資格으로 日本을 訪問하기는 하였으나 日本의 各 体育會代表들과 만나 相互 交換競技의 實現을 위해 힘을 쓰며 政黨代表들과 懇談會를 갖는등 北韓宣傳을 위한 政治的 活動을 活潑히 展開하였음.
- 라. 今番 정광순의 「니카이도」관방장관과의 會談에서 相互交流 促進에 原則的인 合意를 본 것은 過去의 實現可能性이 없었던 形式的인 合意를 벗어나 앞으로 日·北韓間의 經濟, 文化등 交流擴大를 具體化할 수 있는 重要한 契機가 될 것으로 判斷됨.
- 마. 특히 現職 관방장관이 公的인 場所에서 北韓의 政府要因과 會談한 事實은 昨年 7月以後 造成된 韓半島의 解氷「무-드」를 기화로 「스포츠」, 經濟등 여러分野에서 北韓과 보다 積極的인 接觸을 展開 하려는 底意를 나타낸 것이라고 評價됨.

3. 對 策

日本의 北韓과의 交流接觸을 現水準以上으로 擴大시키지 않도록 日本政府에 嚴重한 抗議가 있어야 할 것임.

4. 參考事項

정광순의 縮日動向

日 字	實 施 事 項
1973.1.20	日농구協會理事長 「마끼야마 요시히데오」의 訪問을 받고 今年7月初 여자농구「팀」의 訪日招請受諾
1973.1.20	日배구協會會長 「니시카와 마사이찌」의 訪問을 받고 3月 匝細匝배구聯盟會議 北韓參加問題討議
1973.1.20	日탁구협회理事長 「이오 이다히로시아」의 訪問을 받고 4월경 日本「팀」의 北韓訪問 提議를 受諾
1973.1.22	日本 「교도」通信과의 會見에서 今年 上半期 北韓言論人的 訪日予定을 밝히고 통산대표부의 日本常駐 및 記者相互 常駐를 希望
1973.1.23	「미노베」東京都知事를 訪問하고 平壤市 人民委員會委員長 강희연의 訪日에 協助를 要請
1973.1.25	日本축구協會의 歡迎宴會의 參席
1973.1.26	日・朝 親善團體의 歡迎會에 參席
1973.1.27	「간토・도호쿠」地方 同胞商工人이 베푼 宴會에 參席

日本, 北韓 中共經由로 常時 通話可能

1. 內容要約

가. 日本과 北韓과의 國際電話를 中共經由로 通話할 수 있다는 것을 正式으로 中共이 承認하였다고 3.15 中共電信總局이 日本 우정성에

通報하였다.

- 나. 여태까지 北韓과의 國際電話는 臨時로 中共을 經由해서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常時 通話가 可能하게 되었다.
- 다. 通話地域은 東京-平壤間이며 料金は 3分間에 2.160「엔」, 그後 1分을 超過하는데 720「엔」이 된다.

2. 分析 및 評價

- 가. 73.3 日本의 國際電話는 北韓의 電氣通信 担当長官 앞으로 東京-平壤間 直通 通信回路의 設定을 提議한 바 있음.
- 나. 最近 北韓이 日本에게 南·北韓 등거리 外交를 要求하고 있는데 對하여 日本政府는 南·北韓의 對話로 因하여 和解「무-드」가 造成되어 있다는 것을 구실로 이에 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北韓間的 交流가 漸增하고 있음.
- 다. 이번의 常時 通話措置는 最近 日本, 北韓間的 電信, 電話의 通話量이 急增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分析되며 日本과 北韓間的 交流가 急增하고 있음을 証明하는 것이라고 判斷됨.

北韓, 美國政策 變更要求

<內容要約>

1. 北韓은 4.6일 美國議會에 對해서 「닉슨」行政府의 對韓政策을 變更하도록 하는 “적절하고도 積極的인 措施”를 取하도록 主張하면서 南韓駐屯 美軍의 撤収를 要求했다.
2. 北韓 “最高人民會議”에서 滿場一致로 採択된 書翰에서 北韓은 「닉슨」行政府가 南·北韓間的 和解를 妨害하고 있다고 非難했다.
3. 書翰에서는 “지금 美國은 政策을 바꾸어 南韓으로부터 軍隊를 撤収

하고 「언커크」를 解体함으로써 韓國을 平和的으로 再統一하는 爲에
놓인 障礙를 除去해야 할때"라고 했다.

4. 書翰은 또 美國이 南韓에 대한 軍事的 援助를 中斷하고 "南韓當局에
게 韓國人對 韓國人의 싸움을 교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主張했다.
5. 北韓은 또 世界 모든 政府들에게 보낸 또다른 書翰에서 南韓으로부터
4萬美軍이 撤收하는 交換條件으로 兵刀을 減縮할 準備가 돼 있다고
하면서 만약 美軍이 南韓으로부터 撤收하면 "20萬으로 減縮할 用意
가 있다"고 했다. (現在 北韓兵刀은 35萬으로 評價됨)
6. 美國議會에 보낸 書翰에는 軍兵刀 減縮계안이 包含되지 않고 있다.
7. 美國管理들은 이러한 書翰들이 다 最近 南·北韓間의 對話가 困境에
빠진 責任을 美國에 전가해 보려는 北韓의 宣傳攻勢라고 보고 있다.
8. 지난해 7월이후 始作된 南·北韓 對話는 南韓의 漸進的 方式과 北韓
의 一括方式 主張이 相衝, 궁지에 빠져있다.
9. 美軍駐屯을 바라는 南韓은 窮極的으로 雙方 10萬水準으로의 減軍, 外
國軍撤收등을 包含한 平壤側의 提議에 대해 不信을 갖고 있다.
10. 南韓官吏들은 平壤側의 이러한 提議가 今秋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
題討議를 目標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分析 및 評價>

1. 最近 北韓의 對外 宣傳攻勢는 時期的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의도를
갖는 것으로 分析됨.
가. 美國議會內에서 海外駐屯軍 減縮主張이 높아지고 있는 狀況利用
나. 今秋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 討議劃策
다. 最近 南·北韓間 對話의 不進에 대한 責任轉嫁
2.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武装解除 接近方法은 다음과 같은 要因으로 分
析됨.
가. 防衛 負擔輕減을 要求하게 된 北韓 經濟現實

- 나. 美国議会の 韓国軍 現代化計劃을 위한 對韓軍援問題 討議過程에 影響을 주려는 短期的效果
- 3. 이러한 最近 北韓의 宣傳攻勢의 底意를 紛碎하기 위한 우리의 對策은 다음과 같은 方向으로 摸索해야 할 것으로 判斷됨.
 - 가. 北韓의 底意를 폭로하는 逆宣傳活動의 強化
 - 나. 「유엔」問題에 對備한 多邊的 努力의 追求

訪日記者團長「아사히」新聞 對談內容 分析報告

- 「아사히」新聞 編輯局長 「고보」와 訪日 北韓記者團長 정준기는 5.14 日밤 東京 「메이교구」 「호텔」에서 對談을 가졌음.
- 「아사히」新聞은 5.16 日字로 對談內容을 6面全面 記事로 掲載했음.

<對談內容要約 (정준기 發言)>

1. 亞細亞情勢觀

- 가. 日·中間 國交回復등 隣邦間的 和解는 亞細亞緊張緩和에 도움이 되며 越南平和協定은 越南人民의 勝利다.
- 나. 美帝國主義는 「캄보디아」에 軍事介入을 계속하고 있고 韓國에 軍隊를 駐屯시키는 등 한 손에는 「올리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兩面政策을 쓰고 있다. (金日成의 말 引用)

2. 南·北韓問題

- 가. 韓國은 “對話있는 團結”, “對話있는 競争”, “對話있는 共存” 政策으로 두개의 韓國을 피하고 있으나 北韓은 “對話를 통한 團結” “對話를 통한 合作”, “對話를 통한 統一”을 希望한다.

나. 南北間의 對決이나 緊張狀態를 없애는 것이 現在 가장 重要한 問題

다. 이를 위해 北韓은 南北調節委에서

- 1) 武力增減, 軍備競爭中止
- 2) 外國軍(美軍)의 南韓으로부터 撤収
- 3) 南·北軍隊 10萬削減
- 4) 南·北間 平和協定
- 5) 外國으로부터 軍需品 武器搬入禁止 등 5個原則을 主張했다.

다. 南·北對話가 進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韓國의 分斷固定化方針과 그 배후에 있는 大國主義者들의 意思때문이다.

라. 韓國의 新民黨 유진산黨首가 “北이 赤化統一을 하지 않는다고 表明한다면 政黨, 社會團體「레벨」의 交流에 關한 政治協議에 應할 準備가 備있다”고 發言한 것은 歡迎한다.

마. 北韓은 前부터 南侵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 思想과 制度를 強要하는 統一을 意圖하지 않는다는 것은 共同聲明에서도 分明히 하고 있다. 이 問題에 對해서는 다시 說明을 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바. 南韓의 人民은 共同聲明에 나타난 平和統一 方針을 熱烈히 支持하고 있다. 그러나 南韓當局은 “서두르거나 흥분하는 것은 이롭지 못하다”는 등 統一의 方向을 妨害하고 있다. 去年의 維新도 平和統一을 妨害하는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다.

사. 去年 「유엔」總會의 「알바니아」안은 韓國統一에 意義있는 提議이었다. 「유엔」은 美軍으로부터 「유엔」軍의 모자를 벗겨 더 以上 韓國駐屯의 구실을 排除함으로써 美軍을 撤退시키고 또 統一復興委員會를 解体하는 것이 統一을 爲한 條件이 된다.

아. 北韓의 新憲法은 社會主義 革命과 建設의 諸原則을 分明히 하고 社會主義 制度의 本質, 特性, 優越性등을 法制化한 것이다. 新憲法에 首都를 平壤으로 規定한 것은 平壤이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中心地가 되었다는 事實을 반영한 것이고 그밖의 意味는 없다고 생각한다.

3. 日・北韓關係

가. 日本의 韓國에 對한 一方的 偏重政策은 韓國統一에 妨害된다. 日・北韓 兩政府間의 問題와는 別途로 雙方 人民間의 交流를 깊이할 것을 淸성한다.

나. 相互間 貿易의 增進은 親善과 親善關係를 發展시킬 것이다.

北韓은 日本과의 貿易에서 特別한 恩惠를 期待하거나 借款을 얻는다든지 合作投資를 希望하는 것은 아니다. 互惠平等原則에 基礎한 延拓 利子 등에 對한 國策慣例를 北韓에도 適用해야 한다.

<分析 및 評價>

1. 日本 新聞協會 招請으로 정준기(北韓 記者同盟 中央委委員長, 勞動新聞 責任主筆)를 團長으로 한 北韓 報道關係 幹部一行이 5.10 부터 18 日間 日本을 訪問中인데 이 訪問은 昨年 日本記者團의 北韓訪問에 對한 交換訪問임.
2. 정은 韓國과 美國이 韓半島 現狀固定 方針을 갖고 있다고 非難하면서 두개의 韓國을 反對한다고 主張하나 오히려 北韓이 南・北對話를 利用 國際적으로 두개의 韓國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아 南・北對話 不進에 對한 責任을 韓國側에 轉가하려는 宣傳攻勢로 分析됨.
3. 日本은 韓半島 등거리 外交政策을 追求하고는 있지만 韓國과는 韓・日 條約에 따라 緊密한 紐帶를 維持해 오고 있으며 韓國中心의 對韓半島 政策을 계속 견지, 韓國의 統一政策을 支持하고 있는데 對해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修正을 促求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됨.
4. 韓國의 건제때문에 日・北韓間의 公式的 國家關係樹立에 難點이 있음을 認識한 北韓은 "人民外交"方式을 採択, 經濟的, 文化的, 藝術的 交流를 擴大함으로써 日本의 對北韓 友好政策을 誘導하고 이를 통해 우선 經

濟的 協助를 얻어보려는 意圖인 것으로 評價됨.

日本の 自民党, 北韓訪問을 提議

1. 內容要約

- 가. 自民党的 西細亞·「아프리카」研究会 朝鮮問題所委員長(團長 「다무라 하지메」)는 5.24 訪日中인 北韓 記者代表團의 團長 정준기를 招請 하여 도내 「호텔」에서 公開講演會를 開催하였다.
- 나. 이 席上에서 「다무라」所委員長은 “될 수 있는한 빨리 自民党代表團이 北韓을 訪問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르면 이번 国会開會中에도 北韓을 訪問할 생각임을 밝혔다.
- 다. 이 말은 「다무라」所委員長이 講演會에서 人士를 하는 가운데서 陳述한 것으로 “日本과 北韓은 서로가 가까운 나라임에도 不幸한 狀態가 계속되어 왔다. 与党인 自民党 가운데도 北韓에 好意를 갖는 사람이 있으며 앞으로 相互 訪問을 通하여 實情을 아는 것이 必要하다. 自民党도 될 수 있는한 빨리 訪問團을 編成해서 北韓訪問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2. 分析 및 評價

- 가. 이번 「다무라」所委員長의 北韓訪問 提議는 北韓의 WHO 加入과 關聯하여 日本政界가 두개의 韓國을 認定하는 世界潮流에 따르려는 意思를 具體적으로 反影한 処事라고 分析됨.
- 나. 日本新聞協會의 招請으로 정준기를 團長으로 하는 北韓記者代表團은 5.10 - 26 에 걸쳐 日本을 訪問(北韓 記者團으로서는 最初로) 日本의 新聞社, 放送局을 親善訪問하고 政界要人과 會談을 가진 바 있음.
- 다. 정준기 團長은 北韓 勞動党中央委委員, 最高人民會議 常設委員을 兼하

고 있으며 여태까지 訪日한 北韓代表團 가운데서 가장 要職에 있는
者로 알려지고 있음.

라. 여태까지 許容되지 않았던 北韓記者團의 日本入國을 認可한 점과 關
聯하여 이번 自民黨의 「다무라」所委員長의 北韓訪問 提議가 實現되
는 경우 日本政府의 對北韓 政策에 주는 影響은 至大할 것으로 評
価됨.

- 1) 非政治的인 交流(經濟, 文化, 「스포츠」)에서 새로운 次元인 政治
的 交流에의 길을 타개
- 2) 日本의 對南, 北韓 등거리 外交의 促進
- 3) 두개의 韓國政策을 現實化하라는 「배스콧」의 對政府圧刀에 加速化

나. 南·北韓 關係

「몬트리얼·올림픽」에 南北單一팀

<內容要約>

日本 訪問中인 北韓 高等輕工業學校 축구團團長의 記者會見

日 時; 1973.1.8

場 所; 「오사카」「푸라자」「호텔」

축구團長; 정광순

北韓 對外文化連絡協會 副委員長兼

北韓「올림픽」委員會副委員長

<發言內容>

1. 南北韓의 「스포츠」, 文化, 經濟交流를 促進시킴은 北韓의 一貫된 主張

- 인바 그 가운데 「스포츠」交流에 對하여서는 昨年 「문헨·오림픽」때 김택수 大韓體育會長과 交流에 關한 合意書에 調印하였다.
2. 南北間의 試合外에 國際試合에는 單一「팀」을 보내기로 하는 內容이었다.
 3. 具體的으로 種目등을 定하고 있지는 않으나 合意書를 根拠로 하여 서로 相議하고자 한다.
 4. 今年 10月 日本 「자바」에서 열리는 國際射擊大會에 統一「팀」을 提案하였으나 南으로부터 아직 回答이 없다.
 5. 「오림픽」問題에도 原則的으로는 合意가 이루어져 있으나 具體的인 問題는 今後 討議될 것이다.
 6. 日·北韓 記者交流에 있어 北韓은 종종 日本記者를 招請하여 金日成과도 만나고 있는데 北韓記者도 日本을 訪問하고 또한 首相級 人士와의 會談이 期待된다.

<分析 및 評價>

1. 記者會見을 한 정광순은 北韓 對外關係의 政治的 宣傳을 過去에도 종종 한바 있는 자로서 今番 會見도 日本에서의 政治的 宣傳效果를 爲한 發言으로 看做됨.
2. 南北韓의 대등한 關係를 特히 強調한 發言은 日本의 對韓 일변도 政策을 修正하고자 企하는 政治的 目的이 內包된 것으로 判斷됨.
3. 日本·北韓間의 記者등 人士交流을 擴大하기 爲한 日本의 制限措施 緩和를 強力히 願하고 있음.
4. 「문헨·오림픽」當時 南北間의 合意된 內容中 主要한 것은
 - 體育交流을 爲한 南北의 代表가 서로 서울과 平壤을 訪問한다.
 - 이를 爲한 連絡方法은 이미 設置된 南北調節委를 通한다.

<對 備 策>

1. 南北關係의 「스포츠」分野에서 마치 北韓이 主導的 立場을 取하고 있는 것 같은 宣傳에 대하여 韓國의 立場強化를 爲한 對內外 弘報活動이 要請됨.

「킨더만」博士, 韓國記者와 會見

西獨의 「문헌」大學校에서는 新學期부터 韓國學을 設講하기로 하였으며 担当教授는 同大學 國際政治學 研究所長 「고트프리트 킨더만」博士이다. 設講에는 그의 努力이 컸으며 韓國에도 이미 세번 왔던 일이 있다. 이하는 朝鮮日報 윤병해 駐西獨特派員과 一問一答 內容을 간추린 것임.

<問答內容의 要約>

1. 韓國問題에 關心을 가진 動機와 「문헌」大學 韓國學 設講動機
 - 가. 研究所 開館式때 「오스트리아」首相이 極東問題研究를 勸告하였다.
 - 나. 東方政策을 推進中인 西獨은 韓國의 北方政策에 대한 忖도가 重要視되어
 - 다. 研究所에서는 1972年 여름부터 西獨의 東方政策과 韓國의 北方政策을 비교 研究하기 始作
 - 라. 1973年부터는 大學에서 直接 韓國의 統一問題를 講議할 것임.
2. 講議予定內容과 資料 및 研究員實態
 - 가. 講議內容
 - 1) 1893年 甲午更張以後 韓國의 國際政治上 立場과 悲劇의 歷史를 分析

2) 現在の 韓国統一問題를 면밀히 추적하면서 研究分析

나. 資 料

韓國에 3 차례 다녀오는 동안 많은 政治人, 學者, 專門家들의 도움이 컸음.

다. 研究員

서울 獨逸文化院에 勤務하던 金득주 등을 招請

3. 美·中, 日·中의 接近에 따른 情勢의 推移

가. 日本은 美·日同盟을 固守하면서 中共과 악수를 하여 自主外交를 통해 政治的인 強大國으로의 登場을 피하고 있으며

나. 美國은 亞細亞에서 戰爭狀態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中共과 關係를 改善

다. 이러한 急激한 情勢變化는 南北韓을 다같이 不安하게 만들었다.

라. 따라서 強大國들이 弱小國을 無視한채 무슨問題를 만들지나 않을까 하는 不確実과 不安이 南北對話를 促進시켰고 正常的인 國際政治的 「센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狀態까지 到達하였다.

4. 南北共同聲明에서 “外勢에 依存하지 않는다” 라는 民族自決條項에 대한 解釋

가. 韓國은 過去 強大國의 保障政策 테두리안에 있었다.

나. 自決權에 의한 統一의 기틀이 이룩되는 것은 이상적이고 바람직하다.

다. 그러나 自決權은 주변정세와 잘 調和시켜야 될 것이다.

5. 最近 韓國의 北方政策과 時代的인 전기와의 關係

가. 韓國은 時代的인 電기를 잘 포착하였다.

나. 그러나 政治的 次元의 統一問題가 拳論되기 전에 豫각적인 軍事대치를 벗어나 相互間 軍事監視 方法등이 摸索되어야 한다.

6. 統一努力과 주변강대국과의 關係

가. 西獨은 強大國들에 의해 直接으로 妨害를 받고 있는데 반하여

나. 韓半島에는 美·蘇·中共의 相反된 利害關係가 얽혀 있더라도 대수로운 것은 아니며 더 이상 韓國民의 犧牲을 強要할것 같지는 않다.

7. 南北韓이 戰爭當事者로 敵對意識을 解消하고 最短 時日內에 南北이 接近할 수 있는 方法

가. 雙方은 共同利益에서부터 出發하여야 한다.

나. 南北은 지금의 2人 3다리 경주를 하고 있음으로 共同運命體임을 느껴 어느時期까지 뛰다가 結合을 하여야 한다.

8. 東·西獨 基本條約을 締結하기 위하여 蘇聯 및 東歐等과의 和解를 하는 것과 같은 우회정책을 韓國이 쓸수있는지의 問題

가. 蘇聯·中共이 韓國의 接近을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며 平壤의 強力的 反발때문에 그러한 우회정책은 不可能하다.

나. 차라리 「유럽」 및 歐洲共同體 또는 東歐圈과 經濟關係를 增進하여 「유럽」에 強한 「이미지」를 부각시킴이 必要하다.

<分 析>

1. 南北關係에 있어서 「킨더만」教授의 見解는

가. 南北共同聲明은 時期的으로 適合하다.

나. 주변강대국과의 調整이 必要하다.

다. 政治的 接近을 위하여서는 軍事的 衝突을 防止하기 위한 共同協助등

전체작업이 必要하다.

라. 韓國의 中·蘇接近은 어려울 것이다.

마. 따라서 西獨과 같은 統一을 爲한 우회정책은 不可能하다.

바. 歐洲와의 經濟的 接近이 바람직하다 등으로 要約됨.

<評 價>

1. 西獨에서 제일 큰 大學인 「문혜」大學에 韓國關係學이 設講됨은 兩國 間의 關係增進과 西獨 및 西歐의 韓國認識 高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期待됨.
2. 主役을 担当한 「킨더만」教授는 統一院과의 關係 및 人연으로 말미암아 韓國問題에 큰 關心을 가지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韓·獨間 學文 的交流과 分斷國問題 研究를 爲한 共同協助에 統一院의 位置가 크게 부각될 것임.
3. 南北關係의 發展에서 우선적인 問題는 衝突을 防止하기 위한 相互 武 刀拋棄의 宣言임을 強調하는바 이는 갑작스런 政治的 接近과는 別途로 雙方間의 緊張緩和과 窮極的 平和統一을 위한 가장 合理的이고 우선되 어야 할 問題인 것으로 評價됨.

한덕수 在日 朝總聯議長, 南北經濟 交流를 提議

在日朝鮮聯合會의 한덕수議長은 지난 17 日 「나고야」國際「호텔」에서 가진 記者會見에서 南北韓 統一問題, 日·北韓 交流問題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內容要約

가. 北韓側은 韓國側에 대해서 北韓의 鉄鉞資源등의 共同開發

나.北韓沿岸에서의 韓國漁夫에 의한 操業認定

다.北韓의 技術 自体로 韓國國內의 農業用 水利組合 施設建設등을 包含한 具體的인 經濟交流 計劃을 이미 提案한 바 있다고 밝혔다.

라. 그리고 日·北韓 兩國의 交流에 關해서는 北韓이 自民黨, 財界의 使節團을 받아들일 用意이 있다고 表明함과 同時에 通商代表部의 相互 設置, 記者交換을 提案하는 등 現在 事實 中斷狀態에 있는 兩國關係의 局面打開에 積極的인 態既를 表明하였다.

2. 分析 및 評價

가. 南·北韓 統一協商에 있어서 韓國側은 人道的인 問題부터 解決하자는데 反하여 北韓側은 政治的인 問題를 最優先的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음.

나. 上記 한의장의 發言은 現南·北韓의 經濟實情에 비추어 보아 實際 實現可能性이 있는 提案이라 보이나 政治的인 問題解決을 우선시키자는 北韓側의 立場을 뒷받침하기 위한 底意를 갖고 있다고 評價됨.

다. 또한 한의장의 發言은 韓國의 새國會의 開院과 南北調節委員會의 開催를 앞두고 韓國側의 反應을 탐지하기 위한 觀測氣球로서의 目的도 지니고 있다고 推定됨.

라. 上記 한의장의 提案內容이 實現되는 경우 北韓의 鉄鉍資源을 共同開發함에 있어서는 鉄鉍山의 立地條件으로 보아 韓國技術者의 活動範圍가 自然 制限되는데 反하여 北韓의 灌溉施設 技術者가 韓國에 派遣되면 活動範圍가 韓國農村 全域에 걸치게 됨으로 北韓의 政治宣傳을 하는데 有利한 條件에 놓이게 될것임.

3. 對 備 策

그러므로 韓國側은 離散家族찾기등의 非人道的인 問題를 우선적으로 解

결한다는 基本立場을 관찰시키며 우리가 推進하고 있는 새 마을運動이 完成될 때 까지 北韓 灌溉施設 技術者의 韓國派遣問題는 遲延시켜야 할 것임.

北韓, 南北調節委에서 5 個項目 提議

1. 內容要約

- 가. 韓半島의 對話의 再開로서 主目視되었던 第2次 南北調節委員會는 3.16 아무런 合意도 없이 끝났다.
- 나. 南北双方의 報道에 의하면 双方의 對立點은 北韓側이 軍備, 兵力의 削減과 駐韓美軍의 撤退를 들고 나와 平和條約의 締結을 主張한데 대해 非政治的인 分野부터 南北協商을 推進시키려는 南韓側이 이를 거절한데 있었던 것 같다.
- 다. 朴成철委員長 代理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 1) 武力增強, 軍備競爭의 中止
 - 2) 双方의 軍隊를 各己 10萬乃至 그 以下로 縮小
 - 3) 外國으로부터의 兵器類등의 搬入禁止
 - 4) 美軍을 包含한 外國軍隊의 撤退
 - 5) 이를 解決한 後에 平和條約을 締結한다.
- 등의 5 個項目을 提案하였다고 한다.
- 라. 한편 판문점에 돌아 온 李厚絡委員長은 “軍隊의 削減도 重要하지만 여기에는 休戰協定과 南北 共同聲明의 취지를 준수한다는 信賴의 雰 圍氣가 前提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側은 이런 立場에서 부터 北韓側이 主張하는 것과 같은 일괄 方式이 아니라 順序와 節次를 밟는 것이 重要하다고 強調하였다.
- 마. 또한 李厚絡委員長은 北韓側이 조절위내부에 軍事 分科委員會等 各種

의 分科會를 급히 設置하자고 要求한 것에 對해서 韓國側은 처음에는 "經濟" "社會文化" 의 양분과만을 만들자고 提案하였다고 하여 調節委 運營計劃의 面에서도 意見이 一致하지 않았음을 시사하였다.

2. 分析 및 評價

가. 北韓側이 이번에 提示한 "5個項目"은 昨年 6.21 「워싱턴 포스트」紙의 「해스슨」記者와의 會談에서 金日成이가 主張한 것의 되풀이에 不過함.

나. 北韓側이 軍備縮小와 平和條約의 締結을 第一義的인 것으로 主張하는 것은

- 1) 北韓이 駐韓 美軍의 存在를 赤化統一의 最大 障礙로 看做하고 "駐韓 美軍의 撤退"를 赤化統一의 第1次의 目標(당면 目標)로 삼고 있으며
- 2) 이미 "4대 軍事路線"을 完수한 北韓은 軍의 現代化를 達成하고 自体内 武器生産이 可能하여 現狀의 고정화 내지는 縮小가 北韓의 軍事的인 우위를 가져오며
- 3) 駐韓 美軍의 대의명분을 저락시켜 駐韓 美軍이 撤退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을 造成하며
- 4) 平和條約의 締結은 곧 北韓을 國家로서 認定하는 것을 意味함으로 이를 통해 國際的인 지위향상과 차기 「유엔」總會에서 "南·北韓 同時 招請"을 實現키 위한 目的을 갖고 있는 것으로 評價됨.

라. 北韓側이 調節委員會 内部에 軍事 分科會等 各種의 分科會를 增設하자고 要求한 것은 調節委員會의 政治的 機能을 擴大하여 "政治問題 최우선"의 戰略을 관철하기 爲한 것으로 判斷됨.

南·北韓 立場의 對位

1. 內容要約

- 가. 지난달 두개의 韓國代表團 - 調節委 韓國側 代表團과 南北赤十字會談 韓國側 代表團 - 이 協商을 재개하기 위해 平壤으로 向하였다.
- 나. 이 두 代表團이 서울에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아무런 進前이 없었다고 하였다.
- 다. 그후 韓國人的 談話와 北韓側의 發表에 의하면 南·北韓 兩側은 이번 協商에서 각기 상대방의 벽에 부딪쳤다고 한다. 그러나 어느側도 會談을 결렬시키려 하지 않았다고 한다.
- 라. 意見의 對立에도 不拘하고 平壤에서 開催된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의 雰囲気는 진지한 것이었다고 한다.
- 마. 이 두개의 協商은 昨年에 始作되었으며 일련의 協商을 통해서 실마리가 풀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兩側의 基本 態度는 더욱 明白해졌으며 同時에 見解差異도 더욱 뚜렷해졌다.
- 바. 北韓側은 南韓側에 平和條約 締結을 要求하고 同時에 駐韓 美軍司令部와 駐韓美軍의 撤収와 同時減軍을 要求하였다.
- 사. 北韓은 韓國과 同水準의 國際的 地位向上을 爲해 努力하고 있으며 韓國과 같이 「유엔」總會에 招請하고 다른 國家 特別히 韓國과 密接한 關係에 있는 日本과의 外交關係를 맺기 爲해 努力하고 있다.
- 아. 北韓은 이 目的을 達成한 後에 經濟와 其他 다른 部分의 交流에 관한 討議를 할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이런 交流은 分斷된 韓半島를 統一로 인도하게 될 것이며 北韓의 궁극의 目的은 南韓을 壓倒하는 것이다.
- 자. 韓國의 立場은 이와 거의 正反對이다. 서울當局은 軍事力을 維持하고 駐韓美軍을 確保하려고 하고 있다. 관리들은 힘의 立場에서만이

協商이 可能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 차. 韓國은 北韓의 國際的 地位向上을 防止하기 爲해서 戰力을 다하고 있다. 韓國은 北韓을 認定치 않으려고 努力을 다하고 있으며 北韓을 「유엔」에 參與시키지 않으려는 態度를 견지하고 있다. 同時에 등거리 外交를 展開하는 나라 特히 日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다.
- 카. 韓國은 經濟, 文化, 이항민의 家族交換등이 先行되어야 하며 政治的인 問題는 相互 이해가 成立된 後에 討議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 타. 韓國은 北韓이 提議하는 平和協定을 합정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고 特히 이에 對하여 주목시하고 있다. 北韓側이 調節委員會에서 이를 提議하였을때 韓國側은 이를 일축하여 버렸다.
- 파. 北韓의 計劃이 2月 紙上에 發表되었을때 韓國은 論評할 價值조차 없다고 거절해 버렸다. 그렇다 치더라도 요즈음 北韓이 그들의 提議를 公開하였음에도 韓國은 아직까지 公開的인 언급을 回避하고 있다.
- 하. 韓國은 秘密히 平和協定을 締結할려면 北韓·中共側과 美國間에 締結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韓國은 1953年의 休戰協定이 兩側間에 조인되었기 때문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 거. 北韓이 平和를 遵守하고 軍事力을 使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해 보인다면 韓國은 平和協定에 關해서 考慮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너. 平和協定の 締結, 相互減軍, 經濟 및 文化的 交流, 政治的 연방제의 실시등에 대한 北韓의 主張은 이미 1960年代에 있어서 “金日成 首相”에 의해서 提議된 것의 뒤쉴이에 不過하다.
- 더. 이러한 提議를 韓國이 比較的 용이하게 거절한다는 것은 冷戰時代에 나 있었던 일이다.

2. 分析 및 評價

가. 本 記事는 南·北對話에 있어서 쌍방의 意見對立이 어디에 있는가를 明確히 밝히고 最近 南·北對話의 부진이 韓國이 인도적 問題부터 解決보자는데 반해 北韓側이 平和條約의 締結, 駐韓美軍의 撤収等 政治的인 問題를 우선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나. 本 記事에서 特別히 주목시되는 點은

- 1) 北韓側이 平和條約締結에 관한 提議를 報道하였음에도 韓國側은 이를 거절하면서도 公開的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
- 2) 韓國側이 平和條約締結을 거절하고 있는 理由로 韓國은 休戰協定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平和條約締結은 北韓·中共側과 美軍間에 다루워져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는 점.
- 3) 北韓側의 일련의 政治的인 問題에 대한 韓國側의 거절은 冷戰時代에나 있었던 일이라고 指摘하고 있다는 점임.

다. 韓國側이 平和協定 締結을 거부하는 理由로 韓國이 休戰協定 조인의 당사국이 아니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점은 아직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事實이며 韓國側의 이와 같은 理由 提示는 平和協定을 조속히 締結하자는 北韓側의 提議를 遲延시키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評價됨.

韓國外交 試練에 直面

1. 內容要約

가. 韓國은 4.23과 5.8에 開催되는 IPU와 WHO의 兩總會를 금년 가을의 「유엔」總會의 先초전으로서 看做하고 緊張感을 높이고 있다.

나. IPU 73年度 總會는 「코트디보와르」의 수도 「아비잔」에서 開催

되며 北韓은 2월에 加入申請을 함과 同時에 7명의 代表를 派遣하기로 되어있다.

다. 이에 對해서 韓國側도 8명으로 構成되는 代表團을 派遣하여 北韓의 加入을 봉쇄할 대책을 세우고 있다.

라. 昨年 9月 「로마」에서 開催된 總會에서는 韓國側의 명찰약이 主로 하여 北韓의 加入보류를 贊成 50, 反對 41, 기권 6으로 可決, 北韓의 加入을 저지하였다.

마. 이번 IPU 總會에서 北韓의 加入저지에 실패하면 다음 「유엔」總會의 最大의 高비인 WHO 總會에 상당한 影響을 미치게될 것으로 豫상되고 있다.

바. 韓國의 外務部에서는 北韓 承認國이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北韓이 WHO 에 加入申請(3月7일)을 한 것은 이러한 戰略에 立脚해서 「유엔」加入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 「유엔」規約에 의하면 WHO 加入은 135個國中에서 單순 과반수의 지지를 얻으면 사무총장의 認可에 의해서 「유엔」의 상주 「옵서버」가 된다.

아. 最近 「핀란드」, 「노르웨이」가 北韓을 承認하는등 承認國이 급속하게 增加하고 있는 것과 차기 WHO 總會에서 東獨의 WHO 에의 加入이 實現될 것이 거의 確實한 점으로 보아 北韓의 加入이 成功할 公산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分析 및 評價

가. 北韓의 IPU 와 WHO 에의 加入申請은 今年 가을에 開催되는 「유엔」總會에서 “南北한 同時招請”을 實現시키기 위한 戰略적인 포석으로서 취해진 措置인 것으로 分析됨.

나. 北韓은 上記 대 「유엔」戰略을 完結시키기 위해 今年에 들어 14個

外交使節團을 「유럽」을 포함한 「아시아」, 「아프리카」, 中東, 南美地域등에 派遣하여 積極的인 外交攻勢를 展開하였으며 이들 使節團이 순방한 나라는 무려 53個國에 달하고 있음.

다. 이들 外交使節團의 순방外交는 外交關係 樹立과 北韓지지 勢力確保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그 訪問目的을 유형별로 보면

地 域	目 的
西 邦 國 家	平和的 이미지 부식
아프리카地域	經濟, 技術援助를 미끼로한 外交저변의 擴大
中 東 地 域	대「이스라엘」紛爭에서 「아랍」側의 立場을 支持, 政治的 紐帶強化
아 시 亞 地 域	外交的 關係樹立과 인적교류 擴大

라. 國內의으로는 대남 非難放送의 強化, 武裝「게릴라」의 侵透 등으로 緊張感을 造成함과 同時에 第2次 南北調節委員會에서 軍縮과 平和協定締結을 提議함으로써 意識적으로 南北對話를 膠着狀態로 몰아 넣었음.

마. 南北對話를 膠着狀態로 합입시킨 目的은

- 1) 그 責任을 韓國側에 전가시키기 爲한 宣傳資料의 획득
- 2) 南北對話가 去年의 「유엔」總회에서 韓國側에 有利하게 작용한 바를 고려하여 韓國의 “討議 연장안”을 支持한 國家를 동요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判斷됨.

바. 以上과 같은 일련의 움직임에서 다음과 같은 北韓의 대「유엔」戰略이 유추됨.

인위적인 緊張造成(武力挑發)→軍縮, 平和協定提議의 根拠獲得→軍縮, 平和協定締結提議→南北對話의 침체를 야기→南北의 對立상부각→이를 對外宣傳에 이용→IPU, WHO에의 加入成就→「유엔」에서 “韓國問題討議”를 상정

70年代의 韓國과 強大國들에 對한 分析評價

1. 內容要約

- 가. 70年代는 強大國 「내셔널리즘」時代다.
 - 나. 美·中共, 日·中共間의 화해는 中·蘇間 紛爭이 격화할 징조를 마련하고 있다.
 - 다. 日本勢力의 전개는 中共의 동「아시아」政策 目標의 하나이다.
 - 라. 韓半島는 美·蘇·中·日등 強大國들의 이해가 교차하는 지렛대가 된다.
 - 마. 서울의 對中共·蘇聯 接近 탐색이나 平壤의 對美國, 日本向배는 韓半島 주변 4大強國 均衡속에서 이해돼야 한다.
 - 바. 蘇聯이나 中共은 北韓과의 紐帶를 쇠손해 가면서까지 韓國과의 關係 改善을 展開하기에는 北韓과의 이해關係가 너무 크다.
 - 사. 韓·美間의 장래는 美·中共 解氷 概念에서 이해돼야 한다.
 - 아. 70年代 韓國이 直面한 課題는 美國과의 傳統的 紐帶關係를 維持하면서 日·中共·蘇聯과의 關係를 어떻게 새롭게 조정하느냐에 집약 된다.
 - 자. 韓國이 中·蘇와 부지런히 화해공작을 하지 않으면 北韓이 美·日과 接近하는 速度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
 - 차. 70年代 中半에 가서는 駐韓美軍의 水準이 상당수 減少될 것이지만 東「아시아」 勢力均衡의 協商根拠로서 美軍의 일부 駐屯은 繼續될 것이다.
 - 카. 南·北韓 關係는 美·中共, 日·中共關係와 密接한 상관關係를 갖고 進行될 것이다.
 - 타. 南·北韓關係는 日·中共 協調에 크게 影響을 받을 것이다.
- 1) 日·中共은 南北韓 緊張緩和를 통해 韓半島의 現狀保全을 원하고

있다.

2) 中共은 蘇聯의 對北韓 接近을 상쇄하기 爲해 日本과 北韓의 經濟 交流를 바라고 있다.

3) 日·中共은 韓國의 軍事力 縮小에 관한 묵시적 타협을 할 可能性이 있다.

가. 南·北韓間에 불가침條約이 成立되면 中共은 美國의 전진기지로 되고 있는 南韓의 軍事力에 對한 安保上 우려를 緩和할 수 있을 것이다.

하. 現在 南北韓 會談은 雙方에 모두 利益을 주고 있다.

1) 北韓은 이로써 駐韓美軍 規模에 關한 美軍의 立場에 影響을 미치고, 南韓國民들에게 平和의 勢力으로 부각시키는등 對外的 이미지를 改善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2) 南韓은 經濟開發 및 北韓과의 화해를 위한 國內外的 壓力에 만족스럽게 대처하여 充分한 時間을 벌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 會談은 때때로 기복이 있더라도 繼續될 展望이다.

2. 分 析

가. 慶南大學과 「워싱턴」 「아시아」 問題研究所가 共同주최한 在美韓國人 政治學者들의 韓國問題에 關한 學術會議가 4.20-21 兩日間 「워싱턴」에서 開催되었음.

나. 14名의 韓國人 政治學者가 參席한 이 學術會議에서는 “70年代의 韓國과 強大國들” 이라는 주제하에 美·日·蘇·中共등 4大強國과의 새로운 關係를 정립하는 方法과 展望에 對해 討論을 하였음.

* 慶南大學은 박종규 警護室長이 設立한 大學으로 이 會議에 韓國으로부터는 장위돈 特別補佐官과 박봉식 教授와 손재석 教授등이 派遣되었음.

다. 本 「심포지움」 內容은 韓國과 強大國들과의 關係에 對해서 다음과 같은 觀點에서 考察하고 問題點을 提示하고 있다고 分析됨.

1) 美·蘇 兩極體制에서 4 強의 支配時代로 前後 世界를 支配해온 美·蘇의 兩極 體制가 끝나고 世界權力政治가 다원화됨에 따라 1970 年代 있어서 世界秩序를 支配하는 것은 「내쇼널·인테레스트」에 立脚한 強大國(美, 中, 蘇, 日) 이다라는 觀點에서 國勢情勢全般과 韓半島의 주변 情勢를 分析하고 있음.

2) 韓半島가 처한 特殊性

世界 4 強에 의한 勢力均衡이 이루어진 가운데 特別히 韓半島는 4 強의 利害와 勢力이 接合하여 勢力均衡을 이루는 地帶地域이 되고 있으므로 世界 어느나라보다도 4 強의 복합적인 關係의 強力한 影響하에 놓여 있다.

3) 韓·美關係의 變質

종래 美國의 對韓政策은 韓·美兩國의 “特殊한 關係”와 美國의 거의 단독적인 中·日을 意識하지 않는 立案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오늘의 韓·美關係에는 實質적인 要素(美·中·日·中關係)가 介入되어 傳統的인 韓·美關係의 維持가 困難하다. 特別히 中共이 韓半島에 미치는 影響은 급증하고 있다.

4) 韓國의 對共產圈 接近의 불가피성과 한계성

가) 最近 北韓은 종래의 外交的인 高립에서 脫皮하기 爲해 對西邦接近을 積極 시도하고 있음으로 韓國이 蘇聯과 中共을 비롯한 共產諸國과의 화해공작을 展開하지 않으면 外交的인 高립을 面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現在 韓國의 대중, 대소關係 摸索과 北韓의 對日, 對美關係 展開는 경쟁關係에 놓여 있다.

나) 그러나 蘇聯이나 中共이 北韓과의 紐帶를 훼손하면서까지 韓國과의 關係改善을 擴大하려고 하지 않을 것임으로 여기에 韓國의 對蘇, 對中 關係改善의 限界가 存在한다.

5) 兩韓의 고정화 可能性

가) 外的인 要因

現在 進行中인 南北의 對話에 對해 現상고정화를 바라는 立場에서 4強은 모두 肯定的인 態度를 갖고 있다. 특히 中共은 다음과 같은 理由에서 南北對話를 歡迎하고 있다.

- 南北對話가 韓半島를 現상고정화 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다.
- 日本의 對韓國進出과 軍事的인 膨창을 警戒하고 있다.
- 南北對話가 進展되어 平和條約이 締結되는 境遇 中共은 駐韓美軍에 對한 安保上의 우려를 緩和할 수가 있다.

나) 內的인 要因

南·北韓 雙方은 南北對話에서 자기 利益을 보고 있다.

- 韓國 - 北韓으로 부터의 戰爭 抑制과 緊張緩和
- 北韓 - 國家로서의 認定과 國際社會 進出

3. 評 価 (韓國에 미치는 影響)

가. 美·蘇 兩極體制의 종언과 世界 權力政治의 다원화와 4強에 의한 勢力均衡이 成立됨에 따라 美國과 蘇聯이 世界權力 政治에 주는 影響力은 減少되고 있는 것으로 評價됨.

나. 韓國周邊의 客觀的인 情勢는 韓·美 兩國의 " 特殊한 關係 "에 變質을 가져오도록 強要하고 있으며 따라서 冷戰時代下에서 樹立되고 對美 일면도 지향적인 韓國의 對外政策에 일대 修正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에 놓여있다고 判斷됨.

다. 그러므로 韓國의 對外政策은 美國과의 傳統的인 紐帶關係를 繼續維持하면서 中共과 蘇聯, 日本을 意識하는 方向에서 樹立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놓여있음.

라. 中共과 蘇聯을 비롯한 비적성共產國家와의 關係改善에는 많은 제약이

수반되며 韓國이 보내는 청신호에 이들 國家가 즉각 호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北韓의 對日, 對美接近을 激怒할 정도로 과감하고 신속한 接近이 始圖되어야 할 것으로 判斷됨.

마. 1970年代에 있어서 世界秩序를 支配하는 것은 4強이며 또 이들 4強의 對外政策을 左右하는 格率은 자국의 利益추구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現實主義인 점으로 보아 韓·美 兩國의 "特殊한 關係"가 繼續 維持되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評價됨.

韓國統一會談 膠着

<內容要約>

1. 南·北韓間의 統一會談이 진퇴양난에 봉착한 듯하다.
2. 會談은 北韓으로 하여금 國際的 武法者의 낙인을 벗고 그들의 國際的인 立場을 높여 주는에 기여했다.
3. 그러나 지금 會談은 北韓이 「유엔」軍 司令部와 美軍을 撤退시키려는 그들의 努力에 대한 國際的 지지획득을 피함으로써 後退해 있는 것 같다.
4. 最近 3.16日 會議에서 兩側은 共同聲明이나 제회합의 날자에 合意를 보지 못하였다.
5. 적십자會談도 같은 政治的 要因 때문에 進展되지 않고 있다.
6. 兩側은 다같이 緊張緩和을 主張하면서 關係改善을 바라고 있다.
가. 北韓側은 緊張緩和에 의해 軍事力 維持를 爲한 資源을 내핍된 生活水準의 向上에 전용하길 바란다.
- 나. 大韓民國은 60年代의 괄목할 經濟成長을 持續시키고자 한다.
7. 그러나 어떻게 關係를 改善하느냐하는 方法이 問題이다.
8. 北韓側은 美軍撤収, 相互 10萬으로의 減軍, 武器收入禁止, 平和條約의 조인등에 의해 "相互 信賴와 團結의 霧圀氣"를 造成하는 것만이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 政治的統一의 전제가 된다고 主張한다.

9. 그러나 韓國國民들은 共產主義者들의 意圖를 充分히 認識하고 있다. 그래서 韓國側은 經濟的, 文化的, 社会的分野의 조그만 일들이 우선 成就 돼야 하며 軍事的 協商을 爲해서는 充分한 信賴가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고 主張한다.
10. 南北會談에 對한 兩側의 動機는 아주 비슷한 네가 있다. 즉 兩側은 다같이 그들에 對한 強大國들의 支援이 弱화된 事實을 補完하기 爲해서 緊張緩和를 追求했던 것이다.
11. 北韓의 提議는 1954年 中共이 "의용軍"의 撤收를 通告한 때부터 나타나기 始作했으며 그때부터 北韓은 南韓美軍의 撤收를 劃策해왔다. 이후 北韓側의 政策은 中共이나 蘇聯의 支援에 對한 評價에 따라 또 南韓側의 態度에 따라 變動을 經어왔으며 60年代 後半에는 對南 「게리라」活動을 試圖했었다.
12. 「닉슨」 「독트린」에 따라 美國은 駐韓美軍 水準을 6萬으로 減縮하는 計劃을 成案했고 이러한 狀況에서 朴大統領은 1970年 8月 北韓側에 緊張緩和를 提議했다. 1971年 7月 「닉슨」의 中共訪問發表가 나오면서 韓國側은 具體的인 赤十字會談을 提議했었다.
13. 南北韓間에는 政府間 直接協商을 誘導하여 1972. 11. 14 일에는 南北調節委員會가 成立됐다.
14. 南韓側 共同委員長은 朴大統領이 信任하는 側近이며 中央情報部長인 李厚絡씨다. 南韓側 赤十字會談 代表團長은 李厚絡氏의 指示를 받는 職業 外交官 이범석씨다.
15. 北韓側 共同委員長은 理論上 金日成의 동생 金英주다. 그러나 金英주는 予備會談이래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朴正淸부수상이 代신하고 있다.
16. 金英주의 不參席은 現時點에서는 解答할 수 없는 重要한 問題를 提起 하고 있다.
17. 精通한 南韓소식통에 의하면 그는 病中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른 소식 통은 그가 넓은 經驗이 없으며 予備會談에서 李厚絡씨를 相對하기에는

充分히 強力한 協商者가 못되기 때문에 後退했다고 한다.

18. 사람들은 金日成이가 김영주를 그의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生覺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 金日成의 절대적 支配下에 있는 北韓의 權力關係는 너무 複雜하기 때문에 김영주의 安이한 權力繼承을 確認할 수는 없다.

<分析 및 評價>

1. 南·北韓 兩側은 強大国支援이 弱화된 外部的 狀況과 經濟的 内部要因을 되차가 南北會談을 通하여 緊張緩和를 追求하려는 共通된 動機를 가지고 있음.
2. 그러나 最近의 膠着狀態는 緊張緩和方法의 相異라는 表面的 事實보다는 根本的으로 北韓이 이러한 南北對話를 그들의 國際的 立場改善에 利用하려는 態서 起因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3. 한편 最近의 南·北會談 膠着狀態와 關聯해서 나타나고 있는 김영주 北韓側 共同委員長의 不參에 對한 觀測들은 會談에 對한 韓國側의 主導權을 對外的으로 잘 認識시켜 주는 것으로 評價됨.
4. 앞으로 南北會談은 會談이 가져 올 對內的, 對外的 效果를 意識하는 兩側의 立場에 따라 進展의 速度가 決定될 것이나 雙方이 南, 北會談에 對한 必要性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有利點을 共有하는 한 繼續될 것으로 展望됨.

韓國統一展望은 밝다.

<內容要約>

1. 最近 韓·獨學者들의 「세미나」에서는 韓國의 再統一展望은 西獨보다 더 밝다는데 意見을 모았다.

2. 韓國側을 代表하는 김연수博士는 韓·獨間에는 統一의 方法에 있어서 若干의 差異가 있으나 韓國의 統一展望이 獨逸보다는 밝다는데 意見이 一致했다고 말했다.
3. 그는 西獨사람들이 獨逸을 再統一할 必要가 없다고 까지 말하더라도 하면서 이것은 西獨人들이 獨逸의 統一展望에 대해서 비관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4. 그러나 金博士는 “한나라의 分斷은 非正常的인 政治狀況”이기 때문에 두 獨逸도 어떤 方法으로든지 再統一해야 한다고 말했다.

<分析 및 評價>

1. 西獨政府의 財政支援으로 지난 4.9 - 13日間에 西獨 「킬」市에서 開催된 이 「세미나」에는 韓國學者 13名과 西獨學者 14名이 參席하여 分斷國 問題들을 廣範하게 討議했음.
2. 西獨과 韓國의 政策은 다같이 緊張緩和를 追求하고 있는 點에서는 一致하나 西獨이 政治的 接觸段階에서 東·西獨 두개의 國家概念을 現實的으로 認定하고 關係改善을 推進하고 있는 點과 韓國이 非政治的인 接觸에서 政治的 接觸에로의 段階的 接近을 試圖하고 있는 點에는 方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分析됨.
3. 그러나 西獨이 韓國보다는 唯一한 立場 (즉 軍事的 衝突可能性의 稀薄, 西獨의 強力한 經濟力, 오랜接觸을 통한 不信除去)에서 緊張緩和를 進展시키고 있긴 하지만 東·西獨間 現狀固定을 더욱 견고화시킨 結果로 再統一의 展望은 더욱 悲觀的인 것으로 評價됨.
4. 東·西獨間의 接觸經驗은 우리에게 善 教訓을 주는 것이나 窮極的으로 緊張緩和 - 現狀固定 - 統一沮害의 公式 (1民族 2國家概念)을 打開하는 共存關係의 平和的 克服方法이 問題될 것으로 判斷됨.

南北韓의 對話의 現實과 國際潮流

1. 韓國에서는 最近 朴大統領의 側近이었던 윤필용首都警備司令官을 비롯한 軍幹部들이 捲연 채포되어 軍法會議에서 懲役刑을 언도받은 事件이 일어났다.
2. 이것은 強權發動과 憲法改正을 위하여 野黨無刀化, 學生運動抑壓, 言論統制에 成功한 朴政權의 權刀中樞에서 일어난 事件이라는에서 그 影響이 深刻하다.
3. 이 事件과는 別途지만 南北調節委員會와 赤十字會談의 對話분위기가 急速히 冷却한 樣相을 보이고 있고 今秋 「유엔」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를 겨냥한 南, 北間의 外交戰爭이 激化하는등 韓半島에 注目할만한 事態가 일고 있다.
4. 韓國과 北韓은 昨年 7月4日 自主的, 平和統一을 다짐한 共同聲明을 發表한 이래 南·北間 對話「무-드」가 一時 高潮되었다가 最近 軍事境界線에 發砲事件이 繼續 일어나고 雙方間 非難이 激化되어 南北間에 다시 차가운 空氣가 흐르게 되었다.
5. 이러한 분위기는 3月 第2次 南北調節委員會會談에 反映되었다. 北韓側은 軍備縮小, 外國軍隊撤収, 平和協定締結등 從來의 主張을 反復한데 反해 韓國側은 間諜事件, 發砲事件등의 問題를 提起하고 北의 主張을 거부 會談은 成果없이 끝났다.
6. 赤十字會談은 北韓側이 第1 議題인 “離散家族의 住所, 生死確認”을 實行하는 前提로 韓國의 法律的, 社會的障礙를 除去해야 한다는 難題를 提出함으로써 合意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7. 이러한 會談이 具體的인 問題의 討議로 갈수록 體制의 相異에서 유래하는 對立과 分斷以來의 뿌리깊은 相互不信感情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南北對話의 現實的 어려움을 反映해 주는 것이겠다.
8. 平和統一의 目標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이후 長期間에 걸쳐 忍耐있는

對話가 계속됨으로써 相互 理解와 信賴를 깊이하는것 以外에는 希望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9. 南北이 同時에 憲法을 改正하고 各己 體制를 強化한 以後로도 對話가 破壞되지 않고 계속된 것은 南·北間에 平和共存의 狀態가 確立된 것을 意味한다.
10.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情勢는 急速한 進展을 보여주고 있다. 그 顯著한 表現은 最近 「잠비아」, 「스웨덴」, 「핀란드」, 「이란」이 北韓과의 外交關係를 樹立한것과 「말레시아」가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등이다. 지난달 18일에는 國際議員聯盟 (IPU) 이 北韓의 加入을 承認했다.
11. 이러한 움직임은 國際적으로 南·北韓에게 대등한 立場에서 對話를 할 수 있는 機會를 줌으로서 韓半島의 平和와 統一에 貢獻하려고 하는 世界의 良識을 보여주는 것이다.
12. 여기서 注目되는 것은 「노르웨이」, 「이란」등이 韓國을 承認하면서도 北韓과의 外交關係樹立을 계속하는 國家에 對해서 韓國이 斷交의 措置를 取하지 않고 있는 點이다. 이렇게 韓國自身도 國際的인 潮流를 거부하지 않으려는 意圖를 보여주고 있다.
13. 우리 日本의 南北韓에 對한 態度는 改善의 方向에 있다고는 하나 한마디로 韓國偏重이다. 「제네바」에서 開催中인 世界保健機構 (WHO) 總會에서 北韓加入保留案에 加担한 것은 그것을 잘 表現한다. 過去의 事情으로 볼때 韓國의 要請에 만 귀를 기울이고 北韓無視를 계속한다는 것은 결코 韓半島의 平和에 貢獻하는 것이 못된다.

<分析 및 評價>

1. 最近 南·北對話가 부침을 거듭하고 있지만 兩側이 다같이 對話를 拋棄하지 않고 있는 점은 南·北間 平和共存關係가 現實的인 基盤을 築見하고 있다는 것을 反映하는 것임.

2. 韓半島를 둘러싼 最近 國際情勢의 推移는 南·北韓을 國際적으로 同等시 하려는 傾向으로 發展하고 있으며 (北韓承認國의 增加, 北韓의 國際機構加入問題提起等) 이러한 傾向에 힘입어 北韓은 相對적으로 國際的 立場은 強化한 것으로 分析됨.
3. 日本이 WHO 總會에서 北韓加入 保留案에 加担한 事實에서 유추하면 日本의 對韓半島 등거리外交 方式은 國際적으로 韓國의 立場을 承認내지 支援하면서 北韓과는 非政治的交涉을 통한 實利外交 (經濟的進出) 를 꾀하는 方向에서 適用되고 있는 것으로 分析됨.
4. 北韓의 戰略은 南·北對話를 利用- 韓國問題의 國際化- 두 韓國의 公認獲得- 北韓의 相對的 立場強化로 解析되며 이것은 窮極적으로 韓半島의 現狀固定을 招來하는 것으로 評價됨.

韓國, 南北會談內容을 世界各國에 公布

1. 內容全文

- 가. 國際적인 緊張緩和를 背景으로 昨年여름 始作된 韓半島의 南北對話는 膠着狀態에 들어가 韓國政府는 最近 "南北對話는 왜 進展하지 않는가" 라는 題下의 弘報를 世界各國에 配布하기로 했다.
- 나. 同 弘報의 特徵은 非公開로 行해진 合計 8日間에 걸친 南北調節委員會, 赤十字會談에 있어서의 北韓側의 主張을 있는 그대로 公布하고 對話의 進前을 妨害하는 非現實적인 主張을 되풀이하고 있는 北韓側에 責任이 있다는 것을 強하게 호소하고 있는 점이다.
- 다. 韓國이 이와같은 激烈한 非難을 하는 裏面에는 對話의 中斷도 不辭한다는 強한 決意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北韓의 態度如何에 따라서는 南北의 對話는 重大한 局面을 맞게될 것이다.
- 라. 同 弘報는 4章으로 되어있으며 2萬語를 넘는 방대한 것이다.
- 마. 世界保健機構 加入이 상징되는 바와같이 北韓의 맹렬한 추적에 초조감을 더해가고 있는 韓國으로서는 南北對話에 있어서의 北韓의 "不

誠實한 態度"를 世界에 公布하여 北韓에 對한 「이미지」格下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弘報에 의하면 調節委員會에 있어서의 北韓側의 提議는 時종일 政治, 軍事的인 것에 限定되어 있다. 具體的으로는

- 1) 軍備競爭의 中止
- 2) 雙方의 軍隊를 數10萬 削減한다.
- 3) 外國으로부터의 武器搬入을 禁止한다.
- 4) 外國軍隊의 撤収
- 5) 이 모든 것을 解決한후 平和條約을 締結한다.

등의 5個項目이며 北韓側은 이와같은 懸案問題를 解決함으로써 일거에 統一을 達成하여야 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사. 한편 赤十字會談에서도 北韓側은 政治戰略에 立脚한 提案만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北韓側은 對話進展의 大前提로서 韓國에 要求하고 있는 것은 "韓國의 政治的, 社會的 障害의 除去"이다.

아. 弘報에서 이와같은 北韓側의 要求는 韓國의 國家保安法, 教育體制 등의 철폐를 目的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解釋하고 있다. 따라서 離散 家族찾기方法에 대해서 北韓은 市, 邑, 村單位로 合計 3萬人을 上廻하는 北韓側 派遣의 "赤十字委員"을 두자고 韓國側에 要求하고 있다. 이 要求에 의하면 市, 邑, 村에 派遣되는 委員은 自由로운 政治 活動이 可能한 것으로 되어있다.

자. 北韓側이 對話의 席上에서 이와같은 政治, 軍事우선의 提議를 要求하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소식통에 의해 斷片的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韓國政府가 公式的으로 밝힌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 韓國은 이와같은 요구에 대해서 人爲的인 判斷에 의해서 만야기된 不信과 誤解를 解消하는 것이 先決問題이며 이를 위해 「스포츠」, 文化, 經濟交流 등 非政治的인 것부터 쌓아올리는 것이 緊要하다고 反論을 하고 있다.

카. 이와같은 것을 基礎로 해서 弘報는 北韓側이 軍事削減, 平和協定の 締結 등 일견 그럴듯한 提案을 하고 있는 것은 政治宣傳以外的 아무 것도 아닌 것이라고 못밖고 있다.

- 타. 韓國은 北韓이 의연하게 "赤化統一"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것은 最近에 와서도 繼續해서 武裝「게릴라」를 浸透시키고 있는 事實을 보아도 明白하다고 主張하고 있다.
- 파. 따라서 韓國은 北韓이 實際에 있어서 對話가 이 以上 進前하지 않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判斷하고 있다.
- 하. 北韓이 이와같은 非現實的인 提案을 要求하는한 韓國으로는 "對話를 再檢討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 對話의 중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강한 어조로 北韓의 기만성을 非難하고 있다.

2. 分析 및 評價

- 가. 北韓은 지난 3월에 있었던 南北調節委 第2次 會談에서 韓國側의 단계적인 統一方案 提示에 반하여 軍縮, 平和協定締結등 實現 불가능한 統一方案을 提議하여 南北對話를 膠着狀態에 몰아 넣은 바 있음.
- 나. 이렇듯 北韓은 南北對話를 膠着狀態에 몰아 넣음과 同時에 對外的으로는 積極的인 外交攻勢를 展開하여 北韓 支持 勢力 確保에 總力을 집중하는 한편 世界의 저명한 일간지에 北韓의 發展相과 金日成을 찬양하는 廣告를 展開하여 지위선양을 획책하고 있음.
- 1) 73.4.11일자 英國의 「타임즈」紙에 8「페이지」에 달하는 北韓 特輯을 게재하고 北韓의 發展相과 金日成의 「프로필」을 소개
 - 2) 73.5.4 「요미우리」新聞 2面하단에 "이것이 주체사상이다"라는 부제하에 "金日成 담화집"을 5단 광고로 소개함.
- 다. 最近 北韓의 對南 非難 宣傳에서 나타난 特徵은 南北對話의 정체의 責任을 韓國政府에 전가하고 있다는 점과 大韓民國 指導層에 대한 지명공격을 가열시키고 있다는 점임.
- 라. 우리 政府의 이번 措置는 最近 北韓이 展開한 對外公勢가 北韓의 國際的 지위향상(世界保健機構 加入等)에 어느 程度 主효하고 있다는 判斷下에 北韓의 平和攻勢의 本質을 世界各國에 주지시켜 北韓의 對外公勢를 봉쇄하기 爲한 것으로 判斷됨.

다. 南北韓의 對外活動

北韓을 圍繞한 國際關係의 進展

1. 內容要約

- 가. 「스웨덴」, 「덴마크」 兩國은 4.6 西方國家로서는 처음으로 北韓과 外交關係를 樹立한다고 發表하였다.
- 나. 여기에 이어 北歐 3 國도 일제히 이에 同調할 姿勢를 보이고 있다. 다. 韓半島와 近距離에 있는 日本은 韓國 일본도의 外交政策을 취해 왔으나 이번을 機會로 새로운 韓半島政策을 樹立하지 않으면 안될 時期가 到來하였다.
- 다. 「스웨덴」政府의 發表에 의하면 당분간 平壤에 大使館을 設置하지 않고 現駐 中共大使 「아르네·보에른베르히」씨가 兼任으로 初代 駐北韓 大使가 되며 또 同氏가 駐韓國 大使를 兼任한다고 한다.
- 라. 종래 駐韓國 大使는 駐日 大使가 兼任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駐中共 大使 한 사람이 兩·北韓의 大使를 兼任하게 되었다.
- 바. 3.30 北歐諸國外相會議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하여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5 國이 北韓과 外交關係를 樹立하기로 原則적인 合意에 到達하였다고 한다.

2. 分 析

- 가. 北歐諸國의 北韓承認에의 움직임은 美·中, 美·蘇會談, 越南戰의 和平日·中國交正常化등의 世界情勢의 變化에 따르는 것이지만 이번 가을의 「유엔」總會를 對比하여 北韓이 北歐諸國 外相會議開催直前に 代表團을 派遣하는등 積極적인 外交政策을 展開한 成果인 것으로 分析됨.

나. 작년 「유엔」總會 本會議에서 「韓國問題討議의 一年延長」案이, 中共의 「유엔」加入後의 狀況下임에도 불구하고 찬성 70, 反對 35, 기권 21이라는 大差로 北韓의 國際舞台進出이 封鎖되었으므로 北韓은 最近의 親西方國家를 包含하는 亞細亞, 「아프리카」, 「유럽」등에 大規模的인 使節團을 派遣하여 外交活動을 強化하였음.

다. 現在 兩·北韓에 대한 承認關係를 보면

- 韓國承認國 : 86
- 北韓承認國 : 50
- 二重 兩·北韓 雙方과 關係를 맺고 있는 나라 : 18

라. 特히 注目視되는 것은 5.8 「제네바」에서 開催되는 世界保健機構 (WHO) 總會이며 同 機構는 國聯의 下部機構로서 여기에 加入하면 國聯의 常駐「옵서버」가 되는 資格을 획득할 수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 北韓은 바로 이 점을 노려 4.7 同機構에 「正式」加盟申請을 하였음.

마. 「스웨덴」政府가 駐中共大使로 하여금 兩·北韓 駐在 大使를 兼任 하도록 하려는 것은 兩·北韓에 대하여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 等距離外交를 展開함과 동시에 兩·北韓의 對話와 緊張緩和를 促進케 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으로 分析됨.

3. 評 価

가. 「스웨덴」, 「핀란드」 兩國이 西方國家로서는 처음으로 北韓과 國交關係를 樹立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突破口로 하여 多數의 西方國家가 이 兩國의 뒤를 따르게 될 것으로 推測됨.

나. 또한 「스웨덴」政府가 駐中共大使로 하여금 兩·北韓 駐在 大使를 兼任시키게 되는 경우 이는 두개의 韓國을 認定하는 國際的인 先例를 만들어 주는 結果가 될 것으로 評價됨.

다. 「스웨덴」, 「핀란드」의 뒤를 따라 北韓 承認函이 增加하면 世界 保健機構總會에서의 北韓加入 討議의 表決은 豫測을 불허하며 만약 北韓支持票가 過半數를 차지하여 北韓의 同機構加入이 採択되는 境遇 國聯에서의 北韓의 立場이 有利하게 될 것임은 明白하다 (매일신문 4.9 日字 社說)

라. 北韓의 國際的 地位向上과 더불어 차기 「유엔」總會에서 東·西獨의 同時加入이 實現될지도 모른다는 情勢變化를 감안하여 불매 韓國의 對「유엔」戰略이 昨年처럼 현저한 차이로서 成功을 거두기는 困難할 것으로 展望됨.

마. 또한 日本의 有力紙들이 (「마이니찌」, 「요미우리」) 北歐諸國의 北韓承認 決定과 關聯하여 韓國一辺倒의 日本의 外交政策에 反省을 促求하고 北韓에 對한 政策을 再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는 것은 日本內에 北韓을 承認해야 한다는 一部 輿論을 喚起시키려는 底意를 갖고 있는 것으로 評衡됨.

(73.4.8 「요미우리」신문)

北韓, 英國「타임스」紙에 大廣告 揭載

1. 內容要約

가. 73.4.11 日字 英國의 「타임스」紙는 “廣告”라고 明記하고 8 페이지에 달하는 “北韓특집”을 揭載하였다.

나. 北韓을 紹介하는 廣告가 「타임스」紙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記事와 寫眞을 滿載한 8 페이지의 大廣告가 登場한 일은 前例가 없으며 더욱이 4.11 日字의 紙面에 揭載된 것은 “第1部”로 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第2部”의 揭載도 約束되어 있어 「런던」의 外交消息通聞에는 화제가 되어있다.

다. “第1部”는 “千里馬·「코리아」”라는 題下로 되어 있으며 第1

페이지에서는 우선 北韓이 “日本帝國主義” “美帝國主義”와 싸워
끝내 진정한 “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을 建設하였다는 歷史를 傳하
고 있다.

라. 第2次 페이지에서는 “金日成”의 「프로필」을 紹介하고 第3페이
지以下는 北韓의 産業界의 發展을 傳하는 記事와 사진으로 채워져
있다.

2. 分析 및 評價

가. 이번 北韓이 「타임스」紙에 廣告를 掲載한 것은, 北韓承認國이 增
加하고 있는 余勢를 몰아 英國과의 關係改善을 도모하여 금년 가
을에 開催되는 「유엔」總회에 北韓을 招請하게 만들려는 구체적인
조치의 하나라고 分析됨.

나. 北韓이 廣告掲載를 택한 時점이 「스웨덴」, 「핀란드」의 北韓承認
으로 두 國의 韓國을 認定하려는 國際적인 움직임이 고조되고 中
共이 최초로 參加하는 「에카페」總회가 막 開催되려는 戰略적인
時点を 노렸다는 點에서 注目視됨.

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WHO 總회의 開催를 目前에 두고 이미 加入申請
을 해놓은 WHO 加入을 成就시키기 위해서 英國, 北韓과의 關係正常
화의 時期가 도래하였다는 世論을 喚起시켜 英國政府의 對北韓政策
에 修正을 가하도록 만들려는데 目的이 있다고 判斷됨.

라. 北韓이 英國의 「타임스」紙를 택한 것은

- (1) 英國이 國際紛争의 調整役으로서의 影響力이 큼을 考慮하여 「유
엔」總회에서 英國의 向背에 좌우되는 “韓國問題討議 延長案” 支持
國을 瓦解시키며
- (2) 英國의 “타임스”가 英國內의 指導層, 「인테리」層뿐만 아니라 世
界的으로 影響力이 큰 有力紙이기 때문이라고 判斷됨.

마. 英國의 "타임스"社가 北韓의 廣告掲載을 受諾한 것은 廣告料取得에 있는듯 하나, 亞細亞諸國과의 親善을 도모하려는 英國政府의 意思도 反映되어 있는 것으로 評價됨. (73.4.11 「아사히」신문)

北韓의 「유엔」歐洲本部 「옵서버」資格 承認

<內 容>

1. 北韓이 「제네바」 「유엔」事務所(「유엔」九州本部)에 「옵서버」를 派遣할 資格이 認定됐다.
2. 北韓은 지난달 「제네바」에 있는 「유엔」傘下 世界保健機構의 會員 資格을 獲得함으로써 「옵서버」를 派遣할 資格을 갖게 됐다.
3. 韓國은 「뉴욕」에 代表部를 둘 수 있는 「유엔」 「옵서버」資格을 數年동안 누려오고 있다.
4. 北韓의 「옵서버」資格은 「유엔」九州本部에 限定된 것이며 이로써 北韓은 「제네바」에만 代表團을 設置할 수 있는 最初의 「유엔」 「옵서버」가 됐다.

<分析 및 評價>

1. 지난 5.17일 北韓의 世界保健機構加入이 決定되자 北韓外相 許談은 5.28일 「유엔」歐洲本部 事務局長에게 書翰을 보내 「유엔」歐洲本部, 常駐「옵서버」代表部 設置 의향을 밝히고 協力을 要請하였으며 5.30일(同) 事務局長이 協力을 約束한 回信을 보내고 6.1일 대변인을 통해 常駐「옵서버」 設置資格이 確認되었음.
2. 이로서 北韓은 韓國, 瑞西, 東獨, 西獨, 「로마」教皇庁, 越南, 「산.마리노」등과 더불어 「제네바」 「유엔」歐洲本部에 代表部를 設置하는

「음서버」가 된 셈이며, 北韓이 앞으로 또 「뉴욕」駐在 代表部 設置를 申請할 境遇 「유엔」事務總長 裁량으로 許可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뉴욕」代表部 設置도 다만 時間問題로만 남아있게 되었음.

3. 北韓이 「제네바」 「유엔」구주 본부에 먼저 「음서버」代表部 設置를 希望한 것은 「제네바」에 있는 世界保健機構에 加入된 有利한 분위기와 또 「제네바」에는 많은 國際機構가 位置하고 있다는 事實을 考慮한 때문이며 우선 서둘러서 國際舞臺에 登場하고 싶은 熱望이 크게 作用한 것으로 보임.
4. 이렇듯 北韓이 積極的인 「유엔」進出로 「유엔」에서 韓國과 同等한 地位를 達成하고 있는 事實과 「유엔」會員國家들의 分斷國 現實인정 추세에 비추어 韓國의 對「유엔」政策도 事情에 따라 現實化할 段階에 왔다고 判斷됨. (73.6.2. 「와신톤·포스트」)

世界保健機構 北韓加入 分析評價報告

1. 5月17日 第26次 世界保健機構는 共產側이 提案한 北韓의 世界保健機構 加入案을
찬 성 - 66 표
반 대 - 41 표
기 권 - 21 표
로 可決시켰다.
2. 이로서 北韓은 公式的으로 「유엔」傘下機關에 처음으로 加入하게 되었다.
3. 世界保健機構 年例總會는 韓國을 비롯한 美·日本 및 友邦 27個國이 提案한 北韓 加入 申請 심의 1年 延長率
찬 성 - 52 표

반 대 - 59 표

기 권 - 18 표

로 否決시켰다.

4. 이에 앞서 蘇聯은 北韓 加入 延期案의 投票를 秘密投票로 할것을 提議

찬 성 - 55 표

반 대 - 45 표

기 권 - 23 표

로 可決 共産側이 有利하도록 得票를 하였다.

<分析 및 評價>

1. 世界保健機構 131 個會員國들은 蘇聯과 中共을 비롯한 共産側이 亞阿 諸國 34 個國이 提出한 北韓 加入案을 單純過半数 通過制로 可決시킨 것임.
 - 다른 「유엔」機構는 新規加入에 있어서 3 分の 2 의 贊成으로 決定하 나 이 機構는 과반수로 通過시키도록 되어있음.
2. 現在 世界保健機構 加盟國은 137 個國인데 北韓이 138 번째로 東獨에 이어 加入할 資格을 얻게된 것임.
3. 北韓 加入案이 매년 共産側 提案에 의하여 上程되어 否決되었으나 이 번에 北韓 加入案이 通過된 動機는
 - 蘇聯이 提案한 秘密投票
(中立國들이 눈치보고 投票하다가 마음대로 投票可能했음)
 - 得票를 위하여 共産側이 投票遲延 作戰
 - 國際緊張緩和 - 和解「무드」
 - 分斷國 東西獨 加入
 - 北韓의 積極的인 加入 努力등으로 分析됨.

4. 韓國과 美·日 및 日本을 위시한 友邦國들은 現時點에서 北韓을 加入시킨다는 것은 南北對話를 危殆롭게 한다고 警告하고 反對한바 있었다.
5. 「유엔」의 業務構造上 北韓이 「유엔」本部에 大使級의 代表部를 設置할 資格을 얻는 것으로 今年 「유엔」總會에서 南北韓 同時 招請案이 有利한 立場에 處하게 될것으로 보임.
 - 東獨이 昨年에 「유엔」에 代表部를 設置하게된 動機도 「유엔」傘下 機構인 「유네스코」에 加入된 것에 기인했음.
6. 世界保健機構는 人間의 健康과 衛生을 取扱하는 人道的이며 社會福祉 向上을 위한 機構로서 政治的인 機關이 아니라는 것을 強調하여 今年 「유엔」에 南北韓 同時 招請 抑制 努力을 계속 견지, 적극 外交活動을 展開하여 나가야 할것으로 判斷됨 (73. 5. 18)

3. 國際情勢 月間 綜合情勢

가. 5月

1) 4 大 国 関 係

国家 關係	基 本 關 係	立 場	現 況 및 變 化
对 蘇 關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和 解 ○ 平和共存 ○ 通商關係改善 	<p>美 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追求 ○ 貿易增進으로 國際 收支 均衡維持 ○ 國際政治 主導權 掌握 <p>蘇 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共存 ○ 經濟建設을 위한 技 術資本의 必要 ○ 中·蘇紛争으로 인한 美国과의 協助 必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蘇共同声明으로 關係改善 ○ 通商協定締結 (72.10) 美国으로 부터 5 億弗 米穀輸入 ○ 숄츠財務長官 訪蘇 (73.3.11 - 16) 貿易擴大에 對한 討議 ○ 貿易量 急增 71 - 2 億弗 72 - 5 億弗 ○ 브레즈네프의 訪美 (6月 予定) 懸案問題: SALT C S C E M B F R 貿易擴大 ○ 展 望 美国의 最惠國 待遇 予想

國家關係	基本關係	立場	現況 및 變化
美 中 關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緊張緩和 ○ 關係正常化 ○ 上海共同聲明 (平和5原則) ○ 두개의 中國 	<p>美 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越南終戰 ○ 蘇聯에 대한 牽制 勢力 ○ 아시아問題에 대한 中共과의 協助 必要 ○ 經濟的 浸透 <p>中 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의 威脅牽制 ○ 強大國으로서 世界 問題에 參與하려는 열망 ○ 美國의 資本, 技術 導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中接近의 急進展 ○ 連絡事務所 設置 (事實上 國交樹立) ○ 相互交流의 增加 ○ 周恩來 美國訪問 予定 (금년 가을) ○ 展 望 台灣問題에 대해서는 양측이 留保하는 狀態 에서 通商, 經濟關係 改善이 이루어질 것임
美 日 關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의 核保護 ○ 外交的 協助 ○ 經濟的 協力 	<p>美 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에게 아시아의 美國役割 代役期待 ○ 輸出逆調 是正 <p>日 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의 核保護下 安全保障 ○ 再武裝의 必要 ○ 對美經濟關係의 持 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장 강화 ○ 日本의 對美不信점증 1971.8 달러방위 조치 1972.2 닉슨 쇼크 ○ 日本對美從屬 外交에 서 脫皮 ○ 美國의 對日本 貿易 逆調 1971 - 32 億 1972 - 40 億

國家關係	基本關係	立場	現況 및 變化
		蘇聯 ○ 蘇聯主導下의 共產化 推進	○ 展望 經濟的 競爭關係 發展 (貿易戰爭)
中 蘇 關 係	○ 中·蘇防衛 同盟存統 (50.2) ○ 世界共產化	蘇聯 ○ 蘇聯主導下의 共產化 推進 ○ 核武器의 独占 ○ 對中共 封鎖 中共 ○ 共產圈內 hegemony에 挑戰 ○ 核武器의 開發 ○ 經濟成長으로 蘇聯에 對抗 ○ 실지회복	○ 理念紛爭 教條, 修正論爭 社會帝國主義 ○ 國境紛爭 ○ 第3國家에 대한 主 導權 競爭 ○ 相互 對美接近 경제 ○ 美·中共接近으로 中 蘇對立激化 ○ 蘇聯, 日·中共接近 경제 ○ 中共, 아시아 安保體 制 構想에 懷疑的 展望 ○ 中·蘇國境紛爭으로 對 立激增
日 中 關 係	○ 북교3원칙에 의한 關係改善	日本 ○ 아시아에서 強大國으로 登場하려는 意圖 ○ 中共威脅의 予防 ○ 經濟的 進出	○ 日·中接近의 急進展 ○ 각서무역 - 政府水準 貿易으로 ○ 貿易量增加 71 - 9億弗 72 - 12億弗

國家關係	基本關係	立場	現況 및 變化
日 中 關係		<p>中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蘇接近 및 經濟提携 牽制 ○ 日本 資本, 技術의 導入 ○ 日本軍國主義化 및 核武裝 牽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大使館新設 駐日 中共 (2. 1) 駐中共 日 (1. 11) ○ 相互交流增加 日·中友好로 代表團 訪日 (73. 4) 周恩來 訪日招請 (予定) <p>展 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은 美國과 競爭的으로 中共과의 關係改善 推進 ○ 中共도 日·蘇關係를 앞질러 對日 接近 拍車
日 蘇 關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和 解 ○ 關係改善 	<p>日 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方領土의 返還 ○ 經濟的 浸透 ○ 近接地域에서 支援 調達 <p>蘇 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베리아開發을 위한 日本 資本, 技術導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條約 締結論議 抬頭 ○ 시베리아 開發 루메니 開發의 契約 原案 蘇聯에 通告 (3. 8) ○ 日本, 蘇聯에 뱅크론 10 億弗 용여

國家關係	基本關係	立場	現況 및 變化
日 蘇 關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中共接近牽制 ○ 現國境線 領土의 承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 年間 4,000 萬噸 原油輸出 ○ 투메니 - 나호드카간 6,500 키로에 파이프관 設置 ○ 日本의 大型交涉團 訪蘇 予定(5.21) ○ 다가까 訪蘇 予定(8月) ○ 中共 '투메니' 油類의 軍事的 利用 警告 <p>展 望</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條約 정립은 어려우나 經濟的 協力은 增大

〈分析 및 評價〉

1. 4 大國들은 각각 다른 3 大國間의 力學關係를 利用 自國에 有利한 勢力 改編
2. 美·蘇兩國體制의 崩壞는 美·蘇의 相對的 影響力 減少, 反面 中共, 日本의 影響力 增大 招來
특히 中共의 影響力 增大는 아시아 諸國에게 他意的 對外政策을 強要할 可能性을 誘發
3. 美·中, 日·中關係의 改善은 中·蘇紛爭을 더욱 激化, 4 大國 勢力均衡關係를 不安하게 하는 要素로 作用
4. 蘇聯은 西歐나 나토勢力과 關係改善으로 中共에 對抗

2) 東西關係

懸案問題	沿革 및 動機	現況, 主張點	展 望												
戰 略 武 器 制 限 會 談	<p>1. 沿 革</p> <p>가. 第 1 期 SALT 開催 (69.11-7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M 시스템에 관 한 條約 ○ 攻擊用 미사일의 制限暫定協定 調印 (닉슨訪問時) <p>나. 戰略兵器的 保有彈 計 現保有 / 改良時</p>	<p>1. 現 況</p> <p>가. 第 2 期 第 1 次 SALT(72.11-12)</p> <p>나. 第 2 期 第 2 次 SALT 開催 (73.3.12)</p> <p>제네바에서 第 6 回 會談開催 (73.3.30)</p> <p>2. 主張點</p> <p>美 國</p> <p>미사일의 質的現狀을 凍結 (MIRV 外 實驗 禁止)</p> <p>蘇 聯</p> <p>現暫定 協定の 永久 化 美軍의 爆擊機 撤去</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레즈네프의 訪問時 對立點 多少 打開予想 ○ 그러나 地下 核實驗과 核潛 水艦開發의 制 限措置가 마련 되지 않고는 核 制限會談의 成果 期待難 												
	<table border="1"> <thead> <tr> <th>國別</th> <th>ICBM</th> <th>SLBM</th> <th>원잠</th> </tr> </thead> <tbody> <tr> <td>美國</td> <td>1,054 / 1,000</td> <td>657 / 710</td> <td>41 / 44</td> </tr> <tr> <td>蘇聯</td> <td>1,618 / 1,408</td> <td>740 / 950</td> <td>56 / 62</td> </tr> </tbody> </table>	國別	ICBM	SLBM	원잠	美國	1,054 / 1,000	657 / 710	41 / 44	蘇聯	1,618 / 1,408	740 / 950	56 / 62		
	國別	ICBM	SLBM	원잠											
	美國	1,054 / 1,000	657 / 710	41 / 44											
蘇聯	1,618 / 1,408	740 / 950	56 / 62												
<p>* 美國 : 質的인 面에서 優勢</p> <p>蘇聯 : 量的인 面에서 優勢</p>															
<p>2. 動 機</p> <p>가. 核軍備의 支出減少</p> <p>나. 核均衡 維持</p> <p>다. 中共의 核開發에 대한 牽制</p>															

懸案 問題	沿革 및 動機	現況 , 主張點	展 望
歐 洲 安 保 會 議	<p>1. 準備會議 開催 가. 日時 : 71.11.22- 12.16 나. 場所 : 핀란드의 헬싱키 다. 參加國 : 유럽 32 (美國, 캐나다 등 34 個國)</p> <p>2. 動機 가. 蘇聯 (今年 6 月 開 催目標) ○ 유럽의 現狀 固 定化 ○ 美軍撤收 ○ 西歐, 美國間의 離間 나. 西方側 ○ 나토의 兵力 減少 ○ 共產圈과의 通商 擴張</p>	<p>1. 現況 73.4.6 제 4 라운드 終了 73.4.25 最終라운드 再開</p> <p>2. 主張點 가. 蘇聯 ○ 歐洲의 安全確立 武力不行使 ○ 通商 및 諸般交 流擴大 나. 西方側 ○ 經濟科學分野의 相互 協力增進 ○ 인사, 情報交流 自由化</p>	<p>○ 蘇聯은 美軍撤 收를 主張 ○ 西方側은 MBFR 과 並行하여 協 商意圖 ○ 그러므로 는 CSCE 과 密 接한 關係를 갖 고 進展될 展望</p>
	<p>1. MBFR 予備會談開催 가. 日時 : 72.1.31 나. 場所 : 오스트리아의 빈</p>	<p>1. 現況 가. 會談, 膠着狀態에 함입 (再開日字未定)</p> <p>2</p>	<p>1. 나토側의 놀웨 이, 덴마크, 이태 리, 희랍, 터키 등 參加予想</p>

懸案 問題	沿 革 및 動 機	現 況, 主 張 點	展 望
相 互 均 衡 減 軍	<p>다. 參加國</p> <p>나토: 美, 英, 西獨, 캐나다, 벨지움, 네델란드, 룩셈 부르크 (7 個國)</p> <p>와르쏘: 蘇聯, 東獨, 헝가리 (5 個國)</p> <p>2. 動 機</p> <p>가. 나 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歐側의 軍事的 壓力減少 ○ 東歐에 대한 蘇聯의 軍事的 支配 體制 打破 ○ 過多한 軍事負擔의 輕減 <p>나. 蘇 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歐洲의 現狀固定 化 ○ 武力 不行使 ○ CSCE를 위한 協商條件 	<p>2. 주장점</p> <p>가. 나토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의 參與를 要求 ○ 地域的 特殊性을 考慮 均衡된 減軍 <p>* 美軍 - 3 千마일 以上으로 後退 蘇聯軍 - 3 百마일 後方으로</p>	<p>2. '와' 側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傭서버로 參加 予想</p> <p>3. '헝가리' 的 參加拒否가 本會 開催의 關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에 蘇聯軍 4 個師 駐屯 <p>4. 蘇聯이 同時均 衡減軍을 受諾하 더라도 適當한 確認 및 監視를 認定하지 않는 한 會談의 實質 的 成果 期待 困難</p>

懸案 問題	沿 革 및 動 機	現 況, 主 張 點	展 望
大 西 洋 憲 章	<p>1. 沿 革</p> <p>73.4.29 키신저補佐官 이 提案</p> <p>가. 主要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緊張緩和政策의 促求 ○ 유럽統合의 繼續的 인 支援 ○ 美軍의 유럽駐屯持 統. 對유럽公約 堅持 ○ 友邦國家들의 利益 尊重 ○ 美國의 利益과 責 任 尊重 ○ 호혜정신에 立脚한 協協調 ○ 共同負擔 ○ 日本의 參與를 尊重 <p>나. 동 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東·西緊張緩和로 인한 西方國家의 해 이를 再結合 2) 蘇聯의 기도에 대 항 美國 - 日本 - 유럽 을 망라한 聯合勢力 을 形成 3) 美國經濟의 沈滯, 國際收支의 만회 	<p>1. 現 況</p> <p>가. 73.5.2 美·獨頂 上會談에서 새大西洋 憲章實現에 原則的 合議</p> <p>나. 西歐主要國 유보적 인 態度</p> <p>2. 主 張 點</p> <p>가. 西獨 (歡迎)</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을 包含한 聯合勢力의 形成에 贊成 ○ 東·西의 勢力均 衡을 위해 美軍의 西獨駐屯은 不可欠 <p>나. 英國 (慎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表面上慎重, 裏面 反對 <p>다. 프랑스 (反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의 參與는 유럽의 退色을 象徵 ○ 軍事, 財政, 貿易 問題들의 統合反對 ○ 日本을 包含하는 強國들의 새로운 불 력形成에 우려포명 	<p>1. 유럽에 대한 主導權 承認問題 로 現在 探索 段階</p> <p>2. 蘇 聯 挑戰으로 看 做, 反對</p> <p>3. 유럽 主要國이 反對하나 유럽의 安保에 美軍의 存在가 緊要함으 로 實現 可能性 의 漸增</p>

懸案問題	沿革 및 動機	現況 , 主張點	展 望
東 西 獨 關 係	<p>1. 沿革</p> <p>가. 1972.12.24 東·西獨 基本關係條約의 締結</p> <p>나. 主要內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相互武力 不行使 ○ 國境불가침 ○ 內政不干涉 ○ 經濟, 科學, 交通, 文化, 體育分野 協力 ○ 유엔 同時加入 <p>2. 動機</p> <p>가. 分斷克服困難</p> <p>나. 緊張緩和 趨勢와 現狀 固定化 傾向</p> <p>다. 人的 交流를 통한 統一接近</p>	<p>1. 現況</p> <p>가. 東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西伯林的 政治的 自由에 대하여 抗議 ○ 東伯林障壁強化 <p>나. 西獨: 東獨의 處事에 反對</p> <p>다. 相互訪問</p> <p>西獨人 - 東獨訪問 220 萬</p> <p>東獨人 - 西獨訪問 30 萬 (1973.1-4 月末)</p> <p>2. 主張點</p> <p>西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民族 2 國家로 統一達成 ○ 東獨을 國際法上으로 承認할 수 없다. ○ 東獨은 外國이 아니다. <p>東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民族 2 國家로 西獨은 外國 ○ 東獨은 國際法上으로 完全承認토록 要求 ○ 統一不願 	<p>1. 5 月中旬 西獨議會에서 東西獨 基本關係 正常化 條約 批准予想</p> <p>2. 人的, 經濟的 諸般交流 增大</p> <p>3. 유엔에 加入하면 國際法的으로 主權國家 統一이 요원</p>

〈分析 및 評價〉

1. 美·蘇兩國은 MIRV의 質的인 開發을 위한 切열한 競争을 展開하고 있음.
이 問題는 美·蘇政府間의 政治的인 妥協에 의해서만이 妥結이 可能하다고 判斷
2. C·S·C·E 및 MBFR 予備會談은 平和共存政策의 推進, 強大國에 의한 勢力均衡, 軍事負擔의 輕減等 理解의 共通點이 再開되고 있어 予定된 時日에 本會談이 開催될 것으로 判斷되나 東西間 相互立場 對立으로 難關이 予想
3. 美國의 大西洋憲章의 提唱은 유럽과 日本의 美國으로 부터 離脫防止, 西方側의 經濟協力의 強化 및 共產圈에 대한 聯合勢力의 形成, 東·西兩陣營의 既得權에 대한 相互不可侵
4. 今年 東·西獨 유엔 同時加入이 實現되는 경우 國際法的으로 東獨을 承認하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는 分斷國의 두 國家를 承認하는 慣例가 될 것으로 評價

3) 國際會議 및 周邊情勢

種別	現 況	主 張 點	展 望
유엔	<p>1. 分断国 同時招請 및 同時加入論議</p> <p>2. 北韓, 外交攻勢의 積極化</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承認國의 急增 * * 今年中에 17 個國 北韓承認 ○ 韓國承認: 87 ○ 北韓承認: 53 (双方承認國: 17) <p>3. 對유엔 戰略의 포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 IPU에 加入 成功 (112 次 IPU 總會에서) 贊成: 57 反對: 28 棄權: 20 ○ WHO 加入申請 (73.3.7) 	<p>1. 韓國의 對유엔 戰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 1 年間延長 戰略樹立 ○ UN - <p>2. 北韓의 對유엔戰略 武力挑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平和協定 締結의 根柢獲得 → 平和協定 提議 → 南北 對話 정체 → 南北 대립상 부각 → 이를 對外宣傳에 利用 → IPU WHO에 加入成就 → 유엔에서 韓國問題 討議 上程 	<p>1. 西獨 - 東獨의 加入申請의 後光을 받아 加入可 能性 濃厚</p> <p>2. 유엔 - 東 · 西獨 유엔加入 北韓의 外交攻勢 強化로 1 年延 長案 72 年 贊成: 70 反對: 35 棄權: 21 戰略에 蹉跌憂慮</p>

種別	現 況	主 張 點	展 望
아 스 락	<p>1. 會員國의 아스락에 대한 態度</p> <p>가. 日本 : 아스락의 解體와 뉴아스락의 創設을 主張</p> <p>나. 말레이저어 : 아스락에 脫退宣言(3.12)</p> <p>다. 濠洲 : 아스락第1次 常任委에 不參</p> <p>라. 뉴질랜드 : 아스락의 격하시도</p> <p>2. 會員國의 對北韓接近</p> <p>가. 말레이저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탁구, 축구팀 招請 ○ 北韓承認의 움직임 <p>나. 濠洲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과의 外交 接觸開始 ○ 北韓通商 代表團 濠洲訪問視 	<p>1. 韓國 :</p> <p>가. 아스락進路에 伸縮性</p> <p>나. 아스락의 存続 與否 타진</p> <p>다. 아스락 開催의 延期</p> <p>2. 會員國</p> <p>가. 台灣과의 同席拒否</p> <p>나. 中共과 越盟을 包含한 새 協力機構摸索</p> <p>다. ASEAN의 地域的 擴大摸索</p>	<p>새로운 地域協力 機構의 創設을 希求하다 아직 具體的인 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意見打診 段階에 있음.</p>

種別	現 況	主 張 點	展 望
A S E A N	1. 沿革：1967.8.8 発足 2. 1971.11：中立化宣言 3. 第6次 ASEAN 外相會議 開催 가. 日時：73.4.16-18 나. 場所：泰國의 리피야.	ASEAN 會員國의 動向 가. ASEAN 의 地域的 擴大 (5 個國 包含) 나. 東南亞의 中立化 構想 다. 中共과 越盟과의 國交正常化	○ 意見의 差異로 具體的인 形態를 提示하지 못하고 있음. ○ 地理的 關係理念의 差異 理解關係 등으로 보아 實現性 稀薄
P A S A	1. 沿革：1969.6.9 世界 共產黨大會에서 브레즈네프가 主張 2. 蘇聯이 對外宣傳에 利用 (아시아情勢의 變動에 따라) 가. 美·中, 日·中의 關係改善 나. 越南의 休戰成立 3. 美國과 日本等 아시아 諸國들의 冷淡한 反應	1. 蘇聯의 아시아 安保 體制構想 가. 武力行使 拒否 나. 內政不干涉 다. 平等과 호혜 2. 蘇聯의 저의 가. 中共의 포위 나. 美國의 亞細亞에서 影響力 排除 다. 積極的인 아시아 進出 3. 中共：對中共 포위 戰略으로 看做, 積極的인 反對	1. 아시아의 秩序 未定立으로 各國의 消極的인 態度 2. 中共의 挑戰에 逢着, 現實化될 可能性 稀薄

〈分析 및 評價〉

1. 南越의 利益을 追求, 分断國 2 國政府承認의 現實主義的 傾向으로 對共産圈 接觸, 分断國 同時承認 擴大
2. 아스팍을 代身하려는 새로운 地域協力 體制의 形成이 胎動段階에 있는 機會를 포착 ASEAN을 唯一한 아시아地域 協力體制로 育成 發展시켜 主導權을 掌握하려하나 實現性 稀薄
3. 蘇聯의 아시아安保體制 構想은 美·日側이 構想하는 協力機構와 意圖의 상충으로 弱小國家들의 自主的 選擇이 犧牲될 可能性

4) 4 大國의 對韓關係

	基本關係	立 場	現 況 및 變 化	展 望
美 國 의 對 韓 關 係	相互 防衛 同盟 ○ 經濟協力 ○ 友好親善	美 國 ○ 南北對話支援 ○ 駐韓美軍基地維持 ○ 對韓軍事, 經濟援助 總統 韓 國 ○ 唯一合法政府認定 ○ 美國의 對北韓 接近 牽制 ○ 軍現代化 計劃 支援 ○ 유엔에서의 韓國 支持	1. 軍援의 漸進的 削減 2. 駐韓美軍減縮 3. 北韓의 對美接 近信號 4. 北韓의 駐韓美 軍 撤收 主張 반·북	1. 韓國化 政策의 繼續 追求 ○ 國軍現代化 計劃推進 ○ 駐韓美地上軍 의 점진적 減縮 2. 유엔에서의 韓 國立場 支援
日 本 의 對 韓 關 係	○ 主權相互 尊重 ○ 선린 ○ 國際聯合 精神에 따 른 協力	日 本 ○ 韓國의 唯一合法 政府 認定 ○ 韓國의 日本安保 에 對한 緊要性 安定 ○ 韓國에 對韓 經 濟的 進出	1. 점차 南北韓 등거리 外交 展開 2. 日·北韓間 貿 易 및 人的交流 增大 ○ 北韓記者 訪 日招請	1. 對北韓 貿易 및 人的交流 擴大로 南北韓 등거리外 交 繼續 2. 유엔에서의 韓 國立場 繼續支持

	基本關係	立 場	現況 및 變化	展 望
日本의 對韓關係		韓 国 ○ 唯一合法性 主張 ○ 日本의 對北韓 接近 牽制 ○ 日本資本, 技術 導入 ○ 國際적으로 韓國 의 立場支持	3. WHO 總會에서 北韓加入1年延長 案 提案國	
中共의 對韓關係	○ 北韓과의 防衛同盟 ○ 北韓과 經濟協力	中 共 ○ 北韓의 平和統一 8個項 支持 ○ 韓半島 現狀維持 韓 国 ○ 交易 및 關係 改善用意 ○ 北韓孤立化	1. 南北韓間 平和 條約締結主張 2. 언키크 解体 要求 3. 駐韓美軍撤収 主張 4. 韓國大陸棚 抗議開發抗議 5. 周4原則 廢棄 6. 아카페總會 韓 國代表 演說時 退場 7. 韓國大陸棚 開 發協商提議 (中 國 號 呼 稱)	1. 北韓의 繼續 支援 2. 大陸棚問題로 韓國과의 協商 可能性

	基本關係	立 場	現況 및 變化	展 望
蘇 聯 의 對 韓 關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과 相互 防衛 同盟 ○ 北韓과 經濟協定 	<p>蘇 聯</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韓平和統一 8 個項 支持 ○ 韓半島 現狀 維持 <p>韓 國</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交易 및 關係 改善用意 ○ 北韓孤立化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駐韓美軍撤収主張 2. 언커크 解体要求 3. 南·北韓 平和條約 締結同意 4. 蘇聯·中共 韓國의 結託을 非難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카페總會에서 中共記者 不退場 ○ 大陸棚問題로 中共公式名稱 使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北韓繼續 支援 2. 韓國과의 接近可能性은 稀薄

〈 分析 및 評價 〉

1. 韓半島는 美·蘇·中·日 4大強國의 理解關係가 상충하는 地點으로 4 強 勢力關係의 支配的 影響下에 있음.
2. 北韓은 從來의 外交的 孤立에서 脫皮 積極的 對西方 接近試圖 現在 韓國의 對中·蘇關係 摸索과 北韓의 對日·對美關係 展開는 競爭狀態에 突入
3. 4大強國은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바라며 南北對話를 支援

5)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問題点>

- (가) 周边強大國들의 탈·이데올로기·的 實利追求에 따른 外交政策의 現實主義化 傾向
 - 強大國 勢力均衡의 現狀 固定化
 - 分斷國 2個政府承認 邊勢擴大
- (나) 中共의 國際的 影響力 增大로 韓國戰爭을 實質적으로 終熄시키는 問題(平和條約問題)의 提起
- (다) 北韓의 外交的 進出로 今年 유엔總會 同時招請 및 加入問題 登場 可能性

<南北韓 關係에 미치는 影響>

- (1) 周边強大國들의 現狀維持 意圖는 南北間 對話를 促進
- (2) 中共의 對美, 對日關係 發展은
 - 日·北韓接近
 - 北韓의 對美接近 信號
 - 韓國의 對中共 接觸 摸索등을 誘導
- (3) 中共의 韓國에서의 平和條約 問題提起는 北韓側 主張을 有利하게 造成
- (4) 對北韓投資의 增加趨勢는 北韓經濟의 強化로 韓國과의 經濟的 共存 招來
- (5) 今年 유엔總會에서 東·西獨 同時加入이 實現될 경우 國際的 雰圍氣는 北韓의 國際的 立場을 強化, 韓國의 對유엔戰略에 蹉跌 招來

나. 7 月

1) 4 大 国 關 係

国家關係	最 近 動 向	反 応
美 · 蘇 關 係	1. 키신저의 訪蘇 (73.5.4~5.7) ○ 브레즈네프의 訪美를 위한 予備會談 開催 ○ 通商, 科學技術, 宇宙, 海洋協力, 農産物 提供問題 ○ SALT, CSCE, MBFR, 印度支那, 中東情勢 等 討議 2. 蘇聯 - 美國에 對中共 核報復 秘密協定 提議 ○ 1970.9.7 SALT 會議에서 ○ " 존·뉴하우스 " 著 " Cold Dawn : The Story of SALT " (1973.5 月發行) 에서 밝혀짐 . ○ 美國 - 中共, 英國, 프랑스 等 을 刺戟할 憂慮에서 이를 拒絶 3. 브레즈네프의 訪美 (6.18~1 週間) ○ 經濟協力, 對蘇最惠國 待遇問題 및 一聯의 懸案問題에 對한 討議와 妥結	1. 中共 : 美·中의 關係改善을 世界制霸를 위해 美·蘇가 相互 結託하고 競合하고 있다고 非難 2. 蘇聯 : 蘇聯의 對中共報復 提議가 키신저를 통해 中共에 通報되었을 것이라고 당혹
	1. 連絡事務所 設置, 正常業務 開始 ○ 黃鎮 駐美國 連絡事務所長 就任 (73.5.29)	1. 蘇 聯 ○ 美中·日中의 關係改善으로 因한 美·中·

國家關係	最近動向	反應
美 · 中 關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루스 駐中共連絡事務所長 就任 (73.5.14) 2. 大陸棚 共同開發 合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 - 美國의 石油財源 誘致 콘티넨탈·오일, 엑손·모빌, 스텐더사가 中共에 進出 ○ 韓國 西海岸에서 越南에 이르는 沿岸의 大陸棚 共同開發 提携 摸索 3. 美國, 中共과의 關係改善에 繼續 注力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國·中共을 아시아에서의 紛爭의 根源으로 看做, 對中共 關係 改善에 努力 	<ul style="list-style-type: none"> 日間に 反蘇的인 提携의 結成을 警戒 ○ 워터게이트 事件으로 닉슨이 窮地에 물렸음에도 브레즈네프의 訪美를 實現 ○ 美·蘇協力を 定着化 2. 日 本 <ul style="list-style-type: none"> 美國의 對中共 進出은 日本을 刺戟, 對中共 貿易競爭을 惹起
日 · 蘇 關 係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懸案問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講和條約 締結問題 ○ 시베리아 開發問題 2. 日- 講和條約 締結을 위한 環境 改善策으로서 시베리아 開發에 積極 對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튜메니 油田開發 蘇聯 - 10 億弗의 銀行借款 要求 ○ 야쿠트 天然가스 開發 蘇聯 - 3 億弗의 借款要求 ※ 銀行借款의 條件으로 對立 日本 ~ 6.5% 要求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中 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聯이 日本의 對中共 接近에 對한 牽制 策으로서 對日 關係를 改善하고 있는데 반발

国家關係	最近動向	反應
日 · 蘇 關 係	<p style="text-align: center;">蘇聯~6% 要求</p> <p>3. 蘇聯-對日交涉에서 高姿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西獨, 對美經濟關係의 急進展으로 選擇權 保有 ○ 日·蘇經濟合同委員會의 延期 蘇聯側에 의해 日本代表團의 訪蘇가 延期(5.21→6.10으로) 	
蘇 聯 對 西 歐 關 係	<p>1. 獨·蘇頂上會談(5.18~21)</p> <p>가. 3個 基本協定 締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經濟技術 產業協定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西獨, 蘇聯에 經協 約束 · 西獨·시베리아 天然가스 開發 參與 等 ○ 文化協力 協定 ○ 航空協定 <p>나. 共同聲明</p> <p style="padding-left: 2em;">CSCE 支持</p> <p style="padding-left: 2em;">MBFR - 中部유럽 相互 減軍으로 表現</p> <p>2. EC 諸國과 交易 및 經協增大 摸索</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蘇·仏 協助體制 強化 	<p>1. 中 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緊張緩和 不願 ○ 西歐國家들에게 蘇聯의 底意 警告 ○ 美軍의 西歐殘留 希望 ○ 東歐蘇聯 離間 ○ EC를 「蘇聯에 對抗하는 政治防衛上的 同盟」으로 看做, 積極 接觸 試圖

< 評 価 >

1 . 理念보다도 實利追求

2 . 5 強에 의한 勢力均衡을 自國에 有利한 方向으로 改編 試圖

3 . 自國을 除外한 強大國의 協力을 雜間, 自國에의 接近을 摸索

4 . 中・蘇紛爭,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擴大

蘇聯 : 나토 勢力과 關係改善을 通해 유럽의 安定을 企圖 (東・西兩面

作戰의 回避策으로)

中共 : 擴大 EC 에 接近하여 蘇聯에 對抗

2) 韓半島를 圍繞한 國際機構 情勢

韓半島와 WHO, IPU	
<p>1. 北韓 IPU에 加入</p> <p>贊成 : 57</p> <p>反對 : 28</p> <p>棄權 : 20</p> <p>※ 29票差로 可決</p>	<p>1. 分析 (失敗原因)</p> <p>가. 北韓을 國際機構에 加入시켜야 한다는 主張에 呼訴力이 있는데 反해 이를 저지하려는 韓國의 努力이 共感을 얻지 못함.</p> <p>나. 韓國의 延長案에 對해 確固한 提案國조차 確保치 못하여 韓國이 直接 提案한 事實은 韓國의 IPU 外交가 責任性과 劃一性을 欠如 하고 있음.</p> <p>다. 韓國側이 國際大勢에 機動性있는 適應을 하지 못함.</p>
<p>2. 北韓 WHO에 加入</p> <p>贊成 : 66</p> <p>反對 : 41</p> <p>棄權 : 25</p> <p>※ 25票 差異로 可決</p>	<p>1. 分析 (失敗原因)</p> <p>가. 蘇聯의 積極的인 活動 蘇聯 - 秘密投票 方式을 발의, 北韓加入의 原動力으로 作用</p> <p>나. 北韓, 北歐諸國에 의 浸透成功으로 對北韓 關心을 肯定的으로 浮刻</p> <p>다. 東西獨 問題解決로 國際的으로 對 分斷國 等距離 外交의 一般化 傾向</p> <p>라. 東獨의 WHO 加入이 會員國 全員 一致로 可決되어 會場분위기가 北韓에게 有利하게 作用</p>

韓半島와 WHO.IPU			
3. 유엔의 最近動向 (韓國問題와 關聯)			
区分	支持國	確實	予想
韓國	49	42	7
北韓	49	37	12
棄權 欠席	34	15	19
總計	132		
<p>○ 分 析</p> <p>(1) 支持國 總數面에서는 49:49 로 백중지세이나 支持確實國은 42:37 로 韓國이 優勢하고 支持予想國은 7:12 로 韓國이 劣勢에 있음.</p> <p>(2) 棄權 또는 欠席의 予想國家가 無慮 34 個國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棄權 또는 欠席이 確實한 國家는 15 個國이며 予想되는 國家는 19 個國에 이룸.</p> <p>(3) 以上の 유엔會員國의 最近動向을 볼때, 유엔의 不動票를 어느便에 더 많이 包摂하느냐에 따라 南北間에 있어 유엔戰略의 勝敗가 決定될 것임.</p> <p>(4) 그러므로 不動票의 包摂을 위한 積極外交를 展開하는 것이 時急하고 重要한 課題임.</p>			

< 評 価 >

1. 分斷國의 現實政策 追求 (世界潮流)
2. 韓國外交의 事前準備의 未備과 一貫性 欠如
3. 棄權國 包摂에 不徹底

3) 4 大國의 南北韓 關係

國家	對 韓 國 關 係	對 北 韓 關 係
美 國	<p>1. 韓國의 새로운 對 유엔 政策 支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國問題 上程, 不上程에 不問 ○ 事實上 韓國問題 上程을 慫慂하는 態度 	<p>1. 이미 旅行禁止 緩和措置 講究</p> <p>北韓에 對해 1年~6月로</p> <p>2. 北韓의 WHO 加入과 關聯</p> <p>北韓의 유엔 常駐代表部 設置 檢討中</p>
蘇 聯	<p>1. 韓國의 一聯의 信號에 好意的인 反應</p> <p>가. 蘇聯 - 韓國選手代表團 招請 (유니바시아드)</p> <p>나. 演劇人에게 入國 許可</p> <p>※ 1972.7.14 蘇聯에 抑留되 었던 동선호 船長을 早期 釈放</p>	<p>1. 蘇聯 유엔에 北韓 常駐代表部 設置를 推進</p>
中 共	<p>韓國과 大陸棚開發協商 關心 表明</p>	<p>大陸棚 開發協商에 北韓 包含을 示唆</p>
日 本	<p>1. 日政府, 韓國의 立場을 繼續 支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北韓政策을 急轉換하지 않을 方針 (오히라外相) ○ ILO 總會에서 "延長案" 支持 態度 表明 	<p>1. 日・北韓貿易增加 (1/4分期)</p> <p>輸出: 46億萬圓 (13%減少)</p> <p>輸入: 29億萬圓 (33%增加)</p> <p>2. 北韓記者團의 入國許可 (73.5.10 ~ 5.26)</p> <p>北韓 記者團의 入國 不認可</p>

国家	对 韩 国 关 係	对 北 韩 关 係
日本	<p>2. 日本메스콤의 对政府 集中 攻勢</p> <p>WHO 総会에서 日本의 " 1 年 延長案 " 共同提案국이 된 데 对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外交의 失敗 ○ 時代에 逆行하는 処事 ○ 北韓의 유엔加入을 支持 <p>3. 日本内 東北亞 非核地帶 設定論 拾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本의 아사히新聞 論說 委員 " 주노스께 · 기시마 " 의 論文에서 ○ 南北對話 進展에 根拠 <p>※ 各國의 反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共 : 支持 ○ 蘇聯 : 支持 ○ 美国 : 反对 	<p>方針을 是正 北韓 記者團을 招請</p> <p>3. 日本의 自民党, 北韓訪問 提議</p> <p>5.24 訪日中인 北韓記者代 表團 " 정준기 " 에게 北韓訪 問을 要請</p>

評

価

1. 4 大 国 -
 - 韓半島의 戰爭挑発 抑制
 - 南北韓 平和共存
 - 韓半島의 現状固定化 - 두 國 韓國을 認定
2. 中・蘇 -
 - 中・蘇紛爭에서 北韓을 自己便으로 誘引
 - 韓國의 對共產圈政策 轉換에 好意的 反應
 - 韓國의 相對國에 의 接近을 牽制
3. 日 本 -
 - 南北韓 등거리外交를 事實上 希求
 - 日本의 政策轉換 - 東南亞諸國에 미치는 影響
深大

4) 韓國에 미치는 影響

(가) 世界潮流

- 緊張緩和 - 平和共存
- 現狀維持
- 實利追求와 競爭

(나) 分斷國 承認의 世界的 趨勢

- 日本의 東獨 및 越盟承認
- 東·西獨 유엔에 同時加入視 (6月同時 招請)
- 東獨承認 - 北韓承認을 促進

(다) 우리에게 미치는 影響

- 北韓 - 國際社會 進出에의 발판 獲得
(유엔 常駐 옵서버의 資格獲得)
- 北韓 - 今後 韓國과 對等한 位置에서 外交活動 展開 可能
- 韓國 - 唯一合法政府, 北韓 - 侵略者로 規定한 유엔總회의 決議가 退色
- 北韓의 國際的 地位向上, 北韓承認 國家의 繼續增加
- 韓國問題 유엔上程 不可避

(라) 北韓의 對國際機構 戰略 (유엔)

가) 國內的으로

- 武力挑発
- 南北對話를 交錯狀態로 陷入
- 韓國에 責任을 轉嫁, 對外宣傳에 利用

나) 對外的으로

- 對外活動을 強化, 北韓支持勢力의 繼續 確保

- WHO 加入의 余勢를 몰아 ILO, IAEA, ITU 에 加入 成就
- 유엔에 南北同時 招請 實現
- 유엔에 共產 또는 中立國을 通해 議題 要請視
- 언커크 解体
- 駐韓美軍으로부터 유엔旗를 내리게 함
- 駐韓美軍 撤収

(가) 對備策

- 南北對話 繼續 推進
- 南北韓 同時 招請案을 선제 提起
北韓과의 實力對決에 臨한다 .
- 유엔軍의 撤収問題는 韓國休戰의 当事者임을 主張, 南北韓의 基本
問題가 妥結될때까지 存統시킨다 .
- 유엔同時加入 問題는 南北韓의 事前 同意가 先行되어야 함으로
問題되지 않음 .
- 非敵性 共產國과의 交流를 擴大 實利追求, 北韓을 弱地에 陷入
- 두個의 韓國化에 對備 遠大한 統一方案을 摸索